

[독서평]퍼펙트 워크 : 네이버 블로그

🌐 Web Clip



1.변호사 홈페이지 꼭 필요한가요?

법률 문제가 발생한 사람 중 70%가 인터넷에서 해결 방법을 검색하고 믿고 맡길 만한 전문가를 찾습니다. 검색 결과로 나오는 수많은 변호사 중 의뢰인은 누구를 선택할까요?

의뢰인은 검색을 통해 찾은 정보로 이 변호사가 내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을지 꼼꼼하게 따져봅니다. 따라서 변호사님의 전문 분야와 경험, 노하우에 관한 정보를 의뢰인에게 최대한 많이 전달해야 하는데요. 이러한 정보를 인터넷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곳이 변호사 홈페이지입니다.

2.홈페이지는 어떻게 만들까요?

(1)변호사/법무법인 홈페이지

홈페이지 제작 업체에 의뢰하면 변호사 또는 법무법인 전용 홈페이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 변호사님 프로필, 활동 내역 등을 담아 세련된 디자인으로 제작하는데 요.

다만 제작 비용으로 최소 500만 원 이상이 들고 유지 보수가 어려워 새로운 콘텐츠를 올리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때문에 홈페이지의 역할이 '온라인 전단지'처럼 변호사 소개와 연락처를 알리는 정도에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2)포털 사이트 블로그

포털 사이트에 가입만 하면 누구나 블로그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정식 홈페이지와 별도로 포털 사이트의 블로그를 운영하는 변호사님이 많은데요. 본인의 활동이나 전문성을 강조할 수 있는 콘텐츠를 자유롭게 업로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블로그의 구성과 특성상 변호사 프로필을 강조하기 어렵습니다. 방문객이 메뉴를 눌러야 각 메뉴에 속한 콘텐츠가 노출되기 때문인데요. 또한 전체 블로그 수가 상당하므로 의뢰인이 검색을 했을 때 내 블로그가 상위 노출될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3. 로톡 변호사 홈페이지를 써야 하는 이유



이재희 변호사
 ★★★★★ 5.0 후기 1347개
 법무법인 명재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40 (서초동, 서초동 동일하이빌)
 305-306호 법무법인 명재

대한변협 인증 -형사법전문-
 대한변협 인증 -헌법재판전문-
 세무사 자격
 노무사 자격
 변호사 자격
 행정사 자격

더보기 ▾

분야 성범죄, 의료, 재산범죄, 군형법, 행정, 헌법, 기업일반
 경력 "의료배상공제조합" 상임법제이사
 자격 2014년 변호사자격 취득
 학력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 석사 졸업
 가격 가격정보 4개 있음

변호사정보 자세히 보기 →

**이재희 변호사의
법률 활동을 확인하세요.**

상담사례 459 >

<p>누나가 출산을 했는데 아 이가 뇌손상을 입었습니 다. 답변 1. 통신티비보호법에 따 라 처벌하는 불법 녹음은 "타...</p> <p>6일 전 작성 됨</p>	<p>현실적인 조언 부탁드려 요. 답변 1. 형사사건과 민사사건 의 차이 형사 사건은 특별히 ...</p> <p>9일 전 작성 됨</p>	<p>자동차명 답변 단순 행이 형사? 4일 전 작</p>
--	--	---

법률사례 전체보기 →

**상담을 진행한 1391건의
의뢰인 후기를 확인하세요.**

의뢰인 총 만족도
★★★★★
세부평점
시간약속 ★★★★★

(1)로톡 회원가입만 하면 무료로 제공
회원가입만 하면 이용료 없이 무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2)변호사 소개에 최적화된 구성
로톡 변호사 홈페이지는 변호사님의 이력과 활동 내역을 풍성하게 담을 수 있는
프로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다양한 콘텐츠를 한 곳에

변호사님의 전문 분야를 풀어낸 법률가이드, 승소 사건을 담은 해결사례 등 다양한 콘텐츠를 의뢰인에게 효과적으로 보여줍니다.

(4)언제든지 쉽게 추가,수정 가능

언제든지 변호사님의 프로필 정보와 콘텐츠를 추가하거나 수정할 수 있습니다.

(5)유명 포털사이트 상위 노출

변호사님의 프로필은 물론, 변호사님이 작성한 콘텐츠도 포털사이트에 상위 노출됩니다.

(6)쉽고 편리한 상담 예약 관리

홈페이지에서 의뢰인 연락처만 받고 계신가요? 원하는 상담료와 상담 가능한 시간만 설정해주세요. 결제부터 예약 알림까지 로톡이 알아서 진행해드립니다.

로톡은 매월 80만 명이 이용하며 강력한 소비자 인지도를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국내 1위 법률 플랫폼입니다. 지금 바로 로톡 변호사 홈페이지로 더 많은 의뢰인을 만나세요.

[연재]구어체vs문어체, 경어체 vs 평어체 (글쓰기 말투와 문체로 채널 브랜딩하기) : 네이버 블로그

 Web Clip

[인-잇] 술술 읽히는 글쓰기? 입부터 먼저 열어라

의류, 통신, 호텔, 우주여행 등 400여 개의 기업을 운영하며 오늘날 가장 유명한 기업가 중 한 명인 리처드 브랜슨.

어느 날 그에게 기자가 물었다.

가장 소중한 물건 중에, 항상 지니고 다니는 것이 있나요? 브랜슨이 대답했다.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제게 가장 중요한 것은 뒷주머니의 늘 넣고 다니는 작은 노트입니다. 여행을 가도 반드시 가지고 다니죠.

이 노트가 없었다면 버진 그룹을 지금처럼 키우지 못했을 겁니다.

그리스의 선박왕, 오나시스에게 기자가 물었다.

인생의 중요한 한 가지 교훈이 있다면 말해주세요.

오나시스가 대답했다.

백만달러짜리 교훈을 알려 줄게요.

항상 노트를 갖고 다니면서 모든 것을 기록하세요.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기록하세요.

기록은 행동을 부릅니다. 기록하지 않으면 잊어버려요.

잊어버리면 행동을 할 수 없죠.

행동은 비즈니스의 핵심입니다.

이것은 경영대학원에서도 가르치지 않는 백만 달러짜리 교훈입니다.

구글X의 신규사업 개발 총책임자, 모가뎃은 행복을 위한 첫걸음으로 기록을 강조한다.

크나큰 부를 이루었지만 행복하지 않았을 때, 나는 공학자답게 행복감을 느끼는 시간을 빠짐없이 무작정 기록하는 것부터 시작했다.

그리고 나서, **그 기록에 행복 목록(Happy List)라는 이름을 붙였다.**

놀라운 점은 무엇인가?

행복 목록을 만들어가는 과정 자체에서 행복을 느꼈다.

나는 일주일에 한 번씩 목록을 재정리하며 새로운 것을 덧붙였다.

그러면서 감사하는 마음을 함양하게 되고 행복해졌다.

이는 텍사스대학교 경영대의 인기 교수인 '라스'의 연구결과와 일맥상통한다.

그는 행복을 위한 첫걸음으로 긍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생각을 최소 2주 동안 적어 보라고 한다.

지난 5년간, 1,500명이 넘는 사람들과 이 과정을 진행했는데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이 있었다.

기록을 하기 전, 학생들이 예상한 자신이 지닌 부정적인 생각의 정도는 평균 25~40% 정도였다.

그런데, 학기가 끝날 때 즈음 실제 기록되었던 매일의 긍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생각 데이터를 봤더니, 실제로는 50~70% 정도가 부정적이었다.

학생들의 예상과 극명히 대비되는 결과였다.

동기부여 및 자기계발 저자인 엘할로드를 기적을 만들기 위한 6가지 핵심 습관을 말하며 기록에 대해 이렇게 설명한다.

제가 일기 쓰는 것에 대해 유일하게 후회하는 점은 너무 늦게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기록을 하지 않으면 정확히 나를 파악하지 못합니다.

기록을 하면, 1달 전, 1주 전의 나와 정확한 비교가 가능하고, 한마디로 기록은 막대한 차이가 아닌 정확한 차이로 인지하게 하는 것이죠.

기록의 중요성을 강조한 연구와 실제 데이터들은 신영준 박사가 지난 3년간 진행해 온 멘토링 프로젝트의 결과와도 일치한다.

멘토링 프로젝트의 핵심은 간단했다.

매일같이 자신의 하루 일과를 시간 단위로 3개월 정도 적어보는 것.

언뜻 보면 간단해 보이지요?

하지만 과정과 결과는 생각만큼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나타난 현상은 3가지입니다.

기록을 하기 전에는 시간이 부족한 것으로 인지했지만, 실제로 집중하여 업무나 공부하는 시간은 적었습니다.

예를 들어 자신이 하루에 5시간 정도 공부한다고 여겼지만, 막상 3시간도 안 되는 경우가 태반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24시간 일과 기록을 꾸준히 해내지 못했습니다.

기법이 너무 단순하고, 심지어 유치하게 여겨진 까닭입니다.

이걸로 정말 내 삶이 변하겠어? 회의감이 드는 것이죠.

한 달 이상 꾸준히 적은 사람은 50%도 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꾸준히 3달 이상 적은 사람들에게서는 많은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일단 기록을 꾸준히 하게 되면서 습관이 되자 적는 것을 의식하고 하루를 행동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예전에는 시간이나 배우자는 마음으로 비생산적인 일을 거리낌 없이 했지만, 일일 기록을 한다는 생각에 예전보다는 훨씬 의식적으로 더 생산적이고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하려고 했습니다.

꾸준히 기록을 한 많은 분들은 회사를 다니면서 추가적으로 자기계발을 하여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학교를 다니는 학생 분들은 학습량이 과거에 비해 월등히 늘어났습니다.

그것은 자연스레 이해도 향상과 성적향상으로 이어졌습니다.

변화의 시작은 나를 정확히 아는 것입니다.

기록은 내가 어디쯤 왔나? 현재 나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게 합니다.

즉 정확한 메타인지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기록은 정확한 메타인지를 가능하게 합니다.

기록은, 리처드 브랜든에게 가장 소중한 물건이었고, 오나시스에게 백만불짜리 교훈이었으며, 모가뎃과 라스에게는 행복의 출발점이었고 신영준 박사에게 **변화의 시작, 메타인지의 출발점이었다.**

잊지 말라. 변화의 시작은 기록이다.

변화하고 싶다면 반드시 적어야 한다.

책 <완벽한 공부법>을 참고하였습니다.

2020년 중소기업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지원사업 안내 : 네이버 블로그

 Web Clip

연재 프로젝트

[연재]구어체vs문어체, 경어체 vs
평어체 (글쓰기 말투와 문체로 채널
브랜딩하기)



플람

2020. 10. 11. 13:19

 이웃가

플람의 공부방 <글쓰기로 레벨업> 연재 프로젝트는 더 좋은 글쓰기로 퍼스널브랜드의 가치를 더해주기 위해 기획되었다.

오늘은 블로그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께 특히 도움이 될 이야기를 해 보려 한다. 바로 글쓰기의 말투, '문체'다.

블로그를 막 시작해 글을 쓰려는데 첫 문장조차 막막한 사람들이 있다. 심지어는 글을 존댓말(경어체)로 써야 할지, 반말(평어체)로 써야 할지도 고민된다.

또 다른 사람에게 말하듯이 편한 구어체로 글을 쓸 것인지, 딱딱하지만 정돈된 문어체로 글을 쓸 것인지도 고민될 수 있다.

오늘은 그런 분들을 위해 각 문체의 특징과 장점을 정리해보았다. 읽어보고 자신의 글쓰기 목적에 가장 적합한 문체를 선택하시길 바란다.

플람의 공부방 연재프로젝트 글쓰기로 레벨업

글쓰기로 레벨업

문어체와 구어체, 경어체와 평어체, 글쓰기 말투, 문체로 브랜딩하기

감칠맛나고
맛깔나는
돈이 되는 글쓰기 수업

글쓰기 말투, 문체로 브랜딩하기, 글쓰기로 레벨업

플람의 공부방 연재프로젝트

글쓰기로 레벨업

구어체 vs 문어체

경어체 vs 평어체

글쓰기 말투와 문체로 브랜딩하기



구어체와 문어체, 무엇이 좋을까?

구어체 vs 문어체

구어체란, 평상시에 말하듯이 쓰는 말투를 말한다.

문어체란, 일상 대화에는 사용하지 않지만 글에는 사용하는 말투를 말한다.

구어체와 문어체는 존댓말, 반말과는 다른 개념이다. 쉽게 말해 일상 회화에서의 표현방식을 그대로 사용하고 대화하듯 쓰는 게 구어체다. 반면 글

에서만 사용되는 말투가 있다면 문어체다.

경어체(존댓말) vs 평어체(반말)

주택수 미포함 오피스텔 관심

AD



**취득세 증과는 피하면서
안정적인 임대수익까지**

송파 위례신도시 수아주

[더 알아보기](#)

경어체란 쉽게 말해 존댓말, 즉 높임말을 쓰는 문체를 말한다.

평어체란, 쉽게 말해 반말, 즉 존댓말을 쓰지 않고 ~다.로 끝나는 식의 문체를 말한다.

경어체랑 평어체는 존댓말과 반말로 생각하면 이해가 쉽다.

구어체와 문어체 모두 존댓말(경어체), 반말(평어체) 둘 다 가능하다. 즉 구어체와 문어체, 경어체와 평어체로 총 4가지의 조합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이 포스팅은 평어체(반말)&문어체 조합의 문체로 쓰였다.

좀 더 구체적인 예시를 들면 다음과 같다.

존댓말 구어체 : 책 잘 읽는 방법 궁금하시죠? 책도 그냥 읽으면 안 돼요. 따로 방법이 있어요.

→공손하면서도 친근감이 있다. 소통에 가장 최적화된 말투다.

존댓말 문어체 : 책 잘 읽는 방법이 궁금하십니까? 책도 그냥 읽으면 안 됩니다. 따로 방법이 있습니다.

→가장 예의 바르고 공손하다. 그러나 딱딱하고 거리감이 느껴지기도 한다.

반말 구어체 : 책 잘 읽는 방법 궁금하지? 책도 그냥 읽는 게 아니야. 따로 방법이 있어.

→가장 편하다. 독자가 친근감을 느끼기 제일 쉽다. 다소 건방지게 느껴지기도 한다.

반말 문어체 : 책 잘 읽는 방법이 궁금하신가? 책도 그냥 읽는 게 아니다. 따로 방법이 있다.

→적당히 격식 있으면서도 편안하다. 내가 가장 즐겨 쓰는 말투다.

(존댓말=경어체, 반말=평어체다.)



각 말투, 문체 조합별로 느낌이 다르다.

포스팅에 적합한 문체는?

보면 같은 문장임에도 구어체와 문어체를 사용했을 때, 경어체(존댓말)와 평어체(반말)를 사용했을 때 느낌이 다르다. 각각의 문체마다 특징과 장단점이 있다.

말투마다의 장단점을 파악하고 본인의 채널(블로그, 브런치 등 모든 글쓰기 플랫폼)에 가장 적합한 말투를 선택해 사용하면 된다.

개인적으로 추천하는 글의 내용과 말투의 조합은 다음과 같다.

-조언하는 글쓰기 : 반말 구어체, 반말 문어체

-정보 제시 글쓰기 : 반말/존댓말 상관없이 문어체 추천

-일상 포스팅 : 편한 것 아무거나 상관없으나 구어체 추천.

예를 들어, 내 블로그는 대부분의 포스팅이 정보제시&조언하는 내용의 글이기 때문에 반말 문어체를 채택해 사용하고 있다.

반말 문어체는 책을 읽을 때 가장 흔히 접하는 말투다. 익숙하기 때문에 독자들에게 편하고 낯익은 인상을 줄 수 있다. 또 내 블로그는 소통보다는 정보 전달에 조금 치중된 블로그이기 때문에 구어체보다는 문어체가 글쓰기에 편하다.

그러나 만약 블로그 운영자가 소통을 좋아한다면 문어체보다 구어체가 더 좋은 선택일 수 있다. 주위에 많은 블로그 이웃분들이 존댓말 구어체 말투로 포스팅을 하시는데, 굉장히 친절하고 따듯한 인상을 준다.

또, 격식을 차리기보다는 독자가 채널에서 친근감을 느끼길 바란다면 반말 구어체가 가장 좋은 선택이다. 반말 구어체는 동네 형이 말하듯이 친근하다. 독자에게 거칠어도 솔직하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 그러나 다소 건방진 느낌도 들 수 있어 격식 있는 블로그와는 어울리지 않는다.



격식 있는 경어체, 편안한 평어체 뭐가 좋을까?



결론은, 자기 채널에 맞는 걸 쓰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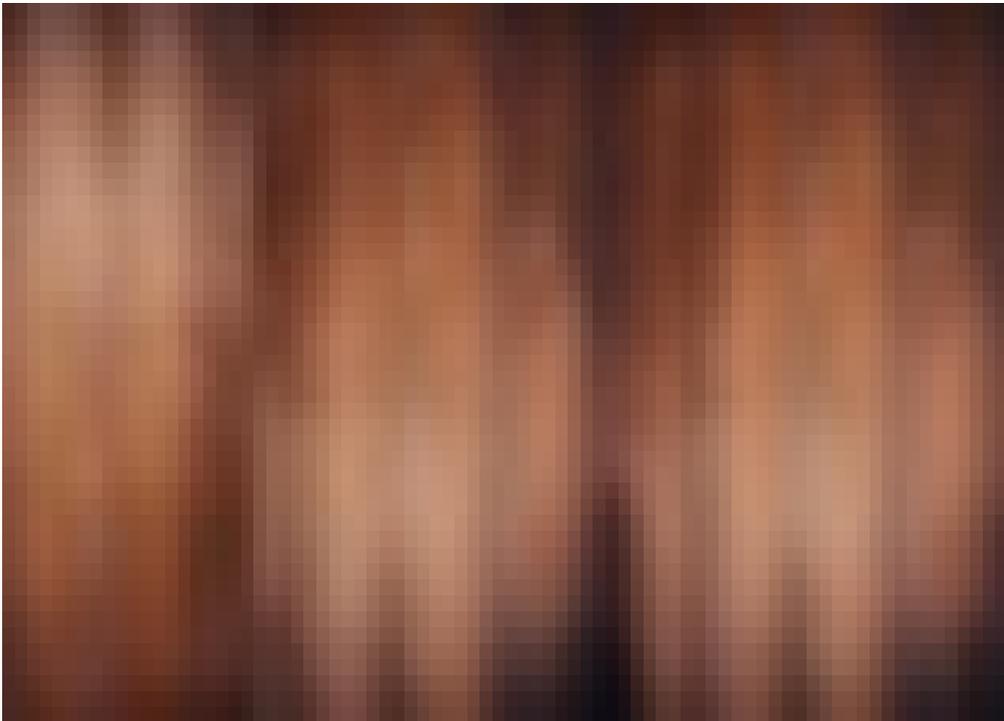


블로그 등 자기 채널의 성격이 어떠한지를 파악한 후, 어울리는 문체를 사용하는 것이 베스트다.

격식 있는 블로그인지, 정확한 정보제공을 원하는지, 편안한 소통을 원하는지 등 채널이 추구하는 가치에 따라 어울리는 분위기가 다르다. 문체는 분위기를 만든다. 그러니 원하는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는 문체를 선택하라.

존댓말, 반말이 중요한 게 아니다. 자기 채널에 어울리는 말투가 중요하다.

문체를 생각하기 전에 먼저 자신의 블로그(채널)의 성격을 생각하자. 스스로가 원하는 방향을 명확히 파악해야 어울리는 문체로 채널 브랜딩을 극대화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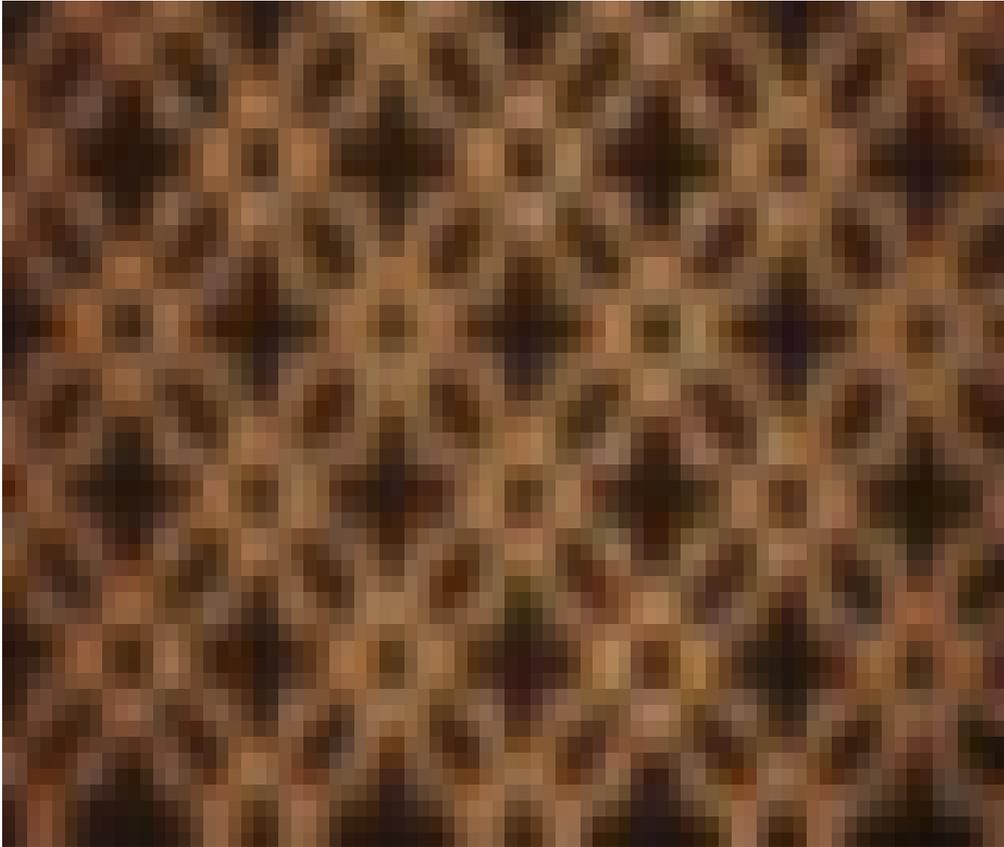
한 채널에서는 한 가지 말투만 사용하라.

한 채널 안에서의 말투를 통일해라

단,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 한 채널에는 한 가지 말투만을 사용하는 게 좋다.

글쓰기는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행위다. 글을 쓰면 자연스럽게 그 내용과 말투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가 드러난다. 그리고 채널의 브랜딩을 위해서는 독자가 글을 통해 나라는 사람의 '매력'을 느낄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한 채널 내에서 나라는 브랜드를 일관적으로 유지해야 한다. 글을 쓸 때마다 말투가 이랬다저랬다 매번 바뀌면 독자가 나라는 사람을 파악할 수가 없다.



타인의 글쓰기 스타일을 벤치마킹하는 것도 공부가 된다.

『 좋아하는 블로거의 말투를 벤치마킹하라. 』

만약 위의 글을 읽고도 자기 블로그, 채널에 어떤 말투로 글을 써야 할지도 무지 감이 잡히지 않는다면? 자기가 좋아하는 블로거의 말투를 따라 해 보는 것도 좋은 연습이 될 수 있다.

어떤 블로그 글을 읽었는데 글이 참 술술 읽히고 편안하다면 비슷한 문체로 글을 써 보는 것이다. 또는 좋아하는 블로거의 말투가 정말 매력적이라고 느낀다면 그 분위기를 참고해도 좋다. 책이나 에세이를 참고하는 방법도 있다.

그렇게 처음에는 타인의 사례를 참고해서 쓰다 보면 경험이 쌓이면서 자신만의 말투를 찾아가게 된다. 글을 꾸준히 쓰다 보면 어떤 말투가 글쓰기가 편하고, 또 독자와 소통하기 좋은지 자연스럽게 알게 된다.



글쓰기 스타일, 문체란 nada움을 드러내는 방식이다.

문체란 nada움을 드러내는 방식이다.

문체를 통한 채널 브랜딩은 자신만의 글쓰기 스타일, 즉 문체를 만들어가고, nada운 정체성과 분위기를 형성해 가는 과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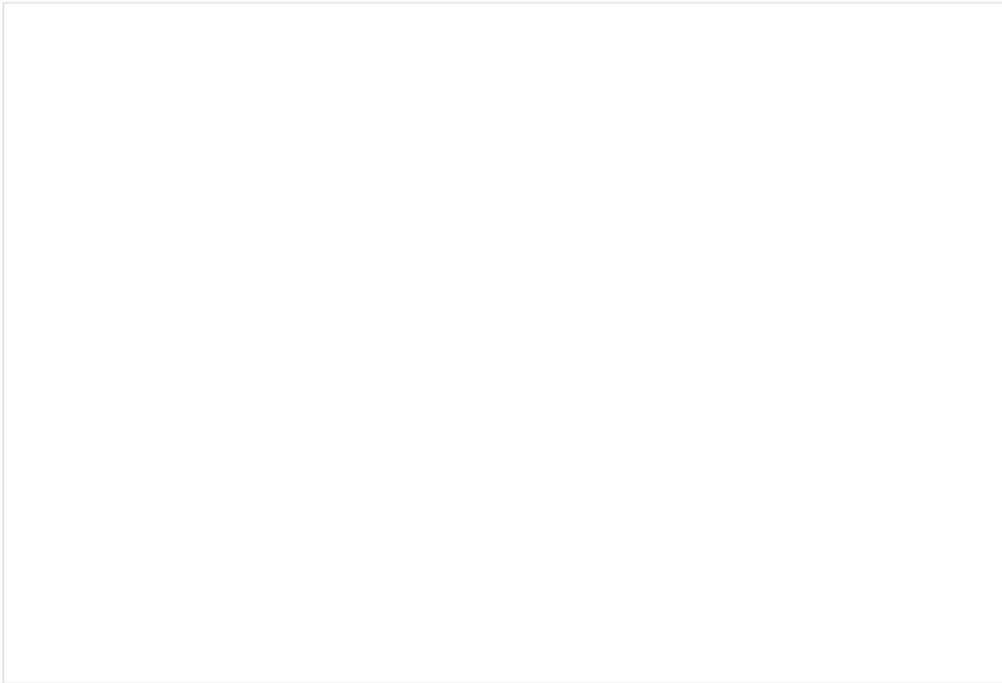
따라서 존댓말, 반말, 구어체, 문어체를 잘 선택하되, 자신이 가장 글을 잘 쓸 수 있는 스타일로 글을 쓰는 게 가장 좋다. 그래야 글에 '나'의 정체성이 드러나기 때문이다.

또 글을 처음 쓸 때야 말투를 고민하겠지만, 꾸준히 글을 쓰다 보면 자연스럽게 나에게 맞는 말투와 문체를 찾게 된다. 그러니 당장 잘 모르겠다고 해서 너무 걱정할 필요 없다.

나다운 말투, 나다운 스타일로 독자가 '나'에게 매력을 느끼게 하는 글쓰기를 하시길 바란다.

당신의 글쓰기를 응원한다.

-FLAMME



감사는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요? - 헬프미 블로그 | 나에게 꼭 필요한 법률상식

🌐 Web Clip

매일경제

병원경영지원회사

병·의원들의 지분투자자로 설립되는 주식회사형태로서 의료행위와 관계없는 병원경영 전반(구매, 인력관리, 진료비 청구, 마케팅, 홍보 등)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를 지칭한다. 대부분 단순 프랜차이즈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국내와 달리 미국 등에선 MSO가 외부 자본을 유치해 병·의원에 병원시설 임대, 경영 위탁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아 투자자에게 배분한다. 대표적인 MSO 모델로는 미국의 HMO(Health Maintenance Organization: 건강관리의료단체)를 들 수 있는데, HMO는 의료기관의 다양화와 전문화에 따른 관리의료(Managed Care)의 필요성에 따라 가격협상, 정보화 구축, 경영효율화를 목적으로 의료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을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동의어

MSO

출처

매일경제

저자/제공처 매경닷컴 매경닷컴 http://www.mk.co.kr

본 콘텐츠의 저작권은 저자 또는 제공처에 있으며, 이를 무단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법 등에 따라 법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외부 저작권자가 제공한 콘텐츠는 네이버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유익해요

13

더 알고 싶어요

3

답아갈게요

1

수정해주세요

0

공유

인쇄

감사의 역할과 기능 - 의사신문

Web Clip



[인-잇] 술술 읽히는 글쓰기? 입부터 먼저 열어라

입력 2020.06.26. 오전 11:00 수정 2020.07.26. 오후 4:13

81

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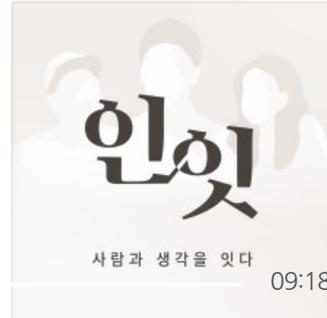
강원국 | 전 대통령 연설비서관. 책 <나는 말하듯이 쓴다> 저자.

audioclip

나는 말하듯이, 말해보고, 말한대로...

인-잇 : 사람과 생각을 잇다 | SBS

00:00



<'말'에서 찾은 좋은 '글'의 조건 : 나는 말하듯이, 말해보고, 말한 대로 쓴다>

"말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글을 잘 쓰고 싶은데, 무엇부터 하면 좋을까요?"

사람들을 만나면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다. 회장님, 대통령이 아니더라도 말하고 써야 할 때가 온다. 아니 쓸 수밖에 없다. 집에서, 학교에서, 회사에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말 잘하고 글 잘 쓰는 법'이 필요하다.

말을 못 하는 사람은 없다. 잘하지 못해도 누구나 할 수는 있다. 그래서 제안한다. 말해보고 쓰자. 말하듯이 쓰자. 이렇게 권하는 이유는 말하기가 글쓰기보다 쉽기 때문이다. 우리는 태어나서 말을 먼저 배웠다. 남에게 말하는 게 여의치 않으면 혼잣말도 좋다.

나는 쓰기 전에 먼저 말해본다. 기고할 일이 있으면 차를 운전하면서 옆에 앉은 아내에게 말한다. "내가 어떤 주제로 글을 써야 하는데, 이런 내용으로 쓰려고 해. 한번 들어봐 줘." 그러면 아내가 "내가 운전할

테니 가만히 앉아서 생각하고 말해"라고 받아준다. 하지만 나는 조수석에 앉아 말하면 생각이 잘 나지 않는다. 운전하면서 말해야 불쑥불쑥 잘 튀어나온다.

*** SBS 보이스(Voice)로 들어보세요.**

☞ 아래 주소로 접속하시면 음성으로 기사를 들을 수 있습니다.

[<https://news.sbs.co.kr/n/?id=N1005851197>]



글을 쓰고 싶다면 먼저 말을 해보기를 권한다.

#1 일단 말해야 하는 5가지 이유

나는 말하면서 다섯 가지를 얻는다.

첫째, 생각을 얻는다. 말없이 생각만 할 때나 쓰면서 생각할 때보다 훨씬 생각이 잘 난다. 나는 그때마다 아내에게 메모해달라고 한다. 의외로 쓸 만한 내용을 많이 건진다. 말해보지 않았으면 얻을 수 없는 내용들이다.

둘째, 생각이 정리된다. 오랫동안 말해보라. 어느 순간 머리에 그림이 그려진다. '이렇게 쓰면 되겠구나!' 막연하고 갈피가 잡히지 않던 생각에 흐름이 잡히고 골자가 세워진다. 나는 이를 '줄거리(군더더기 없는 뼈대를 뜻하는 순우리말)가 타진다'라고 표현한다. 마치 엄마가 아이에게 잔소리를 잔뜩 늘어놓은 후 "엄마가 하는 말 알아듣겠어? 세 가지야. 첫째는 뭐, 둘째는 뭐, 셋째는 뭐" 하고 다시 강조하는 것과 같다. 이때 엄마가 처음부터 세 가지를 염두에 두고 말을 시작한 것은 아니다. 말하면서 정리된 것이다. 이 얘기 저 얘기 좌충우돌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논리적 흐름을 찾는 게 아닐까 싶다.

셋째, 반응을 알 수 있다. 내 말이 재미있는지, 알아들을 만한지 확인할 수 있다. 아내가 없으면 혼자 산책하면서 말해본다. 누군가 내 앞에 있다고 생각하고 중얼거려본다.

넷째, 글 쓸 때의 호흡과 운율을 준비할 수 있다. 글을 낭독해보면 어떻게 계속하고 멈출지, 어디가 어색하고 막히는지 알게 된다. 같은 이유로 말해보고 쓰면 리듬을 살릴 수 있다.

다섯째, 말은 희한하게도 하면 할수록 양이 늘어난다. 어른들은 말이 많다. 말을 많이 해봐서 그런 것이다.

#2 나는 책을 '쓰지' 않았다.

나는 《대통령의 글쓰기》라는 책을 쓰지 않았다. 5년간 말했을 뿐이다. 청와대를 나오자마자 하마터면 쓸 뻔했다. '한겨레'에 청와대에서의 생활을 인터뷰한 기사가 실렸는데, 출판사 여러 곳에서 연락이 왔다. 인터뷰 내용으로 책을 쓰면 어떻겠느냐는 제안이었다. 얼토당토않았다. '내가 무슨 책?' 당시만 해도 책을 쓴다는 걸 터무니없는 일로 여겼다.

다행히 그 후 5년간 책에 쓸 내용을 숙성시키고 여러 사람에게 검증받는 기회를 얻었다. 만나는 사람마다 내게 물었다. "청와대에서 겪은 재미있는 일화 없냐?", "노무현 대통령은 어떤 분이냐?", "연설문은 어떤 과정을 거쳐 나오냐?", "연설비서관은 뭐 하는 사람이냐?" 등등. 수많은 질문에 답하면서 나도 모르게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걸 알게 되었다. 내 답변도 점점 나아졌다. 말이 진화하고 있음을 깨달았다. 반응이 나쁜 말은 다음에 하지 않거나 다르게 말하고, 반응이 좋은 말은 기억해뒀다가 다시 써먹다 보니, 자연스럽게 그리되었다. 그렇게 추려진 말들이 《대통령의 글쓰기》라는 책이 되었다. 그때까지 말해왔던 것이니 못 쓸 리가 없었다.

책을 쓰고 싶은 사람에게 먼저 말해보라고 권한다. 특정 주제로 열 시간 이상 말할 수 있으면 당장 책을 써도 된다. 예를 들어 자서전을 쓰고 싶으면 자신에 관해 말해보라. 열 시간 이상 말할 수 있으면 이미 책 한 권을 쓴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구술을 시작하면서 종종 이렇게 말했다. "받아 적지 말게. 지금은 받아 적어봤자 소용없네. 그냥 잘 듣게." 그러다 어느 순간 "지금부터"라는 말과 함께 받아 적기 시작하면 말이 아니라 글이었다. 그전까지는 말이 아니라 생각이었다. 그분은 말로 생각하고, 말로 글을 썼다.



나는 <대통령의 글쓰기>라는 책을 쓰지 않았다. 5년간 말했을 뿐이다.

#3 짹짹 나오는 말, 술술 읽히는 글

말한 것을 글로 바꾸면 그냥 쓴 글보다 술술 읽힌다. 이유는 세 가지다.

첫째, 구어체라서 쉽게 읽힌다. 독자는 눈으로 읽는 것 같지만, 머릿속에서 소리 내 읽고 듣는다. 누구나 읽는 것보다는 듣는 게 더 잘 쏙쏙 들어온다. 어려운 내용도 말로 설명해 주면 이해가 빠르다. 직장에서 보고서 내용이 잘 이해 안 된다는 상사에게 말로 설명하면 바로 알아듣고 이렇게 묻는다. "아, 그런 내용이에요? 그럼 그렇게 쓰지, 왜 이렇게 썼어요?"

둘째, 독자의 반응을 미리 알고 쓴 글이므로 쉽게 읽힌다. 보통은 글이

내 손을 떠난 뒤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다음 독자의 반응을 접하게 된다. 그때는 이미 늦었다. 독자의 지적과 짜증을 듣는 수밖에 없다. 그런데 말을 해보면 이런 반응을 먼저 알 수 있고, 그걸 반영해서 쓸 수 있다.

셋째, 말은 꾸미거나 욕심을 부릴 여지가 없어서 쉽다. 말은 핵심으로 곧장 들어간다. 물에 빠진 사람은 "사람 살려"라고, 도둑을 본 사람은 "도둑이야"라고 외친다. 군더더기가 없고 생생하다. 그러나 글은 다르다. 더 아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잘 쓴다는 것을 과시하기 위해 궁리한다. 그래서 글은 말보다 자연스럽지 않고 배배 꼬인다.

출판사에서 편집자로 일할 때 강의를 녹취해서 책을 만든 적이 있다. 유명 저자에게 책을 써달라고 하면 바쁘다며 손사래를 친다. 하지만 두 시간짜리 강의를 다섯 차례만 해달라고 하면 승낙한다. 그 강의 내용을 녹취해서 정리한 다음 저자의 검토를 받아 몇 차례 수정을 거치면 책이 된다. 강의를 어려워하는 저자에게는 인터뷰를 권한다. 몇 회에 걸쳐 인터뷰를 진행해 분량을 채우면 책 한 권이 나온다.

이렇게 말은 책도 만든다. 말해보고 쓰자.

더욱이 글은 말과 달리 고칠 수 있고 즉흥적으로 해야 하는 것도 아니지 않은가. 못 쓸 이유가 없다.

*** 편집자 주 : 강원국 작가의 '말 잘하고 글 잘 쓰는 법' 시리즈는 누구나 어떤 상황에서든 바로 써먹을 수 있는 말하기, 글쓰기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격주 금요일 '인-잇'에서 만나보세요.**



인-잇 #인잇 #강원국 #말잘하고글잘쓰는법

강원국의 '말 잘하고 글 잘 쓰는법', 계속 이어집니다.

① [인-잇] 술술 읽히는 글쓰기? 입부터 먼저 열어라

[<http://bitly.kr/IG1jmdWgkwt>]

② [인-잇] 나는 '관종'으로 살기로 결심했다

[<http://bitly.kr/VlxKrzGkWs6>]

③ [인-잇] 위기를 기적으로 바꾸는 말.한.마.디

[<http://bitly.kr/O1nMCZZIWjm>]

[<http://bitly.kr/O1nMCZZIWjm>]

▶ 더 깊은 인물 이야기 '그, 사람'

▶ SBS 뉴스, 네이버에서 편하게 받아보세요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생활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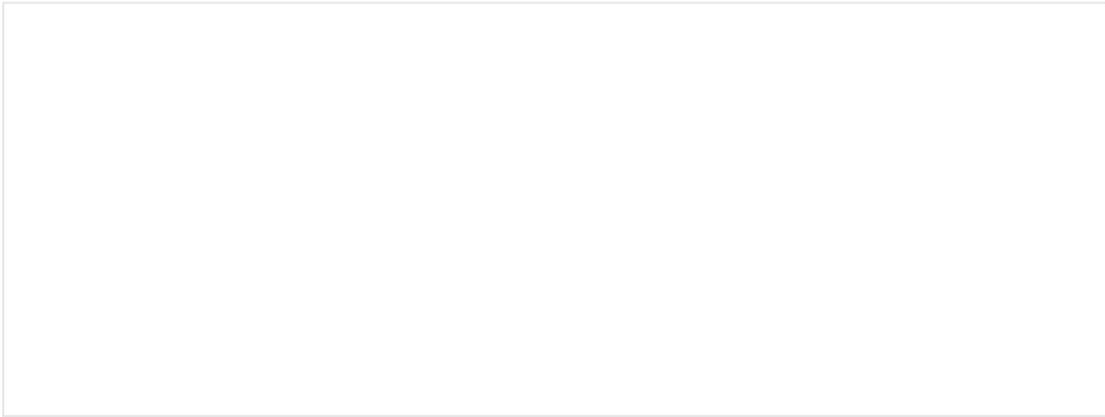
메인에서 바로 보는 언론사 편집뉴스 지금 바로 구독해보세요!

[구독](#)

 **SBS** 주요뉴스

해당 언론사에서 선정하며 언론사 페이지(아웃링크)로 이동해 볼 수 있습니다.

월북 추정 탈북민, 성폭행 혐의...헤엄쳐 北 넘어간 듯
'박원순 피해자에 위로' 공식입장 아니라는 靑의 침묵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말의 비결'
벌써 이렇게? 폭풍 성장한 '송일국 아들' 대한·민국·만세
'인종차별 우려 논란' 화사 의상, 어떤 옷이길래?



좋아요 66 혼썬해요 1 슬퍼요 0 화나요 12 후속기사 원해요 2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34

연재 **인-잇** 구독 2,132명

TV 속 귀여운 동물들, 울고 있을지도 모른다 06.27.

술술 읽히는 글쓰기? 입부터 먼저 열어라 06.26.

세금, 세금, 그놈의 세금 06.25.

SBS 언론사홈 바로가기

감사의역할

🌐 Web Clip

글쓰기 공부

블로그 글쓰기, 구어체 문어체 공식을 적극 활용해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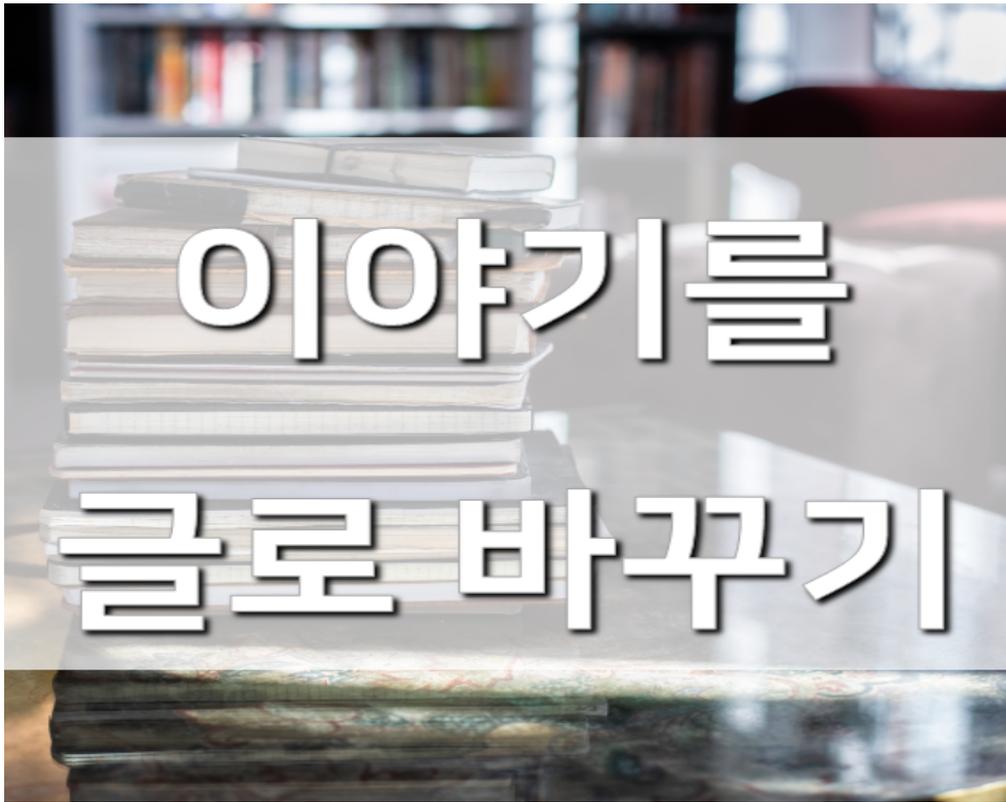
조심

조심

2020. 11. 7. 15:14

이웃추가

블로그 글쓰기, 구어체 문어체 공식을 적극 활용해보자



글쓰기를 하기 어려운 이유

블로그 글쓰기를 하다보면 어디부터 글을 써야 할지 모르겠는 경우가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글을 적어봅니다. 퇴고를 해도 영 어색하지만 어쩔 수 없이 그냥 발행하기 버튼을 눌러봅니다. 그렇게 디지털 공간에 어색한 글이 또 하나 추가되었습니다.

내 머리 속에 하고 싶은 말이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왜 그 말은 쉽게 손가락을 통해 디지털 화면에 적히지 않을까요? 카카오톡으로는 다른 사

람들과 대화를 잘 하는데, 왜 블로그 창에 글을 쓰려고만 하면 이렇게 어려울까요?

카카오톡 글쓰기는 대화에 가깝습니다. 말을 서로 주고 받기 때문에 그 안에 논리구조를 만들어낼 필요가 없습니다. 정말 깊이있는 주제의 대화가 오고 가는 것이 아니라면 말이에요.

하지만 블로그 글쓰기는 다릅니다. 내 생각을 하나하나 논리적으로 풀어 나가야 해요. 서론-본론-결론의 과정을 혼자서 이끌고 나가면서 글을 단계별로 쌓아올린 후에 최종적으로 자신의 말을 해야 합니다. 열심히 글을 쓴다고 썼는데, 흐름이 없어보이고 횡설수설한 것 같은 느낌은 그런 이유 때문인 것이죠.

말하기를 쉽게 글쓰기로 바꾸면서 '논리구조의 부족'을 해결해나가는 단계를 알려드리도록 할테니, 오늘 글도 끝까지 읽어주세요 :)

Step 1. 의식의 흐름대로 꺼내놓기 - 구어체로 말하듯이 글 쓰기

일단 말하듯이 글을 쓰세요. 하나의 주제를 잡았다면 그 주제를 바탕으로 떠오르는 생각을 모두 적습니다. 어떤 문체로 써야 할지, 어떤 논리구조로 써야 할지 생각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흘러가는대로 모든 문장을 하나하나 적는 거예요.

마치 카카오톡으로 친구에게 떠오르는 말을 보내는 것처럼 문장마다 내용이 따로 논다고 해도 상관없어요. 내가 말하고 싶은 주제에서 벗어나지만 않는다면 모두 꺼내서 모니터에 편하게 적으시면 됩니다.

떠오르는 관련 명언이 있으면 찾아서 적어두셔도 되고, 책에서 관련된 이야기를 보셨으면 그 내용을 적으셔도 됩니다. 부족하다면 관련된 키워드로 인터넷에서 글을 보고 그 정보를 모아서 기록하셔도 되겠죠.

이때 소제목, 인용구, 단락구성 같은 것은 전혀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카카오톡으로 하는 대화가 쌓인다는 느낌으로 한문장 한문장을 편하게 내 모니터에 풀어놓으시면 됩니다.

더 이상 이 주제에 대해서는 내가 할 말이 없겠다. 싶을 정도까지 글을 적었으면 임시저장을 한 번 눌러주세요. 이 '말 풀어놓기'를 통해 우리는 이제 글을 쓸 준비를 마쳤습니다.

명심하세요. 아직까지 우리가 쓴 텍스트는 글이 아닙니다.



Step 2. 말을 재배열하기 - 논리구조 갖추기

다시 한 번 명심하세요. 우리가 쓴 텍스트는 아직 글이 아닙니다. 글자 또는 문장에 지나지 않죠. 이 글자와 문장을 글로 만들려면 논리구조가 필요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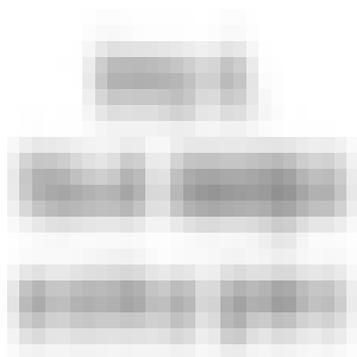
논리구조라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서론-본론1,본론2,본론3-결론 정도의 구조만 갖춰주시면 됩니다. 하얀 화면에서 서론부터 결론까지 한번에 적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지만 우리에게겐 이미 풀어놓은 말 들이

있습니다. 이제 이 말들을 퍼즐 조각을 맞추듯이 재배열하시면 됩니다. 훨씬 쉬워졌죠.

이 단계는 우리가 중등교육 국어시간에 흔히 했던 '다음 중 A의 다음으로 이어질 문장은?'의 문제를 푸는 것에 가깝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문장들을 문맥에 맞게 순서를 바꿔주면 되는 것이에요. (복사-붙여넣기를 블로그에서 하면 안 된다는 유연비어에 속지 마세요.)

이때 인용구를 활용해서 목차를 짜주시면 훨씬 도움이 됩니다. 제 글의 인용구는 대부분 목차의 기능을 하고 있거든요. 그 문단의 핵심적인 내용들을 소주제로 잡아주시고, 그 소주제를 바탕으로 내가 가진 글들을 묶어주세요.

이렇게 문장들에 흐름을 엮어주셨으면 이제 글로 만들 준비가 다 되었습니다.



Step 3. 풀어낸 말을 글로 정리하기 - 문어체를 활용하여 글을 다듬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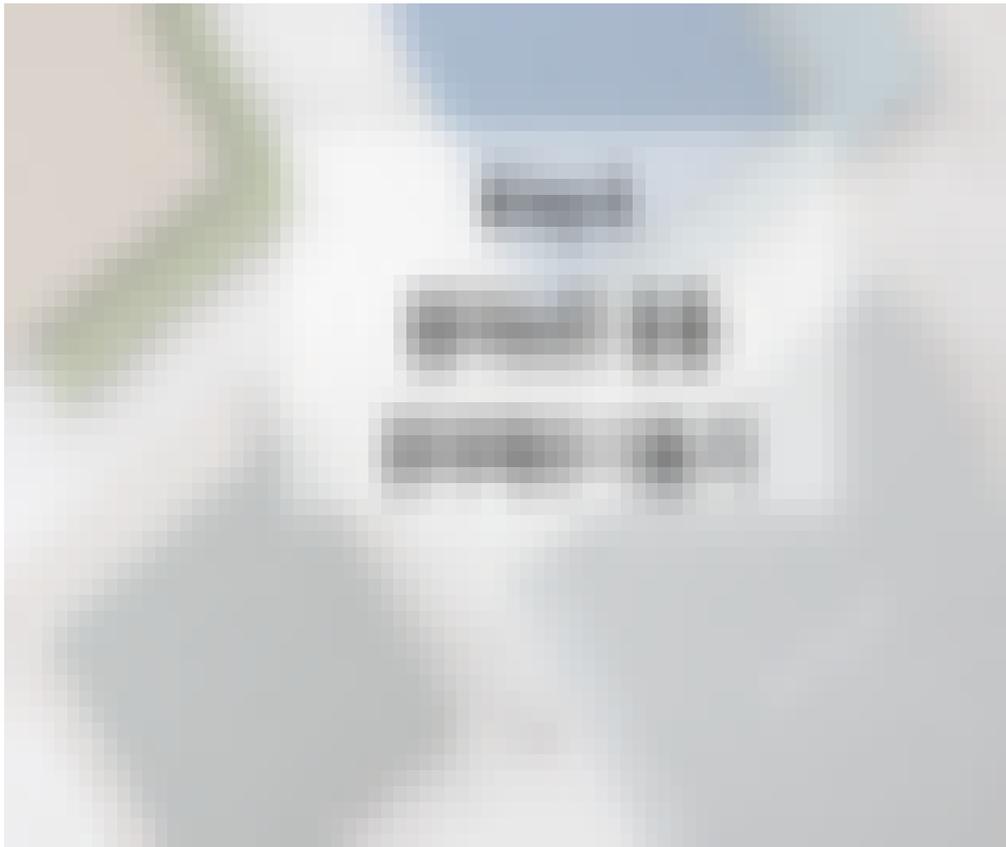
우리 앞에는 이제 '글이 되기 직전의 말'이 놓여있습니다. 이제 이 구어체의 말을 문어체를 활용하여 다듬어주세요.

다듬기를 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첫째, '그래서 그리고 그러니'와 같은 연결어미를 활용해주세요. 연결어미는 글의 흐름을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각각의 주제를 바탕으로 모여있는 문장의 덩어리를 연결어미를 활용하여 하나의 문단, 하나의 소주제로 엮어주시는 것이죠. 글이 최대한 자연스럽게 읽힐 수 있어야 합니다.

둘째, 글의 종결어미를 통일시켜주세요. 저는 주로 '해요, 합니다. 하죠'를 번갈아가며 쓰고 있습니다. 이 종결어미들의 반복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하는 듯한 글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딱딱하게 쓰시고 싶으시면 '이다, 있다, 것이다'를 반복 사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셋째, 소리내서 읽어보세요. 글을 소리내서 읽었을 때 글이 잘 읽힌다면 문장이 깔끔하게 만들어진 것입니다. 읽었는데, 입에서 무언가가 걸린다면 그 문장을 한 번 손 보실 필요가 있는 것이죠. 글의 내용은 이미 갖춰졌으니 문장의 구성만 확인해보세요.



이렇게 한 편의 글이 완성되었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다보면 글쓰기에 최소 2시간 정도는 걸립니다. 하지만 그만큼 사람들에게 잘 읽힐 수 있는 글을 만들 수 있게 되죠.

30분만에 쓰는 글, 술술 읽히는 글은 간단합니다. 제가 위에 알려드린 Step 1.이면 이미 내 글은 말하듯이 적혀있으니 잘 읽히는 편한 글이 됩니다.

그러나 논리구조를 갖추고 싶으시다면, 글 다운 글을 쓰고 싶으시다면, 퍼스널 브랜딩을 위한 글을 쓰신다면, 반드시 Step2~3를 연습해보세요. 여러분의 글이 훨씬 좋아질 거예요.

여러분의 글이 여러분의 색을 드러낼 수 있기를 응원하며 오늘 글도
마치겠습니다. 역시나 이제 남은 것은 꾸준한 실천이겠죠 :)

(기회가 된다면, Step1~3의 과정을 예를 들어 포스팅해보도록 할게
요!)

< 함께 읽으면 좋은 글 >

블로그 글쓰기를 반드시 연습해야 하는 이유

블로그 글쓰기를 반드시 연습해야 하는 이유안녕하세요. 돈버는 글쓰기 블...

blog.naver.com

글 잘 쓰는 방법, 다 지우더라도 일단 써보세요.

조심씨의 글쓰기 방법, 일단 쓰기조심씨의 블로그의 제목은 '글 잘 쓰는 조...

blog.naver.com

강의준비물

 Web Clip

IT 이야기

[공지] 2020년 중소기업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지원사업 안내



세일즈인사이트
2020. 8. 14. 9:57

이웃추가



안녕하세요.
세일즈인사이드입니다.

오늘은 2020년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중소·벤처기업의 디지털화 촉진 및 비대면 서비스 분야 육성을 위해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사업의 ‘수요기업’으로 참여하는 우수 중소 및 벤처 기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번 사업은 화상회의, 재택근무 등 서비스 지원을 통한 중소·벤처기업의 디지털화 촉진 및 비대면 서비스 분야 육성하는 목적입니다.



비대면 서비스 도입·활용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최대 400만원**(자부담 10% 포함) **이내 바우처를 지급합니다.**

신청자격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이면 가능합니다.



□ 신청기간 : 2020년 8월 19일(수), 10:00 ~ 예산 소진 시까지

□ 신청방법 : K-startup(www.k-startup.go.kr)을 통해 온라인 신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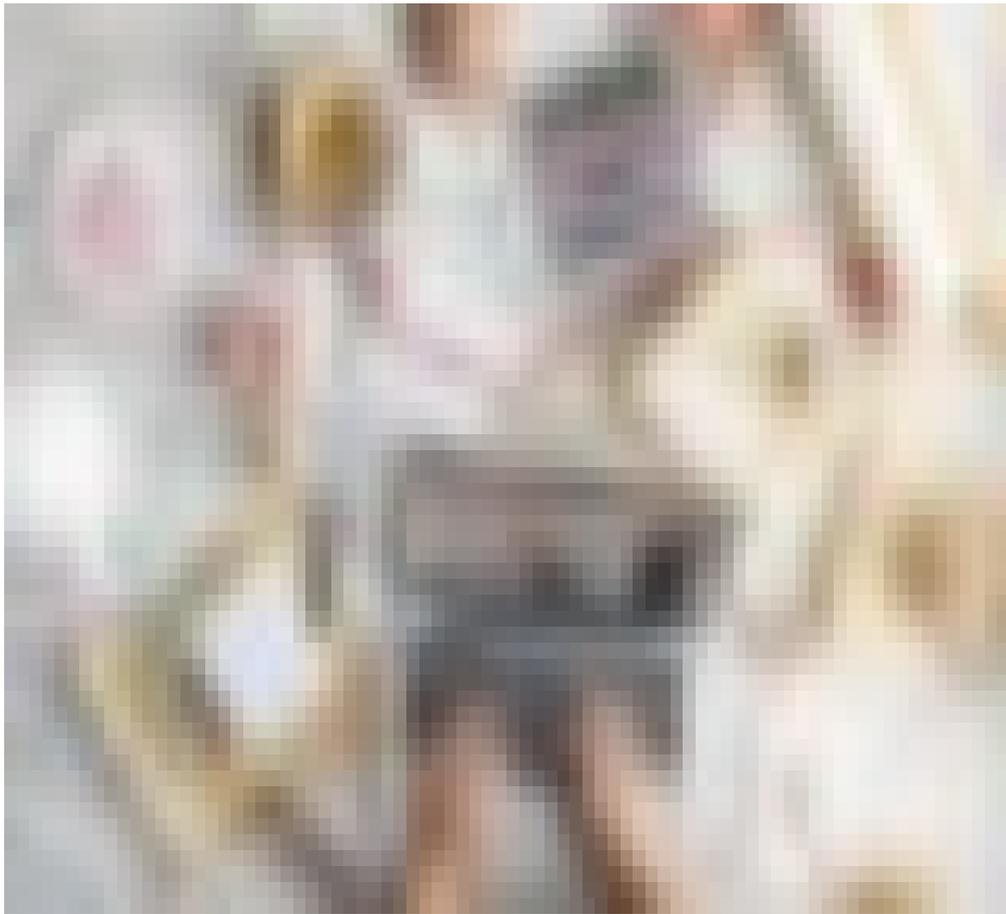
* 9월초 이후부터는 '비대면 바우처 플랫폼'에서 신청

① K-startup 접속 → ② 회원가입(대표자 본인) 및 로그인 → ③ 사업신청(창업사업통합정보관리시스템) 메뉴 클릭 → ④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클릭, 사업신청 → ⑤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 체크 → ⑥ 기본 정보 입력 → ⑦ 제출서류 업로드(용량제한 20MB 유의) → ⑧ 제출('마이페이지'에서 신청 확인)

□ 제출서류 : 온라인(K-Startup) 신청 시, 아래 서류 업로드

구분	제출서류(사본 가능)
----	-------------

필수	㉓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공통
	㉔ 중소기업확인서(우대서류 ①~⑥ 中, 1개 이상 제출 시 생략 가능)		
	㉕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㉖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 경우
우대	① 벤처기업확인서	② 이노비즈확인서	해당 시, 택일하여 제출
	③ 메인비즈 인증확인서	④ 스마트공장 수준확인서	
	⑤ 강소기업 인증서	⑥ 브랜드K 인증서	
	⑦ 여성기업확인서	⑧ 내일채움공제 가입증서	
	⑨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증서		
	⑩ 중소벤처기업부 '17~'19년 창업사업화지원사업 및 R&D 지원사업 수행확인서(사업목록 '참고 1'(10~12쪽) 참조)		
	⑪ 청년기업(신청일 기준 대표자 나이 확인)		제출서류 없음



회원가입 방법은 '비대면 바우처 플랫폼' 내 **별도 회원가입 및 서비스 이용 등에 대한 약관 동의를 하시고, 바우처 전용 통장* 및 카드 개설 신청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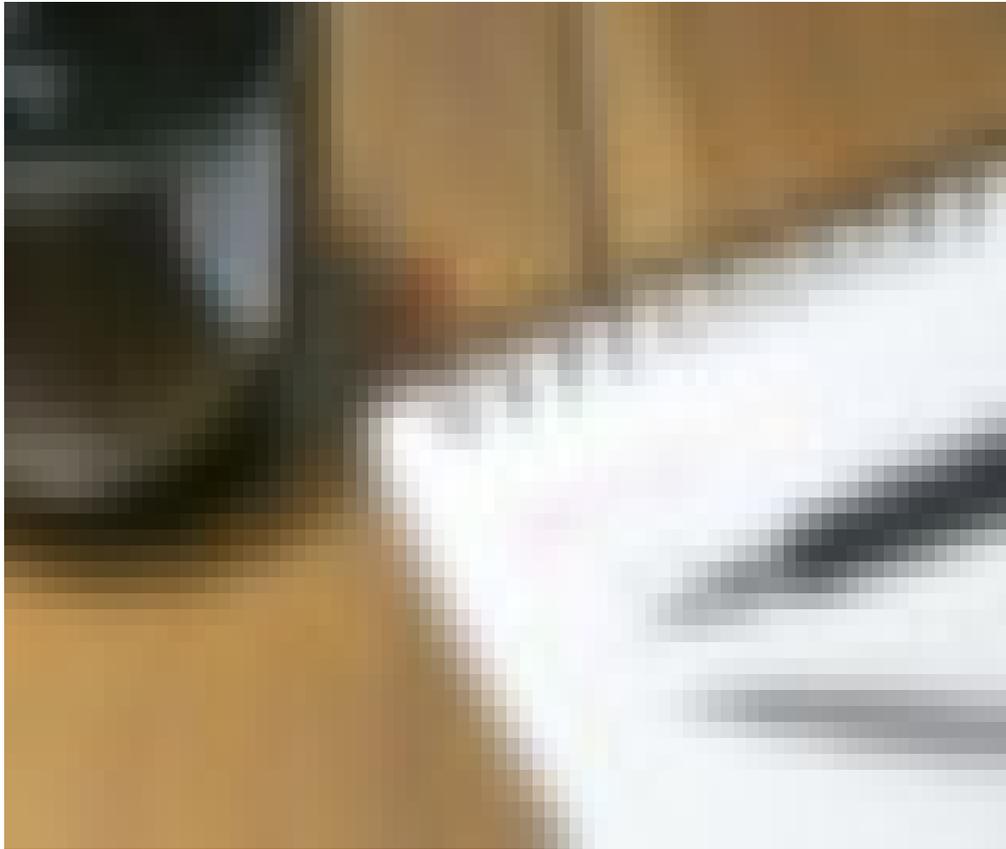
* 비대면 바우처 플랫폼은 현재 **오픈 준비중**입니다.

* 전담기관 지정 은행(신한은행)의 계좌를 **既** 보유하고 있을 경우, 별도 통장 개설절차 생략 가능

바우처 사용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업부담금 입금)** 플랫폼 내 '**결제하기**' 클릭 전, 수요기업의 사업비 전용계좌에 **자기부담금(결제금액의 10%)**을 입금
- **(서비스 이용 결제)** 기업부담금 입금 후, 총 결제금액을 **사업비 카드로 플랫폼 내에서 결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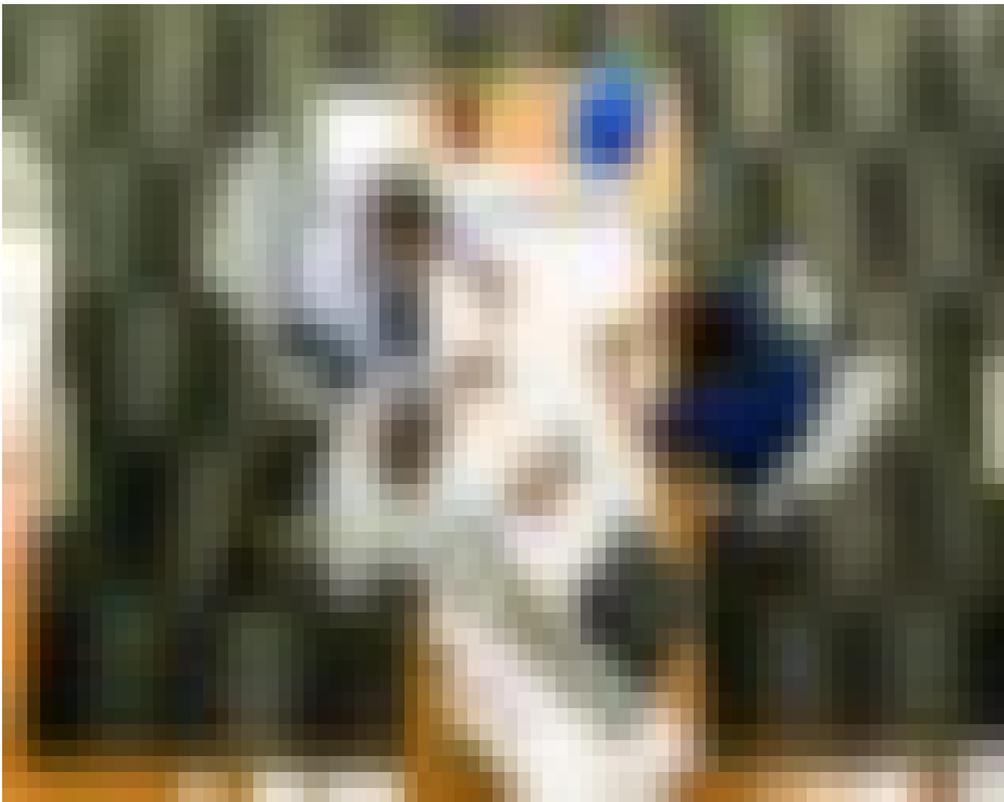
◦ (서비스 이용) 서비스 결제로 공급기업과 계약이 성사되며, 계약 내역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



□ 추진절차 및 일정

공 고	신청 · 접수	요건검토
중소벤처기업부	K-Startup (9월초 이후 부터는 비대면 바우처 플랫폼에서 접수)	운영기관
'20.8.13 .	'20.8.19. ~ 예산 소진시 까지	수시
점검 및 정산	바우처 사용	지원대상자 확정 공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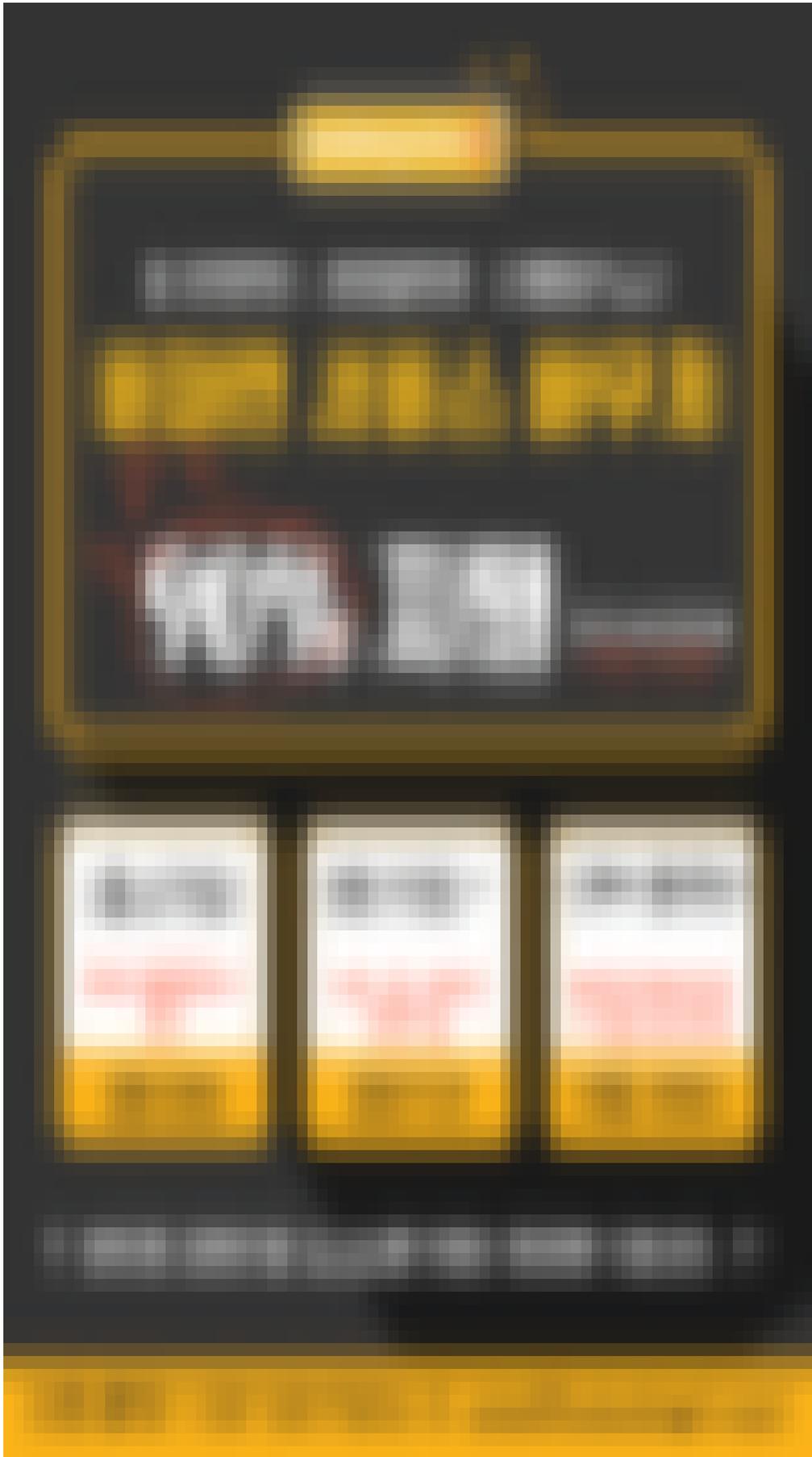
창업진흥원, 운영기관	수요기업(플랫폼 내에서 사용)	운영기관별 발표	수시
~ '21.9월 (정산은 바우처 사용 후 1개월 내)		지원 확정일로부터 8개월	



신청 순으로 자격 요건을 검토하여 선정하며 조기에 마감될 수 있으므로 신청 개시일('20.8.19, 10:00)부터 적극적인 신청을 해야합니다!

그동안 고객관리와 영업관리를 위한 전용 시스템이 필요하셨다면 이번 바우처 지원사업을 통해 CRM을 도입하실 수 있습니다.

* 아래 포스터 내용은 9월 15일로 예정된 비대면 서비스 공급기업에 선정
됨을
전제로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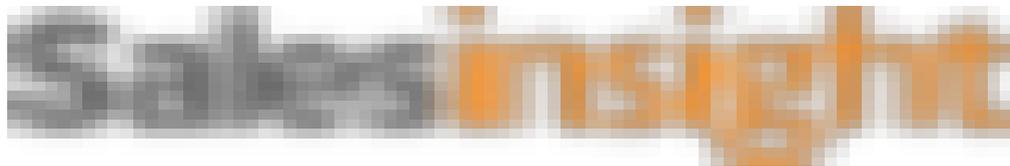
저희 세일즈인사이드는 지난 4년 간 클라우드 서비스 지원사업의 CRM 공급업체이며, 올해 진행된 클라우드 서비스 지원사업과 클라우드 바우처 지원사업, 스마트서비스 구축 지원사업의 CRM 공급업체로 선정된 CRM 전문기업입니다.

이번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사업의 공급기업은 9월에 선정 발표되는데, 저희 세일즈인사이드는 공급기업으로 신청(참여)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엑셀로 관리하던 고객관리와 영업활동관리, 영업관리 업무의 디지털 전환이 필요하시다면 이번 바우처 지원사업 신청과 함께 저희 세일즈인사이드를 만나 보시기 바랍니다.

2003년부터 17년 간 영업조직을 위한 CRM 솔루션 공급 과정에서 확보된 노하우와 안정적인 서비스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아래 연락처를 통해 편하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고객관리, 영업관리 CRM 전문기업

세일즈인사이드(주)

전화 문의하기 : [tel: 02-540-5234](tel:02-540-5234)

e-Mail 문의하기 : sales@salesinsight.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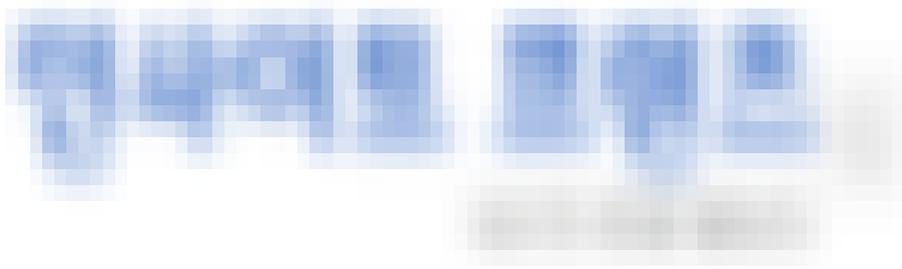
CRM 무료체험 신청 : www.salesinsight.co.kr/

(Free Demo 메뉴를 이용해 주세요)

세일즈인사이트

About Us Sales Insight Provider 세일즈인사이트(주)는 17년 동안 레퍼런...

www.salesinsight.co.kr



개념도 작성과 활용

1. VideoScribe로 유튜브 운영하기
- 1) VideoScribe는 어떤 도구 인가?

- 2) VideoScribe는 컴퓨터와 마이크만 있으면 됩니다
- 3) VideoScribe로 유튜브 운영 시 장점은?
- 4) 비디오스크라이브는 어떤 콘텐츠에 적합한가?

2. VideoScribe 기본 기능 및 사용법

- 1) VideoScribe 가입과 설치하기
- 2) VideoScribe 작업 환경 설정하기
- 3) VideoScribe 작업 시작하기
- 4) VideoScribe 메뉴 설명 드로닝 옵션
- 5) VideoScribe 이미지 사용하기
- 6) VideoScribe 텍스트 작성하기
- 7) Videoscribe에서 한글 작성법
- 8) VideoScribe 그래프 작업하기
- 9) VideoScribe 오디오 가져오기
- 10) VideoScribe 작업하는 작은 메뉴창
- 11) VideoScribe 영상으로 만드는 카메라 설정
- 12) VideoScribe 작업 파일 내보내기/가져오기
- 13) VideoScribe 영상파일로 내보내기

3. VideoScribe 영상 제작 하기

- 1) VideoScribe 영상 제작 순서 이해하기
- 2) VideoScribe 원고 작성 방법
- 3) VideoScribe 녹음하기(마이크 선택)
- 4) VideoScribe 영상 편집하는 법
- 5) VideoScribe 영상 화면 배치 작업
- 6) VideoScribe 영상 제작시 주의사항
- 6) Videoscribe에서 자막 작업은 어떻게 하는가?

4. Videoscribe FAQ

- Q. Videoscribe 추천 사이트가 있으면 소개 바랍니다
- Q. 앞으로 유튜브에서 애니메이션 영상의 인기는 더 커질까요?
- Q. Videoscribe에 영상 파일을 넣을 수 있는가?
- Q. Videoscribe 영상에 자막입히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Q. PC 두대에서(집과 회사) 하나의 계정으로 사용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 Q. Videoscribe에서 단축키는 없나요?
- Q. Videoscribe에서 정렬 방법이 없나요?
- Q. 마지막 화면으로 끝내고 싶은데, 매번 전체 화면이 나오네요?
- Q. 이미지 선택해도 다른 것이 선택이 되는 현상인데 버그인가요?

Q. 폰트나 이미지 라이선스는 어떻게 되나요?

고령세대의 마음가짐

🌐 Web Clip

4,038,222번째 방문자님 환영합니다.

나에게 꼭 필요한 법률정보

법인 감사는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요?

Published by 헬프미 on 2018-08-21



주식회사 감사에 대해 궁금하신 점들을 시원하게 해결해드립니다.

1. 감사의 자격 조건 - 신용불량자, 대표이사 등
2. 감사의 보수, 4대보험
3. 감사의 권한과 책임 - 회사 도산할 경우 등

4. 주식회사에 필요한 감사의 수
5. 감사 등기 방법

1. 감사란?

감사는 회사의 업무 및 회계 감사를 주된 직무로 하는 주식회사의 임원입니다.

2. 감사의 자격

2.1. 자격 제한이 있나요? 신용불량자도 가능한가요?

상법상 비상장회사의 감사 자격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신용불량자도 감사가 될 수 있습니다.

상장회사의 경우에도 변호사나 회계사 등 자격요건을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상근감사가 될 수 없는 자에 대해서만 조문을 정하고 있습니다.

상근감사의 자격 제한 (상법 제542조의10 제2항)

- 미성년자 등 무능력자
- 법령 위반 등으로 형을 선고 받거나 해임된 자
- 당해 회사의 경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주요주주

가족, 미성년자가 임원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하시다면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 [가족, 미성년자, 신용불량자도 주주나 임원이 될 수 있나요?](#)

2.2. 대표이사가 감사를 할 수 있나요?

- 복무 위반에 대하여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징계** 등 제재를 받음

3.2. 감사와 감리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회계감사, 감리 등은 명칭이 다양할 뿐 **모두 주식회사의 감사에 해당**합니다.

4. 보수와 4대보험

4.1. 보수

임원의 보수는 정관에서 정하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주주총회가 결정**합니다.

정관에 보수를 정하면 보수가 변동될 때마다 정관을 변경해야하므로 대부분 **정관에서 주주총회에 보수 결정을 위임**하는 형태로 진행합니다. 이사회나 대표이사 **의 단독결정**을 통해 임원의 보수를 정하는 경우, **보수 지급의 효력이 없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4.2. 4대보험

감사가 임원인지 근로자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임원이라면 4대보험 중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만 가입하면 되며, **근로자라면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 **임원은 4대보험 중 OO, OO보험은 가입되지 않는다?**

5. 감사의 권한과 책임

5.1. 권한

상법상 감사의 권한은 아래와 같습니다. 그러나 실무상 규모가 크지 않은 회사의 감사가 권한을 충실하게 행사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 이사에 대하여 **영업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회사의 업무와 재산 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구할 수 있다.
- 이사회나 주주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 **자회사를 조사**할 수 있다.

5.2. 책임

(1) 일반적인 책임

감사는 이사와 마찬가지로 **자신의 임무를 게을리하지 않을 일반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2) 회사 도산, 파산시

회사 경영 부실, 파산 또는 도산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물론 감사가 불법을 저질러 경영 부실과 도산에 **직접적인 기여를 했다**면 회사와 주주 등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3) 회사의 채무

회사의 채무에 대해서도 감사가 개인적으로 보증을 선 것이 아니라면 **값을 필요**가 없습니다.

6. 감사의 수

자본금 10억 미만 소규모회사는 **감사가 없어도 됩니다**. 상장회사와 비상장회사 모두 정관에 별도로 제한을 두지 않았다면 **상법상 감사의 최대 수 제한은 없습니**다.

7. 법인 감사 등기 방법

7.1. 필요 서류

감사 취임등기를 할 때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주식회사변경등기(이사·감사) 신청서**와 아래 서류를 구비하여 **본점 소재지 등기소**에서 **감사 취임 2주**내에 등기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 법인인감증명서 및 법인인감도장
- 공증받은 주주총회의사록 또는 이사회이사록
- 취임승낙서
- 취임하는 임원의 개인인감증명서 및 개인인감도장
- 취임하는 임원의 주민등록 등본
- 정관
-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7.2. 소요시간

중임등기의 경우, 법원 접수 이후에 법원에서 등기를 완료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영업일 기준 2~5일**이며 **전자등기의 경우 0.5~1일**가량 빠릅니다. 일반적으로 퇴임 후 취임등기를 하는 경우 시간이 조금 더 소요됩니다.

7.3. 등기비용

감사 변경등기비용은 크게 **공과금과 변호사, 법무사 수수료**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헬프미에서 전자등기로 진행**하시는 경우 비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공과금(국가 또는 공증인에게 내는 돈)		헬프미 수수료	
등록세	40,200	기본 수수료	119,000
교육세	8,040	교통비, 일당	없음
법원수수료(증지)	2,000	제증명, 인감	없음
공증료	없음(전자등기)	기타 부대비용	없음
전자증명서	15,000	부가가치세	11,900
소계	65,240	소계	130,900
총 합계 196,140 원			

8. 손쉽고 빠르게 임원등기 하려면?

안그래도 사업에만 집중하기 바쁜데, 법인등기에 빼앗길 시간이 없다면?

- 헬프미는 10,000 개가 넘는 법인고객사의 등기를 성공적으로 마친 경험이 있습니다. 이 경험을 토대로 완벽하면서 신속하게 등기업무를 처리해드립니다.
- 가장 신속하고 편리하게 등기를 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과태료를 예방하거나 줄이는 방법은 무엇인지 무료로 상담해드립니다.



대표님! **법인등기**에
시간 빼앗기지 마세요!



헬프미 변호사에게 맡기면 신속하게 임원등기 끝! 지금 바로 견적서를 받아보세
요.

지금 바로 견적서 받아보기

9. 헬프미는?

- 방문이 필요 없는 전국 인터넷 전자 등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고객님의 궁금하기 전에 헬프미가 단계별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알려드립니다.
- 업계 최대 규모의 채널톡 상담센터를 운영합니다. 쉽고 편한 채팅 상담을 이용해보세요.
- 설립시 대형로펌 출신 금융전문변호사가 만든 **고품질 정관**을 무료로 제공합니다.
- 1만 개 이상 등기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업종별로 가장 적합한 목적을 추천해드립니다.
- 수수료가 타 업체 대비 **평균 20% 저렴**합니다. 견적 총액을 꼭 비교해보세요!

16,679곳의 회사가 헬프미 법률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5/5(1 vote)

공유하기

공부가 재미있어 지는 구조적 학습기술

🌐 Web Clip

| 한경민 서울시의사회 감사

1. 감사의 어원 및 정의



한경민 서울시의사회 감사.

과거 우리나라는 '감찰'이라는 관념만 존재했으나 1868년 일본의 메이지유신 이후 서양문물을 도입하면서 당시 'audit'을 감사라는 말로 번역 통용되면서 지금까지 사용되고 있다.

감사는 회계감사와 직무감사로 구분하며 이러한 감사의 개념을 살펴보면 회계감사는 어느 조직의 회계기록을 제3자가 권한을 갖고 검토 및 검증하는 행위이며 직무감사는 감사대상기관과 소속 직원의 직무상 행한 활동이 법과 관계규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살피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다.

2. 평형상태유지(homeostasis)로서의 감사기능의 변화

전통적 감사는 주로 합법성 측면을 다루어왔으나 현대적 감사는 경제성, 능률성, 효과성 검토가 추가되었고 소극적, 통제적인 전통적 감사에 비해 활동을 지원하는 형태로 변화되어 왔고 또한 정책평가기능이 도입되었다. 감사는 과거의 행위를 주 대상으로 하지만 그 결과를 토대로 미래의 발전을 도모하는데 역점을 두게 되고 잘못에 대해 처벌하기보다는 미연에 방지하고 교정해 나가는 데 더 중점을 두고 있다. 이와 함께 개별행위보다는 전체적인 체계와 문제에 더 많은 역점을 두는 등 감사지향의 변화를 초래하고 있으며 감사요원 자질의 다양화, 전문화로 변화도 요구하고 있다.

감사는 목표달성을 위한 제반활동이 관계규정에 적합하고 경제적이고 능률적인지 점검을 통해 확인해서 부적절한 것은 시정하고 활동의 결과에서 나타나는 결

과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그 효과성을 평가한다. 이러한 일련의 평가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 등을 순환 또는 되먹임(feed back)시켜 시행착오를 방지하고 조직의 유지 및 발전에 그 목적을 두는 일종의 평형상태의 유지(homeostasis)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3. 감사의 구분

감사의 유형은 관점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되고 있으나 크게 △시행시기에 따라 사전, 사후감사 △감사중점에 따라 합법성 감사, 경제성·능률성·효과성에 치중하는 성과감사 △일반감사, 특별감사로 나눌 수 있다.

4. 감사의 권한과 의무

감사는 대의원회 선출직으로서 임기동안 그 신분이 보장되고 직무상 독립성을 갖는다. 감사단은 수석감사 1인을 호선하여 감사단을 대표하게 할 수 있다. 감사의 권한 으로는 다음 각호의 권한을 갖는다.

① 피감사부서의 제장부, 증빙서, 관계물품 및 관계서류의 제출 요구 ② 관계자의 출석, 답변, 확인 및 설명 요구 ③ 금고, 장부, 서류 등의 검열 및 필요한 경우 봉인 ④ 거래처에 대한 조사, 확인이나 회계 관계 조사 자료의 제출요구 ⑤ 감사 결과 부당사항의 시정요구와 관계 임직원에게 대한 문책요구나 조언 또는 권고 ⑥ 유공 임직원 및 회원에 대한 표창과 포상의 권고 ⑦ 감사 결과에 의거한, 업무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제안과 건의 ⑧ 기타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요구와 조치 ⑨ 대의원회의장은 감사단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의장단 및 전문위원회 의결을 거쳐 대의원중에 감사보를 약간명 임명할 수 있다. 감사보는 감사에 준하는 권한과 의무를 갖는다. ⑩ 감사단은 회계감사에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 의사회 예산으로 회계사의 자문을 받을수 있으며, 회계감사 교육을 받을 수 있다.

감사의 의무는 주의, 비밀유지, 감사록 작성, 총회에 대한 보고, 감사보고서 제출 의무 등이 있다. 감사는 다음 각호와 같은 의무와 책임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감사는 재무업무 관련 규정을 숙지하여야 한다. ② 감사는 그 업무 수행 과정에서 독립성을 유지하며 공정하게 관찰 평가하여야 한다. ③ 감사는 의사회 회칙과 제규정, 회계준칙 및 대의원회 의결사항에 따라 사실과 증거에 의하여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④ 감사는 피감사부서의 업무상 창의 및 활동능력이 침해되지 않도록

5. 감사의 역할, 독립성과 객관성

감사는 집행부의 업무에 대한 감독과 견제를 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업무에 대한 감사를 보면, 일반감사는 부서단위 기능이 정상적으로 수행되는지를 정기적으로 행하는 감사이며 특별감사는 특정한 사항에 대한 감사로 수시로 행해지는 점이 특징이고 특정한 사항에 대한 분석과 확인을 통해서 업무를 개선하는 감사로 볼 수 있다.

감사인에게 요구되는 중요한 것 중에 독립성과 객관성이 있다. 감사의 독립성은 직접적인 감사직무수행에 따른 증거수집, 결정, 판단 등 모든 활동이 외부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고 자율적으로 행해지는 것을 의미하며 객관성은 공정하고, 편향되지 않은 태도로 감사를 수행하는 것이며, 이해상충을 피하고 의사결정에 있어 타인의 부당한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감사인은 감사를 적절하게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좋은 환경에서 감사를 하는 감사인도 본인의 능력이 부족하다면 적절한 감사품질을 유지할 수 없고 이는 감사인의 객관성 손상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다양한 방법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분석하여 가장 객관적인 방법으로 정보를 분석해야 객관적인 의견이 도출될 수 있는 것이다.

객관성 확보를 위해 감사인은 조직의 업무, 감사의 추세 그리고 관련 전문지식을 계속적으로 학습하고 많은 사람들과 공개된 의사소통을 할 수 있어야 한다.

6. 맺음말

감사인은 조직내에서 다른 임원들과 같이 하나의 조직 구성원이면서 타인들의 업무를 평가할 수 있는 평가자이며, 서울시의사회의 업무 진행과 관련하여 회원의 이익이 침해 받는지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는 견제자이기도 하다. 이렇게 많은 역할을 수행하면서 요구되는 사항도 다양하다. 요구되는 일부는 상호 상충되기도 하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에 대한 상세한 지침이나 규정이 없는 것이 대부분으로 감사인의 건전한 판단을 믿는 것이다.

이를 위해 감사 임원은 조직적인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시행하여 감사인이 객관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토대를 수립해야하며, 이러한

토대 위에서 감사를 하기 위해 본인의 능력을 개발하고 조직내 좋은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타인의 의견을 경청할 수 있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Tag ▶ #N

저작권자 © 의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의사신문

[다른기사 보기 ▶](#)

공사안내문.프레임워크

🌐 Web Clip

1) 감사의 직무와 보고요구·조사의 권한

- ①감사는 이사의 직무의 집행을 감사한다.
- ②감사는 언제든지 이사에 대하여 영업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2) 이사의 보고의무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3) 총회의 소집청구

- ①감사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 ②이 청구가 있을 후 지체없이 총회소집의 절차를 밟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한 주주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4) 자회사의 조사권

- ①모회사의 감사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 ②모회사의 감사는 위의 경우에 자회사가 지체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 ③자회사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거부하지 못한다.

5) 조사·보고의 의무

감사는 이사가 주주총회에 제출할 의안 및 서류를 조사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부당한 사항이 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주주총회에 그 의견을 진술하여야 한다.

6) 감사록의 작성

- ①감사는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②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7)감사의 책임

- ①감사가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감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감사가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감사는 제삼자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③감사가 회사또는 제삼자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경우에 이사도 그 책임이 있는 때에는 그 감사와 이사는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

8)회사채무에 대한 변제의무

감사는 회사채무에 관하여 개인적으로 보증을 서는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사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지지 않는다.

감사 [監事] 감사기관 | 브리태니커

법인의 재산 및 업무집행상태를 감독하는 기관.

감사의 자격에 관하여 법률상의 제한은 없으나 일정한 형의 선고를 받아 자격을 상실한 자는 감사가 될 수 없다(형법 제43조 4호). 감사는 법인으로부터 감독업무를 위임받은 자이므로 민법상 위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注意義務)의 사무를 처리해야 하며(민법 제681조), 이 의무를 위반하면 채무불이행 또는 법률에 따로 정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감사는 크게 민법상의 감사와 상법상의 감사로 나뉜다. 후자는 다시 주식회사의 감사와 유한회사의 감사로 나뉜다.

민법상 일반법인의 감사는 임의기관으로 법인의 목적·규모 등에 따라 필요한 때에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감사를 둘 수 있다(민법 제66조). 민법상 감사의 주요직무는 ① 법인의 재산상황 감사, ② 이사의 업무집행상황 감사, ③ ①과 ②에서 부정 또는 불비한 것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 이를 총회 또는 주무관청에 보고, ④ ③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총회를 소집하는 일 등이다(민법 제67조). 그밖에 감사는 그의 직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위도 할 수 있다. 특히 공익법인의 경우에는 이사의 직무집행 유지청구권이 인정되는 등 감사의 권한이 더욱 강화된다.

상법상 주식회사의 감사는 회사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하는 필요적 상설기관이다. 감사의 자격에는 제한이 없으나, 감사기관의 성질상 이사·지배인·기타 사용인의 직무를 겸하지 못한다(상법 제411조).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되 의결권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 총수의 3/100 이상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며, 정관으로 이 의결권 제한의 비율을 낮출 수 있으나 높일 수는 없다(상법 제409조). 감사의 임기는 취임 후 2년 내에 다가오는 최종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시까지이다(상법 제410조). 따라서 감사의 임기는 사정에 따라 2년을 초과 또는 미달할 수도 있다.

상법상 감사의 주요직무는 첫째, 이사의 직무집행 감사(상법 제412조), 둘째, 이사회에 출석하여 감사의견 진술(상법 제391조 2의 1항) 및 이사회 의사록에 기명날인(상법 제391조의 3), 셋째, 이사의 법령 또는 정관위반행위로 인해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 이사의 위법행위유지청구(상법 제402조), 넷째,

회사와 이사 간의 소송시 소송상 회사의 대표직무(상법 제394조 전단) 등이다. 그밖에 감사는 회사설립 무효의 소(訴), 주주총회 결의취소의 소, 감사무효의 소, 합병무효의 소 등을 제기할 수 있다(상법 제328조, 제376조 1항, 제445조, 제529조).

감사의 주요의무는

첫째, 이사의 위법행위 이사회 보고(상법 제391조 2의 2항),
둘째, 이사가 주주총회에 제출한 의안과 서류의 조사 및 위법여부에 관한 주주총회에서의 진술(상법 제413조),
셋째, 감사시 감사록 작성(상법 제413조 2의 1항), 넷째, 결산기 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에 대한 감사보고서 작성 및 이사회 제출(상법 제447조의 4) 등이 있다.

그밖에 감사는 그의 임무를 게을리한 때에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고,
악의(惡意)나 중과실로 인하여 그 임무를 게을리한 때에는 제3자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상법 제414조 1·2항).
위의 경우 이사도 그 책임이 있을 때에 감사는 이사와도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상법 제414조 3항).

상법상 유한회사의 감사는 주식회사의 경우와는 달리 임의기관으로 정관에 정한 경우에만 둘 수 있다(상법 제568조 1항). 감사의 직무권한을 비롯한 대부분의 내용에 관하여는 주식회사의 감사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상법 제570조). 다만 몇 가지 특이한 점은 첫째, 회사성립 후 감사는 사원총회의 보통결의로 선임되며(상법 제570조, 제382조 1항), 둘째, 임기에 관하여 법률상의 제한이 없고, 셋째, 임시사원총회 소집권(상법 제571조 1항) 및 넷째, 설립·증자시 자본전보책임(상법 제551·594조)을 진다는 점 등이다.

'생활법률'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항소이유서 미제출로 인한 항소기각 (0)	2014.02.20
국선변호사 관련기사 (1)	2013.11.21
사기죄 (0)	2013.10.15
사건기록 열람등사 허용범위 (0)	2013.07.11
<u>법인 감사의 의무와 책임</u> (1)	2013.06.28

명예훼손 판례 (0)	2013.06.27
항고장 작성법 (0)	2013.06.21
선고유예와 집행유예 (0)	2013.06.20
항고 비용 상담사례 (0)	2013.06.06

구글에서 제공하는 구글킵

- [] 강의자료링크.큐알코드제작
- [] 강의녹음하기 MP3
- [] 보조배터리체크
- [] 강의진행사진촬영부탁
- [] 단체사진,강의중사진
- [] 생수1병
- [] PC 인터넷연결확인
- [] HDMI공유기
- [] 갤럭시탭&케이블.멀티컨세트
- [] 노트북오디오연결,동영상,소리재생블루투스스피커
- [] 프로젝터,스크린체크
- [] 포인터,프리젠테이션
- [] 특강초대의글(플러스친구,스토리채널)
- [] 리더스씽킹연구소 네이버밴드가입
- [] 카카오톡채널(플러스친구)등록
- [] ThinkWise 사용권발행
- [] 파워포인트파일
- [] A3출력샘플맵
- [] 다이어리사례, 기록과메모책
- [] 실메모장1권
- [] 리더스씽킹연구소리플렛(인원수)
- [] A4프레임워크메모킷트(인원수)
- [] 안정위명함
- [] 리더스씽킹연구소 큐알코드스티커
- [] 강사용PC, SW설치
- [] 강의PPT준비
- [] 강의교안
- [] 조별로 지난시간 배운것을 나누라
- [] 조별로 한가지씩 질문하라
- [] 강의평가지 (평가설문지)
- [] 수강후기 포스트잇

국가원로회서진

개념도는 시각적으로 정보의 표상 및 구조화를 가능하게 하는 기법이다. 개념도는 지식 구조를 반영하는 것으로서, 학습할 내용을 전체적으로 짐작할 수 있게 한다. 개념도를 통해 방대한 양의 의미 있는 주제를 빠르고 편리하게 발견할 수 있으며, 이러한 기법을 통해 주제 간 관련 중요성을 명확히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개념도를 활용한 접근법은 주제, 관련 중요성, 서로 간의 관련성을 즉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하다. 개념도 형태로 작성된 시각적 구조도는 내용 분석의 결과로서 주제별 클러스터의 자세하고 유용한 요약を提供한다. 또한 이러한 분석은 인쇄 자료에서 주제의 확인을 넘어서서 주제 간 유사점과 차이점을 구체화하는데 까지 확장될 수 있는 방법이다.

개념도 작성을 위해 다양한 소프트웨어가 있으며 이는 대부분의 컴퓨터에서 활용 가능하다. 개념도, 개념지도, 조직화 차트, 다이어그램 등은 시각적 조직화 방법을 설명하는 다양한 용어들이다. 이들은 정보를 시각적으로 저장, 처리, 조직 및 표현하는데 활용되며 학습자들을 위해 특별히 교과에서 학습 성과를 개선하는 방법으로 알려져 왔다. 이러한 다이어그램을 그리며 다양한 형태로 표현하는 것을 지원하는 소프트웨어들이 개발되어 왔다.

개념도는 각 마디가 하나의 생각, 개념 혹은 문제를 포함하며 서로 관련성을 보이는 가지에 의해 함께 연결되어 있는 형태의 다이어그램이다. 개념도는 2차원적 그래프 형태로 이해되어 왔으나, 최근 아이디어 정리 도구로서 ThinkWise와 같은 소프트웨어 툴이 개발되어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도구들은 창의적 사고를 유도하는 협력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활용되고 있다.

개념도 작성에 있어 ThinkWise 같은 소프트웨어로 구현하고 활용하는데 관심을 갖는 이유에 대해서는 다음의 시각이 지배적이다. 전통적으로 개념도는 색깔이 있는 펜으로 종이에 그려지는 것이 보통이었다. 개념도를 조직하는 동안 제한된 크기의 종이에 읽기 적절하게 작성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문제를 발생시킨다.

또한 개념도가 종이에 그려지면 완성되더라도 단지 하나의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뿐이며, 포함된 아이디어를 재배열하거나 확장시키거나 텍스트 혹은 발표 슬라이드 형태와 같이 다른 형식으로 정보를 변경할 수 없기 때문에 불편을 겪는다.

ThinkWise 프로그램을 활용하면 특정 크기의 제한이 없을 뿐 아니라 어려움 및 불편 사항을 극복하고 개념도를 보다 유용하고 표현력 높게 지원하는 이미지 혹은 그림, 철자 검토, 텍스트의 음성 변환과 같은 부가적 도구의 접근이 가능해진다. 즉 시각적 지도 간에 선형적으로 제시된 정보를 바탕으로 하여, 다른 사람들과 의사소통이 용이한 텍스트 기반 형태 등으로 전환 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교수자와 운영자들은 텍스트 기반 형태를 선호하지만 학습자들이 선호하는 다른 형태의 개념도로 자동 전환하는 것도 가능하다. 예컨대 필기 한 텍스트 파일을 탑재할 수 있으며, 개념도를 구성하여 노트를 확장하고 분류할 수 있다.

노트에 이미지와 색상을 넣어 시각적 표현을 높이는 것도 가능하다. 개념도를 워드 프로세서에서 볼러옴으로써 전체 문서로 확장하거나 슬라이드 쇼를 구성하기 위한 발표용 프로그램으로 그것을 활용할 수도 있다. HTML 파일로 개념도를 저장함으로써 웹사이트를 구성할 수도 있다.

개념도는 많은 교육 및 애플리케이션 영역에서 광범위하게 활용되는 시각적 언어로서 활발히 제공되고 있다. 개념도를 활용하는데 있어 구체적인 사용자 집단의 연습 및 해석을 거쳐 다이어그램을 조직하거나, 때로는 컴퓨터 상에서 데이터 구조를 정의하기도 한다. 개념도는 항상 개념지도 혹은 조직적 차트와 같이 표현될 수 있는 웹의 형태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웹을 넘나들며 활용이 가능하도록 구현되어 다양한 목적으로 유용하게 쓰이고 있다.

사용자가 개념도를 다운로드하거나 업로드하는 것을 지원하거나, 개념도에 URL을 부여함으로써 멀티미디어 자료를 목록화하면서 브라우저의 액티브 컨트롤러로서 기능하거나, 브라우징 처리를 통해 통제되는 개념도를 생성하는 등의 다양한 방식으로 웹 환경에서 개념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발이 진행되어 왔다.

이러한 다양한 활용 방식으로 웹 환경 및 기술을 통해 개념도의 단순하고 자연스러운 통합을 지원하기 위해 상호보완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웹 기능 구현의 진보에 따라 HTML 문서의 활성화 요소를 넘어서는 개념도 도입이 가능해질 것이다.

사역지원기술연구소 안정위교수 정리

기독교단체 뉴스앤조이

1.혼자 지내는 습관을 들이자.

- 2.남이 나를 보살펴 주기를 기대하지 말자.
- 3.남이 무엇인가 해 줄 것을 기대하지 말자.
- 4.무슨 일이든 자기 힘으로 하자.
- 5.죽는 날까지 일꺼리가 있다는 것을 최고의 행복이라 생각하자.
- 6.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보다 더 많이 움직이자.
- 7.늙으면 시간이 많으니 항상 운동하자.
- 8.당황하지 말고, 성급해 하지 말고, 뛰지 말자.
- 9.체력, 기억력이 왕성하다고 뽐내지 말자.
- 10.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버릇을 기르자.
- 11.나의 괴로움이 제일 크다고 생각하지 말자.
- 12.편한 것만 찾지 말고, 외로움을 만들지 말자.
- 13.늙은이라고 냉정히 대하더라도 화내지 말자.
- 14.자식들이 무시 하더라도 심각하게 생각하지 말자.
- 15.친구가 먼저 죽어도 지나치게 슬퍼하지 말자.
- 16.고독함을 이기기 위해 취미생활과 봉사활동을 하자.
- 17.일하고 공치사 하지 말자.
- 18.모든 일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자.
- 19.마음과 다른 인사치레는 하지 말자.
- 20.칭찬하는 말도 조심해서 하자.

- 21.청하지 않으면 충고하지 말자.
- 22.남의 생활에 참견 말자.
- 23.몸에 좋다고 아무 약이나 먹지 말고, 남에게 권하지 말자.
- 24.의사를 정확히 말하고, 겉과 속이 다른 표현을 하지 말자.
- 25.어떤 상황에도 남을 헐뜯지 말자.
- 26.잠깐 만나 하는 말, 귀에 담아 두지 말자.
- 27.가끔 오는 식구보다 매일 보살펴 주는 주위 사람에게 감사하자.
- 28.할 수 없는 일은 시작도 하지 말자.
- 29.스스로 돌볼 수 없는 동물을 기르지 말자.
- 30.사진, 감사패, 내 옷은 정리하고 가자.
- 31.후덕한 늙은이가 되자.
- 32.즐거워지려면 돈을 베풀자. 그러나 돈만 주면 다 된다는 생각은 말자.
- 33.일을 시킬 때는 자식보다 직업적인 사람을 쓰자.
- 34.일을 시키고 잔소리 하지 말자.
- 35.외출할 때는 항상 긴장하자.
- 36.젊은 사람 가는데 동행하지 말자.
- 37.여행을 떠나면 여행지에서 죽어도 좋다고 생각하자.
- 38.도와줄 수 없다면, 이사를 가거나 대청소를 할 때 자리를 피해주자.
- 39.음식은 소식하자.

- 40.방문을 자주 열고, 샤워를 자주 하자.
- 41.몸을 단정히 하고 항상 화장을 하자.
- 42.구취, 체취에 신경 쓰자.
- 43.옷차림은 밝게, 속옷은 자주 갈아 입자.
- 44.이웃을 사랑하자.
- 45.늙음을 자연스럽게 맞이하자.
- 46.인간답게 죽는 모습을 자식들에게 보여 주자.
- 47.늘 감사 하자. 그리고 또 감사 하자.
- 48.늘 기도 하자. 그리고 또 기도 하자.
- 49.항상 기뻐하자. 그리고 또 기뻐하자.

내몸 내가보기 복습용

시대가 바뀌고 기술이 발전하다 보니까 공부에도 기술을 사용해야 한다고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 소개를 간단히 드리고 가겠습니다.

저는 전자계산학과를 나왔습니다. 그리고 정보공학석사이고, IT실무 41년차입니다.

아모레퍼시픽에서 전산 부서장을 역임했습니다.

한양여자대학교 컴퓨터공학과 겸임교수를 3년을 역임했습니다.

현재는 파라미디어 대표이며, 리더스씽킹연구소 소장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또 목사님들과 선교사님들을 대상으로는 사역지원기술연구소 전임교수로서 지식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위의 것은 모두 과정이구요, 현재의 결과로 바라보면 저는 정보기술 특급기술자입니다.

정보기술 특특급기술자입니다. 왜냐하면, 학부때 1급을 따고 40년이 지났으니깐 특특급이되었다는 이야기 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교육전문가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

나라 정보기술전문가가 공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특이한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의 지식배경을 잠깐만 설명드리면, 학부는 컴퓨터공학을 했구요, 석사는 정보공학을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15~16년 전에 제가 컴퓨터에 대한 대체지식을 뭐가 있을까 하다가 두뇌공학을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두뇌공학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직 졸업하지 못하고 지금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특이한 지식배경을 갖고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으리라고 믿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컴퓨터공학과 두뇌공학을 공부한 사람으로서 여러분에게 하나의 새로운 정의를 드리고 가겠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기존의 IT는 CIT(Computer, Information, Technology) 컴퓨터정보기술입니다. 컴퓨터는 정보처리기기입니다. 컴퓨터공학 학문이 있습니다. 컴퓨터는 정보처리를 하는 기기입니다. 그러면 사람은 BIT(Brain Information Technology) 두뇌정보기술

브레인정보기술이라고 제가 정의를 했습니다. 어디에도 없는 것을 가르치느라고 브레인정보기술이라고 제가 정의한 것입이다. 두뇌는 정보처리기관입니다. 두뇌공학으로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두뇌정보기술에서는 생각을 정리하는 기관입니다. 생각을 정리한다는 것을 조금 더 확대해석하면 생각을 관리한다, 생각을 처리한다와 같은 뜻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는 같은 개념이다. 나누기는 했지만, 같이 해석된다. 같이 말해도 된다. 컴퓨터와 두뇌를 같은 해석을 해도 된다는게 제가 공부한 결과입니다. 특이한 BIT와 CIT의 지식적 배경을 가지고 오늘 공부한다, 공부 가 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합니다.

세미나 소개 및 도입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것을 왜 말씀드리게 되는 배경과 원리가 있을 것이고 학습이론은 아날로그적으로 어떻게 하느냐 디지털적으로 어떻게 하느냐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꼭지가 많은데요. 배경도 있고 원리도 있고 아날로그적 활용 디지털적 활용 하면서 마무리를 할 예정입니다. 아날로그와 디지털 방식 두 가지를 모두 다 말씀드리게 된다는게 특이한 내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학생들에게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공부가 뭘까요? 공부가 왜 힘들죠? 공부가 왜 재미없죠? 공부가 재미있다고 하는 사람은 성적이 잘 나올 것입니다. 통상 공부가 재미가 없다는것입니다. 제가 세미나 토픽도 공부를 재미있게 하면 되겠다. 그게 오늘의 목표이고, 결론입니다. 어떻게 하면 재미있게 할 수 있을까요? 이 방법까지 설명을 드릴겁니다. 기대하시고 경청을 부탁드립니다.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기 전에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컴퓨터 기술이 엄청 발전했습니다. 1년 전, 3년 전, 5년 전, 10년 전, 20년 전하고 전혀 다릅니다. 예상하시면 안됩니다.

다. 예상을 뛰어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컴퓨터 기술이 발전되어 있습니다. 예전에는 상상했던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많이 보셨죠? 로봇, 그런데 지금 자율주행 자동차, IoT, AR, VR, 인공지능, 빅데이터 말도 못하게 많은 분야로 발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의 하나의 배경이 되구요,

또 하나는 두뇌 공학이 많이 발전했는데, 여러분 중에 두뇌 공학이라는 말을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계실거예요. 이것은 60년대 후반부터 시작했습니다. 그전에는 두뇌가 무엇을 하는지도 잘 몰랐다고 합니다. 생각을 심장해서 했다고 생각하는 시절도 있었답니다. 두뇌가 보이지도 않고 두뇌가 뭔지도 잘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두뇌는 가장 중요한 장기입니다. 사람이 산소를 소화하는데 30%를 두뇌에서 소화한다고 합니다. 30초에서 1분만 두뇌의 산소가 공급이 안되면 뇌사 상태가 된다고 합니다. 전혀 사람이 살이 있다고 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주먹 두 개를 맞붙이면 그 사이즈가 두뇌의 사이즈라고 합니다.

예전에 제가 두뇌를 공부하려고 삼성의료원에 있는 후배에게 찾아가서 두뇌를 보여달라 했더니 영상으로 보여주는 것은 까만 부분과 하얀 부분밖에 없다 하면서 본인이 실제로 두뇌를 보니 순두부 같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긴 것에서 어떻게 정보처리를 하냐...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적인 영역이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생체 세포가 논리적인 정보를 처리하는 것은 인간이 밝힐 수 없는 하나님의 창조영역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컴퓨터공학과 두뇌공학을 배경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뇌정보기술이라는 분야를 생소하기 때문에 잠깐 영상 하나 보고 가겠습니다. 이 영상은 KBS에서 두뇌에 대해서 다큐멘터리로 방송한 것입니다. 전자현미경으로 찍은 두뇌신경세포라고 합니다. 저는 이 영역에 전문가가 아니라서 말씀드릴 것은 없습니다만, 여기서의 핵심 키워드는 연결과 결합입니다. 두뇌신경세포가 연결이 되어서 정보처리를 하고 결합이 되어서 생각이 만들어지고 정리된다고 합니다. 두뇌 하면은 연결과 결합입니다. 그것이 두뇌의 기능이다라는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 다닐 때 배우는 것이고 아시는 것입니다. 두뇌에는 양뇌가 있는데, 그것을 합쳐서 전뇌라고 합니다. 그러면 좌뇌에서 하는 일과 우뇌에서 하는 일은 상반적인 기능을 합니다. 두뇌의 양면성이 있다. 하나의 세포에서 전혀 다른 일을 한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좌뇌는 분석적으로 한다면 우뇌는 종합적으로 합니다. 뇌량이라는 신경세포 뭉치를 통해서 서로 정보가 전달되어서 빨리 처리를 하도록 슈퍼컴퓨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생각하는 과정을 두뇌공학적으로 말씀드리면 발상을 한 다음에 골라내서 결론을 내린다.

오늘 점심 뭐먹지?라고 생각을 내놓은 다음에 백반이라는 결론이 난다는 것입니다. 발상과정과 수렴과정을 분리해서 하세요라는 것이 창의적 사고기법입니다. 생각을 한 번에 하지 말고 아이디어를 한 번에 짝 쏟아내고 골라낼 때는 골라내라. 이것은 마치 추수한 콩을 짝 멩석에다가 뿌려놓고 쓸 콩 안 쓸 콩을 골라내는 것과 같다는 논리입니다. 발상과정과 수렴과정을 분리해서 해라. 이것이 창의적 사고기법입니다.

우리가 두뇌 중심으로 본다면 공부할 때는 다양한 지식들, 정보들이 입력됩니다. 컴퓨터적으로 두뇌를 CPU라고 본다면 정보, 지식을 입력 + 학습은 Input 업무 + 출력은 Output이라고 봅니다. Input의 특징은 무순서로 다양하게 들어옵니다. Naver, TV, 책, 신문, 선생님 말씀, 백과사전 등에서 막 들어오는 것이고 본인이 시험을 본다든지 문서를 본다든지 말을 할 때는 체계적, 논리적으로 얘기를 해야 합니다. 막 얘기하면 상대방이 못 알아듣습니다.

Input과 Output이 방식 차이가 있기 때문에 CPU가 재조직화, 재구조화를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CPU가 작동을 해야 지식에서 언어로 변환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고력은 4가지로 정의를 했습니다. 다 아시는 것이지만, 복습한다고 생각하고 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고력은 4가지로 창의력, 논리력, 종합력, 분석력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창의력만 많이 얘기합니다. 이 4가지는 같은 얘기일수도 혹은 다른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새로운 아이디어를 품어내는 것이 창의, 순서대로 맞추는 것이 논리, 하나로 모으는 것이 종합, 가능한 쪼개려고 하는 것이 분석입니다. 이 4가지 기능이 균형적으로 맞아야 합리적인 판단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한 쪽에 쏠려버리면 창의만 있고 논리가 없다면 우스갯소리 하나 하자면, 아이디어만 있고 논리가 없으면 이런 분을 극단적으로 제 정신이 아닌 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이디어로 달나라 가자해 놓고 어떻게 가는지가 없어요. 그냥 달나라를 가는거지.... 돈도 안 따지고 방법도 안 따지는 사람이 아주 극단적인 창의력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창의력이 너무 강하다 보니깐 일반적으로 섞이질 못하는 거예요. 혼란스러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이디어도 없이 논리적으로 따지기만 하는 사람도 영양가가 없습니다. 이 4가지가 모두 다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여태까지는 사고, 생각, 두뇌 이런 얘기를 드렸다면, 이제는 그것을 활용해서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두뇌에서 정보처리를 하는 것이 공부하는 것입니다.

공부는 두뇌가 정보처리를 하는 것입니다. 읽기와 듣기는 Input하는 능력, 쓰기 말하기는 Output하는 능력입니다.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지만, 토익과 4가지 평가 영역이 읽기평가, 듣기평가, 쓰기평가, 말하기평가입니다. Reading, Writing, Hearing, Speaking 이 4가지를 잘하면 공부를 잘하는 것입니다.

꼭 시험을 잘 봐서 성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잘 읽고, 잘 듣고, 잘 말하고, 잘 쓰면 됩니다.

이 4가지를 학습능력이고 정의했지만, 복잡하잖아요. 이것을 해결해야 할 방법이 있어야 해요. 하지만 우리는 방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구조라는 것입니다. 구조에다가 담는 것입니다. 우리가 집을 지을 때 철근이 올라갈 때 그것이 구조잖아요. 잘못 올라가면 모든 것이 다 무너집니다. 구조를 잘못 세우면 균형을 이루지 못해 무너집니다. 구조를 학교에서는 안 가르쳐요. 그것이 제가 가장 안타까워하는 부분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안정적인 구조가 피라미드 구조라고 합니다. 피라미드는 닳면 닳았지 무너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위에서부터 쪽 레벨이 맞는 것이 논리적인 피라미드 구조입니다. 하위에 기초가 있고 그 위에 쌓여져 가는 것입니다.

구조가 왜 필요하냐면, 섞여서 혼돈스러운 것을 체계적으로 만들어 가는 것을 구조화라고 합니다. 섞여있는 것을 체계로 우선순위로 큰거, 작은거 / 먼저 할 것, 나중에 할 것 / 모두 다 순서가 다 있죠. 여기에서는 내용보다는 선이 중요합니다. 선이 구조를 표현합니다. 선을 여기서는 가지라고 표현하는데, 이것이 건축물의 에이치빔이 선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복잡하게 섞인 것을 어떤 분류에 의해서 피라미드 구조를 만들어서 최상위 지혜를 구할때는 정보, 지식, 데이터보다 고급스러운 것이 지혜입니다. 정보가 많아도 지혜가 없으면 잘못된 것입니다.

사회적, 영적, 지식적, 학문적 다 있어도 영적으로 무너져 있으면 하버드 대학을 나와도 사기꾼이 나온다는 거예요. 지식은 최상위인데 하나님의 지혜가 없으니까 도둑질을 하고 사기를 치는 겁니다. 그것은 영적 수준이 낮기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배웠습니다. 지식적 수준, 학문적수준, 영적수준이 보여지는 기준이 틀린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언어는 우리가 글 제목 목차 내용 이런 순으로 관계를 표현하는 선이 중요하다라는 인식을 지금 이 시간 이후에는 하셔야 합니다. 여태까지는 가지를 보실 일이 별로 없으셨어요. 아래야 한글, MS워드에서 가지를 보여주지 않거든요. 필기에서도 가지를 사용해 보신 적이 거의 없을 셧을 겁니다. 앞으로는 가지와 친해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학생 입장에는 정보를 어떻게 쌓어나갈까요? 최고 수준으로 올라온 것이 피라미드 꼭지점입니다. 초등학교 1학년에서 박사과정까지 갈 때까지의 모든 구조는 피라미드 구조를 갖게 되어있습니다. 과목 하나도 퍼즐이나 블록의 한 조각일 수 있습니다. 하나의 페이지도 블록 한 개일수 있습니다. 일과 정보와 지식은 피라미드 구조로 지향됩니다. 네모로 정리하는 방법, 파생해서 나가는 방법, 연결쳐서 관계적으로 나가는 방법 구조화하는 방식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습니다. 정보와 정보 사이를 화살표나 선으로 연결하면 구조가 정의됩니다.

구조는 관계이다. 관계는 선이다.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태까지 국어, 영어, 수학이라는 내용을 파악시키셨다면, 국어와 영어는 무슨 관계가 있는지, 영어와 수학은 무슨 관계가 있는지를 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무엇이나면 개념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과목은 실제 내용이구요, 내용 간의 연결을 통해서 학문이라는 개념을 잡아가는 것이 관계입니다. 앞으로는 관계를 중요시 여기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학습을 게임으로 이해하셔야. 이것은 학생들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게임으로 이해를 해라. 무슨게임? 내가 공부한다는 것을 퍼즐 맞추기하고 있다라고 인식하셔야. 내가 지금 1,000피스 또는 10,000피스짜리 퍼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시오. 퍼즐의 목적은 하나의 그림을 맞춰나가는 과정입니다. 그러면서 배울 것은 전체를 알게 하고 부분을 보게 하는 견문을 갖게합니다. 퍼즐이라는 것은! 내가 퍼즐을 맞춰가면서 맞았다 틀렸다는 계속해서 완성 시켜 나가는 것이 퍼즐게임입니다.

블록은 맞추기 전에 해당 메이커에서 설계도를 제공합니다. 설계도대로 맞춰야 안 무너집니다. 설계도를 무시하고 위에를 무겁게 쌓으면 금방 무너집니다. 블록 하나하나를 맞춰나가는 것이 지식의 확장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기존 지식과 신지식이 단단하게 결합되어야 안떨어집니다. 어설픔게 결합되면 과거지식과 신지식이 갈라져버려서 연결이 안됩니다. 그래서 논리와 창의, 창의적인 것은 블록을 새로 가져오는 것이고, 논리적인 것은 기존의 블록이 단단한 형태로 되어있어야 확장되도록 준비되어 있어야 새로운 블록을 붙이는 것입니다. 기존의 흐물흐물한 곳에 계속 새로운 것을 쌓으면 무너집니다. 기초 지식이 안 되는 것에 새로운 지식을 계속 쌓으면 기초까지도 무너지는 것입니다. 지도는 내가 가지 않더라도 상상이 일어납니다.

지도에는 길이 있고 집이 있습니다. 전체를 봤다 부분을 보는 기능도 있구요, 전기, 도로, 수도와 연결이 되지 않은 집은 못쓰는 집입니다. 길과 연결되어 있지 않은 집은 수천평이라도 쓸모가 없습니다. 길 옆에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길이 뭐냐면 구조라는 것입니다. 포도송이로 예를 들자면, 줄기에 포도가 붙어 있지 않고 떨어지면 썩는 것입니다. 포도알은 포도송이에 붙어 있어야 하는 겁니다. 포도 뿌리부터 줄기, 가지, 송이까지 올 때가 구조입니다. 알은 내용입니다.

블록은 설계도가 구조도입니다. 퍼즐은 원그림이 원비전입니다. 내가 가고자하는 모습입니다.

세 가지의 게임이 뭐냐.. 퍼즐게임, 블록게임, 지도게임. 퍼즐을 완성시키고자 하는데 맞추는 개념에서는 결합, 연결을 통해서 맞춰집니다. 조각과 조각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부분은 우리가 각각 현실적으로 배울때는 조각밖에 모릅니다. 아직은 전체를 모릅니다. 중학교 1학년일때는 중학교 2학년,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것

을 모르는 거지요. 퍼즐이라는 원그림을 먼저 봐야한다. 개념이라도....이렇게 생긴 것을 우리가 맞추고 있구나라고 먼저 보여줘야 합니다. 그것을 학습에서는 학습설계도가 필요하다.

블록을 이렇게 쌓는데, 우리가 공부한 내용인데 지식은 블록의 집합이다. 이렇게 보시는게 구조적 사고입니다. 나눠서 생각하는 것을 구조적 사고라고 얘기합니다. 여태까지는 아날로그적사고, 통합적사고, 수학, 과학 하나로만 보신겁니다. 그것을 쪼개 봐야된다는 것입니다.

학습지도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하철노선도로 말씀드리면 지하철 탈 때 노선을 모르는 사람은 귀를 방송에 귀울여야 됩니다. 지금 무슨 역을 지나왔는지 내가 얼마나 왔는지를 몰라요. 앞으로 얼마나 갈지 몰라요. 노선도를 아는 사람은 내가 얼마만큼 왔고 무슨 역에서 환승하고 몇 정거장을 가야하는지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습지도를 만들어서 써야 한다.

공부가 왜 힘드냐면요, 첫번째, 전체를 못보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모르죠. 과거만 알지 미래를 안 배웠잖아요. 그래서 어려워요. 두번째 바로 앞을 몰라요. 장님처럼 바로 앞을 못봐요. 앞이 깜깜한 거예요. 공부가 왜 재미가 없나요? 컴퓨터 게임은 밤새서 하라고 해도 하겠는데, 왜 공부는 10분, 20분만 지나면 힘들어할까요? 숫자로 안보여요. 숫자로 카운터가 되면 좋겠지만, 내가 아는 것이 숫자로 늘어나는 것이 보인다면 이 숫자를 늘리기 위해 공부를 열심히 할 겁니다. 성적은 그런데 6개월 후에 한 번 나오는데 어떻게 나를 자극하겠어요. 후회만 하지, 후회만하게 만드는 것이 성적이지 공부가 하루 단위로 카운터되어서 나온다면 공부가 재미 없을 수가 없죠. 저는 숫자 따먹기 래도 하려고 밤을 샅겁니다. 그래서 공부는 전체가 안보인다. 앞이 안보인다. 성장하는게 안보여서 힘들다. 이 세 가지를 해결하면 된다.

우리가 학교에서 시간표는 월요일 시간표, 화요일 시간표, 수요일 시간표.. 이렇게 있지만, 두뇌에서는 국어를 연결해야 하고, 영어를 연결해야 하고, 수학을 연결해야만 지식이 됩니다.

두뇌에 들어오는 순서와 머릿속에서 쟁이는 순서가 틀리다는 겁니다. 기억하는 순서와 방법이 틀리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가 어렵습니다. 머릿속에 막 들어오는데, 뭔가 체계를 잡아야 해요. 머릿속에서 순서를 맞춰야 해요. 모으고 쪼개는 활동이 종합활동, 분석활동으로 가려고 합니다. 정리된 모습으로 가는 것이 체계를 지식체계, 학습체계를 갖추는 것이다. 체계가 없는 곳에 새로 넣어봐야 붙지도 않습니다. 구 지식에 신지식이 안 붙는다는 거예요. 잘 붙여야 됩니다. 기존지식과 신지식을 결합시켜서 관계로 묶여야지만 지식이 확장이 됩니다. 잘 결합되는 것을 뭐라고 하나면, 이해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합이 오류가 난 것은 오해하고 있다.

이해와 오해는 결합이 어떻게 됐느냐에 따라서 얘기하는 겁니다. 잘못 결합 된 것은 오해, 잘 결합 된 것은 이해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레미콘 차로 비유를 했는데요, 기존 지식이 있습니다. 새로운 지식이 들어와서 막 막싱이 일어나서 뭔가 새로운게 나오면 이것이 어디로가냐? 구지식으로 갑니다. 컴퓨터에서 정보처리를 이런 식으로 합니다. 신지식과 구지식이 막 들어오면 확장되면 큰일나죠. 용량이 제한되어 있는데 계속 늘어나기만 하면 구지식을 덮어버립니다. 신지식으로... 컴퓨터 메모리가 이런 처리를 합니다. 우리의 두뇌도 용량이 한계가 있잖아요. 계속 늘려 나가실거예요. 구지식은 그냥 두고 신지식을 계속.. 그게 아니라는 거죠. 구지식을 덮어버린다는 거죠. 덮어 쓴다. 지식의 결합을 통해서 새로운 지식이 만들어지면 새로운 지식이 구지식이 되고 새로운 지식이 또 들어와서 또 구지식이 된다.

우리의 목표는 막 들어온 것을 체계로 만듭니다. 초등학교 때까지는 공부를 잘했어요. 중학교 가니깐 막 헤매요. 이것이 왜 그러냐면,,,, 초등학생 때는 책이 몇 권 안되요. 그래서 책장이 없어도 정리가 되요. 찾을 수 있어요. 중학교 가면서는 갑자기 책이 많아집니다. 그러면 뭐가 필요할까요. 당연히 책장이 필요하죠. 초등학생때는 책장이 없어도 책을 찾을 수가 있는데 중학교는 책장이 없으면 바로 못찾아요.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가보시면 목사님 서재가시면 책장 없으면 책을 찾으실 수 있을까요? 안됩니다. 그래서 사고, 생각, 두뇌의 이러한 책장을 만들어야 합니다. 책장을 두뇌 속에 피지컬한 실질적인 책장도 중요하지만, 논리적인 두뇌 속에 책장이 없이는 앞으로 새로운 책을 답을 방법이 없어요. 답아도 찾지 못합니다. 그 책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너무 섞여있어서 그래서 생각의 정리함이라고 이것을 만들어된다. 공부할 때까지 이 책장은 계속 확장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만들까요? 책이나, 정보, 생각이라고 하시죠. 이렇게 복잡해요. 크면 클수록 알면 알수록 복잡해져요. 가지가 책장의 칸이다. 분리함을 갖고 있느냐. 분리할 책장이 있느냐... 얘기입니다. 논리적이지만 아날로그에서는 어렵다. 디지털에서는 쉽다. 소프트웨어로 하면 굉장히 쉽다. 손으로 그리려면 안 그리는게 낫다. 너무 힘들어서...

이 부분에서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 어른들은 아날로그 세대라고 해도 되죠. 하지만 다음 세대는 분명히 디지털 세대라고 우리도 인정하고 본인들도 인정합니다. 왜 공부를 아날로그적 방식으로만 하라고 하세요? 디지털세대인데...제가 중학교 교장 지인하고 만나서 집에가서 컴퓨터로 작업하게 하면 안되냐고 물으니 부모가 말린대요. 게임한다고.... 컴퓨터를 하면 게임한다고 집에서는 못쓰게 한다고... 컴퓨터 갖고 공부한다는 것을 상상하지 마라. 책상위에서 책만 읽어라... 책상 위에서 노트만 정리해라. 저도 노트를 손으로 쓰라고 하면 그렇게 힘든데 아이들은 쉽겠습니까...

어른들에게 향한 메시지입니다. 회개하셔야 합니다. 디지털 세대는 디지털적 접근을 하셔야 합니다. 디지털 세대에게 아날로그적 접근을 해버리니깐 답이 없는거예요. 계속 어려운 것을 너도 해.. 나도 겪었으니깐.... 너도 겪어.. 이 얘기랑 똑같습니다. 패러다임을 한 번은 넘으셔야 합니다. 디지털 세대를 향한 우리가 해줘야 하는 뭔가에 대해서 심도 있게 서로 협의해야 합니다. 자녀 분들과 부모과 정말로 컴퓨터만 있으면 게임만 하지.. 왜? 카운트가 나오기깐...공부는 카운트가 안 나오니깐 재미없어서 안 하죠. 공부가 컴퓨터로 했을 때 재미있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면 되는 겁니다.

구조적 노트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필기는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전화하는 것입니다. 기억이 보이도록 하는 것이 필기입니다. 기억은 암기해야 할 자극이 오면 필기를 하면 부호화해서 단기기억에 넣고 일부는 장기기억으로 이전시킵니다. 단기기억은 잊어버리는 기억이고 장기기억은 안잊어버리는 기억입니다. 나중에 정보가 필요할 때 꺼내는 활동을 하는데 정보에서 필기를 통해서 꺼내집니다. 노트는 새로운 지식과 과거 지식을 연계해서 장기기억 속에 저장합니다. 노트필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가르치고 계신 겁니다. 노트를 해라. 시험 볼 때 족보 만드는 거를 보라. 그럼 공부가 된다. 시험보기 전에 많이 하셨잖아요. 족보 만드는 것들...그것이 실제로 공부가 됐던 것입니다.

노트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메이킹노트, 테이킹노트 내 생각을 쓰는 것은 메이킹노트, 선생님 말이나 다른 사람의 말을 받아쓰는 것을 테이킹노트 메이킹노트는 내 생각을 바로 쓰는 것, 테이킹노트는 다른 사람의 말을 받아쓰는 것. 내 생각과 남의 생각의 결합에 의해서 지식이 확장된다. 두뇌 세포에서도 결합이고, 결합에 의해서 지식이 확장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메이킹노트와 테이킹노트의 결합이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내 생각을 받아써서 두뇌의 신경하고 남의 생각을 결합 시켜서 늘어나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메이킹노트 테이킹노트 구분을 잘하시구요, 옛날 우리 책에 갈매기 표시 하셨던 것은 메이킹노트 하신거구요, 성경책 옆에 여백에 쓰시는 것은 메이킹노트 하시는 것입니다. 활자는 테이킹노트 되어 있는 거구요.

필기법에는 세 종류가 있습니다. 기존의 우리가 이제까지 쪽 써내려 가는거를 직선식 필기법 여태까지 배운게 직선식 필기법 이것을 Writing 쓰다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오늘 선을 보여드릴 것은 방사형 필기법입니다. 구조적 사고를 뒷받침 합니다.

직선식 필기법은 순차적인데, 그것을 도와주는 소프트웨어가 워드프로세서구요, 방사형필기법을 도와주는 소프트웨어가 마인드프로세서입니다. 직선식필기법이나 방사형필기법은 노트에다가 그냥 하시면 되는데 소프트웨어를 쓰실 때는 아래 한글이나 MS워드 작성하시면 됩니다.

마인드프로세서는 오늘 ThinkWise라는 것을 보여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마인드프로세서 중에 하나. 직선식 필기법은 도트프린터에서만 가능했고 다른 것은 안됐어요. 지금 레이저프린터에는 컬러도 되고 사진도 나오는데 왜 도트프린터에만 머물러 계시냐... 왜 아래아한글이 끝으로 알고 계시냐...그것도 발전했을 거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거 아니냐.. 아래아한글 다음도 있을거라고, 과학기술이고 소프트웨어기술이 니깐. 아래아한글이 나온지 30년 정도 됐겠네요. 그러고 가만히 있었겠냐구요,

오늘은 마인드프로세서 ThinkWise에 대해서 소개를 좀 더 드릴겁니다. 직선식필기법은 전문가라고 생각해서 설명을 안드립니다. 대학 노트에 선에 꼭 맞춰 쓰는거 그런데 이것에 빠진 것이 있다면 어떻게 중요한 말인지를 찾아야 해요. 중요한 단어를 전체를 기억하기에는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쓰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려요. 읽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려요. 핵심단어를 모르니깐 여기다가 빨간펜, 노란펜으로 두뇌에 다 창조적인 자극을 주려고 노력했던 것입니다. 암기하려고 그런 결여가 되는 내용이 있어서 조금 보완해야 한다.

그래프와 차트를 표현하는 방법은 회화형필기법이라고 한다.

오늘은 주로 방사형필기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직선식필기법과 방사형필기법을 함께 쓰시라. 직선식필기법만 쓰지 마시고 방사형만 쓰지 마시고 두 가지를 혼용하셔라. 가지로 표현되어 나가는 것을 방사형필기법이라고 합니다. 선을 넣어서 구조를 같게 하는 훈련이 필요하다. 구조를 인식하는 사고훈련, 이것은 학생들도 필요하고 어른들도 필요합니다. 직선식으로 꼭 메모하지 마시구요, 나열만 하셔가지고는 관계를 모른다니까요. 관계를 새로 파악하셔야 합니다. 방사형필기법에서는 쉽게 관계가 표현됩니다. 회사의 조직도, 사장, 중역, 부장, 차장, 이사 이 선을 보면 다 아는 것입니다. 설명이 없더라도.. 밑에 세명이 있구나.. 여기에는 두명이 있구나.. 여기에는 한명이 있구나. 이렇게 관계만 보면 다 아는 거예요. 우리가 조직도를 그릴 때 선을 놓잖아요. 하위가 어디인지를 설명없이도 딱 아는 거예요. 조직도 일을 이렇게 나눠보세요.

공부를 이렇게 하도록 해줘 보세요. 정리를 이 방식으로 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척척 보여요.

꼭 써서 직선식으로 보게 하지마시고 공부를 방사형으로 보게 하면 좌우가 뭔지 상하가 뭔지 다 관계 파악이 됩니다. 구조의 대한 인식 이것이 선으로 표현되고 가지로 표현이 된다. 다 아시는 것인데 설명을 이렇게 하니깐 아시는 거예요. 제가 없던 것을 만들어 낸 것도 아니고, 설명만 다시 할 뿐입니다.

학생들한테 숙제를 하나 줄게요. 부모님과 함께 우리가족 가계도를 선을 넣어 한 번 만들어 보세요. 증조, 고조, 친가, 외가 선을 넣어서 이름을 다 알게해주고 사촌을 알

게 해주세요. 이것은 과제입니다. 이것이 구조를 파악하는 첫 걸음입니다. 구조가 뭔지... 체계가 뭔지... 위계가 뭔지... 관계가 뭔지...를 요즘 애들이 모를 수 있는데, 가계도를 정리하셔서 한 번 남겨주세요. 저는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물어볼 사람도 없어요. 옛날 족보를 봐도 모르겠고, 옛날 족보는 이런 식도 아니고 가계도를 꼭 제가 오프라인에서는 학생들에게 실습으로 과제로 했던 것입니다. 뿌리찾기, 뿌리를 그려내시면 좋겠습니다.

방사형은 중심에서 사방으로, 가지 형태로, 말단이라는 것은 끝을 더 추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뒤애가 얼마든지 열려있다. 하지만 한글은 닫혀있다. 더 추가할 수가 없다. 성경책 및 끝에다가 뭘 더 추가하실 수 있나요? 힘들어요. 행간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하지만 방사형은 말단이 다 열려있다. 구조가 포함되어 있다. 장점은 메이킹노트와 테이킹노트를 표현하기가 너무 좋다. 직선식에서는 갈매기 밖에 안된다. 두뇌친화적이다. 두뇌는 연결과 결합으로 정보처리를 하기때문에..

조감적사고, 논리적사고 조감적사고는 전체를 한 눈에 보도록 높은 산에서 보는 개념입니다.

비행기를 타고 지형지물이 보이는, 높은 곳에서 봐야 지형지물이 보입니다. 지상에서는 지형지물을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조감적사고, 전체를 보는 사고를 훈련을 시키는 것입니다. 방사형 필기법은..논리적사고는 쪼개는 훈련을 시키는 것입니다.

movie 다음에 뭐로 나눌까요? 코미디영화, SF영화 등으로 다 나눌 수 있겠죠. 논리적 사고 훈련을 방사형 필기법이 도와준다.

영상하나 보시고 가겠습니다. 공부의 신이라는 드라마입니다. 일부 편집해서 보여드렸습니다.

구조화 필기법으로 9등급에서 1등급으로 조선일보에서 예전에 나왔던 기사입니다. 구조화 필기법.. 그런데 저는 구조적 필기법으로 바꿨습니다. 구조화가 아닌 구조적으로 써야합니다. 마인드맵이 한 때 유행했던 시절 제가 지금 마인드맵을 설명드리고 있지 않습니다. 방사형필기법을 설명드립니다. 왜 구분해야 하나면요, 마인드맵은 옛날 포니 얘기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포니 시절, 새마을 자동차 얘기를 생각하는거라, 생각이 거기서 끝납니다.

지도로 그려라. 그것이 중요합니다. 저희 훈련생 중에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 바로 구조적으로 쓸 수 있도록 훈련된 친구가 있습니다. 이것이 굉장한 스킬이거든요, 언어를 듣고 말을 듣고 구조적으로 표현한다. 사고에서 두뇌에서 구조화가 다 일어나는 것입니다. 재구성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렇게 훈련되시기를 사실은 소망합니다. 시간이 걸릴거구요. 이런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소프트웨어를 쓰게 되면 구조로 나가는 개념으로 노트 필기를 하셔라. 1, 1.1, 1.1.1..... 이것이 선행되었으면 좋겠다.

소프트웨어도 중요하지만 생각을 쓸 때 앞에 단락번호를 꼭 좀 쓰는 훈련을 먼저 좀 하시면 좋겠다. 1, 1.1, 1.1.1..... 구분져서 생각하도록 노트필기 훈련이 되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스킬입니다. 이론이고 방법이고 스킬얘기인데요, 다음에는 툴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디지털적으로 지금까지 말씀드린게 아날로그적 해결책이라면 다음 차시에는 디지털적 해결방안을 제시해 드릴겁니다. 그것이 합쳐져야 여러분이 원하는 쉽고, 편하고, 빠르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그냥 맨몸으로 해라는 구닥다리 생각입니다. 도구가 있으면 도구를 사용해야 합니다. 도구 쓰는 것에 대한 부담을 느끼실 필요가 없습니다. 도구는 쓰라고 만들어진 것입니다. 하나님도 쓰라고 만들어진 것이지 쓰지 말라고 만들어진 도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는 스킬, 방법, 이론, 배경, 취지 이런 설명을 다 드렸구요, 2차시에는 도구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실제 사례 쪽으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ThinkWise라는 소프트웨어를 소개해 드릴건데요, 생각을 지혜롭게 한다라는 제품명 자체에 아예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생각을 지혜롭게 하는 소프트웨어다. 개발된지는 20년 된 소프트웨어입니다. 기업에서는 많이 쓰고 있는 소프트웨어입니다. 국산 토종 소프트웨어입니다. 제가 목회자님들과 선교사님들에게 소개를 드려서 이것으로 노트 정리도 하시고 사역 계획도 잡으시고 설교문도 만드시라고 요즘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ThinkWise 소개를 간단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로 해드려도 잘 이해가 안되실테니 ThinkWise 소개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사용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방사항필기법을 그대로 지원하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메이킹노트, 테이킹노트를 지원하고 두뇌 친화적으로 된다. 조감적사고가 지원되고, 논리적사고를 훈련시킨다. 방사항필기법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여기까지 ThinkWise 소개를 드린걸로 하구요, 사용하는 사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참 잘그렸습니다. 전문가가 그랬겠죠? 학생이 이렇게 그리면 굉장히 실력이 있는거지요. 그런데 공부라는게 뭐냐면요, 이것을 보는게 공부가 아니구요, 이것을 만들 때 공부가 된다는 것입니다. 만들 때 기억이 작동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겁니다. 남들이 만든 것을 보는게 공부도 되겠지만, 만들 때 훨씬 큰 공부가 된다. 요약된 것을 보는 것도 좋지만, 자기가 작성할 때 엄청난 효과가 있다. 이것은 간증입니다. 제가 실제로 공부하는게 재미있고 좋아졌으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작성할 때 하나하나 정리하면서 다 기억으로 넘어가는거죠. 끝에는 노트가 되는 거죠. 이것을 보고 시험을 보면 이 과목 나올 때 100점이에요. 이것을 시험보기 직전에 눈으로 찰칵 찍고 시험을 보면 이것이 나오면 100점 이예요. 다 기억이 됩니다. 실제입니다.

노트 정리, 디지털 정리 도구이다. 디지털만 신경쓰지 마시고, 이제는 학생들이나 본인도 디지털 노트를 준비하셔야. 이 자료는 자세히 보실 수 있도록 pdf로 제가 공유해드릴 수 있습니다. ThinkWise를 쓰라고... 알겠어. 다음에는 어떻게라는게 남습니다. 제가 이제부터는 프로세스를 설명드립니다. 공부하는 방법을... 지금까지는 도구와 스킬을 얘기했는데 이제는 방법을 말씀드리는데입니다. 실제 핵심은 이것입니다.

RWMP학습법이라는 것을 잘 이해하시면 됩니다. 읽고 정리를 해요. ThinkWise로 정리를 짰 한 다음에 또 보면서 수기로 첨삭을 해요. 이것을 추가해서 다시 또 만들어요. 맵핑을 손으로 쓴 것을 여기다가 추가해서 신지식이 된 거예요. 이것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내가 쓴 것을 추가해서 다시 만들고 출력하고 이렇게 해서 또 추가하면 지식의 확장이 일어난다. 지식의 확장이 나중에 필기하고 정리하고 출력하고 추가해서 다시 맵핑하고 출력하는 것을 반복하는 겁니다. 엄청나게 늘어 나는게 보입니다. 확장 되는게 보입니다. 시각적으로 늘어나는게 성장하는게 보이므로 내용을 더 넣구 싶어져요. 더 채우고 싶어져요. 사람 심리전입니다. 그래서 아까 늘어가는게 카운터가 안보인다는게 노트필기가 난 키워보신 분은 알겠지만, 난이 조금씩 크지만 크는거 보고 성취감이 생기신다고 하더라구요, 똑같습니다. 맵을 처음에는 빈약하게 시작했으나, 지식을 자꾸 아는 것을 채워서 키우는 겁니다.

이 맵 하나가 벽돌 하나, 블록 하나입니다. 이 맵이 구조 속에 다 쓰여져서 학습이라는 건축물이 되는 겁니다. 맵 하나에 모든 집을 다 짓는 것이 아니라 맵 하나 하나가 수 십개, 수 백개, 수 천개가 모여서 건물이 일어나는 겁니다. 나중에 학습 수행평가 할 때 제본해서 제출하면 합격이라고 하더라구요. 공부한 이력이 남아있으니깐. 공부한 이력이 보여요. 수행평가관이 알아요. 아, 애가 장난이 아니었네. 이 손으로 쓴 거 진짜 공부했다고 보이거든요. 자기의 이력도 되고, 자기가 보관함으로써 공부한 히스토리를 자기 눈으로 자기가 볼 수 있어요. 그것이 뭐냐... 자기가 공부한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을 다른 과정에서 다룹니다만은, 메타인지입니다. 내가 아는 것을 내가 아는거예요. 나를 내가 보는 것을 메타인지라고 그래요. 삼자적으로 보는거...

이것이 기록의 힘입니다. 기록을 해야만 나를 볼 수 있어요. 머릿속에 있는 것은 나를 볼 수 없습니다. 보여야 나를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도와주는 쉽게 표현된다는 것을 이따 보여드릴게요. 여기에 필요한 것은 연습, 복습, 노트필기할 때 쓰는 과정이구요, ThinkWise를 추가하셔서 노트필기에 적용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것을 반복하는 겁니다. 연습해서 맵핑하고 복습에서 추가하고 맵핑으로 다시 정리해서 출력하고, 이것이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쉽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재미있습니다. 우선해보면 아이들에게는 딱입니다. 제가 다 임상실험 한 겁니다. 그렇게 하셔도 아무 문제없습니다. 리스크가 없다는 얘기에요. 이것은 조금 있다가 보여드리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ThinkWise로 스토리보드를 만들어서 진행했습니다. 소개했고, 브레인정보기수, 구조, 게임, 이론, 노트, 필기, ThinkWise, 사례, 학습법까지 보여드렸습니다. 이렇게하면 전체가 다 보이죠?

ThinkWise로 가겠습니다. 준비해 놨습니다. 다른 것은 숨깁니다. 지금 이 과정을 보여드렸습니다. 접기를 클릭하면 큰 것만.. 이것이 숲입니다. 학습이론에서 숲 이것은 나무 한글이나 엑셀 파워포인트에서 이런 기능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1교시 끝났어요.

맵으로 된 것을 보여 드릴게요. 전체를 봐야 한다는 것을 말씀 드렸잖아요. 전체, 조감, 또 그것이 설계도예요. 설계도는 스테디플래너 내가 공부를 어떻게 해 나갈거야 라는 계획서를 학교에서 작성하라고 수첩으로 만들어서 줘요. 다이어리로 주는 학교도 있어요. 그것은 아날로그이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해요. 디지털로 된 것을 한 번 보여 드릴게요. 이곳에 공부할 것을 맘대로 치시라 이거예요. 내가 원하는대로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가지가 나옵니다. 스페이스바 누르고 내용치고 엔터 이것이 기본동작입니다. 이것은 5주차에서 해야겠네. 이렇게 하시면 이동이 됩니다. 추가, 이동이 쉽습니다. 표현도 쉽습니다. 문법 따질 일이 없습니다. 논리를 따지는 것은 보면서 따지면 됩니다. 그래서 같이 사역하시는 분들한테 계속 교육 받아라 구입해라 이렇게 해 주시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추가, 이동, 삭제를 통해서 유연하다 전체를 봤다가 부분을 봤다가 추가했다 이동했다 삭제했다 이것이 쉽기 때문에 우리 다음 세대는 타이핑이 더 빠릅니다. 손으로 쓰는 것보다 손으로 쓰는 것보다 타이핑하는게 더 좋은 세대입니다. 인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키보드를 빨리치면 나중에 선수가 돼서 취업이 잘 됩니다.

자기의 학습계획을 세워라. 학습 설계를 해라. 내가 어떻게 공부할지를 어떻게 집을 지어 나갈지를 설계도를 만들어서 네가 하나하나 블록을 쌓아 나가라. 성취되었을 때 표시를 하는 겁니다. 자기가 본인을 컨트롤 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컨트롤 할 수 있게하라. 그것이 자기주도학습입니다. 부모지도학습이 아니라 교사지도학습이 아니라 평생 공부해야 하잖아요. 평생 지금은 학교 때만 공부하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자기 스스로 공부하는 계획을 세우게하고 그것을 이행했으면 또 의견을 달 수도 있는거죠.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표현할 수가 있는거죠. 스테디플래너를 학습설계도로 활용하셔라. 설계도는 전체를 보게 하는 것이다.

학습 지도 내가 과거를 알고 미래를 알고 싶으면 미리 선배를 책을 빌려서 엄마가 만들어주세요. 미리 선배들 책을 빌려다가 목차로 만들어주세요. 목차만 가지고도 만들 수 있습니다.

목차 맵 금방 만들어져요. 책의 목차를 가지고 만드는 것이 지도예요. 학습지도예요. 학생들은 책의 목차를 건너뛴다고요, 별거 없는 줄 알고 내용만 보려고 달려들

지 구조를 볼려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학생들 자체가 목차를 중시 여겨야 해요. 학생들은 절대 목차를 다 외워야 해요. 목차를 외우고 내용을 보면 되요. 내용만 외울려고 하다보니 연결이 못짓는 거예요. 어디하고 연결된 건지 몰라요. 구조를 모르니까....꼭 목차를 중요시하는 습관. 이것은 엄마가 만들어 주실 수 있다. 비타민C하고, 사과만 깎아주고 공부 열심히 하라고 하지 말고 옆에서 목차 맵을 과목별로 만들어주세요. 그러면 학생이 목차만 딱 보면 내가 지금 여기를 하고 있구나 앞으로 배울게 이런거구나라는 것을 눈으로 보면..우리가 지도를 보면 벌써 다 간 것처럼 상상이 되잖아요. 두뇌는 그렇게 인식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빠른 슈퍼컴퓨터도 우리의 두뇌를 따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의 정보처리 영역은 아주 불가사의한 겁니다.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학습지도 꼭 만들어 주셔라. 일러스트 이것은 제가 사업용으로 만든 것입니다. 중1수학을 그림으로 그린 것입니다. 설계도는 전체, 지도는 앞을 늘어나는 확장은 노트에서 보는 겁니다. 내가 안 쓴 것은 모르는 것이고 쓴 것은 아는 거예요. 알고 모르고가 명쾌해집니다. 아는 만큼 쓰면 아는 만큼 작성하면 아는 만큼은 보이고 모르는 것은 안보입니다. 늘어나는 카운트로 노트는 카운트로 해결해라. 설계도를 이용해라. 지도를 이용해라. 노트를 이용해라.

제가 장로고시 시험볼 때 적용했던 노트입니다. 장로고시를 이렇게 해서 올 A를 맞았습니다. 학생들에게는 개념 잡기로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것은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기억은 되지만 만들면서 공부되다. 디지털노트에 대해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빨리 지나가면 중요한 것이 보이더라구요. 바둑판에 화점이 보인다고 하나요. 맥이 보인다. 경험적으로 많이 출력해 놓고 실제로 이것은 저희 친척인데, 중학교 공부를 안하고 실업고등학교를 갔는데, 특혜를 공대를 갔는데, 수학을 몰라요. 친척이 부탁을 하길래 저희 사무실에 한달을 출근을 시켜서 수학을 그러라. 개념을 잡아서 학교를 졸업할 수 있게 해 줘서 고맙다고.. 그리는 것만으로도 개념이 잡혀간다.

평생 무료로 쓸 수 있는 곳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것이 아니고 여기 있으니 가져다 쓰세요. 개발사 홈페이지를 가셔서 <http://thinkwise.co.kr> 이라는 도메인에 가셔서 구매 신규구매 Base는 무료 다운받아서 쓰시면 평생 쓰실 수 있습니다. 기능 제한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3개월짜리 최고 좋은 버전을 드리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설계도는 플래너로 전체를 보는 것은 플래너 학습계획을 짜봐라 내가 공부할 계획을 짜봐라

다 ThinkWise로 쓰는 것입니다. 학습지도는 목차를 활용해서 만들어줘라. 노트로 정리를 하도록 훈련을 시키시구요, 학습은 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말씀 드렸습니다. 반복에 의해서 숙지가 되도록 이 영상은 제가 바라고 있는 이미지입니다. 다음 세대들에게 무장을 시켜서 정말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다음 세대가 충분히

히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스킬과 툴을 안내해서 무장했으면 좋겠다. 이 강의를 들으시는 어르신들도 무장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셨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로봇하고는 틀립니다. 로봇은 순수 다 기계이지만, 하지만 이것은 사람을 보강한 것입니다. 개념이 다릅니다. 사람을 보강하면 된다. 전신갑수라고 생각하구요, 우린 하나님의 뺨도 있고 하나님의 배경도 있기 때문에 더 강력해 질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성심교회를 나오면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부모님의 바람일 것입니다.

학습기술, 실제로 어떻게 실행해야 하는지 습관화하는 것은 다른 문제지만, 제가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항상 3P, 3T를 학생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열정을 가져라,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죠.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여라. 과거를 고집하지 마라. 그것이 전부 아니고 지금 기술도 나중에는 아무것도 아닐 수 있지만 새로운 기술을 자꾸 받아들여라. 관점을 바꿔라. 공부가 뭐냐.. input, porcess, output이다. 정보를 처리하는 것이다. 내가 두뇌가 정보처리를 잘하도록 도구를 쓰고 스킬을 가지면 된다. 막연하게 생각하지 마라. 공부를 추상적으로 생각하지 마라. 정보처리하는 것이다. 컴퓨터가 정보처리를 하듯이 두뇌가 정보처리하는게 공부다. 그것을 기술로 도구로 활용하면 더 효과적이 된다. 이것이 3P입니다.

오늘 제가 소프트웨어 도구를 드렸어요. 제가 드렸으면 사용법은 누가 배워야하죠? 본인들이 배워야죠. 차를 쫓으면 운전은 누가해요? 내가 하든지 기사를 쓰든지 둘 중에 하나죠. 기사를 쓰려면 문 여는 법 정도는 알아야죠. 그런데 정비까지 하려면 면허도 있어야하고 숙달되어야 해요. 도구에서 사용법에서 자기 것까지 될 때까지 시간이 걸리겠죠. 시간을 쓰셔야 합니다. 노력을 하셔야 합니다. 세상에 공짜는 별로 없더라구요. 자기가 알아야 합니다. 생각을 정리한다. 정보를 처리한다. 공부 한다는 것은 두뇌가 하는 똑같은 일입니다. 생각을 보이게 만드는 것이 노트하는게 중요합니다. 기록해야 정리되기 시작하고 기록해야 기억되기 시작합니다. 생각을 시각화시켜 주는 디지털노트가 ThinkWise입니다.

네이버+유튜브=로톡 변호사 홈페이지

공사안내문

아래와 같이 세대 인테리어 공사를 시행하오니 소음 및 진동으로 다소 생활에 불편이 있더라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에 불편을 끼쳐 대단히 죄송합니다.

— 아 래 —

- ◎공사세대 : 132동 2102호
- ◎공사시간 : 오전 9시 ~ 오후 5시
- ◎공사기간 : 9월 17일 ~ 10월 26일
- ◎공사내용 : 샷시 마루 주방 도배 전기 공사 등등
- ◎공사업체명 : 휴플랜 인테리어 (레이크펠리스 상가 A동)
- ◎업체 사무실 연락처 : 02 . 2038 . 7556
- ◎현장 담당자 연락처 : 010 . 5399 . 7794

소음발생 예정일 : 9월 17-18일 철거
21일 샷시철거,시공
24-25일 전기
28-10월8일 목공(추석X)
10월 21일 마루
22-23일 가구시공

레이크펠리스 관리사무소



아래와 같이 세대 인테리어 공사를 시행하오니 소음 및 진동으로 다소 생활에 불편이 있더라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에 불편을 끼쳐 대단히 죄송합니다.

- 아래 -

- ◎ 공사세대 : 132동 2102호
- ◎ 공사시간 : 오전 9시 ~ 오후 5시
- ◎ 공사기간 : 9월 17일 ~ 10월 26일
- ◎ 공사내용 : 샷시 마루 주방 도배 전기 공사 등등
- ◎ 공사업체명 : 휴플랜 인테리어 (레이크팰리스 상가)
- ◎ 업체 사무실 연락처 : 02 . 2038 . 7556
- ◎ 현장 담당자 연락처 : 010 . 5399 . 7794
- ◎ 소음발생 예정일 : 9월 17-18일 철거

21일 샷시철거, 시공

24-25일 전기

28-10월8일 목공 (추석X)

21일 마루

22-23일 가구시공

게시기한 2020.10. 16

레이크팰리스아파트 관리사무소

느헤미아강해

오늘은 Google keep 이라는 메모 앱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구글에서 제공하는 Google keep은 스마트폰 태블릿 컴퓨터 등에 빠르게 생각하는 바를 기록도 할 수 있고 하나의 구글계정으로 공유되는 모든 기기에서 함께 사용도 할 수 있어 정말 편리합니다.

특히 Google keep은 포스트잇처럼 색상별로 메모를 정리하여 깔끔하게 볼 수가 있어서 보기도 참 좋습니다.

Google keep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play 스토어에서 구글 킵 앱을 설치하셔야 합니다.

Google keep 앱 설치가 끝나셨다면 Google keep 앱을 실행시켜 기능을 하나하나 배워 보겠습니다.

먼저 메모 작성 곳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구글 킵에 메모 작성 안 하면 좌측 하단에 있는 메모 작성을 터치 하신 후 자판기가 나오면 메모 입력을 편하게 하시면 됩니다

저장 버튼은 따로 눌러 주지 않으셔도 실시간 자동 저장이 되므로 이 또한 구글 케이 블 필요한 장점 중 하나입니다

google 킵 메모장에는 테스트 위에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메모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화면 자체가 하더니 +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사진 촬영 이미지선택 그림 음성 녹음 박스당 자신이 원하는 메모 형태로 얼마든지 영어로 추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입력되어 있는 메모는 복사 또는 삭제로 가능한데요

입력되어 있는 메모 둘 중 하나를 선택하신후 하면 우측 하단에 점점점을 선택하시게 되면 삭제 만들기 공유 공동작업자 나도 보고 메모지 색상 선택 새로운 10층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서 메모 삭제를 하시든 복사를 하시던 보내기를 통해 공부를 하시던 답을 부부와 메모장 책상을 정하시는 자신만의 스타일로 메모장 만드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답이라 하면 쉽게 말해서 카테고리 물어보시면 되는데요 답변을 터치하여 이름 입력을 통해서 목록을 만들 수도 있으며 또는 메모 입력 시에 단어 앞에 삼을 붙여 목록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화면 우측 상단의 아이콘들을 통해 메모에 종료도 따라서 상단 고정 가 알림 설정도 가능합니다

중요한 메모는 상단 고정 핀 을 통해 상단에 위치한 할 수도 있으며 알림 설정 아이콘을 대체하여 원하는 시간 때 또는 원하는 장소를 정하여 알림 소리를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마트에 간다든지 쇼핑을 하는 경우 원하는 장소에 도착 알림을 설정하시게 되면 알림 메모 를 통해 잊어버리는 물건 없이 물건 국도 가능하겠습니다

그 오늘도 구글 팀은 특별한 검색 기능이 있어 알림 목록 이미지 라벨 색상 분위기에 따라서 검색하는 기능들도 다양하게 있기에 상당히 편리하게 검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글 사용하기에 씻고 필름도 많지만 사진이 포함된 다소 용량이 있는 메모 검색 시에는 다소 버벅거리는 단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깜짝 아이디어나 진행중인 한 번의 간단한 명언 이용하시고 장기간이 보관이 필요하거나 용량이 큰 이모는 일부러 등 다른 애들 사용하시는 것이 괜찮을 듯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주택자 규제를 강화할수록 집값은 오른다

국가원로회 서신 94호 - 국가원로 대국민 호소문 -

■장경순 국가원로회 명예총재를 비롯한 강창희 전 국회의장, 김동길 연세대 명예교수, 노재봉 전 국무총리, 박관용 전 국회의장, 백선엽 전 육군대장, 송월주 전 조계종 총무원장, 엄신형 전 한기총회장, 이계성 대수천대표, 이회창 전 국무총리, 정재호 민족중흥회회장, 정홍원 전 국무총리, 홍일식 전 고대총장 등 13명의 국가원로들은,

금번 4.15 총선을 '자유'를 지키려는 세력과 없애려는 세력의 대결로 규정하고 온 국민이 한 점 후회없는 투표로써 자유를 지켜줄 것을 호소, 향후 '국가원로 원탁회의'를 구성하여 자유보수우파의 구심점의 역할을 할 것으로 국민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는바 다음과 같이 그 호소문의 취지를 알려드립니다.

■존경하는 애국시민 여러분!

국가의 명운을 가름하는 4.15 총선을 앞둔 마당에 감히 우리의 우국충정을 여기에 밝혀 애국동지 여러분들의 동참을 간절히 호소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중국발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생하시는 방역의료진과, 자원봉사단 여러분의 눈물겨운 헌신적 공헌에 대하여 심심한 감사와 함께 따뜻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권재민(主權在民)은 우리 헌법에 명시된 소중한 구심점으로, 4.15 총선의 본 뜻은 우리에게 주어진 국정운영의 허실을 야무지게 던지는 회초리로 어떤 유혹도 뿌리치고 한 점 에누리 없이 마음껏 행사함에 있습니다.

■현 정권은 국민을 분열의 골짜기로 몰아세운 세도정치(勢道政治)입니다. 그 칸막이는 견고하고 지역, 세대, 계층 간의 소통은 절벽입니다. 지금까지 민심은 항아리 깨진 흔적처럼 어지럽게 동강난 분열증후군은 사회기능의 전반적인 하향평균화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역주행과 급발진으로 얼룩진 국정난맥은 상식과 논리를 거부하는 오만과 독선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탈원전, 소득주도성장, 최저임금제 등... 설익은 무개념의 정책을 강제하는 무능의 한계상황을 빚고 있습니다.

여기에 운동권정치 특유의 객기가 함께하니 민주주의 요체인 삼권분립의 성곽마저 허물어진 판세입니다. 법치(法治)가 권력의 노리개로 되었는데 '내로남불'의 잣대가 활개치는 판국입니다.

국가핵심기관의 인맥은 좌편향의 육중한 '이념의 갑옷'으로 장식되었고 제도권 언론매체마저 권력의 심기 살피기에 익숙해졌습니다. 다행히 망명정부의 지하방송 다크 은 꼴인 유튜브의 등장은 비좁고 어두운 이 땅의 언로(言路)로써 그 험준한 틀 속에서 깜박이는 '불꽃'되어 진실에 목말라하는 국민을 위안하고 있습니다.

■ 나라를 걱정하는 국민여러분!

국방은 북핵과 더불어 북의 비대칭 전략에 크게 못미친다는 불편한 진실과 함께 한미동맹은 크게 흔들리고 한일관계도 불안한 상태인데 친중 사대주의 종북노선은 우리의 안보를 더욱 위태하게 하고 있습니다.

경제 또한 망조에 시달려 OECD 국가 중 꼴찌수준으로 추락한 것은 개탄지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는 실로 국치민욕(國恥民辱) 앞에 노출된 우리의 서글픈 자화상입니다.

그뿐아니라 대통령은 보기에 민망스러울 정도로 끊임없이 남북협력을 '구걸' 하지만 김정은은 어김없이 미사일을 발사하고 걸핏하면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짐승에 빗댄 치욕적인 쌍소리를 쏟아냈지만 그런 조롱에 일언(一言)은 고사하고 반구(半句)도 병긋하지 못한바, 대통령의 체통은 나라와 국민의 표상일진데 참을 수 없는 분노를 어찌할 바 모르겠습니다.

이른바 '촛불정신'을 등에 업고 적폐청산 깃발을 치켜세운 문재인 권력의 씹씹이는 헤프고도 고약했습니다. '청산'이란 낱말의 의미는 어느새 '보복'의 동의어로 통하고 말았습니다.

취임사에서 공약했던 '검소한 권력'은 '난폭한 권력'으로 변질되었고 정치보복의 악순환은 '저주의 얼룩'으로 자리잡았습니다. "적폐를 캐고 보니 '신적폐'가 불쑥 나타나더라"는 검찰수사는 청와대 각 방에 걸려있다는 춘풍추상(春風秋霜)의 참뜻을 곱씹어야 할 때라 생각합니다.

■분노의 불기둥을 솟게한 조국(曹國) 사태이후 불거진 청와대의 조직적인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과 일련의 권력남용 혐의 등 대형 의혹사건이 꼬리를 물고 터짐에 좌파정권은 4.15 총선을 앞두고 휘몰아친 중국발 코로나 공포를 선전선동 전술의 무기로 사용하는 치졸함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진핑의 방한에 공들여온 대통령은 방역의 기본인 국경을 원천적으로 폐쇄하라는 방역전문기관의 잇단 제의를 묵살하고 중국과의 공동운명체를 노래함으로써, 조기 방역에 실패하고 코로나를 창궐케한 원죄는 마땅히 문대통령의 몫일 수 밖에 없습니다.

특히 문정권은 집권 초반 '자유'를 삭제한 개헌을 시도한 바 있습니다. 자신을 '사회주의자'라고 자백한 조국도 개헌시한을 언급한 것은 작금에 시도되고 있는 148명의 의원들이 서명한 개헌발안과 맥을 같이한다 할 것인바, 이는 대한민국이 급속히 사회주의의 길목으로 진입할 것이라는 분명한 신호입니다.

■거기에 더하여 '공돈주면 죽은 자도 춤춘다.'는 속담을 현실화 하는데 성공함으로써 국민여러분들의 마음의 행로를 혼미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코로나 태풍이 몰고온 돈다발 선풍이 선거판의 핫이슈를 깡그리 삼켜버린 것입니다.

헬리콥터 머니(Helicopter money)라는 말이 있습니다. 조만간 집집마다 재난 긴급 지원금이 전달될 예정입니다. 코로나를 빙자하여 뿌려지는 돈다발은 결코 공돈이 아닙니다. 돈으로 대표하려는 망국적인 수작입니다. 잘 살펴 요긴하게 쓰셔야 할 것입니다.

■친애하는 내외동포 여러분!

결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집요한 좌파 바이러스는 두려워 하는 자를 노립니다. 가슴을 활짝 열고 한 점 후회없는 애국의 투표권을 행사함으로 자유를 굳건히 지켜 나아 가십시오. 동포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020년 4월 9일

자유대한민국을 지킵시다 우리는 이깁니다!

당신의 회의, 안녕하십니까? : 네이버 블로그

[뉴스앤조이-최승현 기자] 흔히 '교회가 편의점보다도 많다'는 소리를 한다. 한 블록에 한 개씩은 꼭 보이는 교회 간판, 어떤 곳은 아파트 상가 한 곳에 여러 교회가 공존하기도 한다. 도시 야경을 떠올리면 자연스럽게 네온사인 십자가가 떠오른다.

 HTML Content

 HTML Content

 HTML Content

<뉴스앤조이>는 빅데이터를 정리해 전국 기독교 단체 수를 정리해 봤다. 이는 '뉴스타파'의 데이터저널리즘스쿨 강의를 토대로, 통계청이 매년 발표하는 전국 사업체 조사(2014)와 인구총조사(2015) 통계를 참조해 구성한 것이다. 교회를 포함해 선교 단체, 기도원 등 기독교 유관 단체를 모두 포함하는 것이므로 실제 교회 수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통계청의 2014년 전국 사업체 조사 발표 결과를 보면, 한국의 기독교 단체(교회 및 선교 단체, 기도원 등 기독교 유관 기관) 수는 5만 5,767개다. 같은 기간 조사한 주요 업종 중 편의점과 김밥 등 분식 전문점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독교 단체는 주로 수도권 지역에 밀집돼 있다. 서울(8,000여 개), 경기(1만 3,000여 개), 인천(3,600개)에 총 2만 4,000여 개가 몰려 있다. 전국 기독교 단체의 40%가 서울과 경기 지역에 있는 것이다.

다만 인구 수와 기독교 단체 수가 정비례하는 것은 아니었다. 서울과 경기도에 이어 전남과 전북 지역에 교회가 가장 많았다. 농어촌과 도서 지역에도 비교적 높은 수치가 나오는데, 이는 지역 간 이동이 어려워 마을마다 교회가 하나씩 생긴 것으로 풀이된다. 신안군의 경우 198명당 1개꼴로, 울릉군의 경우 240명당 1개꼴로 교회가 있었다. 대형 교회가 많고, 지역 간 이동이 편리한 수도권과 대도시가 인구 대비 기독교 단체 수가 적다. 부산 부산진구가 2,188명당 1개, 서울 강남구가 1,812명당 1개 꼴로 있었다.

교회는 대부분 규모가 영세한 곳들이 대부분이었다. 직원이 10명 미만인 교회가 5만 4,000여 개로 절대다수를 차지했다. 그중 직원이 1~4명인 곳은 5만 2,000개였다. 대형 교회 수도 짐작해 볼 수 있다. 직원이 300~500명인 기독교 단체는, 서울 용산구와 구로구에 한 곳씩 있었다. 위치상 온누리교회(이재훈 목사)와 연세중앙교회(윤

석전 목사)로 추정된다. 직원이 100~300명 규모인 곳은 서울 서초구(사랑의교회), 강동구(명성교회), 영등포구(여의도순복음교회)와 부산 해운대구(수영로교회), 경기 성남시 등 총 11곳이 있었다.

단체 대표자들은 대부분 50대 이상으로 구성돼 있었다. 50대가 대표로 등록된 곳이 2만 5,000여 개, 60대 이상이 대표로 등록된 곳이 1만 6,000개다. 50대 이상 대표자인 교회가 4만 1,000개였다. 30대가 대표자인 교회는 전국 1,500개에 불과했다.

교회 내 여성의 위치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지표도 있다. 전국 5만 5,000개 교회에는 담임자, 부목사, 전도사, 직원 등 총 11만 명의 종사자가 있다. 그러나 이 중 여성 비율은 30%에 미치지 못한다. 이 수치는 교회 내 여성 직원까지 포함하는 수치이기 때문에 목회자 비율은 더 낮을 것으로 추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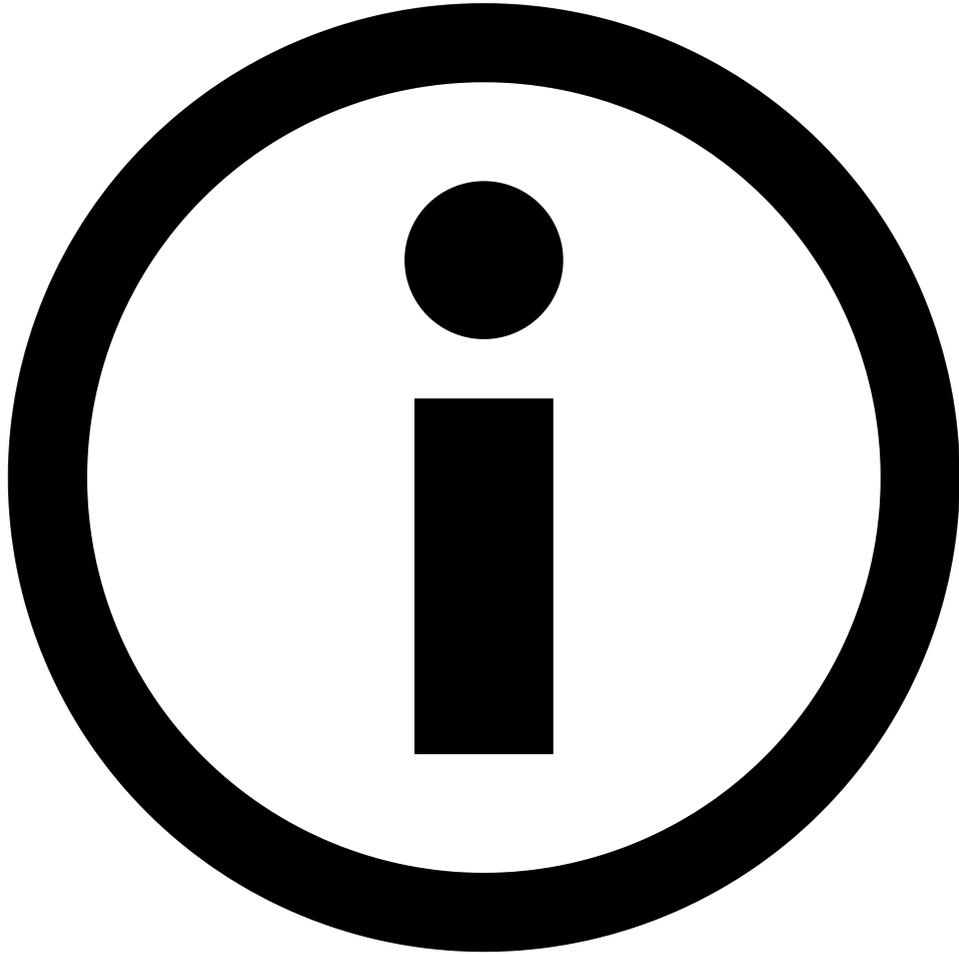
5만 5,000여 개 기독교 단체 중 여성이 대표자로 등록된 곳은 6,000여 개, 10%를 약간 넘는 정도였다.

저작권자 © 뉴스앤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승현](#)

[다른기사 보기](#)

SNS 기사보내기



 HTML Content

 HTML Content

 HTML Content

대표기도.20210307

꼭 인체 내부 영상 다보시고 건강할 때 건강관리 해야쥬-

1.간. 내몸보기.

<https://www.youtube.com/watch?v=KmZcv1PMZRo>

2. 취장. 내몸보기.

<https://www.youtube.com/watch?v=gYY1FkEraOM>

3.대장. 내몸보기.

<https://www.youtube.com/watch?v=vWso599T7LM&feature=youtu.be>

4.발,발건강공유

<https://band.us/n/a8a510d7P2f8Z>

<https://band.us/n/a8a510d7P2f8Z>

5.위. 내몸보기.

https://www.youtube.com/watch?v=0b0g_I9odxQ

6.신장. 내몸보기.

<https://www.youtube.com/watch?v=XOMbctuVm8E>

7.신장방광. 내몸보기.

<https://www.youtube.com/watch?v=tr02M54S0d0>

8.전립선. 내몸보기.

https://www.youtube.com/watch?v=pt2l_hoCCkA

9 · 대박 웃음 ㅎ

<https://m.youtube.com/watch?v=1mhLiqSzxZs>

10, 건강 정보 공유

<https://band.us/n/a5a113a5UaZ0o>

<https://band.us/n/a5a113a5UaZ0o>

11.영상 보기

<https://tv.naver.com/v/11495965>

13,초대합니다

<https://band.us/n/a3a729N8vftfg>

유익한 정보입니다. 공유 하세요 ^^ ^♡^

디지털 글쓰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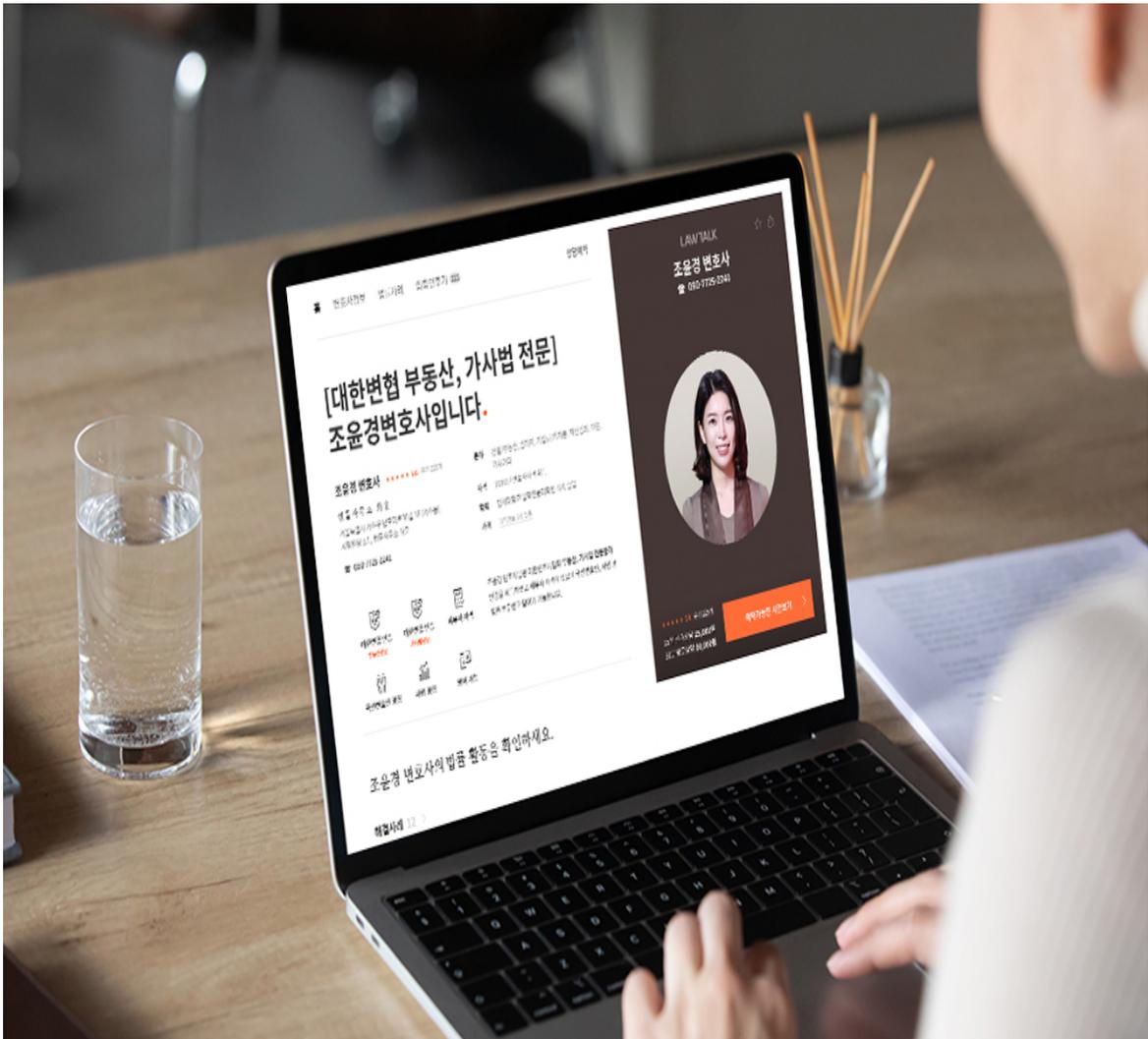
🌐 Web Clip



1. 내 홈페이지를 차별화하려면?

주요 포털 사이트에 변호사를 검색하면 수많은 검색 결과가 나옵니다. 검색 결과를 클릭하면 대부분 변호사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그렇다면 홈페이지에 어떤 내용을 담아야 의뢰인의 눈길을 끌 수 있을까요?

수많은 변호사 사이에서 나만의 '차별점'을 어필해야 의뢰인의 눈길을 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차별점이 모여 고유의 정체성을 만드는 것이 '브랜딩'입니다. 실제로 전문 분야에 대해 알기 쉽고 재밌게 설명하는 콘텐츠나, 인간적인 매력을 어필하는 콘텐츠로 '변호사 개인의 브랜드 구축'에 성공한 변호사님은 마케팅 비용 대비 높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기존의 변호사 홈페이지는 이런 개성을 담아내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비용이나 인력 등의 문제로 홈페이지 유지 보수가 어렵고 톤앤매너의 유연성이 없기 때문 입니다. 혹시 이런 이유로 홈페이지 따로, 블로그 따로 운영하고 계시나요? 그렇다면 로톡 홈페이지가 꼭 필요하신 분입니다.

2. 네이버와 유튜브의 장점을 담은 로톡 변호사 홈페이지

로톡 변호사 홈페이지는 다양한 콘텐츠를 의뢰인에게 효과적으로 보여주며 변호사님의 매력을 다각도로 알릴 수 있는 공간입니다.

LAWTALK

변호사 찾기

상담사례

포스트

동영상

공지사항

친구초대

자주 묻는 질문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상담사례

명예훼손/모욕

인터넷기사 댓글 모욕죄 성립에 대한 질문입니다

답변 박근하 변호사

1. 모욕죄의 성립여부는 공연성이라는 부분에 해당되어야만이 형사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을 뿐입니다. 2. 공연성이 라는 것은 다수인이 인식을 할 수 있는 상태에 해당이 되어야 하나, 위 질의는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안으로 보여집...

포스트



법률가이드

명의신탁 주식에 대한 세무 실무(1)

1. 명의 가지 이유로 주식의 실제 권리가 이남에도 정실 상속주도 등자가 된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 무형의 자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위임하는 것을 뜻하는 '중역'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이러한 중역에 해당하지 않지...

동영상



[100초 법률상담] 지식인데 재산상속해주시 않았을 경우, 유류분 받을 수 있는 방법!

조윤경 변호사

(1) 상담사례

로톡 변호사 홈페이지에서 변호사님이 답변을 단 온라인 상담사례를 분야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님의 명쾌한 답변과 친절한 답변글을 잠재 의뢰인에게 보여주세요.

※ 로톡과 네이버의 강력한 제휴로 로톡 상담글에 답변을 달면 네이버 지식인에도 노출됩니다. 하나의 상담글, 두 배의 노출 효과를 누리보세요.

(2) 해결사례

변호사님의 승소사례를 의뢰인이 일목요연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법률가이드

블로그처럼 자유로운 양식과 내용으로 의뢰인에게 유용한 법률 콘텐츠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승소 사례에서 전달할 수 없었던 변호사님의 폭넓은 지식과 노하우를 알려주세요.

(4) 동영상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으신가요? 로톡 동영상 메뉴를 통해 로톡을 방문한 의뢰인에게도 변호사님의 영상 콘텐츠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변호사님의 개성과 전문성을 영상으로 마음껏 보여주세요.

모든 콘텐츠는 하단에 연결된 변호사네임카드를 통해 의뢰인이 그 자리에서 변호사님에게 상담예약부터 결제까지 간편하게 마칠 수 있습니다. 로톡 변호사 홈페이지의 강력한 기능을 활용해보세요.

메모의기술(요점만 정리)

탁월한 강해설교가이신 삼일교회 송태근 목사님의 느헤미야서 강해 설교 파일입니다. 느헤미야는 지혜로운 지도자요 탁월한 행정관이요 기도의 사람이요 신실한 신앙인이요 이스라엘 나라와 여호와 종교를 중흥시킨 영향력 있는 인물입니다. 이 책을 통해 우리는 지도력에 관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서

느헤미야서는 역사의식이 투철했던 느헤미야가 12년간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를 재건한 생생한 역사적 사실들을 비망록 형식으로 남겨놓은 자서전적인 역사서이다. 느헤미야가 총독에서 물러난 후 말년에 과거를 회상하며 기록한 것으로 여겨진다.

느헤미야서는 "내 하나님이며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라는 기도로 끝내고 있다. 자신의 업적을 자랑하기 위해서 기록을 남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일으켜 주시는 생생한 역사를 후세에 알리기 위한 역사의식 때문에 정성껏 기록하여 하나님께 봉헌한 향기로운 예물이라 할 수 있다.

느헤미야

느헤미야('하나님은 위로자'라는 뜻)는 유다 포로민 2세로 포로지에서 태어났다. 바사의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장으로, 소위 최고위층의 비밀 정보원이라 할 수 있는 인물이었다. 그는 이방땅에서 관료생활을 오래했는데 하나님에 대한 순백한 신앙의 내용을 잃어버리지 않고 올곧은 신앙을 살아냈다.

그는 1차, 2차 포로 귀환에도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했던 사람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히든 카드로 숨겨두셨다가 역사의 전면에서 드러내 귀하게 사용하신다. 그에게는 여호와 신앙과 이스라엘 민족의 재건과 중흥을 위한 책무가 주어졌다.

그는 예루살렘이 황폐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슬퍼하며 금식하며 기도하다가 왕의 재가를 얻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성벽 재건에 착수한다. 그는 주변 족속들의 수많은 방해와 위협에도 불구하고 인내와 성실로 성벽 재건 공사를 52일 만에 마무리하였다. 그는 성공한 자로 안락함이 보장된 삶을 살던 자였으나 일신상의 부귀영화보다는 하나님의 일을 더 중요하게 여기며 이를 위해 어떤 고난도 마다하지 않았다. 어려움에 직면해서도 낙망하지 않고 유다 백성을 독려하며 인내했고, 또 성실함으로 초지일관하였다.

그는 율법사 에스라와 함께 바벨론에서 귀환한 포로민들을 중심으로 새로운 이스라엘 민족 집단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공헌을 한 애국자이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긍심을 일으켰고, 기도로 이스라엘의 신앙을 재건했다. 그는 유다 포로민들이 70년 간 폐허 상태로 있던 본토로 귀환할 당시 종교개혁에 박차를 가한 율법 학자 에스라와 더불어 이스라엘 민족 집단을 형성하고, 유대교의 정통 신앙을 건설하기 위해 분투했으며, 정치 군사적으로 유다의 국가적 기틀을 마련하고 안정을 꾀하기 위해 사심 없이 혼신의 노력을 다한 훌륭한 지도자로 평가된다. 그는 인격이 고결하여 유대인에게 큰 감화를 줄 뿐 아니라 후세에까지 극히 큰 영향을 주었다.

모바일 줌(Zoom) 사용법, 회의 개설과 초대 및 회의 참가하기

"다주택자 규제를 강화할수록 집값은 오른다."

부동산이 오르는건 투기꾼 때문이 아니라 저금리 때문이다.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일어나는건 부자들의 착취때문이 아니라 원래 자본주의가 그러하기 때문이다.

위정자들은 자본주의의 '룰'부터 배우던지 그게 싫으면 아예 사회주의 체제로 바꾸면 된다.

다주택자들이 많을수록 집값은 안정된다.

터키는 정부에서 다주택자에게 엄청난 세제 혜택을 준다.

너도나도 다주택자가 되려고 하니까 경쟁적으로 월세집이 늘어나서 집값과 월세가 안정되어 있다.

국민 누구나 싼값에 집을 사거나 세를 얻을수 있다.

그런데 현 정권은 왜 다주택자에게 징벌적 규제와 세금폭탄을 던질까?

'마녀사냥'이다. 대중들의 분노를 부자들에게 돌려야 '표'를 얻을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누가 다주택자가 되려고 하겠는가?

결국 다주택자 규제는 전월세 공급을 줄이고 집값 상승을 일으키게 된다.

서울의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건축안전진단강화/미온적재개발정책은 주택공급을 줄어들게 만들어 집값 상승은 계속될 것이다.

※이 글은 재테크로 크게 성공한 실물 경험인이 쓴 글이기에 더 신뢰가 가는 주장이다.

모바일허브 자료모음

할렐루야! 주님을 높여 찬양합니다.

새로운 주일을 맞게 하시고 일년 만에 배명학교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여건을 허락하심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 드립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을 경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제 뜻대로 살아온 지난 시간들을 회개합니다. 자복하며 회개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성령 충만케 하시고, 주님의 크신 권능으로 지켜주시며, 사랑과 평강이 넘치게 하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들의 영혼이 새롭게 회복되게 하옵소서.

여러가지 요인들로 인하여 상한 심령들을 위로하여 주옵시고 복음의 말씀을 통하여 세상 것이 아닌 하늘의 신령한 것을 위하여 기도하는 은혜가 차고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 세대로 하늘 가족들의 건강과 안전을 특별히 지켜 주옵소서.

오늘은 일년 만에 배명학교 강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간구하옵기는 오늘 배명학교에서의 예배가 단순한 공간의 회복이 아니라 우리 자신과 세대로공동체의 진정한 예배의 회복이 되는 계기가 되게 하옵소서.

지난 일년동안 비대면 온라인 예배로 초래된 영적 침체와 나태함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옵소서. 온전하고 뜨거운 예배가 되게 하시고, 부르짖어 간구하는 우리들의 기도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말씀 중심의 일상이 되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오늘 드리는 이 주일 예배를 계기로 교회의 모든 교육부서와 사역네트워크와 예수마을의 기능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순차적으로 회복되게 하옵소서.

세대로교회와 배명학교 두기관의 관계가 더욱 강화되어 외부로부터 여러 가지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 되더라도 지속적으로 배명학교 비전홀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두 기관을 지켜주시고 이 시간 이후 한 명도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회와 학교를 독수리 눈동자와 같이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교회 밖을 돌아보면 선교 영역에서도 코로나로 인하여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어려운 상황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해외 현지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가족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일시적으로 국내에 귀국한 선교사님들이 처한 여러 가지 어려움을 지혜롭게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도우소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모두가 한마음으로 자복하여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하시고 특별히 기독교 차원에서 영적으로 회개하는 운동이 벌어지게 하옵소서. 그렇게 하여 주님의 사랑 안에서 안식과 평안이 넘치는 세상이 되게 하옵소서.

정치적 혼란이 계속되는 이 사회에 화합과 소망이 넘치게 하시고. 분열이 아닌 연합을, 다툼이 아닌 화해를, 과거가 아닌 미래를, 갈등이 아닌 평화를 이끄는 지도자들로 세워 주옵소서. 진리와 공의와 정의가 사라진 황무한 이 땅을 주님의 나라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또한 전 세계의 모든 나라들에서 하루빨리 코로나가 종식되어 예전같이 자유롭게 오고 갈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이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되어 세계 경제도 문화도 선교도 회복되는 주님의 권능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강단에 세우신 양승헌목사님을 기억하시어, 주님의 권능으로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셔서 듣는 자마다 아멘으로 화답하여 하늘로부터의 부어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새 날에 새 힘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

모음. 교육자료만들기

디지털 글쓰기

네트워크 사회문화

디지털 글쓰기는 익명적 글쓰기인 동시에 열린 글쓰기다. '익명적 글쓰기'는 자신의 정체를 숨긴 채 남을 비난하거나 음란하고 비속한 말들을 쏟아놓을 수 있게 만든다. 디지털 글쓰기는 가볍고 불안정하다. 그것은 복제와 따붙이기를 활용하는 글쓰기이며 다른 사람을 향해 열려 있는 과정에서 실현되는 글쓰기다.

1. 말글과 글말

인터넷에서 사용되는 가장 주요한 전달 매체는 모니터 글자다. 그런데 이 모니터에 쓰이는 글자는 채팅이나 게시판, 쪽지 할 것 없이 글이라기보다는 대부분 '말글' 혹은 '글말'이다. '말글'은 말을 글로 바꾼 것이고, '글말'은 글을 말로 바꾼다는 것이다. 둘 다 말과 글의 복합체다. 말글은 말이 주도적이라면 글말은 글이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이라 볼 수 있다.

'말글'은 '우씨', '헐', '어쇼요' 등 글의 축어화, 순간화, 간략화, 자판화 현상이다. 이는 주로 구어체 대화가 모니터 위의 타이핑으로 이어지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말글은 의사소통의 연장이자 현실 대화의 연장이다. 한편 '글말'은 글을 말로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생각이 많이 들어간다. 글말은 구어체로 쓴 글이라 볼 수 있다.

말은 시간의 제한을 받지만 인터넷에 올려진 '말글'은 수시로 반복해 읽힌다. 컴퓨터 모니터는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비춰주는 '거울'과도 같다. 사람들은 쪽지와 게시판의 글을 주고받고, 그리고 채팅을 하면서 현실의 구속에서 어느 정도 벗어날 수도 있다. 또한 자신이 드러내고 싶은 성격을 거침없

이 보여 줄 수도 있다. 통신의 익명성은 일상생활의 검열된 자아 정체성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주기도 한다. 반대로 인터넷의 '익명적 글쓰기'는 자신의 정체성을 숨긴 채 남을 비난하거나 음란하고 비속한 말들을 쏟아놓을 수 있게 만든다. 자신과 상대를 '속이고' 또한 자신도 '속는' 컴퓨터 통신의 이중 정체성 때문에 컴퓨터 통신의 '글말'은 아주 주관적으로 해석되기 쉽다. 조금 과장한다면 사람들은 서로 '자신이 듣고 싶은 대로 듣는다.'

네트의 익명적 글쓰기는 자기도취적 모험을 불러일으킨다. 컴퓨터 통신의 글쓰기는 타인의 동의를 얻어내기 위한 정치 행위이자 자기를 드러내는 나르시시즘이다. 온라인 글쓰기는 즉각적이고 즉흥적이며 미완성으로 열려 있다. 네트에 올려진 글들은 독자들이 자신을 완성시켜 주기를 희망한다. 네트의 디지털 텍스트는 타인에 의해 공격되기를 바라는 미끼이기도 하다. 조회 수라는 꼬리표는 공격적 글쓰기와 선정적 제목 달기를 더욱 부추긴다. 과격하고 적나라할수록 전달력이 커진다. 그래서 디지털 글쓰기는 위험하다. 모험이며 과격하고 적나라할수록 전달력이 커진다. 자신이 도달 가능한 수용자들을 위해 서로 조회 수로 경쟁하는 인터넷 게시판의 텍스트는 남에게 도달하고자 하는 표현과 소통의 욕구인 동시에 자기 과시욕의 표출이기도 하다.

2. 디지털 글쓰기

디지털 글쓰기의 첫째 특성은 가벼움과 불안정성이다. 모니터 위의 글자는 휘발성을 갖고 있다. 그것은 쉽게 증발한다. 전자 게시판의 글은 아주 불안하고 약하다. 금방 있던 글도 전원만 꺼지면 갑자기 사라질 수 있다. 마음이 변하면 당장 자신이 쓴 글을 지울 수 있다. 안정성이 결여된 전자 게시판의 글은 그래서 쉽게 믿음이 안 간다. 그것은 석판에 새겨진 글처럼 안정적이지 못하다. 금방 썼다가 바로 지우거나 수정할 수 있는 디지털 글쓰기의 가벼움은 글의 기동성을 보장하지만 글의 완결성을 훼손한다.

이런 즉각적인 글쓰기는 글과 사고를 토막 낸다. 모니터 위의 온라인 글쓰기는 글의 호흡을 짧게 만든다. 그리고 글과 말을 결합한 '말글'을 만들어낸다. '말글'이란 특성에서 나오는 대화체의 글은 전달력은 뛰어나지만 가볍

고 일시적이다. 우리의 사고는 키보드를 두들기는 속도와 모니터 화면에 명멸하는 글자 수에 비례한다. 즉각적인 디지털 글쓰기에는 속성의 시간이 없다. 자판 위를 가볍게 나는 손가락처럼 사고는 손가락의 속도에 감금당한다. 그래서 머리가 손가락을 못 따라갈 수도 있다.

디지털 글쓰기의 둘째 특성은 따붙이기와 복제의 글쓰기라는 점이다. 컴퓨터 모니터 위의 글쓰기에서는 '잘 따서 잘 붙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디지털 글쓰기는 따다 붙이는 '콜라주 문화'의 특성을 보여 준다. '앙상블라주(asssemblage)', 혹은 '콜라주(collage)'는 갖가지 물건을 끌어 모아 작품을 구성하는 기법을 말한다. 네트의 글쓰기는 이러한 따붙이기 기법과 아주 비슷하다. 여기서 따오고 저기서 따와서 자기의 문장을 구성하거나 자신의 문장을 남들의 텍스트에 링크로 연결함으로써 콜라주가 된다. 콜라주는 서로 상관없는 소재들의 파편을 모아 완전히 새로운 창작물을 만든다.

디지털 콜라주는 남이 이미 써놓은 글과 자신이 과거에 썼던 것들로 만들어진다. 이 과정에서 기존의 저자가 지녔던 일관성과 진지함의 전통은 쉽게 잊힌다. 워드 프로세서의 '자르기(cut)'와 '붙이기(paste)' 기능을 사용하다 보면 저자의 창작 능력보다는 감각적인 편집인의 결합 능력이 중요한 요소로 떠오른다. 그래서 독창성은 떨어져도 '컷 앤드 페이스트(cut and paste)'를 잘 하면 빠른 시간에 좋은 원고를 작성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원저자(author)의 글은 여기저기서 갈가리 찢기고 해체된다. 포스트모더니즘에서 이야기하는 '저자의 죽음'을 꺼낼 것도 없이 저자의 권위는 여지없이 해체의 길을 걷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디지털 글을 짜깁기하는 데 익숙해지다 보면 결국 자기 자신도 해체되는 길을 걷게 된다. 디지털 '컷 앤드 페이스트' 작업을 연쇄적으로 진행하다 보면 자기의 글도 이미 자기의 것이 아닌 지경에 이른다. 특히 과거에 쓴 자기의 글을 다시 복제해 사용할 경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표절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중복되는 글귀를 약간 변형하고 글의 순서를 바꾸면 쉽게 새로운 글이 만들어진다. 분명히 디지털의 콜라주 식 글쓰기는 신속함과 편리한 글쓰기다. 그것은 글의 재생 가능성, 복제 가능성, 속도와 편리함을 가져다주지만 글의 창의성과 창조 의 힘을 빼앗아갈 수도 있다.

3. 과정으로서 글쓰기

디지털 글쓰기의 또 하나의 특징은 과정으로서 글쓰기이자 열린 글쓰기라는 점이다. 디지털 글쓰기는 하이퍼텍스트를 통한 연결과 얽힘을 만들어 놓는다. 네트의 글들은 하이퍼텍스트의 연결을 통해 시작과 끝이 없는 과정으로서 글쓰기를 무한으로 확대한다. 타자에 의해 다시 배열되고 활용될 수 있다는 엄청난 가능성은 디지털 글쓰기를 완성되지 않는 과정 중의 글쓰기로 만든다.

디지털 글쓰기는 유동적이다. 그것은 닫혀 있지 않고 열려 있다. 타자의 글쓰기에 '컷 앤드 페이스트'로 따붙여질 가능성과 다른 글과 링크될 수 있다는 의미에서 디지털 글쓰기는 열려 있는 글쓰기다. 디지털 글쓰기는 다른 사람의 필요와 요구에 따라 변형되고 확장되는 실마리다. 동시에 그것은 타자에 의해 완성되는 관계의 연속이자 지속이다.

그래서 디지털 게시판에 올라온 글들은 반(半)제품이다. 게시판에 올라온 글은 다른 독자들이 자신을 완성시켜주기를 희망한다. 얼굴을 마주보고 말하는 대화와 달리 디지털 게시판의 글쓰기와 글읽기는 자기중심적이다. 그래서 공격적인 틀을 취하기 쉽다. 디지털 글쓰기에는 공격당하고 공격하기를 즐기는 마조-사디즘의 심리가 숨어 있다.

아니면 자신의 글을 일방적으로 찬양하는 팬을 거느리는 마음에서 글쓰기를 할 수도 있다. 게시판의 조회 수라는 꼬리표는 글쓰기의 상업화를 조장한다. 제목을 어떻게 다느냐에 따라 조회 수의 차이가 벌어지기도 한다. 이는 마치 상품 광고를 방불케 한다. 게시판 글의 이름을 어떻게 다느냐에 따라 그 글이 전달되는 폭과 넓이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인터넷의 글은 검열 없는 자기 주장이나 의견을 즉각적으로 올릴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어떤 사안에 대한 의견을 통해 연대가 이루어지면서 디지털 게시판에 올라온 글들이 사회적 영향력을 미칠 수도 있다.

모음. 일하는시스템변경

메모의 기술

1] 메모를 위한 기본 조건

1) 메모를 하는 이유

1. 잊지 않기 위해 메모하기보다 잊기 위해 메모한다.
2. 순간 떠오르는 느낌과 발상을 기억하기 위해 자기 지시를 내린다.
3. 일상생활과 업무의 진행을 도와준다.
. 실적을 높이기 위해. 일 처리의 효율성을 위해.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새로운 일을 계획하기 위해. 비망록으로 사용하기 위해

2) 메모를 습관화 하는 방법

1. 언제 어디서든 메모한다.
2. 수첩에 자신이 좋아하는 사진을 붙여두고 수시로 들여다본다.
3. 잘 쓰려고 하지 마라. 메모는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3) 업무에 메모를 활용하는 방법

1. '처리할 일', '기억해야 할 일' 식으로 리스트를 작성한다.
2. 중요도, 우선순위에 따라 순서를 정한 후 끝나면 리스트를 하나씩 지우면서 확인한다.
3. 일이 끝난 후의 성취감을 만끽한다.
4. 메모한 내용은 나중에 다시 읽어보고 활용한다.

4) 상황별 메모 도구

1. 일할 때 (책상에서) : 책상 오른쪽(왼손잡이는 왼쪽)에 메모지를 펼쳐놓고,바로 옆에 볼펜을 꽂아 언제든지 메모할 수 있도록 한다.
2. 외근이 잦을 때 : 걸주머니에 수첩과 펜을 넣어 필요할 때 언제든지메모할 수 있게 한다.
3. 걸을 때 : 소형 디지털카메라, 휴대용 녹음기, 작은 수첩을 항상 휴대하고 다닌다.
4. 차 안 : 필요할 때 즉시 녹음할 수 있도록 휴대용 녹음기에 테이프를 넣어 다닌다.가능하면 조작이 간단한 기기가 좋다.
5. 이동 중일 때 : 걸을 때는 휴대용 녹음기를 이용하고, 자동차나 비행기를 탔을 때는 IC 레코더를 사용한다. 휴대전화의 메모 기능을 이용해도 좋다.
6. 약속이 있을 때 : 가방이나 재킷, 바지에 메모지를 넣어둔다.

7. 집에서 쓸 때 : A4 용지(297×210mm) 크기의 복사 용지를 적당한 크기로 잘라 상자에 넣은 후 집안 여기저기에 놓고, 그 위에 펜을 올려놓는다.

8. 잘 때 (침대 옆) : 머리맡에 노트를 준비해 둔다.

5) 메모하기 위한 환경 조성

1. 메모에 필요한 도구부터 준비한다.
2. 디지털보다 아날로그 방식의 메모 도구를 고른다.
3. 수첩은 크기가 동일하고 일련번호를 매겨 정리한다.
4. 메모하는 기술보다 시간과 장소 등 환경을 먼저 조성한다.
5. 자신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공간이나 책상을 마련한다.

6) 메모 도구 고르기의 핵심

1. 메모 도구를 선택할 때는 편리함도 중요하지만 자신의 취향에 맞는 것을 고른다.
2. 자신에게 맞는 수첩을 찾았다면 거기에 자신을 맞추며 가능한 바꾸지 않는게 좋다.
3. 마음에 드는 수첩은 넉넉하게 준비하고, 1년에 한두 번은 자료의 백업 작업을 한다.

7) 수첩의 올바른 사용법

1. 모든 메모는 일단 적은 후에 정리한다.
2. 수첩은 여러 권을 사용하지 않는다.
3. 스프링 노트를 사용하여 핵심 부분만 남긴다.
4. 손이 닿는 곳에 메모판을 걸어두고 생각나는 대로 적는다.

8) 유형별 메모의 방법

1. 꼼꼼한 타입 : 항상 휴대할 수 있는 작은 수첩, 처리할 일의 목록, 달력등을 활용한다.
2. 감성적인 타입 : 수첩을 휴대하고 다니며 갑자기 떠오른 생각을 적어 두었다가 나중에 주제별로 정리한다.
3. 지성적인 타입 : 노트 한 권에 메모도 하고 사진도 붙이며 감성을 발달 시킨다.
4. 번덕스런 타입 : 별로 메모하지 않는 사람이므로, 먼저 메모에 필요한 도구를 준비하고 메모하는 습관을 기른다.

2] 메모의 기술 7가지

9) 메모의 기술 ① - 언제 어디서든 메모하라

1. 목욕할 때, 산책할 때, 잠들기 전 등 언제 어디서든 메모한다.

2. 늘 지니고 다니는 것, 늘 보이는 곳에 메모한다.

10) 메모의 기술 ② - 주의 사람들을 관찰하라

1. 일을 잘하는 사람을 관찰하고 따라한다.
2. 일을 잘하는 사람과 자신을 비교할 수 있는 알람표를 만들어본다.
3. 회의 내용이 지루하면 다른 사람을 관찰한다.

11) 메모의 기술 ③ - 기호와 암호를 활용하라

1. 기호와 암호의 예 會 (회의), M(미팅 - 업무적인), m(미팅 -사적인), T(전화), F(팩스) Add(주소) ⊕(회식) ⊗(청구서) 出(출장) ⊖(비밀사항) ☆(중요사항) 休(휴일) @ (메일) ⊕(생일) * (반드시 체크할 일) !(아이디어)

12) 메모의 기술 ④ - 중요 사항은 한눈에 띄게 하라

1. 중요한 말에는 밑줄을 긋는다.
2. 좀더 중요한 말에는 동그라미를 그린다.
3. 키워드는 삼색 볼펜을 사용해 강조한다.
4. 중요한 내용은 다른 페이지에 별도의 항목으로 요약해 눈에 잘 띄게 한다.

13) 메모의 기술 ⑤ - 메모하는 시간을 따로 마련하라

1. 메모만을 목적으로 하는 시간을 갖는다.
2. 일부러 커피숍을 찾거나 생각을 정리해 주는 여행을 떠난다.
3. 하루에 한 번이라도 수첩과 펜을 든다.

14) 메모의 기술 ⑥ - 메모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라

1. 메모는 어떤 형태로든 남겨둔다.
2. 메모를 모아 책 한 권으로 만든다.
3. 메모와 자료를 주제별로 문서 보관 상자에 넣어 데이터베이스화한다.

15) 메모의 기술 ⑦ - 메모를 재활용하라

1. 예전의 메모를 다시 읽어보는 습관부터 기른다.
2. 메모한 것들은 날짜별 혹은 주제별로 정리한다.
3. 정리한 메모를 문서 보관 상자에 보관한다.
4. 다시 읽을 때는 느낀 점이나 아이디어를 다른 색 펜으로 적어둔다.

3] 일과 메모

16) 업무를 시작하기 전 머릿속을 정리하는 메모

1. 자신의 기분이나 심적 상태를 적는다.
2. 처리할 일의 리스트를 작성한다.
3. 일의 우선 순위를 정한다.
4. 스케줄이 변경 될 때를 대비하여 계획을 세운다.

17) 효율성을 높여주는 메모

1. 자신만의 도표를 완성하라

18) 회의할 때의 메모 요령

1. 커다란 대학 노트를 준비하여 참가자별로 페이지를 등분한다.
2. 각자 발표한 의견과 반론을 발언자 난에 순서대로 메모한다.
3. 나중에 다시 읽으며 중요한 발언에 표시한다.

19) 협상할 때의 메모

1. 말한 사람은 알파벳으로 표시한다.
2. 이야기한 내용은 모두 적지 말고 중요한 단어만 표기한다.
3. 그림을 그려도 좋다.

20) 세미나에 참가한 결과를 보고서로 작성하기 위한 메모

1. 세미나의 핵심 내용을 파악한다.
2. 목적과 성과를 알 수 있도록 작성한다.
3. 별도의 수첩에 기록하지 말고 주최 측이 배포한 자료에 직접 쓴다.
4. 수첩에 메모할 때는 미리 목적과 성과를 생각하여 메모한다.
5. 핵심만 기록한 보고서는 핵심만을 요약, 정리한 메모에서 비롯된다.

21) 음성 메모의 순서

1. 메모하는 것이 부담된다면 머릿속의 생각을 먼저 정리한다.
2. 녹음은 편하게 말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한다.
3. 녹음하고 난 후 제목을 붙여둔다.
4. 녹음 후에는 반드시 한 번은 제대로 들어본다.
5. 듣고 정리하면서 문장을 쓰는 능력을 길러본다.

22) 상사를 대할 때의 메모

1. 지시한 내용은 그대로 받아 적는다.
2. 일을 진행하면서 의문 사항이나 아이디어도 함께 적어나간다.
3. 말이 자주 바뀌는 상사를 대할 때는 상사가 지시하면 바로 그 앞에서 받아 적는다.

23) 상사로서 부하 직원을 대할 때

1. 부하 직원의 행동 유형이나 성격 등 기본 사항을 파악한다.
2. 부하 직원에게 명령할 때는 때때로 구체적으로 지시한다.
3. 한꺼번에 대여섯 가지의 명령을 내려 메모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든다.

24) 편지나 비즈니스 문서를 작성할 때의 메모

1. 무슨 내용을 어떤 식으로 전달하고 싶은지 항목별로 메모한다.
2. 상대방에게 반드시 전해야 할 사항을 빠짐없이 쓴다.
3. 다 쓴 후에는 소리내어 읽어본다.
4. 훌륭한 문장을 만들려고 너무 애쓸 필요는 없다.

25) 스케줄이 변경되었을 때의 메모

1. 변경된 흔적을 남겨둔다.

26) 업무를 끝낼 때의 메모

1. A4 용지에 하루 동안 한 일을 항목별로 적고, 완전히 끝난 일은 사인펜으로 지운다.
2. 매일 메모지에 이런 방식으로 메모를 하고 내일의 할 일을 적어둔 곳에 붙인다.
3. 이렇게 모여둔 메모지들은 업무의 흐름을 알 수 있게 해준다.

4) 일상과 메모

27) 전화를 걸거나 받을 때의 메모

1. 바쁜 와중 전화를 받았을 때는 상대방의 말을 빠짐없이 메모해 둔다.
2. 전화 통화할 때 숫자나 고유명사는 반드시 기록한다.
3. 메모지는 큰 종이를 준비하고 나중에 따로 요약만 정리한다.
4. 자신이 전화를 할 때는 상대방에게 이야기할 내용을 미리 적어본다.

28) 정보 스크랩의 포인트

1. 일정한 크기로 복사하여 파일에 철하거나 붙여서 책으로 만든다.
2. 복사하여 정리할 때는 기사의 여백에 느낀 점을 간단하게 메모한다.
3. 일정한 크기로 복사하여 철해 둘 시간마저 없다면, 우선 파일 상자에 넣어두고 나중에 다시 읽어보면서 정리한다.

29) 세미나와 강연회에서 하는 메모

1. 일반적으로 메모를 자주 하지 않는 사람은 글씨체가 예쁘지 않아 읽기에 불편하다.

2. 나중에 다시 읽을 때 무슨 내용인지만 알아볼 수 있으면 되므로 너무 잘 쓰려고 애쓸 필요는 없다.
3. 제목은 제일 위에 큼지막하게 쓴다. 누가 무엇에 대해 어떤 말을 했는지 알 수 있도록 쓴다.
4. 주제별로 페이지를 구분한다. 한 가지 주제가 끝나면 페이지를 바꾸어 기록한다.
5. 글씨는 읽기 좋은 크기로 쓴다. 글씨가 너무 작으면 나중에 다시 읽을 때 눈이 피로해서 읽을 마음이 사라진다.
6. 중요한 부분에는 빨간색 펜이나 형광펜으로 표시한다.

30) 전달할 때의 메모

1. 전언 메모의 기본 : 크다. 분명하다. 짧다. 간단하다. 용건만. 눈에 띄는 곳에

31) 전화를 대신 받았을 때 메모할 내용

1. 날짜, 시간
2. 상대방의 회사명, 부서명, 이름
3. 용건은 간결하고 정확하며 알기 쉽게
4. 전화가 왔다는 사실만 전하면 되는지, 아니면 담당자가 먼저 전화하기를 바라는지, 급한 용무인지를 확인한다.
5. 전화기를 통해 느껴지는 상대방의 분위기까지 메모하여 전달한다.

32) 인맥 관리를 위한 메모

1. 사람을 만난 후에는 반드시 간략하게라도 상대방의 정보를 기록해 둔다.
2. 명함을 교환하여 만난 날짜, 장소, 그 사람의 특징 등을 명함에 메모한다.
3. 상대방의 개성이나 특징을 표현할 수 있는 단어나 그림을 명함에 그려 넣는다.
4. 명함은 명함 지갑에는 물론 수첩과 가방 등 여러 곳에 분산해서 넣어 다닌다.
5. 명함이 없을 때에는 인물 정보를 기입할 수 있는 카드를 활용한다.

33) 생각을 정리할 때의 메모

1. 차량의 통행이 적은 산책길이나 공원을 걸으며 생각을 정리한다.
2. 문자화할 도구가 없을 때, 쓰기 싫거나 쓰는 일에 자신이 없으면 일단 녹음한 후 나중에 문장으로 다듬는다.
3. 비상시에는 휴대전화나 자동응답기를 활용한다.

34) 독서할 때의 메모

1. 책을 읽을 때는 메모지를 책갈피로 사용한다.
2. 끼워둔 메모지에 작가의 의도, 핵심, 내용, 감상 등을 적는다.
3. 지저분해져도 상관없다면 책에 직접 쓴다.

35) 시각적인 메모 방법

1. 항목별로 기재한다.
2. 이미지로 메모한다.
3. 관련된 단어들을 나열한다.
4. 키워드를 적는다.

5] 자기 관리와 메모

36) 마음의 안정을 위한 메모

1. 메모는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 낙서하듯, 내키는 대로
2. 메모를 통해 자신을 발견한다.

37) 아이디어가 떠올랐을 때의 메모

1. 시공간을 가리지 않고 떠오른 아이디어는 시공간을 가리지 않고 메모한다.
2. 회의나 협상 중에도 아이디어가 생각나면 TPO의 요령에 따라 메모한다. * TPO(Time, Place, Occasion)
3. 주의 사람들에게 들은 기억할 만한 말과 그때의 느낌을 메모한다.

38) 스트레스 해소하기 위한 메모

1. 커다란 종이에 화나는 이유나 스트레스의 원인을 나열해 본다.
2. 쇼핑백에 큰 글씨로 '바보'라고 쓰고 그것을 양손으로 짚는다.
3. 사직서를 쓰고 자신이 정말 하고 싶은 일을 작성해 본다.

39) 하루의 일과를 정리하는 메모

1. 일정표를 작성해 본다.
2. 신경 쓰이는 일은 적어두고 잊어버린다.
3.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은 하나씩 확인하고 정리한다.

40) 메모를 위한 일기

1. 일기는 메모하는 습관을 기르기 위한 첫걸음이다.
2. 일기에 쓸 일이 없을 때에는 '오늘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라고 쓴다.
3. 신문 기사를 쓰더라도 매일 노트를 펼치는 습관을 들인다.

41) 꿈속에서 영감을 얻는 메모

1. '꿈 노트'를 만든다. 2. 잠들기 전에 '꾸고 싶은 꿈'을 써본다.

42) 자신을 돌아보며 하는 메모

1. 하고 싶은 순위 & 되고 싶은 순위 10을 적어본다.

메모의 기술 7가지

① 언제 어디서든 메모하라.

머릿속에 떠오른 생각은 그 자리에서 바로 기록하는 것이 메모의 법칙이다.

*목욕할 때, 산책할 때, 잠들기 전 등 언제 어디서든 메모한다.

*늘 지니고 다니는 것, 늘 보이는 곳에 메모한다.

② 주위 사람들을 관찰하라.

독자적인 방법을 고안할 능력이 있다면 자신만의 방법을 터득하면 되지만, 그럴 능력이 없다면 우선 눈에 보이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최우선이다. 즉 일을 잘하는 사람의 방법을 보고 배우는 것이다.

*일을 잘하는 사람을 관찰하고 따라한다.

*일을 잘하는 사람과 자신을 비교할 수 있는 일람표를 만들어본다.

*회의 내용이 지루하면 다른 사람들을 관찰한다.

③ 기호와 암호를 활용하라.

메모할 때 반드시 '글자'만 쓰란 법은 없다. 자신이 보고 무슨 내용인지 알 수 있으면 된다. 중요한 것은 자신만의 메모 흐름을 만드는 것이다.

④ 중요 사항은 한눈에 띄게 하라.

메모하는 방법에는 정답이 없다. 시간이 지난 후 다시 검토했을 때 중요한 부분이 한눈에 들어오는 것이 좋은 메모다.

*중요한 사항에는 밑줄을 긋는다.

*좀더 중요한 사항은 동그라미로 표시한다.

*삼색 볼펜을 사용해 내용과 중요도를 구분한다.

*중요한 내용은 별도로 요약한다.

⑤ 메모하는 시간을 따로 마련하라.

하루에 한 번이라도 수첩과 펜을 드는 습관이 생기면 특별히 노력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메모하게 된다.

*메모만을 목적으로 하는 시간을 갖는다.

*일부러 커피숍을 찾거나 생각을 정리해 주는 여행을 떠난다.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한 시간이라도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생각나는 것을 메모한다.

⑥ 메모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라.

메모는 어떤 형태로든 남겨두면 훗날 효력을 발휘한다.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정리한 후 잊어버리자!'이다.

*메모는 어떤 형태로든 남겨둔다.

*메모를 모아 책 한 권으로 만든다.

*메모와 자료를 주제별로 문서 보관 상자에 넣어 데이터베이스화한다.

⑦ 메모를 재활용하라.

*예전의 메모를 다시 읽어보는 습관부터 기른다.

*메모한 것들은 날짜별 혹은 주제별로 정리한다.

*정리된 메모를 문서 보관 상자에 보관한다.

*다시 읽을 때는 느낀 점이나 아이디어를 다른 색 펜으로 적어둔다.

메모는 왜 하는가?

① 잊지 않기 위해 메모한다.

메모(memo)란, 사전적인 의미로 잊지 않도록 요점을 간략히 적어두는 일 또는 그렇게 적은 글을 의미한다. 가장 간단한 예로 상사의 지시를 수첩에 기록하고, 전화 통화한 내용을 메모지에 적거나 강의 내용을 노트에 기록하는 것 등이 있다.

인간의 기억력은 그리 길지 못하다. 이것이 바로 메모를 하는 이유다. 실험 결과, 인간의 두뇌가 한번에 처리할 수 있는 정보량은 약 일곱자리 수에 불과하다고 한다. 또한 인간 두뇌의 기억 장치에 새로운 정보를 저장하는 것은 몇 초밖에 걸리지 않는다.

따라서 새로운 정보를 처리하고 이미 저장된 정보를 불러오는 능력은 매우 제한되어 있다. 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보고 들은 것이나 불현듯 떠오르는 생각 등을 잊지 않기 위해 기록하거나 간단한 그림 등으로 표현하는 메모다. 메모는 기본적으로 중요한 일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고, 그래서 실수를 줄일 수 있게 도와준다.

② 잊기 위해 메모한다.

이는 잊지 않기 위해 메모를 한다는 것과 상반된 것처럼 보이지만, 잊지 않기 위해 메모를 한다는 이유보다 더 강력한 이유가 된다.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다. 새로운 정보의 60퍼센트는 한 시간 안에 잃는 게 인간 두뇌의 한계이다. 그러다 보니 기억하려고 하면 할수록 오히려 스트레스만 받을 뿐이다. 그럴 때는 메모를 하고 잊는 것이 두뇌의 활성화를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다. 두뇌를 기억과 저장 기능으로 쓰지 말고 창조적으로 쓰는 사람이 성공한다. 기록하고 잊어라. 그것이 '잊기 위해 메모하는' 핵심이다. 기록한 뒤 편안한 마음으로 다른 일에 집중하라.

③ 메모는 비즈니스맨의 기본이다.

기록과 메모는 아이디어를 창출하는 수단이기도 하지만, 곤경에 처했을 때 해결책을 마련해 주는 근거 또는 중요한 일을 시작하는 단초가 되기도 한다. 슬픈 일이지만 '사회생활은 무시무시한 짐승들이 우글거리는 비정한 정글'과도 같다.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사람은 자기 자신밖에 없다.

매일 기록하고, 미래에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은 무엇이든 보관하라. 만약 메모나 일기 쓰기를 게을리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면 그것은 자신의 생활이 너무 편하다는 의미다. 기록해야 할 필요성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은 마땅히 있어야 할 최전선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는 뜻과 다를 바 없다.

메모를 하지 않는 사람은 비즈니스맨의 자격이 없다고 했다.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시간은 정해져 있지 않다. 갑작스런 아이디어가 기획으로 이어질 만한 것이 아닐지라도 거기에 착상을 추가함으로써 실행 가능성을 높여준다. 메모는 기획의 뿌리가 되고, 일을 진행하는 데 가장 기본적이며 효율적인 방법이다. 또한 상사의 명령을 잊어버릴 염려도 없고 기획이나 아이디어의 자료가 된다.

④ 머릿속뿐 아니라 일상을 정리해 준다.

바쁠 때는 크고 작은 일이 정리되지 않은 채 뒤섞여 있어 머릿속이 혼란스럽다. 이것을 해결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하면 스트레스가 쌓여 일의 능률도 떨어진다. 집에 돌아왔을 때는 가방을 내려놓고 옷을 갈아입는 것처럼 머리와 마음의 스위치도 끈다. 재충전을 하는 것이다.

해결되지 않은 일은 아무리 고민해도 해결 방법이 떠오르지 않을 때가 있다. 이럴 때는 차라리 메모해 두고 잠시 동안이라도 잊고, 마음이 차분해졌을 때 혹은 머릿속이 정리되었을 때 다시 해결하려고 하는 편이 훨씬 효과적이다. 마음에 걸리거나 신경 쓰이는 일이 있으면 기록하라.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무의미한 일 같지만, 머릿속에 잠재되어 있는 것을 다 쏟아내면 오히려 마음이 편해진다. 이렇게 하다 보면 머릿속뿐 아니라 복잡하게 얽혀 있던 일상도 정리되어 활기차고 상쾌한 기분을 느낄 수 있다.

⑤ 메모를 통해 성취감을 즐긴다.

해야 할 일, 중요한 일이 잔뜩 적힌 수첩을 보고 있으면 일을 진행하기도 전에 먼저 부담스러울 수도 있다. 하지만 머릿속으로 기억하고 있던 일을 처리하면서 느끼는 만족감이나 성취감은 기록해 둔 것을 끝내고 지워나가면서 느끼는 그것과 다르다.

사소한 일이라도 메모한 뒤에 끝내고 체크해 나가는 과정에서 사람들은 목표를 달성했다는 것에 기분이 좋아진다. 뿐만 아니라 해야 할 일로 뻑뻑하던 수첩에서 처리한 일들이 체크된 것을 보는 것만으로도 성취감을 느낄 수 있다. 이는 일을 진행하는 동안에도 그렇지만, 시간이 지난 후에도 가능하다. 나중에 메모한 내용을 다시 보면서 당시 일을 처리한 과정이나 결과를 확인하면서 메모를 활용할 수도 있다.

⑥ 활용할 수 있는 자신만의 백과사전이 된다.

아무렇지 않게 주고받던 이야기도 상황에 따라 다른 의미로 다가온다. 말의 의미를 이해하는 정도에 따라 그 사람의 미래나 인생 자체가 결정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주위 사람들에게 들은 기억할 만한 말과 그때의 느낌을 기록해 두면, 나중에 다시 읽었을 때 또 다른 의미로 작용해 자신의 생활에 새로운 전환점이 될 수 있다.

업무에 관련된 메모는 어떤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 새로운 돌파구를 제시해 줄 수 있고, 일기와 같은 개인적인 기록은 자신만의 역사적인 기록이며 데이터베이스가 된다. 또한 책이나 잡지를 읽을 때 중요한 페이지를 오려서 보관하거나 메모지를 책갈피로 사용하며 떠오르는 생각을 적어두면, 메모지에 담긴 내용은 그 책의 진수라고 할 수 있다. 나중에 이 책갈피 메모는 아이디어를 분산시키지 않고 하나로 모으기 위한 중요한 도구가 되는 것이다. 이처럼 메모한 것을 보관한 후 다시 활용하면, 어려운 일이 발생했을 때 활용 가능한 자신만의 백과사전이 된다.

⑦ 마음의 안정제 역할을 한다.

업무와 관련된 일은 메모하면서 개인적인 일은 메모하지 않는 사람이 의외로 많다. 요즘처럼 경쟁이 치열한 세상에서 전문가로 살아가려면 자기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하는 가장 기본적인 메모가 '일기'다. 일기는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내용이든 상관없이 마음 내키는 대로 쓰면 된다.

업무에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지만 자신의 추억이나 좋아하는 시를 쓰다 보면, 정신 세계와 마음의 공간이 넓어지는 것을 느낄 수 있다. 특히 회사에서 스트레스를 받거나 화가 났을 때 일기장이든 큰 메모지에 "당장 그만두겠어!"라거나 "바보, 멍청이!" 등의 낙서를 하면 어느 순간 마음이 안정되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최소한 혼자 있을 때만이라도 참지 않는 것이 스트레스를 줄이는 방법이다.

현재에 만족하지 못한다면 또 다른 방법으로 자신을 돌아보며 메모를 할 수 있다.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이나 '되고 싶은 일'을 글로 쓰면서 스스로에게 각인시키는 것이다. 이런 과정을 계속하다 보면 새로운 마음가짐을 갖게 되고, 그 꿈을 위해 좀더 노력해야겠다는 생각과 함께 한결 기분이 좋아진다.

특징

① 새로운 주제, '메모'

비즈니스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디어'다. 더구나 정보 전쟁 사회에서 어떤 아이디어를, 어떻게 자신의 것으로 활용하느냐에 따라 성패가 좌우된다. 아이디어는 따로 아이디어 창고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다. 많이 보고, 많이 듣고, 한번 더 생각해 보면서 아이디어는 떠오른다. 그 아이디어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활용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메모'다. 하지만 아무도 메모하는 방법을 알려주지 않는다. 메모하는 방법에 정답이 없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메모' 혹은 '쓰기', '기록'이라는 광범위한 주제를 체계적으로 서술하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머리보다 손이 먼저 움직이는 메모의 기술》은 그런 면에서 획기적이다. 문자가 발명되면서부터 시작된 '기록'이라는 영역이 어떻게 활용되는지, 메모를 하는 이유에서부터 메모에 필요한 도구를 선택하는 방법, 업무?일상?자기관리에서의 메모 방법 등 가장 기초적이면서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들을 서술하고 있다.

② 기록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책

중학교 교과서에 실린 이하윤의 <메모광>을 보면 다음과 같은 어구가 있다.

"메모는 내 물심양면(物心兩面)의 전진하는 발자취며, 소멸해 가는 전 생애의 설계도(設計圖)이다. 여기엔 기록되지 않는 어구(語句)의 종류가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광범위한 것이니, 말하자면 내 메모는 나를 위주로 한 보잘것없는 인생 생활의 축도(縮圖)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다. 쇠퇴해 가는 기억력을 보좌하기 위하여, 나는 뇌수의 분실(分室)을 내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그는 메모하는 버릇이 심해져 기억력까지 의심할 만큼 뇌수의 일부를 메모지로 가득 찬 포켓으로 만든 듯한 느낌이 든다고 했다. 메모는 한마디로 자신의 인생 설계도이며 축도이다. 기록은 기억보다 강하다. 기록을 계속하면, 즉 메모를 계속하면 기억력이 좋아진다. 이 책은 쉽고 가볍게만 생각했던 '기록'의 의의를 다시 한 번 되새기게 해준다.

③ 실용서로 활용 가능한 책

이 책은 자기계발서이며 실용서다. 일상생활이든 업무를 진행하는 데 필요한 메모를 활용 가능하도록 한 것이 이 책의 주목적이다. 제시된 많은 메모 방법을 모두 따라할 필요는 없다. 단지 메모의 중요성을 깨닫고 자신에게 맞는 메모 방법을 선택하여 꾸준히 계속하면 된다.

지금까지 '메모'의 중요성은 알고 있었지만, 메모의 습관화나 활용 방법 등에 관해 체계적으로 정리하지 못하고 있던 사람들에게 이 책은 더욱더 폭넓은 시각을 형성시켜 줄 것이다. 시각의 힘이 강력하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구직자가 경력이나 경험 등을 시각적으로 정리하여 자기PR을 하면 상대방에게 정보를 쉽게 전할 수 있다는 것도 알게 될 것이다.

더불어 수첩을 활용한 가로 줄무늬 패턴의 편집과 예시를 통한 '기호나 문자를 활용한' 설명, 소제목 아래 내용을 정리해 주는 '한눈에 쉽게 알아볼 수 있는' 편집은 메모의 기본 법칙을 살려주고 있다.

 HTML Content

모음. 일하는시스템변경

 Web Clip

Swit

swit.io

열기

대표적인 실시간 화상 회의 프로그램인 줌(Zoom)을 모바일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오늘은 모바일 줌(Zoom)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줌에서 회의 개설하는 방법과 회의 개설 후 상대방 초대하기, 그리고 다른 사람이 만든 회의에 참가하는 방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줌(Zoom)이 설치되어 있지 않다면 구글 플레이스토어나 애플 앱스토어에서 앱을 찾아서 설치해 주세요. 자세한 설치 방법 및 회원 가입 방법은 아래의 포스팅을 확인해 주세요.

2020/07/15 - [IT 정보/모바일 활용 Tip] - 모바일에서 줌(Zoom) 설치 및 회원 가입하는 방법

모바일에서 줌(Zoom) 설치 및 ...

요즘 같은 코로나 시대에는 집 밖으로 나가기 힘들기 때문에 강의나 수업도 제대로 하기가 힘들죠.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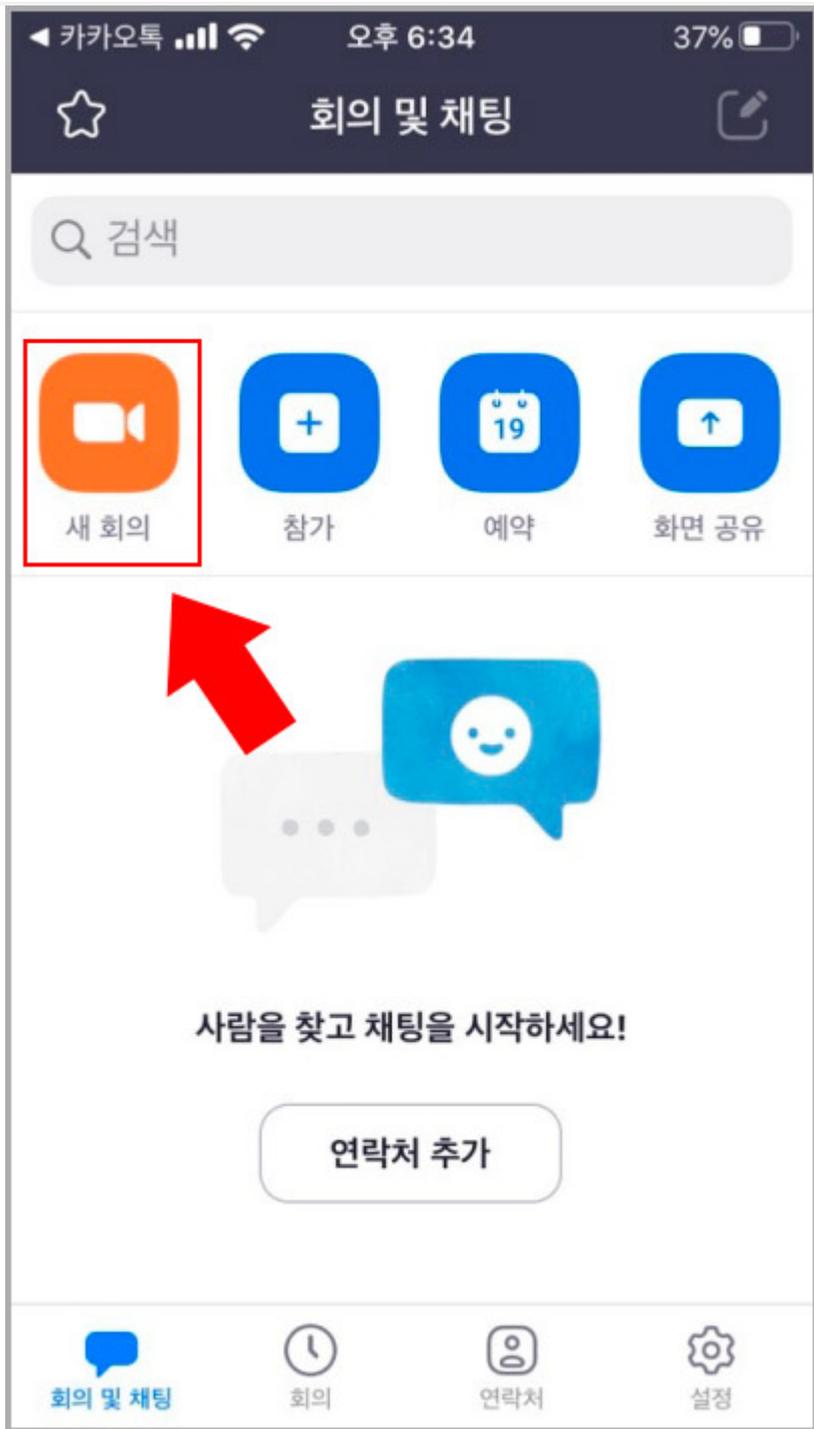
lifenourish.tistory.com

줌을 설치하고 회원가입까지 마친 상태를 전제로 앱에 나오는 기능들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목 차

1. 줌 회의 개설하기
2. 줌 회의 초대하기
3. 줌 회의 종료하기
4. 줌 회의 참가하기

1. 줌 회의 개설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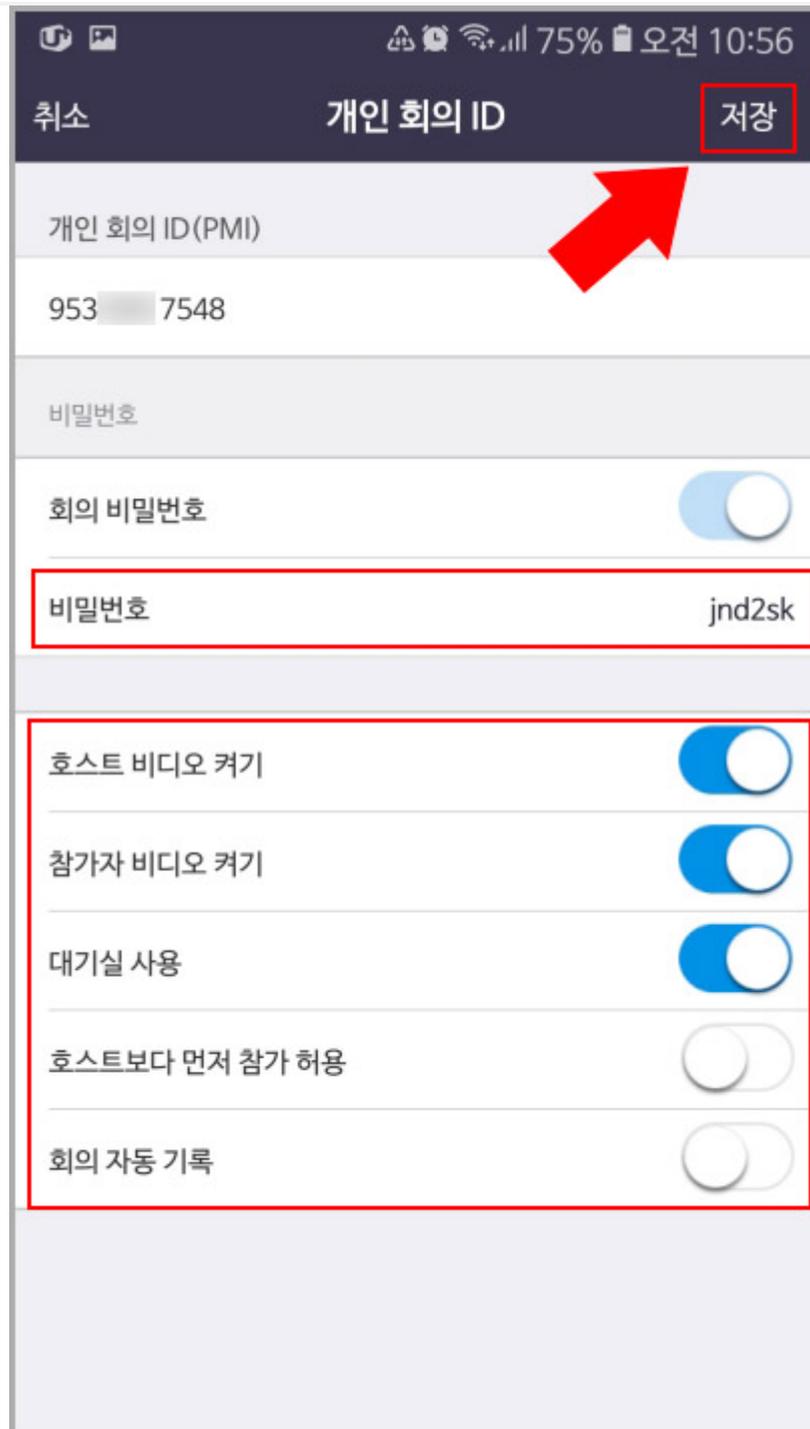
줌 회의 개설하기

1. 줌에서 회의 개설을 위해 "새 회의" 버튼을 눌러 줍니다.



줌 회의 개설

2. 회의 개설 화면으로 들어가면 "시작", "초대 보내기", "편집" 버튼이 나오는데 회의를 만들기 전에 먼저 "편집"으로 들어가서 방 설정을 해 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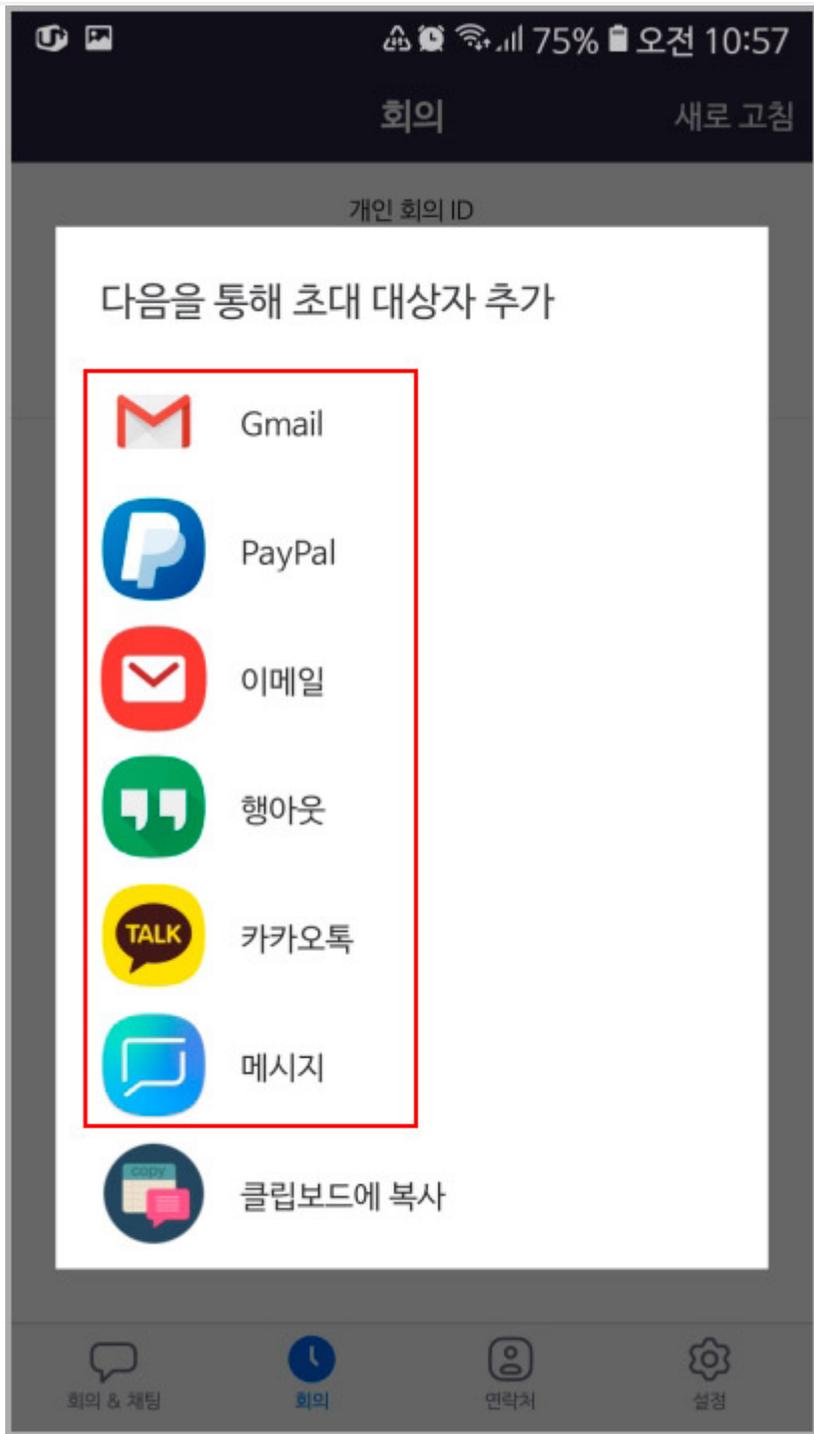
줌 회의 개설

3. 개인 회의 ID와 개설할 방의 비밀번호도 나오고 방장과 참가자들의 비디오를 켜는 설정들도 나옵니다. 이 곳에서 필요한 부분을 활성화 및 비활성화하신 후 우측 상단에 있는 "저장"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개인 회의 ID 상에서 한 설정들은 개인 회의 ID로 방을 개설하는 모든 회의에 적용됩니다.)



줌 초대 보내기

4. 그다음 "초대 보내기" 버튼이 있는데 클릭하면 이 회의에 다른 사람을 초대할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초대할 수도 있고 회의를 개설한 후 그 안에서 바로 초대할 수도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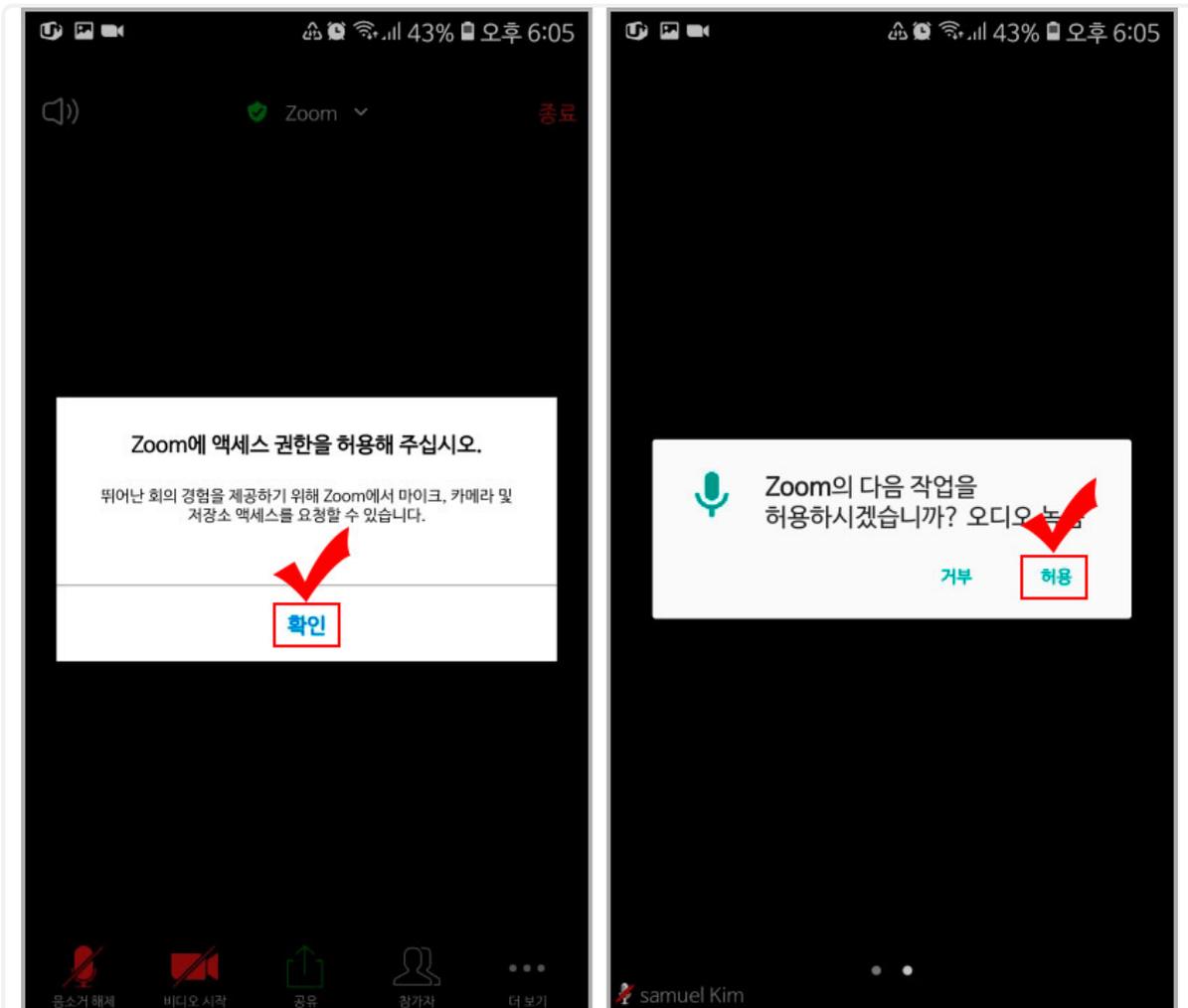
줌 참가자 초대

5. 초대 보내기 버튼을 누르면 문자나 이메일, 카카오톡 등으로 선택해서 링크를 보내실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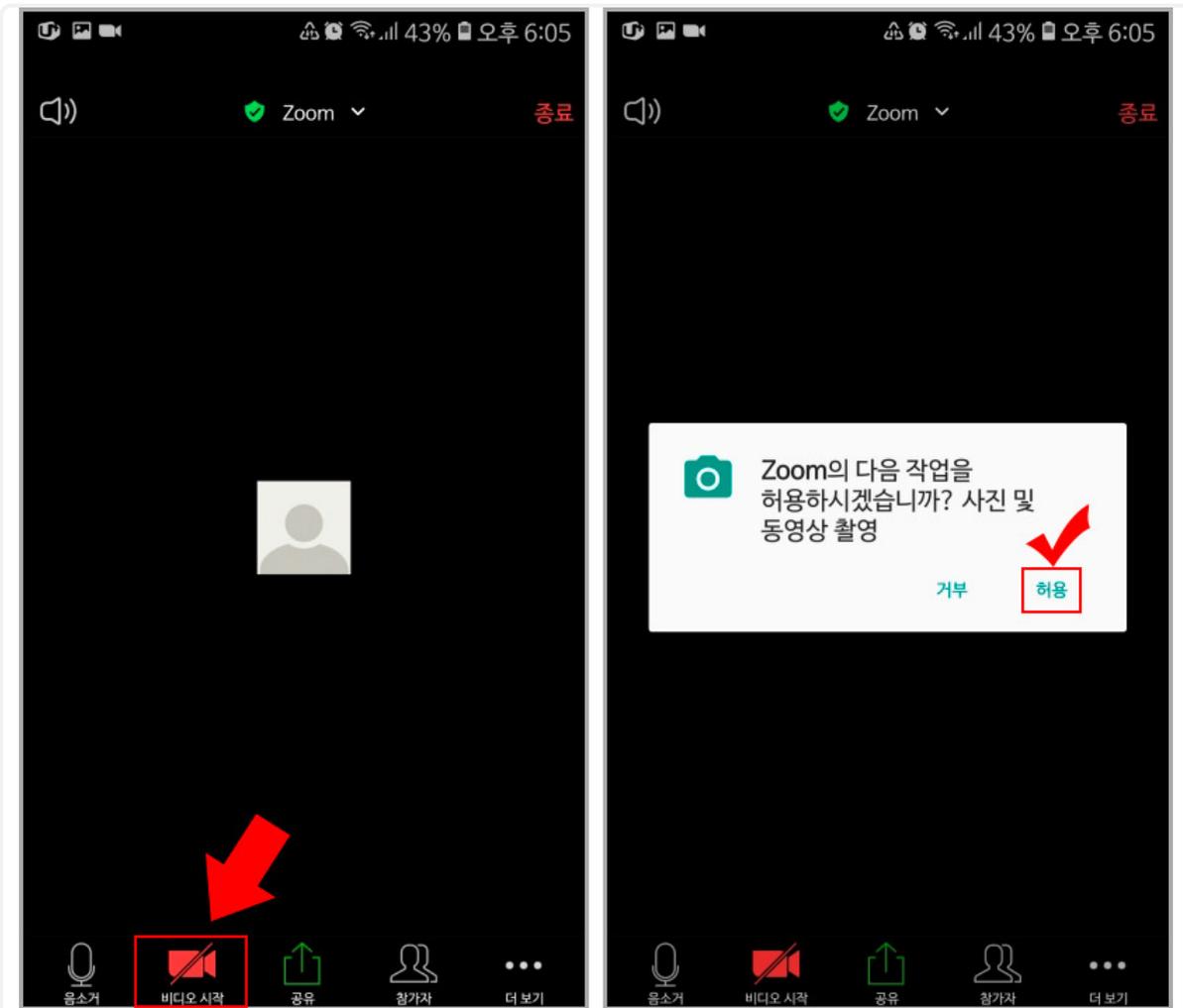
줌 회의 개설

6. 이제 "시작" 버튼을 누르면 회의실이 개설됩니다.



줌 회의 개설

7. 처음 시작 시 액세스 권한 설정을 메시지가 뜨면 모두 허용으로 설정해 줍니다.



줌 카메라 시작

8. 줌 카메라가 안 나온다면 왼쪽 하단에 있는 비디오 시작 버튼을 눌러 허용을 눌러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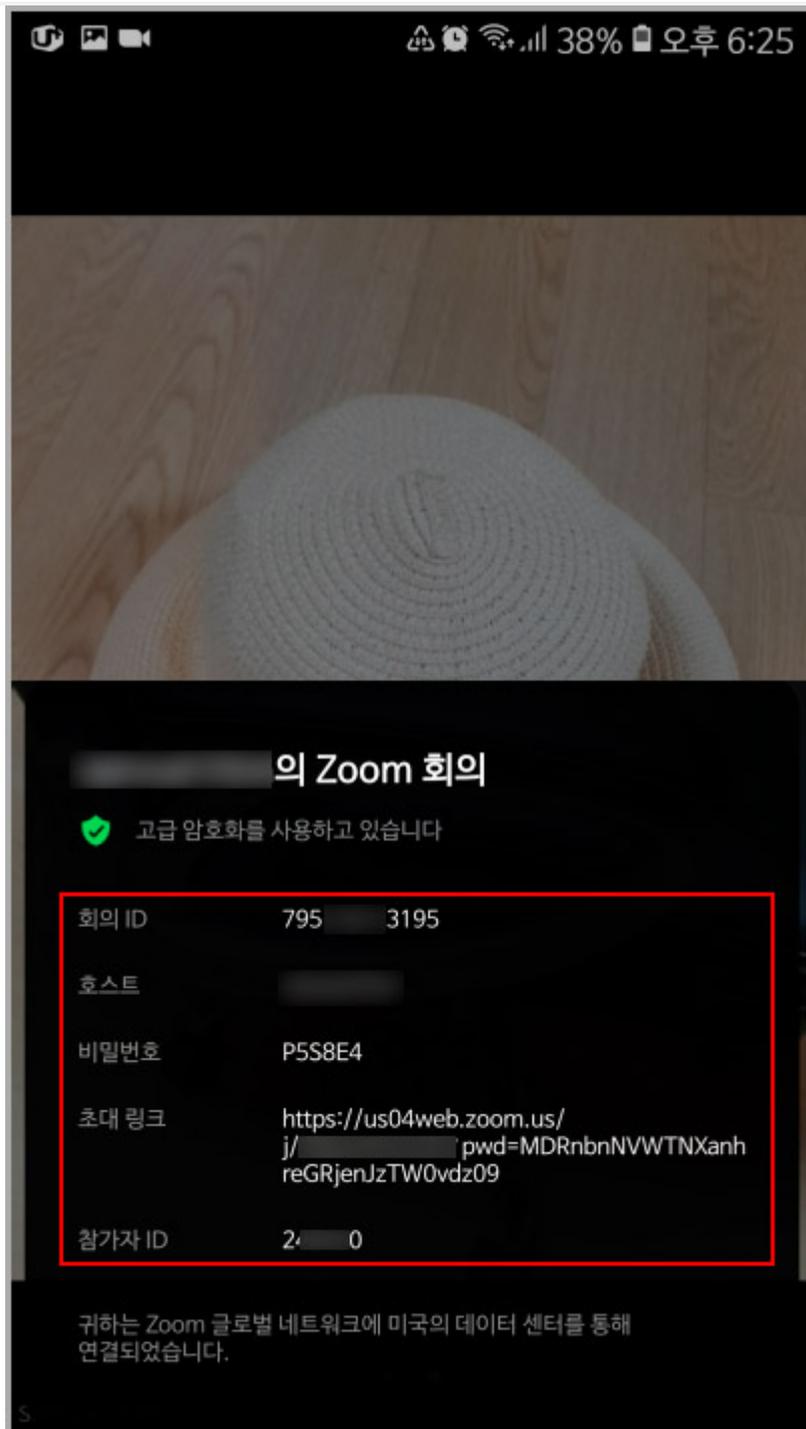
줌 화면 설명

9. 줌 회의 화면입니다. 처음에 들어가면 버튼이 나오지 않지만 화면을 손가락으로 터치하면 위와 아래에 버튼들이 나타납니다. 화면에 나오는 버튼들의 기능 설명은 크게 어려운 것이 없기 때문에 위 이미지에서 간단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줌 회의 개설

10. 개설된 회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려면 중앙 상단에 있는 "Zoom" 버튼을 눌러주세요.



줌 회의 정보

11. 그러면 회의실에 대한 필수 정보들이 나옵니다.

참고로 무료로 사용하는 줌은 그룹 회의 40분이라는 사용 시간 제한이 있습니다. 줌으로 수업이나 회의를 하시려는 분들은 아래의 줌 요금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본

개인 회의

무료

무료로 가입하세요

최대 100명의 참가자 호스트

무제한 1:1 회의

그룹 회의에 40분 제한

무제한 회의 수

티켓 지원

+ 비디오 회의 기능

+ 웹 회의 기능

+ 그룹 공동 작업 기능

+ 보안

프로

소규모 팀에 적합

\$14.99 /월/호스트

계정당 호스트를 최대 9명까지 구매

지금 구입

모든 기본 기능 +

참가자 100명 포함

참가자가 더 필요합니까?

회의 시간 제한은 24시간입니다.

사용자 관리

관리자 기능 컨트롤

보고

사용자 지정 개인 회의 ID

일정 담당자 지정

1GB MP4 또는 M4A 클라우드 기록

REST API

Skype for Business(Lync) 상호 운용성

+ 추가 기능 요금제(옵션)

비즈니스

중&소기업

\$19.99 /월/호스트

최소 호스트 10명, 비용 \$199.9/월

지금 구입

모든 프로 기능 +

참가자 300명 포함

참가자가 더 필요합니까?

전용 전화기 지원

관리 대시보드

가상 URL

은-프레미스 배치 옵션

관리되는 도메인

SSO(싱글 사인온)

회사 브랜딩

사용자 지정 이메일

LTI 통합

클라우드 기록 대본

+ 추가 기능 요금제(옵션)

기업

대규모 엔터프라이즈급

\$19.99 /월/호스트

최소 호스트 100명, 비용 \$1,999/월

영업에 문의

모든 비즈니스 기능 +

엔터프라이즈에 참가자 500명 포함

엔터프라이즈 플러스에 참가자

1,000명 포함

무제한 클라우드 저장소

전담 고객 성공 관리자

임원 평가

웨비나 및 Zoom Rooms에 대한 번들 할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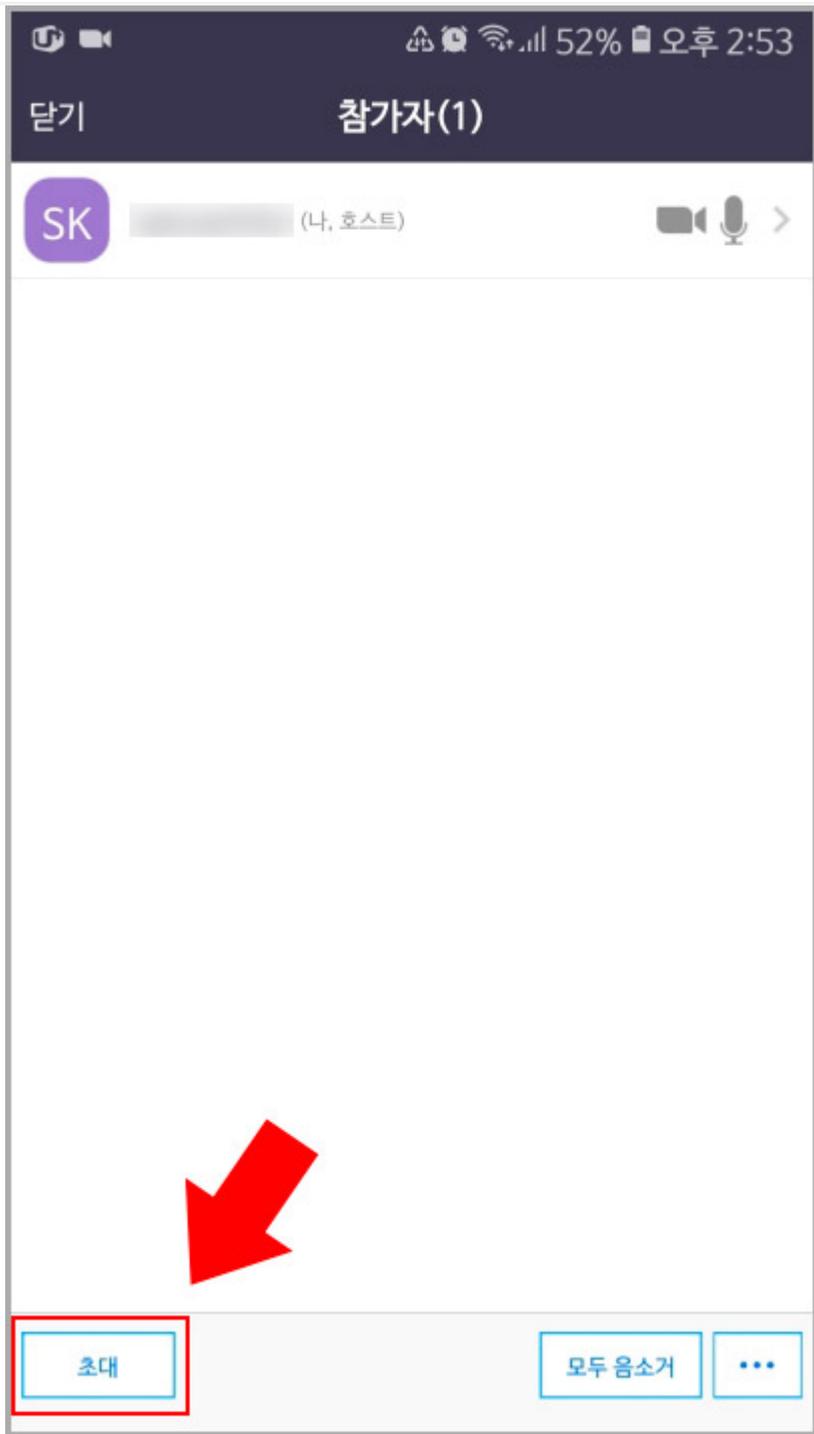
줌 zoom 요금제

2. 줌 회의 초대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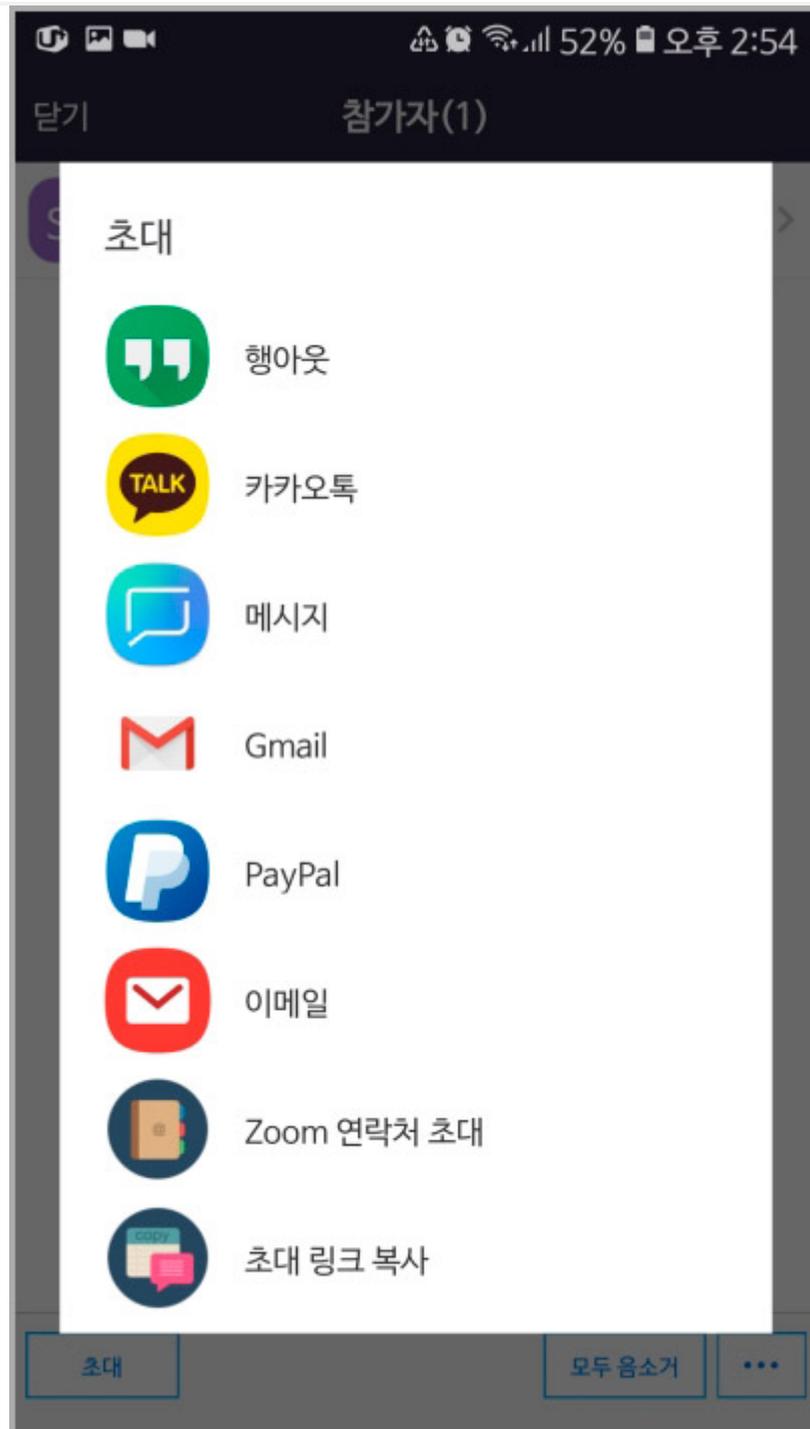
줌 초대하기

1. 실시간 회의실에서 다른 사람을 줌에 초대하려면 "참가자" 버튼을 눌러 주세요.



줌 초대하기

2. 참가자 버튼을 누르면 왼쪽 하단에 초대 버튼이 나옵니다.



줌 초대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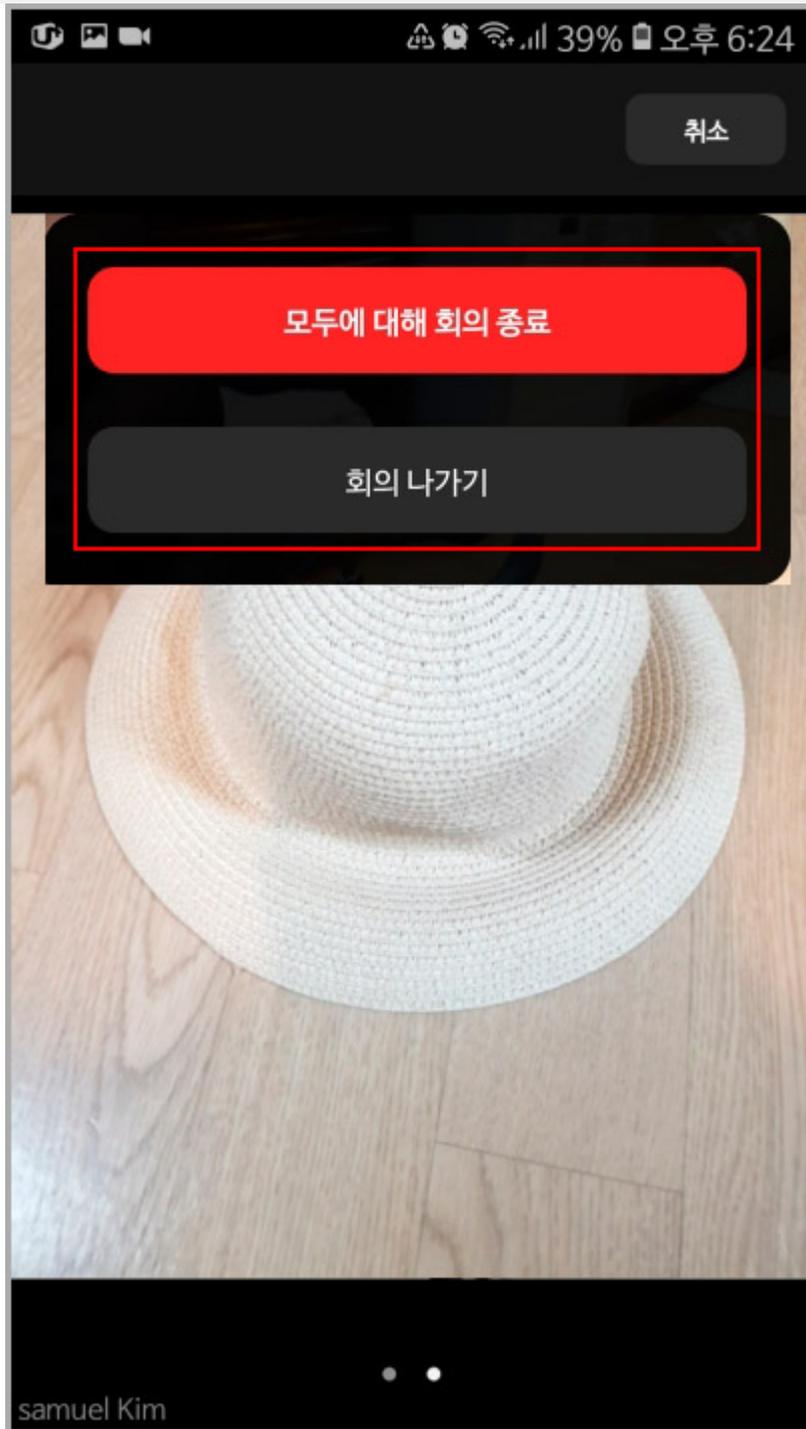
3. 초대 버튼을 누르면 공유를 할 수 있는 앱들이 나오고 선택해서 초대 링크를 보내실 수 있습니다.

3. 줌 회의 종료하기



줌 회의 종료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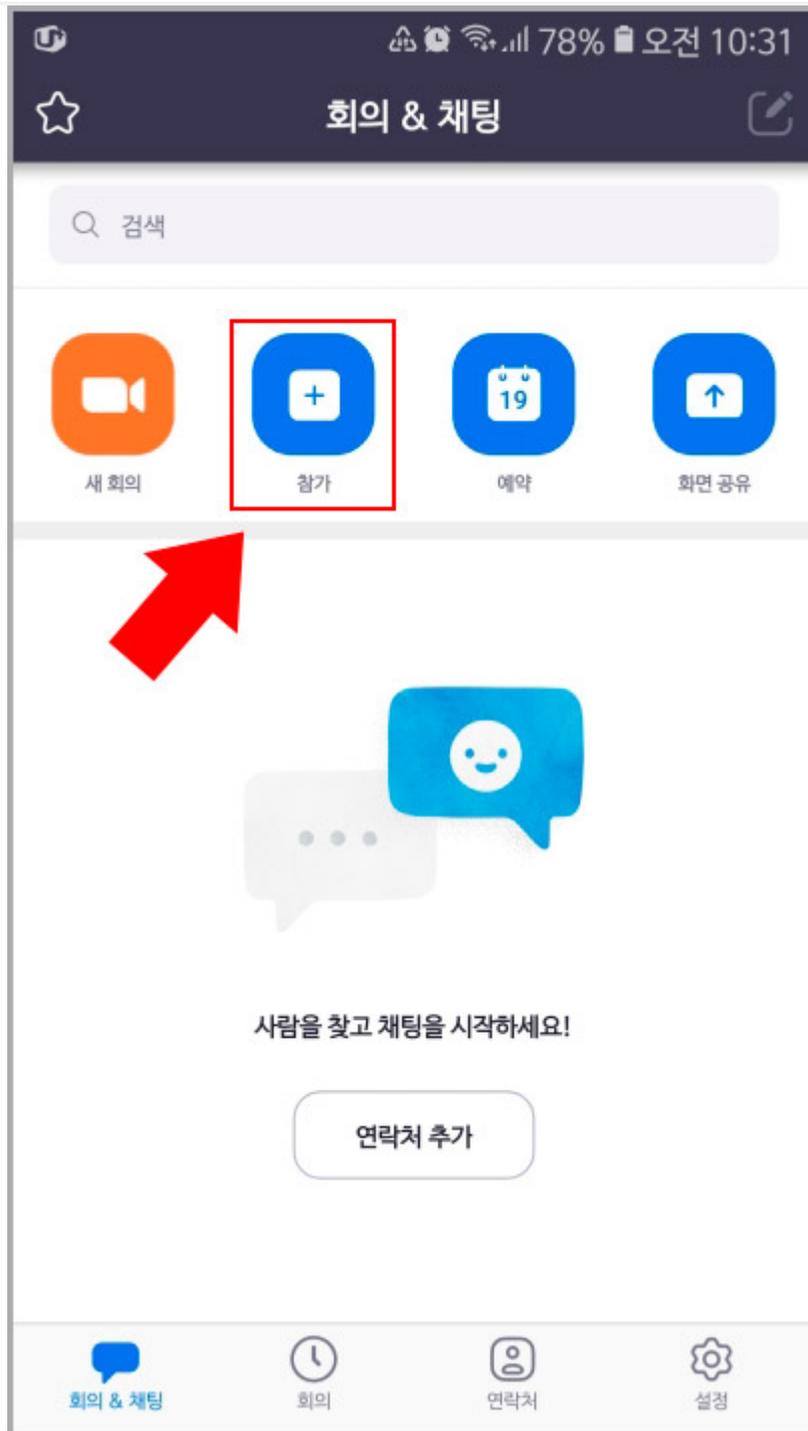
1. 줌 회의를 종료하려면 화면을 한 번 터치 후 오른쪽 위에 있는 "종료"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줌 회의 종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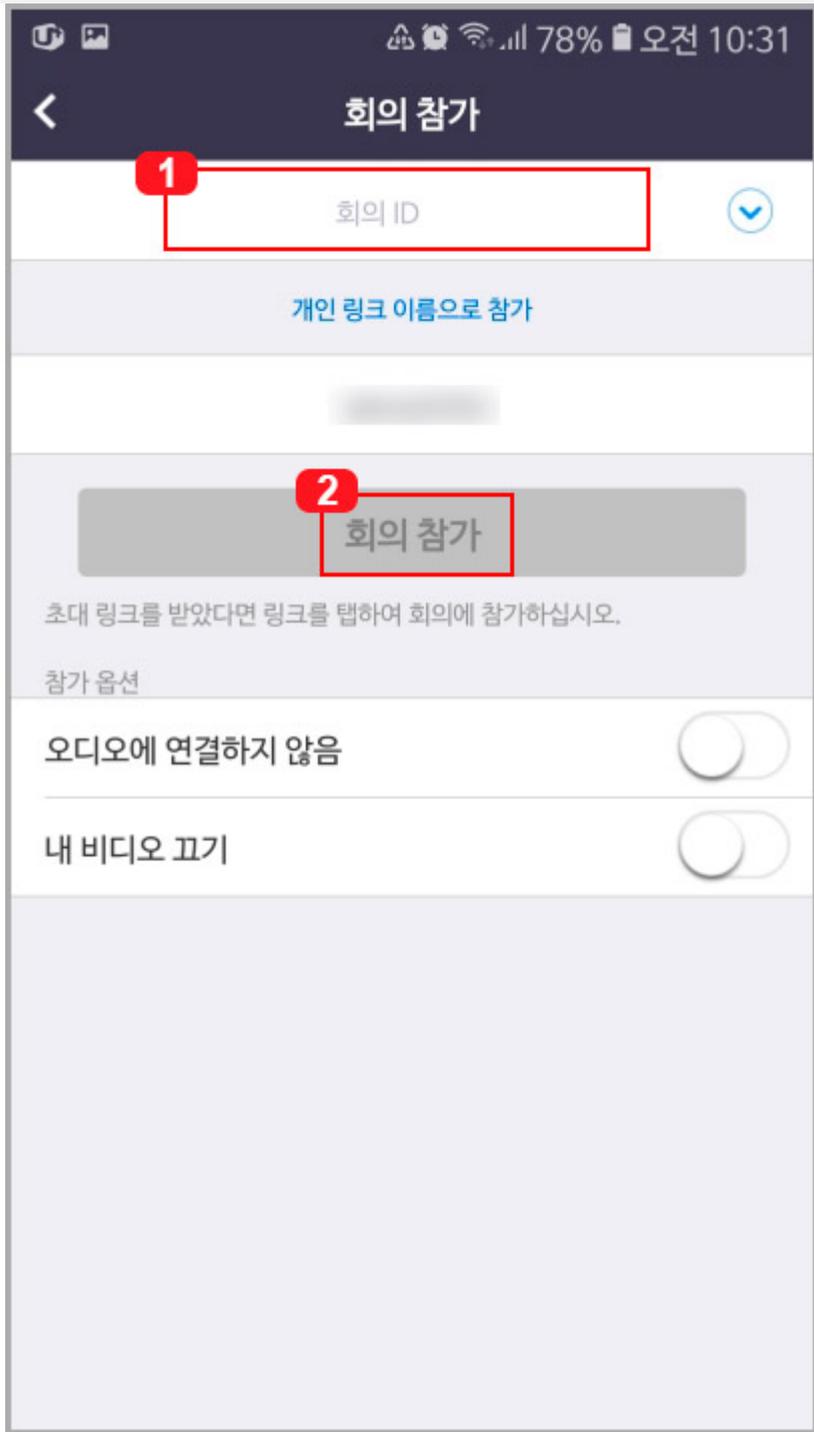
2. "모두에 대해 회의 종료"를 누르면 전체 종료되며 회의실이 없어집니다. 그냥 "회의 나가기"로 나가면 회의실은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다시 들어갈 수 있습니다.

4. 줌 회의 참가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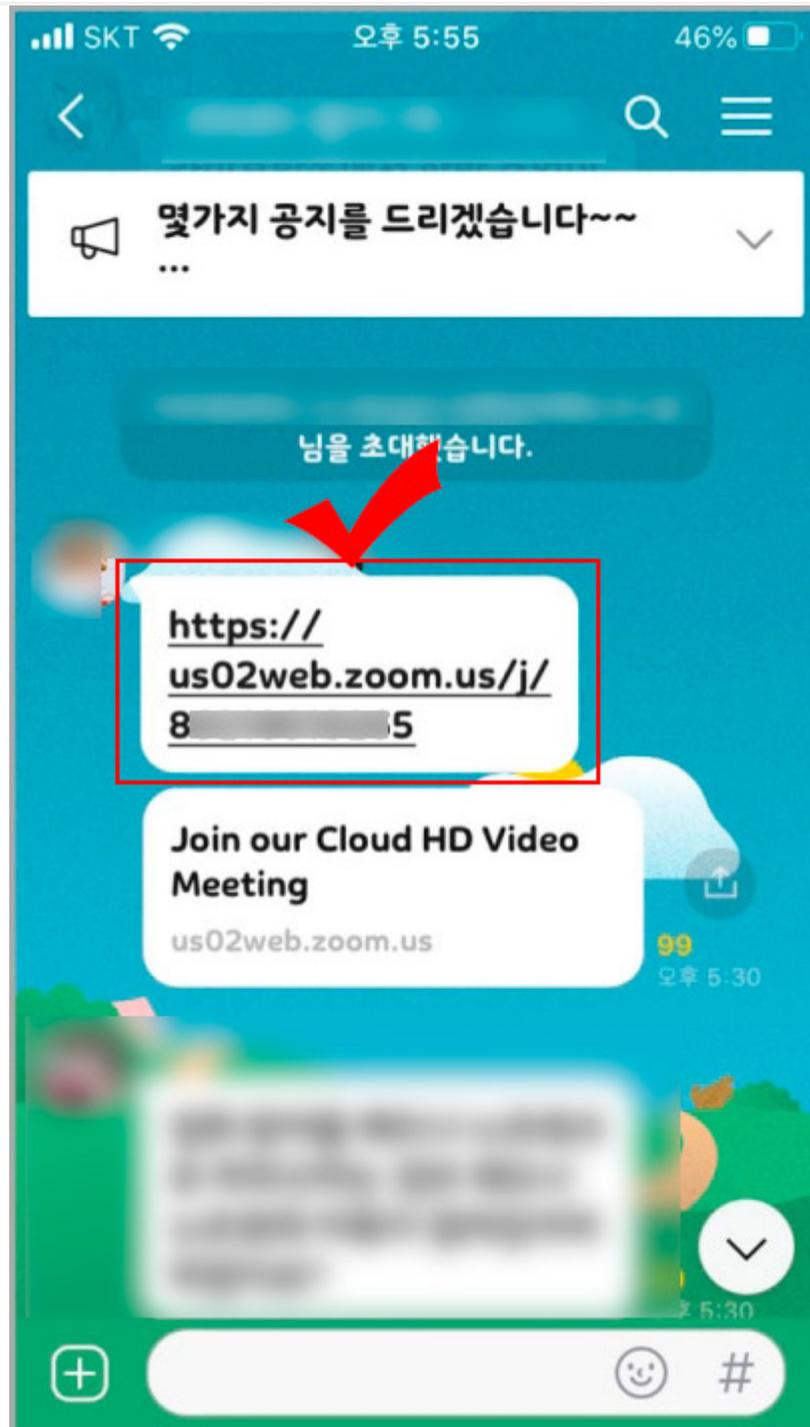
줌 참가하기

1. 다른 사람이 개설한 줌 회의실에 참가하고 싶다면 "참가" 버튼을 클릭해 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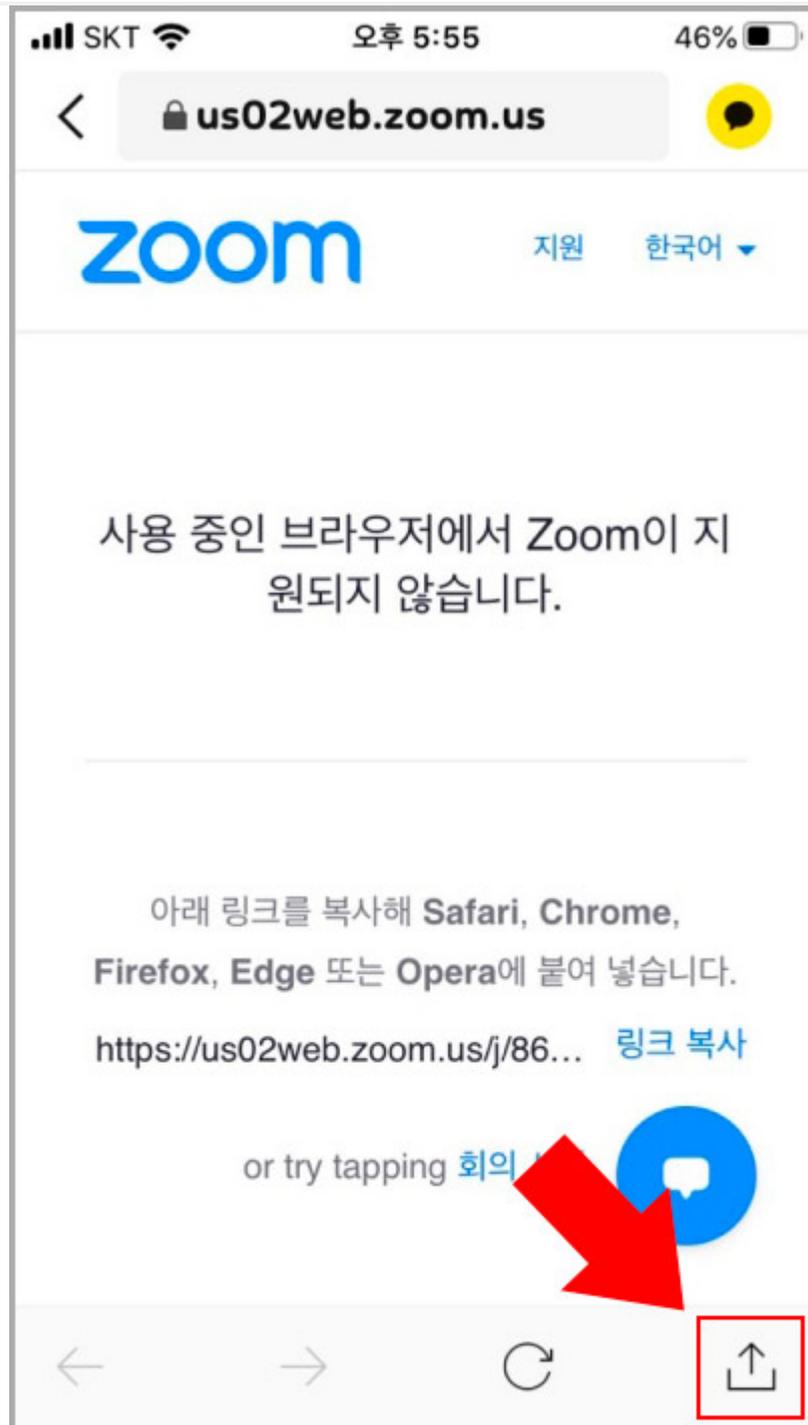
줌 회의 참가

2. 1번에 회의실 ID를 적고 2번 "회의 참가"를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됩니다. 비밀번호를 모르실 경우 초대하신 상대방에게 물어보시면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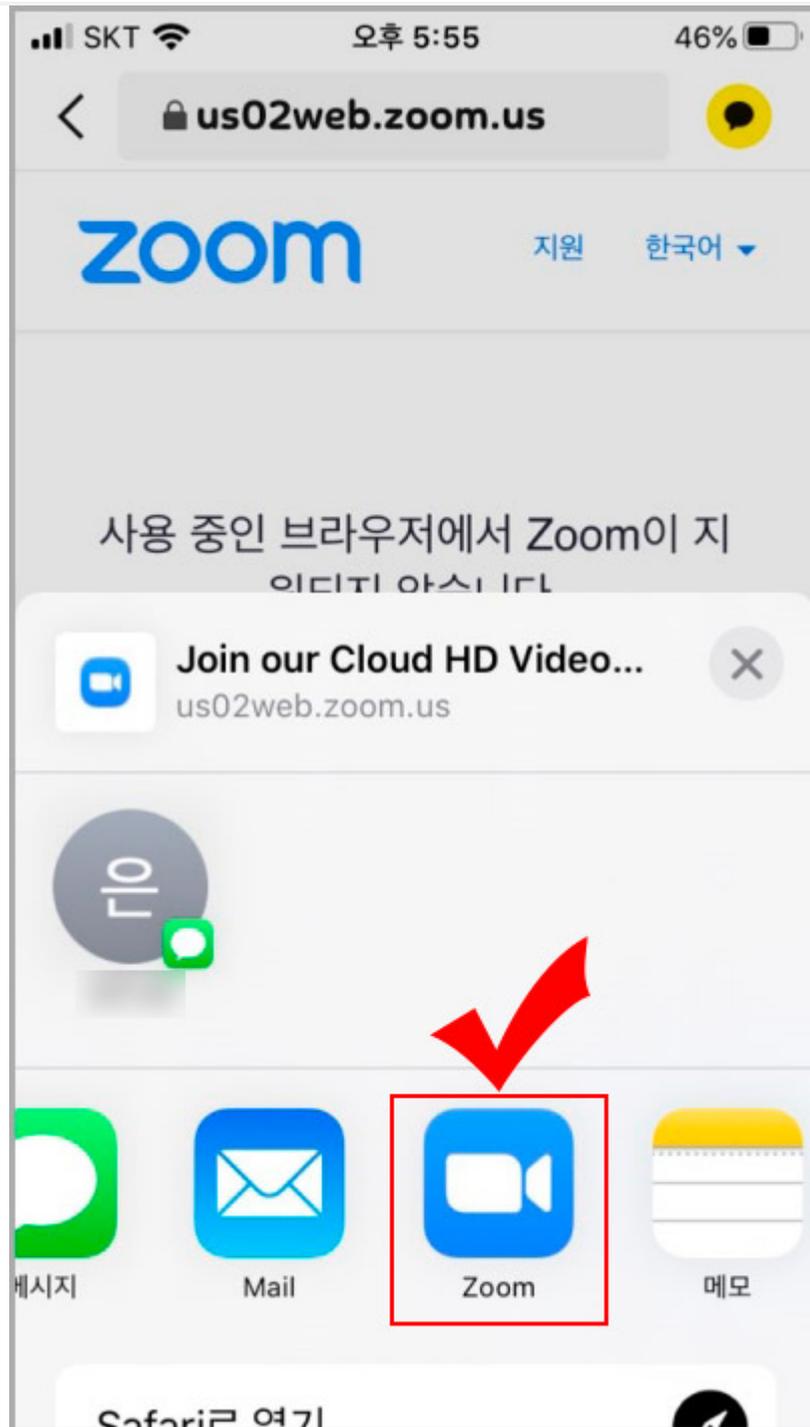
줌 참가하기

3. 초대 링크를 받아서 가는 경우는 더욱 쉽습니다. 그냥 상대방이 보내준 링크를 클릭하시면 바로 회의에 참가하실 수 있습니다. (단,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을 사용해야 하며 줌에 회원가입 및 로그인이 되어 있는 상태여야 바로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아이폰은 아래의 방법으로 진행하세요.)



아이폰 줌 참가하기

4. 아이폰에서는 줌을 바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초대 링크를 클릭하면 위 화면이 뜨는데 그럴 때 우측 하단에 있는 공유 버튼을 클릭해 줍니다.



아이폰 줌 사용

5. 공유 버튼을 클릭해서 줌 앱을 선택하시면 초대 링크로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추가로 줌 이름 바꾸기 방법은 아래의 방법을 참고하세요.

2020/08/02 - [IT 정보/모바일 활용 Tip] - 줌(Zoom) 이름 바꾸기, 닉네임 변경하기

줌(Zoom) 이름 바꾸기, 닉네임...

대표적인 화상통화 프로그램 줌(Zoom)에서 내 이름 혹은 닉네임 변경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

lifenourish.tistory.com

'IT 정보 > 모바일 활용 Tip' 카테고리의 다른 글

카카오톡 카카오페이 인증서 발급 및 삭제 방법 (0)	2020.07.22
보라색 공유 전동 킥보드 빔(BEAM) 사용법과 이용 가격 확인하기 (0)	2020.07.18
모바일 줌(Zoom) 사용법, 회의 개설과 초대 및 회의 참가하기 (2)	2020.07.16
모바일에서 줌(Zoom) 설치 및 회원 가입하는 방법 (0)	2020.07.15
구글 패밀리 링크 삭제하기 (0)	2020.07.11
당근마켓 앱 설치 및 거래 방법을 자세하게 알아보자 (0)	2020.07.09

모음. 표형식자료

모바일허브

모바일허브®를 활용한 SNS 홍보마케팅 제안

온라인 환경이 PC에서 스마트폰으로 홈페이지 중심에서 카톡, 페이스북, 블로그,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다양한 소셜 미디어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 다양한 소셜 미디어를 스마트폰으로 통합, 전달이 가능한 모바일허브®를 SNS 홍보마케팅에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를 제안합니다. 그리고 고객의 관점에서 고객이 원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고객 중심 홍보 전략이 중요 합니다.

다양한 소셜미디어를 적극적으로 활용함과 동시에 파급력이 큰 지인을 통한 입소문 마케팅과 병행되어야 합니다. 각종 SNS를 통하여 제품, 기업정보를 상세하게 제공함으로써 고객관리 강화에 주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블로그등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소셜미디어를 모바일허브®를 통해 고객들에게 통합적으로 제공 함으로서 홍보 효과를 높여야 합니다.

또 공급자 중심의 정보생산에서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다양한 정보유통, 고객중심의 정보소비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모바일허브®를 통한 온라인 홍보방식은 기존 PC 홈페이지를 통한 홍보방식에 비해 효과적이면서도 관리 비용이 최소로 소요되는 사용자 중심의 새로운 모바일 홍보 도구입니다.

그리고 웹2.0을 기반으로 하는 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등 다양한 소셜 미디어는 정보 관리자가 콘텐츠 관리 중심의 운영이 가능한 미디어인 만큼 IT 시스템 유지관리 비용면에서도 경쟁력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소셜미디어는 사용자들이 정보를 직접 생산, 공유, 확산, 소통하는 새로운 온라인 SNS 홍보 방식입니다.

정보 제공 형태가 서로 다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블로그, 유튜브 등 소셜미디어의 다양함을 보완하기 위한 대안으로 이들 소셜미디어들을 사용자들이 자유롭게 이동하며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을 모바일허브®를 통하여 보완하시기를 제안 합니다.

모바일허브® 제작하여 SNS 홍보에 활용하세요

(02)419-7740 (주)파라미디어

모바일허브

(주)파라미디어의 모바일허브 특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는 개인화 영업도구입니다. 모바일허브는 개인적인 온라인 홍보를 지향합니다. 개인적인 홍보를 통해서 본인에게 피드백이 되어 카카오톡이나 전화로 직접 고객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 홈페이지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여도 본인에게 피드백이 오지 않는 문제를 해소하고자 하였습니다.

두번째는 편리한 전달성입니다. 간편하게 타인에게 스마트폰에서 문자나 카톡으로 쉽게, 즉시 전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제삼자에게도 간편하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에 바로가기를 만들어 놓으면 스마트폰 앱처럼 언제든지 바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세번째는 콘텐츠 통합성입니다. 회사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콘텐츠를 링크를 통해서 공유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인은 최소한의 콘텐츠 유지를 통해서 콘텐츠 관리에 대한 시간적인 부담을 최소화하였습니다.

네번째는 모바일 웹기반으로 제작되어 있기 때문에 다양한 소셜미디어에 활용이 가능합니다. 페이스북, 네이버밴드, 카카오톡 등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다양한 소셜미디어에 간편한 활용과 공유가 가능합니다. 개별적으로 도메인(url)이 부여되므로써 개인 홈페이지 기능이 가능합니다.

다섯번째는 시스템 관리 경제성입니다 최소한의 비용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SNS 상에서 홍보할 수 있는 매우 효과적인 온라인 도구입니다. 2년동안 사용하는 조건으로 200,000원(세별도)에 일주일 내로 제작 사용이 가능합니다.

모바일허브 제작상담 : (주)파라미디어 02-419-7740 안원용팀장

모바일허브 활용방법

종이 전단지나 부러셔를 스마트폰으로 전달하는 기능
종이 전단지를 스마트폰으로 보내준다고 생각하면 된다.

모바일허브 사용법 소개내용

키카옥에서 모바일허브 검색

오픈채팅,포스트클릭

카카오톡에서 모바일허브 검색

모바일허브를 우선 문자로 보내 준다.

카톡으로 보낸다.

받은사람이 클릭해서 접속한다.

카톡으로보내기

문자로보내기

바로가기만들기

모바일허브는 동영상도 보내줄 수가 있다

받은 사람이 여유 시간에 지하철이나 버스 속에서 자료를 더볼 수가 있다

종이로 전달한 다음 정보를 더 보내주는 용도로 활용 하면 된다

모바일허브 바로가기를 만들어서 스마트폰에 앱처럼 활용이 가능하다

밴드나 카카오톡 채팅방에 붙여 넣어 많은 사람에게 전송,배포가 가능하다

원거리는 사람에게 자기의 사업홍보를 하는 꼭 필요하다
교육을 받은 사람에 한에서만 무료 제작을 해 준다 조직이 활성화 되도록 지원한다

○ 모바일홈페이지는 어떻게 제작을 해야 할까요?

● 자신에 맞는 모바일허브

모바일허브는 아주 다양한 기능과 디자인을 갖출 수 있습니다. 다만 자신의 비즈니스 환경과 방향, 그리고 운영관리 능력 등을 고려하여 모바일허브의 규모를 결정합니다.

많은 개발비가 들어가더라도 특별한 기능을 넣을 것인지. 관리비가 나가더라도 디자인에 신경을 쓸 것인지, 좀 불편함은 있어도 개발비를 줄여 기본적인 것으로 만족할 것인지, 관리비도 최소화하여 최소한의 비용으로 모바일허브를 운영할 것인지를 고려하여 모바일 홈페이지의 규모를 결정하시면 됩니다.

● 저비용으로 효율 극대화

모바일허브는 적은 비용으로 효율을 극대화 하는 것입니다. 모바일 홈페이지를 만드는 비용도 만만치 않지만 운영 또한 간단치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온라인 환경에서 오프라인에서 구현 할 수 없는 많은 것들을 무한히 해낼 수 있습니다. 이런 매력 때문에 많은 비즈니스 운영자들은 모바일허브를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워리 프리 (Worry-Free)

모바일 홈페이지를 만들었던 많은 이들이 관리문제로 포기하는 수가 많이 있습니다. 이는 모바일 홈페이지의 운영에 대한 충분한 지식이 부족하여 생기는 시행착오입니다.

하지만 이젠 (주)파라미디어가 이런 복잡하고 어려운 일은 전담합니다. 관리능력이 없으신 분들도 걱정 없이 최소 비용으로 운영하실 수 있습니다.

○ 모바일허브 를 활용한 온라인 홍보전략 제안

온라인 홍보 전략으로 모바일허브를 활용한 미디어의 통합 전략을 제안합니다. 기업과 소비자간 커뮤니케이션 환경이 PC 기반의 홈페이지에서 카톡, 페이스북, 트위터, 블로그 등 소셜 미디어로 이동한 만큼 스마트폰으로 대표되는 모바일허브를 활용한 커뮤니케이션 채널통합 전략을 기업PR에 적극적으로 적용해야 합니다.

최근의 온라인 마케팅 환경 변화 추이에 부응하는 3S 온라인 마케팅 전략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3S 온라인 마케팅의 핵심키워드는 소셜미디어,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스마트폰 세 가지입니다.

실질적인 고객수의 증가를 통하여 제품판매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는 우선 고객이 원하는 정보를 생산하고 유통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특히 모바일허브를 구축 운영하여 다양한 소셜미디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동시에 TV광고보다 파급력이 큰 지인들을 통한 입소문 마케팅과 병행하여 소셜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하여 상세한 제품, 기업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고객관계강화에 주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페이스북, 유튜브, 블로그, 트위터 등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소셜미디어 채널 운영을 모바일허브 제작 운영을 통해 통합 제공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높여야 합니다.

또 사용자 중심의 정보생산과 영향력이 큰 소셜미디어를 활용을 통해 새로운 고객을 개척하는 새로운 방식의 정보의 생산과 유통이 시급합니다.

모바일을 통한 온라인 커뮤니케이션 방식은 기존 PC 홈페이지를 통한 커뮤니케이션 방식에 비해 효율적이면서도 관리 비용이 적게 소요 되는 사용자 중심의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웹2.0을 기반으로 하는 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 유튜브등 소셜미디어는 정보 관리자가 콘텐츠 관리 중심의 운영이 가능한 미디어인 만큼 IT 시스템 유지관리 비용면에서도 경쟁력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소셜미디어는 사용자들이 정보를 직접 생산, 공유, 확산, 소통하는 새로운 온라인 디지털 소통방식"이고 "사용자들이 경험한 의견과 정보를 올리고 정보를 공유, 확산, 소통하는 소셜미디어야말로 브랜드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가장 효율적인 입소문 마케팅"입니다.

정보 제공 형태가 서로 다른 페이스북, 트위터, 블로그, 유튜브 등 소셜미디어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대안으로 이들 소셜미디어들을 상호 연동하고 사용자들이 자유롭게 이동하며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자 환경을 모바일허브를 통하여 개선해야 합니다.

(제안요지) 각종 소셜미디어의 연동을 통하여 빠른 정보의 확산과 노출을 소셜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하여 기업 신뢰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직원 대상으로 다양한 소셜미디어 활용 교육과 운영하고 있는 소셜미디어를 하나의 채널로 통합 제공하는 모바일허브 제작을 제안하오니 많은 상담을 부탁드립니다.

교육및 제작 상담 : (주)파라미디어 02-419-7740 문의하시면 상세한 안내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모바일허브를 활용한 온라인 홍보 PR전략

각종 온라인 미디어를 통합 제공하는 모바일 허브를 활용한 온라인 홍보 전략을 소개 합니다.

기업과 소비자간 온라인 커뮤니케이션 환경이 PC 기반의 홈페이지에서 카톡, 페이스북, 트위터, 블로그 등 소셜 미디어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스마트폰으로 온라인 미디어를 통합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모바일 허브가 온라인 홍보에 적극적으로 활용되어야 합니다. 최근의 온라인 마케팅 환경 변화 추이에 부응하는 3S 온라인 마케팅 전략을 여러분들께 제안 하고자 합니다. 3S 온라인 마케팅의 핵심키워드는 소셜미디어,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스마트폰 세가지 입니다.

실질적인 고객의 증가를 통하여 제품판매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는 우선 고객이 원하는 정보를 맞춤으로 제공하는 전략이 필요 합니다. 특히 모바일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다양한 소셜미디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동시에 TV광고보다 파급력이 큰 지인들을 통한 입소문 마케팅과 병행하여야 합니다.

각종 소셜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하여 제품, 기업정보를 상세하게 제공하는 방법으로 고객관계 강화에 주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페이스북, 유튜브, 블로그, 트위터 등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소셜미디어가 모바일 허브를 통해 고객들에게 통합 제공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높여야 합니다.

또 사용자 중심의 정보생산과 영향력이 큰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정보 유통을 통해 새로운 고객을 개척하는 새로운 방식의 정보의 생산과 유통이 시급합니다.

모바일을 통한 온라인 커뮤니케이션 방식은 기존 PC 홈페이지를 통한 커뮤니케이션 방식에 비해 효율적이면서도 관리 비용이 적게 소요 되는 사용자 중심의 새로운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웹2.0을 기반으로 하는 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 유튜브등 소셜미디어는 정보 관리자가 콘텐츠 관리 중심의 운영이 가능한 미디어인 만큼 IT 시스템 유지관리 비용면에서도 경쟁력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소셜미디어는 사용자들이 정보를 직접 생산, 공유, 확산, 소통하는 새로운 온라인 디지털 소통방식"입니다. 사용자들이 경험한 의견과 정보를 올리고 정보를 공유, 확산, 소통하는 소셜미디어야 말로 브랜드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가장 효율적인 입소문 마케팅"입니다. 정보 제공 형태가 서로 다른 페이스북, 트위터, 블로그, 유튜브 등 소셜미디어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대안으로 이들 소셜미디어들을 상호 연동하고 사용자들이 자유롭게 이동하며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자 환경을 모바일 허브를 통하여 개선해야 합니다.

(제안요지) 각종 소셜미디어의 활용을 통하여 빠른 정보의 검색과 노출하고 소셜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하여 기업 신뢰도를 향상시키고, 소속 직원 대상으로 다양한 소

설미디어 활용 교육과 운영하고, 있는 소셜미디어를 하나의 채널로 통합 제공하는 모바일허브 제작활용을 제안하오니 많은 상담을 부탁드립니다.

교육 및 제작 상담 : (주) 파라미디어 02-419-7740 안원용팀장에게 문의하시면 상세한 안내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비영리기관을 위한 모바일허브 제작 제안

각종 기관 홍보용 자료를 스마트폰으로 통합 제공하는 모바일허브 입니다. 복잡하지 않고 편리하게 기관 홍보에 도움이 되는 내용만 모은 모바일허브를 (주)파라미디어가 제작 제공합니다,

(주)파라미디어의 모바일허브는 바로 이런 기관을 위해 제작합니다.

○ 정작 홈페이지를 만들어 놓고도 방문객이 없어 고민인 기관

(주)파라미디어는 온라인 커뮤니케이션 전문기업으로 이런 문제들을 (주)파라미디어가 제작 제공하는 모바일홈페이지를 통하여 기관의 홈페이지로 고객들이 찾아가는 디딤돌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 홈페이지를 만들었으면 검색 또는 노출을 위한 포털에 광고를 해야 한다는 것으로 아는데 엄청난 비용에 엄두를 낼 수 없는 기관

한번 클릭만으로도 수십원씩 지불해야하는 광고비는 비영리기관으로는 엄두를 못 냅니다. (주)파라미디어의 모바일홈페이지는 일년 기본 사용료가 30만원입니다. 이 적은 비용으로 여러분의 노력만으로 많은 고객들에게 귀사의 홈페이지를 고객들에게 직접 홍보하실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를 만들고 싶은데 제작 비용 때문에 제작을 미루고 있는 기관.

홈페이지의 제작과 관리에 대한 전문지식을 몰라도, 문자를 주고 받고 카카오톡을 주고 받을 수 있는 정도라면 (주)파라미디어의 모바일허브는 편리하게 활용 하실 수 있습니다. 처음 모바일허브를 신청하시면 제작 후 활용방법을 교육시켜 드립니다. 제작비용도 메뉴 페이지 8개를 기준으로 30만원 입니다. 더 많은 것이 필요하실 경우 협의 하에 제작비용과 기본 관리비용을 결정 할 수 있습니다. 대개의 경우 8페이지면 충분합니다.

○ 모바일 카다로그가 필요한 기관.

인쇄물로 된 카다로그는 초기 제작비는 물론 인쇄비도 많이 들뿐 아니라 원거리의 고객의 카다로그 요구에 바로 대처하더라도 시간이 걸리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런 단점을 한번에 해결 할 수 있는 것이 모바일 카다로그입니다. 이 모바일 카다로그를 모바일허브로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 모바일허브 제작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모바일허브 제작은 8페이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8페이지로 기관소개, 서비스 및 시설 소개, 이용안내, 공지사항, 후원안내, 지원봉사 모집 등 여러 가지 내용으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기관의 소식지를 스마트폰으로 제공하고 지속적인 후원 관계를 강화하는 톨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 모바일허브 제작비와 관리비는 얼마나 되나요?

기본적으로 8페이지를 표준으로 제작할 경우 기본 30만원 입니다.

페이지가 늘어난다거나 특별한 디자인, 또는 기능을 원하실 경우 제작비는 추가 될 수 있습니다. 페이지는 늘어나지 않지만 특별한 디자인을 원하실 경우 디자인 비용이 추가 됩니다. 특별한 기능을 원하실 경우 추가비용 없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담당자와 상의 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제작 요청 전 사진과 자료를 미리 준비를 하시면 모바일허브 제작 시간을 단축 하실 수 있습니다. 제작과 관련 된 더 자세한 질문은 (주)파라미디어(02-419-7740) 전화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비영리기관만을 위한 특별한 혜택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모바일허브를 활용한 교회 온라인 커뮤니케이션 강화 제안

각 교회에서는 교회와 관련된 정보를 홍보하기 위하여 각종 온라인 미디어를 운영 및 활용 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교회는 홈페이지를 PC버전으로 운영 중이며 일부 교회는 모바일 홈페이지를 별도 제작 운영 중입니다. 그리고 각종 소셜미디어 (페이스북,블로그,카페,트위터,유튜브등) 를 활용하여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강화하면서 성도와 온라인 소통 채널을 강화 하고자 노력 하는 중입니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가장 큰 이슈는 모바일 홈페이지가 없거나 PC와 이중화 되어 성도가 불편하여 홈페이지의 활용이 유명무실해 가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PC 홈페이지는 포탈에서만 검색이 되어 접근에 한계가 있습니다. 각 교회가 소셜미디어를 개별적으로 운영하고 있어 성도 입장에서는 일관성이 없고 통합 제공이 되지 않아 성도가 전체적인 온라인 미디어를 파악하기가 어렵고 각종 미디어를 접근하는데 불편함이 존재합니다. 교회 SNS구축을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 다양한 소셜미디어 계정을 운영함에 있어 이웃추가, 친구맺기, 팔로우등 관계설정 및 확대가 수동적으로 진행될 수 밖에 없어 채널 확대에 어려움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는 기존 PC 홈페이지를 모바일버전으로 스마트폰에서 쉽게 볼 수 있도록 제작/운영하고 가능한 PC와 모바일 홈페이지를 통합하여 운영이 가능하도록 재개발을 하거나 각종 소셜미디어를 개설 및 활용하여 콘텐츠 (글,사진,동영상) 제공 활동 강화되고, 각종 온라인 미디어가 통합 제공되는 모바일 허브를 제작 활용하면 해결이 됩니다.

모바일허브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게 되면 각종 온라인사이트의 내용이 스마트폰에 최적화 되어 성도가 온라인 미디어에 쉽게 접근이 가능하며, 다양한 콘텐츠를 최적화된 소셜미디어를 활용하여 최소 비용으로 미디어 운영이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기존의 수동적 홍보 방식에서 적극적인 홍보 방식으로 전환하여 홍보효과 극대화 가능해집니다. 그렇게 하여 최소의 비용으로 입소문 효과를 낼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각종 다양한 교회 정보를 제공이 용이하여 성도와 교회간의 온라인 커뮤니케이션이 강화되어 공동체 의식이 강화 될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 홍보를 위한 SNS 모바일허브 활용 방안

IT 정보기술의 발전으로 인하여 정보가 넘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런 복잡하고 정보가 넘치는 환경 속에서 어떻게 하면 비즈니스 홍보를 잘 할 수 있을까요?

효과적이고 경제적인 홍보가 필요하시지요?

여러분께서는 홍보, 광고하면 떠오르는 것이 신문, 방송, TV, 잡지, 전단지가 떠올르실 것 입니다.

이것이 매스미디어라고 하는 전통적인 매체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매스미디어에 익숙하신 것입니다.

IT 기술이 발전을 하였습니다.

전화기, 통신, 프린터의 발전

특히 미디어 기술이 급격하게 발전을 하였습니다.

웹1.0에서 웹2.0으로 발전

매스미디어도 중요하지만 소셜미디어도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들면 지상파와 유튜브 방송

저는 IT 특급기술자입니다.

쉬운 표현으로 하면 특급 정보요리사입니다.

요리를 하려면 신선한 요리재료, 요리도구, 요리기술이 있어야 맛있는 요리를 만들어 드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효과적인 홍보라는 맛있는 요리를 드시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럼 지금부터 맛있는 요리를 시작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이 요리하는 방법은 시간 관계상 최소한으로 실습을 해 보겠습니다

요리재료

홍보자료의 디지털화

글,사진,동영상
요리기술
온라인 핵심전략의 이해와 활용
3S 온라인 기반전략
CMCD 온라인 구축전략
4D 온라인 운영전략
요리도구
스마트폰 사용법 숙지
소셜미디어 (1인미디어,퍼스널미디어) 사용법 숙지.
SNS용 모바일허브 제작 활용

모바일허브

- 사업홍보용 모바일허브 장점
- 제작, 운영 비용이 저렴합니다
- 누구나 편리하고 쉽게 사용할수 있습니다
- 타인에게 쉽고 간단하게 전달 배포가 가능합니다
- 간결하고 수려한 디자인으로 제작됩니다
- 제작기간이 2~3일로 매우 짧습니다
- 다양한 SNS에 바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 스마트폰 뿐만 아니라 PC에서도 접속이 가능합니다
- 스마트폰에 최적화된 화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스마트폰에 설치나 저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 사이트를 별도로 개인이 관리할 필요 없습니다

구글드라이브 공유
모바일허브사용법
모바일허브활용법
제작 모바일허브 수정
큐알코드 스티커
웹
소셜미디어
URL
강의녹화
구글드라이브의활용
파일관리의 자유함
무제한
파워풀한 검색기능
내용검색

손글씨검색
파일종류
내부바로가기만들기
공유하기
폴더.파일
사본보내기
폴더만들기.색상
빈폴더폴더모음
프레임워크
클라우드
디바이스불문
파일관리
드라이브파일스트림
나만의구글
검색키워드
나만의구글
나의두번째두뇌
키워드검색
기억하지말라
생각,발상,아이디어
자료,파일
컨텐츠종류
텍스트,사진,동영상
정보생산
디지털
타이핑
촬영(사진,동영상)
정보시스템의발전에의해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네트워크
클라우드 저장
모바일 소비
SNS 유통
코드화
포켓화
프레임워크화
MECE화

데이터베이스화

모바일허브의장점

개인화

Open chatting

전화걸기

Personal

App화

바로가기만들기

바탕화면앱

최소화

관리부담의 최소화

메뉴링크의 최대한 활용

통합화

다양한 소셜미디어의 통합연결

간편화

단순화

메뉴의 단순화

카카오톡보내기

문자보내기

왜 소셜미디어를 사용해야 하는가?

쌍방향

친구

왜 카카오톡과 밴드를 사용해야 하는가?

왜 다양한 미디어를 사용해야 하는지?

경제성

보편성

편리성

모바일허브활용하기

온라인커뮤니케이션의 목적

홍보, 소통

모바일허브 활용하기

널리 퍼트리기

입소문 전달, 전파가 용이해야

문자, 카카오톡 보내기

소셜미디어를 한번에 제공하기

단순한 메뉴로 구성
한번의 클릭으로 접속가능
앱 App처럼 사용하기
홈화면에 바로가기 만들기
바탕화면에 아이콘 생성
모바일허브 장점
모바일에 최적화 되어 있다
경제적으로 제작할 수 있다
SNS 활성화가 가능하다
다양한 소셜미디어의 활용
블로그 : 개방형커뮤니티
밴드 : 폐쇄형커뮤니티
플러스친구 : 공지하기,채팅하기,배포하기
폼: 데이터취합

모바일허브제작프로세스

기존 제작사례 보내기
각 사이트 주소 Url 알려주기
네이버카페
네이버블로그
인스타그램
카카오토리
오픈채팅방주소
유튜브채널주소
전화번호
제작완료발송
사용법설명
문자보내기
카카오톡보내기
바로가기만들기
플러스친구포스트등록
네이버블로그포스트등록
스토리채널포스트등록
페이스북페이지(파라미디어)포스트등록
QR코드제작공유
URL홍보방법알려주기
네이버밴드에공유하기
카카오톡검색사례

네이버검색사례
페이스북검색사례

변호사 홈페이지 어디서 만들지?

파워포인트
내보내기
Jpg
파일이름일괄변경
포토스케이프

에버노트>도구
가져오기폴더

에버노트
노트이름변경
가져오기폴더-이동하기
번호체계부여

내보내기
Html
크롬으로 열기
전체선택,복사하기
Docx
붙여넣기

편집하기
페이지구분
Space
표지
바닥글,페이지넘버

Pdf
표지제작

전자책

Url

포스팅

카카오톡채널

카카오톡 검색

공유하기

Post(글)의 종류

- ① 느낌(feel) 전달
- ② 주장(message) → 사실
- ③ 상황전달(fact, News) → 소식
- ④ 경험(Story) 이야기
- ⑤ 지식전달 (Learning)
- ⑥ 알림(행사) (evnet) - 공지
- ⑦ 독서후기 (독후감) (book summary)
- ⑧ 제안(Proposal)
- ⑨ 상황분석(analysis) - 사건기록
- ⑩ 단상(memo)
- ⑪ 홍보,광고(Ad)

심플마인드맵 인터페이스

ThinkWise → 복사 → WF → 붙여넣기

WF → Export → plaintext → Ctrl+C

ThinkWise -제거

Freemind → 붙여넣기 → 저장하기

Simplemind → 가져오기 → 저장하기

SM → Export → Freemind(.mm)

Freemind → 중심주제 → 우클릭 → 복사 → 메모장 → Ctrl+C → TW → 붙여넣기

일하는 방법(기법)

TW - 폴더구조생성 - hyperlink - 첨부파일 - Master

TW - 복사하기 - WF - 붙여넣기

WF – export – Ctrl+C – MS Word
WF – expert – Ctrl+C – TW – 다중가지 붙여넣기
TW – 복사하기 – 메모장 – 붙여넣기 – Ctrl+C – FreeMind – 붙여넣기 – 토픽수정 –
다른이름으로 저장 - .mm – Simplemind Evernote
갤러리 – Evernote – Tag
Simplemind – JPG – Googlephoto
TW – Pdf – 결합 – 바인더
WF – share – url → y-id, mobile hub, NFC, QRcode
Excel – memo → TW
google photo – 앨범 – 공유하기 – URL – 카톡
pdf – 구글 드라이브 – 공유 – 링크
네이버지도 – 링크 → 공유 - 카톡

특강오프닝

모든 일의 시작은 메모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아이디어가 문서로 변환 작성되는 과정에 필요한 기술을 체계화기술이라고 합니다.

아날로그와 디지털의 융합

A4프레임워크메모와 ThinkWise의 결합

발상과수렴의원리

생각요리사

생각요리기술

생각의정리함

필기

체계화기술의 배경기술은 브레인정보기술과 프레임워크정리기술입니다

체계화기술은 체계화스킬과 체계화도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체계화스킬은

체계화도구는

여러분 체계화기술을 잘 활용하여 인정받는 사람이되고 행복한 삶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카카오톡 오픈채팅 링크
<https://open.kakao.com/o/gxZ319K>

카카오채널
http://pf.kakao.com/_VwAyl

리더스씽킹연구소 모바일허브
<http://mcat.kr/leadersthinking>

변화하고 싶다면 반드시 적어야 한다.

생각과 일의 차이점

생각은 혼자 하는 것이고 일은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은 프로세스가 있는 것입니다.
프로세스는 어떤 콘텐츠를 어떻게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방식인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제 일하는 방식을 변경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변경 하나면요.

IT를 활용하여 콘텐츠와 커뮤니케이션을 변경에 보는 것입니다.

콘텐츠는 아날로그에서 디지털화를 하고 커뮤니케이션 방식은 오프라인에서 온라인 방식으로 변화를 하는 것입니다

온라인 커뮤니케이션을 하려면 다양한 미디어와 채널을 통해서 하여야 합니다. 새로운 시도를 시도해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서 일이 바뀔 수 있고 일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가 있으며 일의 성과를 더욱 내실 소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도전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일을 할 때 함께 일을 하는 것을 즐겁고 보람을 느낄수 있도록 일하는 시스템을 바꾸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과학기술의 발전

정보기술의 발전

컴퓨터 활용 수준의 향상

스마트활용 역량의 중요성

과거에는 PC와 오피스 정도만 사용하면 됐으나 현재는 오피스 외에도 Evernote ThinkWise Workflow 노션 구글 keep 구글 meet YouTube 등 다양한 소셜미디어와 앱을 사용 파일관리를 할 정도로 파일종류가 다양해졌다.

과거에 다루던 파일 종류가 다양해졌다. JPG MP4

그리고 클라이언트로 사용되는 것이 클라우드 환경으로 기술이 발전되었다.

학습원리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다.

공부하는 원리를 설명하는 것이다.

공부는 지식의 확장을 말한다.

지식의 확장을 다른 걸로 비유하게 되면 신도시를 개척하는 상황과 같다고 볼 수 있다.

기존의 토지를 확장하게 되면 기존의 인프라와 연결이 되어야 한다. 전기 가스 상수 하수 이런 인프라와 연결이 되어야 한다.

길을 내고 길을 낸 다음에 집을 짓게 되는 것이다.

자료를 정리하는 순서로는 먼저 프레임워크를 설정해 놓고 해야 한다.

프레임워크는 책장과 같은 것이다.

책장을 준비해 놓고 책을 정리해 나가는 방식과 같다. 책장의 예를들면 폴더와 같고 에버노트의 스택 이며 워크플로이 ThinkWise 등이 프레임워크를 관리하기 용이하게 해주는 소프트웨어이다.

프레임워크를 다른 의미로 풀어보면 포켓과 같고 포켓 이론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다

(주)파라미디어

리더스씽킹연구소
스마트 미션
에이썸화장품
키스립
엘레오틴

원터치페이
페이앱
ThinkWise

한농원
코디팜
품앗이세상

탕정토지
건영아파트
레이크팰리스아파트
부평리공장

세대로교회 배명고등학교
GMP GMTC GMF
빌리온선교회

본케어한의원
한식협회
서초포럼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신한금융투자
미래에셋증권

사랑의교회
선교한국
합신대학원
총신대학원

제자훈련원

프레임워크의이해와활용

사역지원도구

파라미디어 수익모델

웹사이트제작

모바일허브제작

ThinkWise 판매

유튜브셋팅

SNS운영대행

QR코드만들기

QR코드활용하기

QR코드사용하기

흠어진것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흠어진 이유는 시간차 공간차 방식차가 있기 때문이다

회사소개서 사업소개서 사업계획서 창업계획서

사업소개에는 제품소개 기술소개 서비스소개가 들어가야 한다

개인화 차별화 단순화

단순화 감성화 소셜화

과학적사고 분석적사고 체계적사고

교회 SNS 플랫폼구축

교외와 성도 간에 공유할 것

성도와 성도 간에 공유할 것이 무엇인가

친구만들기 친구요청 친구수락

틀 포켓 프레임워크

빈 것이 무엇인지

채워야 할 것이 무엇인지

번것을 찾기가 용이하게

선배가 후배를 위해서 만드는 것

미리 틀을 만들어라

전도자는 오프라인 사역 온라인 사역 두 가지를 다 잘 해야 한다

오프라인은 인간적이고 온라인은 기계적인 부분이 있다
온라인에서 정보공유는 관계강화에 목적이 있다

업무를 분류하라
생각을 정리하라
자료를 정리하라
시각화 조직과 입체화
폴더 > 서브폴더 > 파일

일이 체계화가 되어야 일이 적어진다
잘하게 된다
시간이 단축하게 된다
정리 원리
돌을 집어넣는 동영상
사역이 정리되는 동영상 필요하다

일을 정리하라
업무를 분류부터 하라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를 먼저 정리하라

체계화 코드화
자료를 정리하고 폴더 별로 만들라

사역자별 조직별 이벤트별 부서별

매주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매일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파악 해보라

모바일 방판
프레임워크 만들기
프레임워크 이해하기
프레임워크 찾기
컴퓨터 사용 시간 줄이기
퍼즐이론

레고블록

생각요리기술

요리재료 요리도구 요리스킬 요리가 만들어 지는 과정

A4프레임워크메모

구글Keep TextScanner ThinkWise

조직화 체계화

행사계획서맵 만들기

업무매뉴얼 매핑

첨부파일 하이퍼링크 노트기능

A4메모는 발상 도구이다

체계적으로 체계를 확장해 나가는 것이 일을 만 들어가는 것이다

노트종류 메이킹노트 테이킹노트

문서화기술 학습기술 시간단축기술

맵과 엑셀의 차이점

엑셀의 장점은 빈칸이 쉽게 파악된다

ThinkWise 설치하기 시작하기 사용법

ThinkWise 목차 맵핑하기

RWMP 학습법

ThinkWise 매핑은 사고하는 과정과 동일하다

생각하는 과정에서 내용을 숙지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말단까지 확장하라

시간단축기술

시간을 벌어라

계획수립

계획수립 시간을 단축해서 시간을 벌어라

사무직은 계획수립하는 시간이 업무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기관
기업
단체
개인
공급사
고객사

키스립
엘레오틴
에이썸화장품
ThinkWise
원터치페이
모바일허브제작
A4프레임워크메모
반응형웹사이트제작
서비스
교회
교단
교계
선교사
선교단체
화장품OEM
체계화기술
온라인기술
스마트기술
프레임워크의 이해와활용
전체를 봐야 만들 수 있다
생각요리기술
정보요리기술
정보기술
정보생산
정보유통
정보소비
정보저장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소셜미디어

스마트폰
형제
가족
친척
동문
건강
시간
비용

업무역량
학습역량
사역역량 = (사고력+정보력+프로젝트능력) × 실행력

핵심역량
창의력
문제해결역량

커뮤니케이션역량
오프라인
아날로그
온라인
디지털

문서화역량
스마트활용역량

잘 하기 위하여
잘 전하기 위하여
성과 성적을 내기 위한 IT기술 지원
목회자를 위한 PIT
선교사를 위한 MIT

사고력
아이디어
BIT
두뇌정보처리
두뇌정보처리기술

사고능력
창의력
논리력
종합력
분석력

사고기법 Thinking Skill
발상기법
수렴기법

필기법
필기방식
직선식 워드프로세서
방사형 마인드프로세서
회화형 드로우
필기도구
필기도구의발전
타이프라이터
PC + 워드프로세서 버전을 생각해보라

메모관리
요리재료
요리도구
요리기술
요리

정보력
정보처리기술
CIT

IT활용기술
컴퓨터활용기술의확대
다양한정보처리능력
SW,HW,NW
과학의발전,수준의향상
PC -> SmartPhone
Office ->

4차산업혁명시대

Cloud <- Clent

Mobile <- PC

Socialmedia

Web1.0 -> Web2.0

자료관리기술

수집,분류,편집,검색,공유

문서관리

파일박스,바인더

여전에 없었던시절을 생각해보라

파일관리,폴더관리

코드화

프레임워크화

데이타베이스화

프로젝트역량

시간관리

목표관리

계획관리

지도관리,마스터맵,네비게이터

일정관리

조직관리

비용관리

할일관리

자원관리

Notion

OBS

Google Meet

병원경영지원회사

선형의 사고관과 비선형의 사고관

사과 하나가 떨어졌다.

떨어진 사과에 필(feel)받은 17세기가 낳은 최고 과학자 아이작 뉴턴. 그는 특정한 초기조건과 물체의 운동을 기술할 수 있는 방정식만 있으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다는 믿음을 세상에 전해주었다.

고전역학을 확립해 '과학혁명'에 불을 지핀 공로 덕분인지. 세상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그림의 주인공 중 하나로 오늘날까지 군림하고 있다.

보기에도. 그리기에도 시원시원한. 선(Line).

세상의 모든 현상엔 인과법칙과 정확한 상관관계가 존재한다고 믿는 사고방식은 마치 선과 같다 하여.

선형(線型, 줄 모양, Linear)적 사고라고 한다.

이 선형적 사고는 이미 우리의 DNA에 까지 파고들었는지도 모른다.

우리가 학창시절부터 줄기차게 배워왔던 수많은 수학과 과학의 공식들. 그리고 산술식들.

이들은 어쩌면 선형적 사고에 그 근본 바탕을 두고 있으리라. 헌데 20세기에 들어와서 이러한 사고 관에 대책 점을 이루는 움직임이 시작됐다.

스타트는 '불확정성 원리'를 주창한 하이젠베르크.

원자를 살펴보더라도 입자의 위치와 운동량을 모두 정확히 알 수 없다는 것이 요지. 말 그대로. '확정할 수 없는' 현실적 입장을 새롭게 제시한 것이다.

뉴턴 식의 고전역학에 의하면. 전자의 위치와 운동량은 어떤 상태에 있든지 항상 동시 측정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결국. 하이젠베르크의 주장은 고전역학과는 전혀 다른 사고체계를 탄생케 했다. 그리하여 태동한 것이 이른바 '양자역학'.

양자역학은 단 한 명의 천재가 아닌. 여러 사람들의 노력에 의해 차근차근 가다듬어졌다. 여기엔. 플랑크. 보어. 아인슈타인. 드브로이. 슈뢰딩거 등이 큰 발자취를 남겼다.

이 양자역학의 발전에 필수불가결했던 틀은 다름아닌 확률-통계론 이었다. 왜 그랬을까?

생각해보라. 물방울이 튀게 될 위치라든가.

유리파편이 떨어지게 될 위치 같은 것들을.

당신은 과연 뉴턴의 방정식 따위로 풀어서 답을 낼 수 있는가? 오로지 확률-통계적 추측과 접근만이 가능했던 것이다.

이와 같이 명확한 결론을 도출할 수 없는. 그래서 정확한 값을 예측할 수도 없는. 대충 어떻게 흐를지 알듯하지만 확신할 수 없는. 인간이 자연 속에서 너무나 많이 부딪히게 되는 이러한 상황을.

우리는 비선형(Non-Linear)적 현상이라 한다.

그리고. 이런 현상을 풀어내고자 접근해가는 사고체계를 비선형적 사고라고 일컫는다.

어쩌면 이것이 우리의 인생일지도 모른다.

앞으로 살아가면서 수많은 비선형적 현상에 맞닥뜨리게 되는 운명. 답을 알듯 말듯한 미지의 문제들.

당신이 파생 트레이더 라면. 예외 없이 이런 종류의 물음에 답을 찾는 여정을 떠나야 한다. 당신이 아직까지 트레이딩에서 명확한 답을 찾지 못하고 미궁에 빠져있다면. 여태껏 선형적 사고 관과 접근법에서 헤어날 수 없었기 때문이리라.

현존 최고의 트레이더이자. 헷지펀드의 제왕으로 군림하고 있는 인물. 조지 소로스. 그는 칼 포퍼란 스승으로부터 배운 이 철학을. 과감히 자신의 거래철학과 트레이딩 기술로 접목시켰다. 그리고 성공을 일구었다.

그가 이룩한 헷지펀드 제국. 그 이름을 아는가?

바로 퀀텀펀드. 퀀텀이 바로. '양자역학'의 양자(Quantum)에서 따온 이름이다.

당신도 이제 코흐리개시절부터 익혀온 선형적 사고 관에서 탈피해야 할지 모른다. 차트 분석을 하는 논리적 메커니즘도. 어쩌면 선형적 사고 관의 극치인지도 모른다. 상관관계를 찾고. 마치 공식처럼 답안을 뽑아낼 수 있다는 믿음. 그 믿음이 오늘도 당신을 차트 앞에 서성이게 만드는지도 모른다.

비선형의 사고. 그것이 당신의 트레이딩을 한걸음 앞으로 내딛게 해 줄 것이다. 연어는 그렇게 믿고 있다.

[출처] 선형의 사고관과 비선형의 사고관|작성자 연어

블로그 글쓰기, 구어체 문어체 공식을 적극 활용해보자 : 네이버 블로그

생각과 일의 차이

생각은 혼자 하는 것이고 일은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은 프로세스가 있는 것입니다.

프로세스는 어떤 콘텐츠를 어떻게 커뮤니케이션을 계속 하는 방식인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제 일하는 방식을 변경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변경 하나면요. IT를 활용한 콘텐츠와 커뮤니케이션을 변경에 보는 것입니다.

콘텐츠는 아날로그에서 디지털화하고요 커뮤니케이션 방식은 오프라인에서 온라인 방식으로 변화를 하는 것입니다

온라인 커뮤니케이션을 하려면 다양한 미디어와 채널을 통해서 하여야 합니다. 새로운 시도를 시도해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서 일이 바뀔 수 있고 일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가 있으며 일의 성과를 더욱 내실 소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도전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일을 할 때 함께 일을 하는 것을 즐겁고 보람을 느낄수 있도록 일하는 시스템을 바꾸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Notion

OBS

Google Meet

과학기술의 발전

정보기술의 발전

컴퓨터 활용 수준의 향상

스마트활용 역량의 중요성

과거에는 PC와 오피스 정도만 사용하면 됐으나 현재는 오피스 외에도 Evernote

ThinkWise Workflow 노션 구글 keep 구글 meet YouTube 등 다양한 소셜미디어와

앱을 사용 파일관리를 할 정도로 파일종류가 다양해졌다. 과거에 다루던 파일 종류

가 다양해졌다. JPG MP4

그리고 클라이언트로 사용되는 것이 클라우드 환경으로 기술이 발전되었다.

학습원리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다.

공부하는 원리를 설명하는 것이다.

공부는 지식의 확장을 말한다.

지식의 확장을 다른 걸로 비유하게 되면 신도시를 개척하는 상황과 같다고 볼 수 있다.

기존의 토지를 확장하게 되면 기존의 인프라와 연결이 되어야 한다. 전기 가스 상수 하수 이런 인프라와 연결이 되어야 한다.

길을 내고 길을 낸 다음에 집을 짓게 되는 것이다.

자료를 정리하는 순서로는 먼저 프레임워크를 설정해 놓고 해야 한다.

프레임워크는 책장과 같은 것이다.

책장을 준비해 놓고 책을 정리해 나가는 방식과 같다. 책장의 예를 들면 폴더와 같고 에버노트의 스택이며 워크플로이 ThinkWise 등이 프레임워크를 관리하기 용이하게 해주는 소프트웨어이다.

프레임워크를 다른 의미로 풀어보면 포켓과 같고 포켓 이론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다

(주)파라미디어
리더스씽킹연구소
스마트 미션
에이썸화장품
키스립
엘레오티

원터치페이
페이앱
ThinkWise

한농원
코디팜
품앗이세상

탕정토지

건영아파트
레이크팰리스아파트
부평리공장

세대로교회 배명고등학교
GMP GMTC GMF
빌리온선교회

본케어한의원
한식협회
서초포럼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신한금융투자
미래에셋증권

사랑의교회
선교한국
합신대학원
총신대학원
제자훈련원

프레임워크의이해와활용
사역지원도구

파라미터 수익모델
웹사이트제작
모바일허브제작
ThinkWise 판매
유튜브셋팅
SNS운영대행

QR코드만들기
QR코드활용하기
QR코드사용하기

흩어진것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흩어진 이유는 시간차 공간차 방식차가 있기 때문이다

회사소개서 사업소개서 사업계획서 창업계획서

사업소개에는 제품소개 기술소개 서비스소개가 들어가야 한다

개인화 차별화 단순화

단순화 감성화 소셜화

과학적사고 분석적사고 체계적사고

교회 SNS 플랫폼구축

교외와 성도 간에 공유할 것

성도와 성도 간에 공유할 것이 무엇인가

친구만들기 친구요청 친구수락

틀 포켓 프레임워크

빈 것이 무엇인지

채워야 할 것이 무엇인지

번것을 찾기가 용이하게

선배가 후배를 위해서 만드는 것

미리 틀을 만들어라

전도자는 오프라인 사역 온라인 사역 두 가지를 다 잘 해야 한다

오프라인은 인간적이고 온라인은 기계적인 부분이 있다

온라인에서 정보공유는 관계강화에 목적이 있다

업무를 분류하라

생각을 정리하라

자료를 정리하라

시각화 조직과 입체화

폴더 > 서브폴더 > 파일

일이 체계화가 되어야 일이 적어진다

잘하게 된다

시간이 단축하게 된다

정리 원리
돌을 집어넣는 동영상
사역이 정리되는 동영상이 필요하다

일을 정리하라
업무를 분류부터 하라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를 먼저 정리하라

체계화 코드화
자료를 정리하고 폴더 별로 만들라

사역자별 조직별 이벤트별 부서별

매주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매일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파악 해보라

모바일 방판
프레임워크 만들기
프레임워크 이해하기
프레임워크 찾기
컴퓨터 사용 시간 줄이기
퍼즐이론
레고블록
생각요리기술
요리재료 요리도구 요리스킬 요리가 만들어 지는 과정

A4프레임워크메모
구글Keep TextScanner ThinkWise
조직화 체계화
행사계획서맵 만들기
업무매뉴얼 매핑

첨부파일 하이퍼링크 노트기능

A4메모는 발상 도구이다
체계적으로 체계를 확장해 나가는 것이 일을 만 들어가는 것이다
노트종류 메이킹노트 테이킹노트

문서화기술 학습기술 시간단축기술

맵과 엑셀의 차이점

엑셀의 장점은 빈칸이 쉽게 파악된다

ThinkWise 설치하기 시작하기 사용법

ThinkWise 목차 맵핑하기

RWMP 학습법

ThinkWise 매핑은 사고하는 과정과 동일하다

생각하는 과정에서 내용을 숙지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말단까지 확장하라

시간단축기술

시간을 벌어라

계획수립

계획수립 시간을 단축해서 시간을 벌어라

사무직은 계획수립하는 시간이 업무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기관

기업

단체

개인

공급사

고객사

키스립

엘레오틴

에이썸화장품

ThinkWise

원터치페이

모바일허브제작

A4프레임워크메모

반응형웹사이트제작

서비스

교회

교단

교계

선교사

선교단체

화장품OEM

체계화기술

온라인기술

스마트기술

프레임워크의 이해와활용

전체를 봐야 만들 수 있다

생각요리기술

정보요리기술

정보기술

정보생산

정보유통

정보소비

정보저장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소셜미디어

스마트폰

형제

가족

친척

동문

건강

시간

비용

업무역량

학습역량

사역역량 = (사고력+정보력+프로젝트능력) × 실행력

핵심역량
창의력
문제해결역량

커뮤니케이션역량
오프라인
아날로그
온라인
디지털

문서화역량
스마트활용역량

잘 하기 위하여
잘 전하기위하여
성과 성적을 내기 위한 IT기술 지원
목회자를 위한 PIT
선교사를 위한 MIT

사고력
아이디어
BIT
두뇌정보처리
두뇌정보처리기술

사고능력
창의력
논리력
종합력
분석력

사고기법Thinking Skill
발상기법
수렴기법

필기법
필기방식
직선식 워드프로세서

방사형 마인드프로세서
회화형 드로우
필기도구
필기도구의발전
타이프라이터
PC + 워드프로세서 버전을 생각해보라

메모관리
요리재료
요리도구
요리기술
요리

정보력
정보처리기술
CIT

IT활용기술
컴퓨터활용기술의확대
다양한정보처리능력
SW,HW,NW
과학의발전,수준의향상
PC -> SmartPhone
Office ->

4차산업혁명시대
Cloud <- Clent
Mobile <- PC
Socialmedia
Web1.0 -> Web2.0

자료관리기술
수집,분류,편집,검색,공유
문서관리
파일박스,바인더
여전에 없었던시절을 생각해보라

파일관리,폴더관리

코드화
프레임워크화
데이터베이스화

프로젝트역량
시간관리
목표관리
계획관리
지도관리,마스터맵,네비게이터
일정관리
조직관리
비용관리
할일관리

자원관리

비디오스크라이브 매뉴얼

네이버밴드	플러스친구	네이버블로그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스토리채널	유튜브	카카오TV	인스타그램	다음카페	에버노트	구글드라이브	구글블로그	핀터레스트	슬라이드쉐어	미션펀드	모바일허브
-------	-------	--------	------	--------	-------	-----	-------	-------	------	------	--------	-------	-------	--------	------	-------

코스리																		
코스모닝																		
배명학원																		

구분	내용
소통	정보공유
	쌍방소통
	소셜에티켓
	스마트폰사용법
	SNS의미
	소셜공동체
	온라인커뮤니티
	컨텐츠의종류
	소셜포스팅종류

과학의발전	
IT의발전	
통신의발전	
온라인환경의변화	
사회의변화	
온라인패러다임의변화	
홍보	마케팅
	온라인마케팅
	소셜마케팅
	온라인커뮤니케이션
	기관홍보
	저변확대
	차세대
상품판매	쇼핑몰
	주문
	결제
업무개선	시간절약
	정보공유
스마트폰	스마트폰의발달
	손가락동작법
	통신의발달
	전달,전파

파일관리자	
소셜미디어	친구관계
	쌍방향
	계정만들기
	초대하기
	가입하기
	포스팅하기
	댓글달기
교회활용	목회
	선교
	전도

	모바일 허브사 용법	모바일 허브	제작하 기	보내기	바로가 기만들 기	활용하 기	
스마트	스마트 폰에서 사진편 집하기	스마트 폰앱					
	스마트 시대,소 통의변 화	카카오 톡					

스마트 폰기본 사용법	스마트 폰	스마트 폰개요	손가락 동작	파일관 리			
스마트 폰백업 하기	네이버 주소록						
스마트 폰앱활 용법	스마트 폰앱	돋보기	모바일 팩스사 용법	사진갤 러리관 리하기	스마트 카메라 설정	텍스트 스캐너	
스마트 폰에서 후원악 정하기	미션편 드	개설하 기	활용하 기				
온라인	구글드 라이브 를활용 한클라 우드환 경만들 기	구글드 라이브					
	구글포 토를활 용한사 진관리	구글사 진	앨범만 들기	설정하 기	공유하 기		
	기도제 목모으 기	구글설 문지	만들기	공유하 기	응답보 기		
	기도편 지	네이버 포스트	개설하 기	포스트 쓰기	시리즈 만들기	공유하 기	
카카오 스토리							

페이스북						
블로그						
네이버밴드						
네이버모두사용법	Modoo	제작하기	활용하기			
네이버밴드사용법	네이버밴드	개설하기	초대하기			
단체공지하기	플러스친구	개설하기	메시지작성하기	발송하기	관리하기	소통파이프라인구축하기
단축URL 만들기, 큐알코드 만들기	구글쇼트너					
동영상관리하고공유하기	유튜브	개설하기	채널관리	재생목록만들기	공유하기	
카카오토리,스토리채널사용법	스토리채널	개설하기				
카카오오픈채팅사용법	카카오톡	개설하기				
카카오톡사용법	카카오톡	친구	채팅	검색	더보기	설정
페이스북사용법	페이스북	페이스북프로필				

SNS플랫폼구축제안	네이버,카톡,페이스북	CMCD,3S,4D	소셜에티켓	전달,전파,전도	URL	
------------	-------------	------------	-------	----------	-----	--

브레인정보기술	두뇌	우뇌,좌뇌					
	사고	발상,수렴	B/S,KJ				
	구조	구조화,조직화,체계화					
	정리	프레임워크	문서화프레임워크				
	학습	구조화학습기술	노트종류	RWMP			
	필기	방사형,회화형					
	업무	핵심역량분야	문서화	문제해결			
Solution운영	홈페이지제작						
	쇼핑몰제작						

숙박업 소플랫폼							
복지카드 제공							
업체정보, 허브, 디렉토리							
모임솔 루션							
맵종류	성경맵						
	도서요 약맵						
	도서목 차맵						
	자체제 작맵						
	Sample Map						

비선형사고관

선형의 사고관과 비선형의 사고관
사과 하나가 떨어졌다.

떨어진 사과에 필(feel)받은 17세기가 낳은 최고 과학자 아이작 뉴턴. 그는 특정한 초
기조건과 물체의 운동을 기술할 수 있는 방정식만 있으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다는 믿음을 세상에 전해주었다.

고전역학을 확립해 '과학혁명'에 불을 지핀 공로 덕분인지. 세상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그림의 주인공 중 하나로 오늘날까지 군림하고 있다.

보기에도. 그리기에도 시원시원한. 선(Line).

세상의 모든 현상엔 인과법칙과 정확한 상관관계가 존재한다고 믿는 사고방식은 마치 선과 같다 하여.

선형(線型, 줄 모양, Linear)적 사고라고 한다.

이 선형적 사고는 이미 우리의 DNA에 까지 파고들었는지도 모른다.

우리가 학창시절부터 줄기차게 배워왔던 수많은 수학과 과학의 공식들. 그리고 산술식들.

이들은 어쩌면 선형적 사고에 그 근본 바탕을 두고 있으리라. 헌데 20세기에 들어와서 이러한 사고 관에 대책 점을 이루는 움직임이 시작됐다.

스타트는 '불확정성 원리'를 주창한 하이젠베르크.

원자를 살펴보더라도 입자의 위치와 운동량을 모두 정확히 알 수 없다는 것이 요지. 말 그대로. '확정할 수 없는' 현실적 입장을 새롭게 제시한 것이다.

뉴턴 식의 고전역학에 의하면. 전자의 위치와 운동량은 어떤 상태에 있든지 항상 동시 측정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결국. 하이젠베르크의 주장은 고전역학과는 전혀 다른 사고체계를 탄생케 했다. 그리하여 태동한 것이 이른바 '양자역학'.

양자역학은 단 한 명의 천재가 아닌. 여러 사람들의 노력에 의해 차근차근 가다듬어졌다. 여기엔. 플랑크. 보어. 아인슈타인. 드브로이. 슈뢰딩거 등이 큰 발자취를 남겼다.

이 양자역학의 발전에 필수불가결했던 틀은 다름아닌 확률-통계론 이었다. 왜 그랬을까?

생각해보라. 물방울이 튀게 될 위치라든가.

유리파편이 떨어지게 될 위치 같은 것들을.

당신은 과연 뉴턴의 방정식 따위로 풀어서 답을 낼 수 있는가? 오로지 확률-통계적 추측과 접근만이 가능했던 것이다.

이와 같이 명확한 결론을 도출할 수 없는. 그래서 정확한 값을 예측할 수도 없는. 대충 어떻게 흐를지 알듯하지만 확신할 수 없는. 인간이 자연 속에서 너무나 많이 부딪히게 되는 이러한 상황.

우리는 비선형(Non-Linear)적 현상이라 한다.

그리고, 이런 현상을 풀어내고자 접근해가는 사고체계를 비선형적 사고라고 일컫는다.

어쩌면 이것이 우리의 인생일지도 모른다.

앞으로 살아가면서 수많은 비선형적 현상에 맞닥뜨리게 되는 운명. 답을 알듯 말듯한 미지의 문제들.

당신이 파생 트레이더 라면, 예외 없이 이런 종류의 물음에 답을 찾는 여정을 떠나야 한다. 당신이 아직까지 트레이딩에서 명확한 답을 찾지 못하고 미궁에 빠져있다면, 여태껏 선형적 사고 관과 접근법에서 헤어날 수 없었기 때문이리라.

현존 최고의 트레이더이자, 헷지펀드의 제왕으로 군림하고 있는 인물, 조지 소로스. 그는 칼 포퍼란 스승으로부터 배운 이 철학을, 과감히 자신의 거래철학과 트레이딩 기술로 접목시켰다. 그리고 성공을 일구었다.

그가 이룩한 헷지펀드 제국, 그 이름을 아는가?

바로 퀀텀펀드. 퀀텀이 바로, '양자역학'의 양자(Quantum)에서 따온 이름이다.

당신도 이제 코흐리개시절부터 익혀온 선형적 사고 관에서 탈피해야 할지 모른다. 차트 분석을 하는 논리적 메커니즘도, 어쩌면 선형적 사고 관의 극치인지도 모른다. 상관관계를 찾고, 마치 공식처럼 답안을 뽑아낼 수 있다는 믿음. 그 믿음이 오늘도 당신을 차트 앞에 서성이게 만드는지도 모른다.

비선형의 사고, 그것이 당신의 트레이딩을 한걸음 앞으로 내딛게 해 줄 것이다. 연어는 그렇게 믿고 있다.

[출처] 선형의 사고관과 비선형의 사고관|작성자 연어

비선형패러다임이세상을지배한다

비선형의 패러다임이 세상을 지배한다

이러한 선언은 당시 정황을 토대로 내가 작성해 본 것인데, 이 선언에 토를 달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인본주의의 시작은 이처럼 자신의 눈으로 확인하고 이성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만이 진리라는 생각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이다. 이같은 생각을 촉발시킨 것은 다름 아닌 인쇄물이라는 미디어의 탄생이다.

구텐베르크의 인쇄술의 발명은 그런 점에서 인간의 일상을 변화시키고 인간의 존재 이유를 새롭게 정의 내린 이정표가 되었다. 인쇄술 발명 후 가장 먼저 찍어 낸 책이 성경이었고 사람들은 자신의 이성으로 성경 속 세상을 판단하면서 당시 면죄부를 팔아먹을 정도로 타락의 시궁창에 빠져 있던 성직자의 말들이 허상이었음을 깨달았던 것이다. 새로운 천 년이 시작되는 밀레니엄의 시기 1999년에 지난 천년동안 인간세계를 획기적으로 바꾼 발명을 꼽는 자리에서 구텐베르크의 인쇄술이 1위를 차지했던 것은 우연이 아니었던 셈이다.

인쇄 미디어가 전 지구의 중심 미디어가 되었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글을 읽는다는 것은 사람들이 '선적 사고(Linear Thought)'에 익숙해진다는 뜻인데, 그것은 달리 말해 반복적으로 논리적인 훈련을 거치게 된다는 것을 뜻한다. 사실 우리가 책을 읽는다는 것은 작가의 생각에 논리적 동조를 유지해 가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이같은 논리적이고 합목적적인 사고 행위는 마침내 17세기에 이르러 데카르트의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라는 인간의 이성에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는 선언을 낳았으며 과학적 실증주의와 모더니즘의 기치가 되기도 했다. 중요한 것은 새로운 미디어의 출현이 단순히 사고 방식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생활 전반의 생태계 변화를 주도한다는 점이다. 선적인 사고는 인간의 행동 양식이나 작업 시스템에도 영향을 미쳤다.

예를 들어 분업을 통한 일괄생산 체제를 시발로 급속히 촉발된 대량 생산시스템 역시 선형적 사고가 만들어낸 선형적 작업방식이다. 그 양식은 20세기 산업혁명의 기틀이었으며, 거기서 얻어진 대규모 이윤이 자본주의 사회를 활성화시키는 데 큰 기여를 했음은 물론이다. 일터의 조직체계도 마찬가지다. 상하의 구분이 확실한 일직선의 계급구조는 톱다운 방식의 일사불란한 작업 문화를 선도해 왔다.

이후 빅뱅과 같은 변화는 인터넷이란 새로운 미디어를 기반으로 한 디지털 사회로 접어들면서 시작되었다. 이제 이 사회 거의 대부분의 분야에서 단선적인 흐름은 없

어졌다. 몇 가지 징후를 살펴 보자. 디지털 사회에선 누구나 콘텐츠 생산자가 될 수 있기에 기존의 '일방적인 메시지 발신자 - 수동적 수신자'의 관계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누구나 콘텐츠를 생산할 수 있으며 동시에 소비할 수 있다. 이러한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은 디지털 커뮤니케이션의 기본 중의 기본이다.

상하의 계급에 근거한 일 처리 방식도 폐기 목록에 올라 있다. 이제 우리네 일터엔 각자의 다양한 재능과 전문성을 가진 수많은 사람이 존재할 뿐 군대식 계급문화는 점점 설 땅을 잃어 가고 있다. 디지털 사회에선 각자의 노하우와 노련한 경험을 섞어서 비빔밥을 만들어 내는 것이 관건이다. 의사결정도 다면적으로 이루어진다. 사실을 은폐하고 자신의 이익에 맞게 아젠다를 퍼트리는 낡은 미디어의 권력도 이제 무용지물이다. 더 이상 사실은 은폐될 수 없다. 각종 미디어에서 아젠다를 선정하기 전에 이미 진실은 소셜 미디어를 통해 전파된다. 메시지의 단선적이고 강압적인 전파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협업의 개념도 바뀌고 있다. 지금까지는 협업의 양식은 갖추었지만 그것은 여전히 갑을관계에 기초해있었다. '일방적인주문- 주문수주'의 관계였던 것이다. 그러나 새로운 협업이란 '공동창출(Co-creation)'을 의미한다. 그것은 갑을의 관계를 벗어난 것이다. 하나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자원이 파트너십 관계를 형성하여 결과를 만들어 내는 것이다. 이제 더 이상 일직선(Straight Line)의 문화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 세상은 일직선의 논리로 설명되지 않는다. 세상은 점점 더 비선형적인(Non-Linear) 형태를 띠고 있다. 이처럼 미디어의 변화는 우리의 일상을 획기적으로 바꾸어 놓는다. 미디어는 단순히 커뮤니케이션의 수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미디어는 우리가 생각하고 행동하는 양식의 틀을 형성한다.

디지털 시대로 접어들면서 나는 비로소 진정한 포스트모던 사회가 도래했다고 생각한다. 지금까지의 포스트모더니즘의 논의는 모더니즘과는 정반대의 양상을 드러내는 형태적 변화에 더 주목했다는 생각이 든다. TV광고를 예로 들어보아도 이전 광고에서 볼 수 없었던 비논리적인 이미지의 혼합, 혼성모방 따위를 포스트모던 양상이라고 부르곤 했다. 그러나 그것은 외형의 변화를 의미할 뿐이다. 디지털 시대의 문화는 골격 자체가 다르다. 사회가 단선적 흐름을 벗어나 비선형적인 형태를 띠고 있는 것이다. 디지털은 문화의 DNA를 바꾸고 있다. 사회 시스템의 판갈이를 주도하고 있다. 어찌 보면 포스트모던이란 용어로 이 사회를 설명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일 수도 있다.

비캔버스

안녕하세요 정위님! 비캔버스 개발팀입니다.

비캔버스 2.0 글로벌 버전 업데이트가 진행되었습니다.

지금 그 새로운 기능들을 소개해드립니다.

크게 세 영역이 추가 및 개선되었습니다.

프로젝트 추가

캔버스 상태 추가

캔버스 내부 기능 개선

1. 비캔버스에 '프로젝트(Projects)'가 추가되었습니다.

업무 관리와 외부 협업이 더욱 쉬워졌습니다. 이제 프로젝트 단위로 외부 협업자들을 초대해보세요. 또한, 비공개 프로젝트를 만들어 특정 팀원들만 모아 업무를 진행해보세요!

또한 이 '프로젝트'들을 이제 팀의 용도에 맞게 '보세요'!

프로젝트에 세 가지 뷰(View)가 추가되었습니다. 각 업무 성격에 맞추어서 뷰 설정을 해주세요. 이제 팀 모두가 같은 시선에서 캔버스들을 볼 수 있습니다.

칸반 보드

가장 익숙하지만, 가장 강력한 칸반 보드 뷰입니다. 컬럼을 옮기고, 캔버스를 옮겨보세요. 프로젝트 관리, 콘텐츠 승인 프로세스, 제품 런칭 플랜... 더욱 많은게 가능해졌습니다.

캘린더

이제 모든 캔버스를 '달력' 형태로도 볼 수 있습니다. 팀의 모든 일정을 한 곳에서 확인하세요. 미팅이 잡혔나요? 바로 캔버스를 만들고 템플릿에 맞추어 미팅 내용을 적어두세요. 별다른 정리 및 공유가 필요없습니다.

리스트

담당자, 마감일, 라벨, 컬럼 등에 맞추어서 일괄적으로 한눈에 캔버스를 볼 수 있습니다. 다른 뷰들의 사용이 어렵다면, 리스트 뷰 부터 시작해보세요.

2. 담당자, 마감일, 라벨이 추가되었습니다. 이제 각 '캔버스'들의 '상태'를 더욱 쉽게 표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담당자

캔버스의 담당자를 지정해주세요. 각 프로젝트 뷰에서 썸네일 및 이름등으로 해당 캔버스의 담당자를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수의 담당자 설정도 가능합니다.

마감일

해당 캔버스의 마감기한을 지정해주세요. 캘린더 뷰에서는 이 마감일과 시간에 맞추어 캔버스가 표기됩니다. 업무 관련해서는 마감일로, 미팅 관련해서는 미팅 시간으로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라벨

캔버스의 상태를 색상+내용으로 나타내주세요. 할 일, 진행 중, 완료 등 일의 상태를 나타낼수도 있고, 디자인, 마케팅, 개발 등 할당된 팀을 표현할수도 있습니다. 칸반 보드의 '컬럼'과 같이 활용하면 더욱 깊은 맥락도 쉽게 표현이 가능해집니다.

3. 마지막으로 캔버스 내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더욱 많아졌습니다. 캔버스 내 추가 및 개선된 기능을 안내드립니다.

채팅 : 캔버스 단위로 채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제 모든 업무 관련 액션을, '한 캔버스'에서 해결하세요. 공유하고 싶은 파일, 이미지가 있나요? 채팅창에 드래그&드롭해서 올리세요. 채팅창에 올라온 파일, 이미지를 캔버스로 바로 드래그&드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코멘트 : 모든 오브젝트와 빈 공간에 코멘트 추가를 할 수 있습니다.

코멘트가 찍힌 순서대로 정렬됩니다. 업무 피드백 요청을 코멘트로 진행해보세요. 피드백이 진행되고, 업무가 완료되면 우측 코멘트 창에서 '완료하기'를 누르세요. 완료된 코멘트는 더 이상 캔버스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코멘트 창에는 남아있습니다.

활동기록 : 캔버스에서 누가 무엇을 했는지 그 이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누가 열람했는지, 담당자는 누구에서 누구로 바뀌었는지, 라벨은 언제 추가된건지, 이 모든 캔버스 내 정보들을 생성시점부터 시간순으로 전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외 소소하게 말씀드리는데 엄청난 변화사항들

화살표 기능이 좀 더 유연해졌습니다. 이제 곡선과 꺾은 직선도 가능합니다.

오브젝트와 이미지에 투명도와 그림자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비주얼 콘텐츠를 활용한 커뮤니케이션이 더욱 쉬워졌습니다.

오브젝트 배치가 더 쉬워졌습니다. 페이지 마진을 통해 중앙정렬과 좌상단 위치 찾기가 더 쉬워졌고, 스마트가이드라인과 오브젝트 간 간격 제안을 통해 배치하고자 하는 오브젝트를 더 쉽고 빠르게, 그리고 예쁘게 배치할 수 있습니다.

빠른 접근이 추가되었습니다. 거의 매일 보는 캔버스가 있으신가요? 워크스페이스 좌측 '빠른 접근'에 해당 캔버스를 드래그 & 드롭하세요!

템플릿이 더욱 많이 추가되었습니다. 많이 사용되고, 이미 검증받은 템플릿들을 비캔버스티미 선별하여 한글화까지 완료하여 제공해드립니다. 곧, 워크스페이스 멤버들이 자주 사용하는 캔버스를 등록할 수 있는 '사용자 정의 캔버스'도 업데이트됩니다.

업데이트 내용이 너무 많아서 혼란스러우신가요?

걱정마세요. 비캔버스 고객성장팀이 도와드리겠습니다 🌍

비캔버스 2.0 글로벌 버전 업데이트 안내 웨비나가 열립니다.

참가하셔서 실시간 데모로 진행되는 2.0 글로벌 버전 설명도 들으시고, 궁금하신 점에 대해 실시간으로 이야기를 나누어보세요!

예상 일시 :

2020년 5월 25일(월) 14:00 PM

2020년 5월 27일(수) 20:00 PM

2020년 5월 29일(금) 16:00 PM

위 날짜 중 선호하시는 날짜 및 시간대로 신청해주세요

선호 시간대 및 인원을 고려하여 웨비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폼을 통해 신청해주신 모든 분에게 해당 웨비나 알림 이메일이 발송됩니다.

장소 : 인터넷이 되는 곳 어디나! 줌을 통해 진행됩니다.

소요시간 : 40분

내용

비캔버스 2.0 글로벌 버전 업데이트 기반 데모 시연 (25 min)

Q&A (15 min)

참가 방법

아래 버튼을 클릭하고 타입폼을 작성해주세요

비캔버스 2.0 Education Session 등록

이번 업데이트에 대한 의견이나, 이용 간 불편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고객센터로 문의 주세요. 소중한 피드백을 귀담아 더 멋진 서비스를 만들겠습니다.

더욱 강력해진 비캔버스와 함께 더욱 멋진 협업을 해보세요!

감사합니다.

비캔버스 개발팀 드림

사역지원기술 연구소자료

업무/사역지원기술(연구소) 소개

“Business Mission Support Technique Institute”

안정위교수(소장)소개

보유경력

(주)아모레퍼시픽IT부장

한양여자대학컴퓨터공학과겸임교수

(주)파라미터대표이사

리더스씽킹연구소소장

IT분야에서 45년종사

지식배경

컴퓨터공학

컴퓨터정보기술

스마트기술

정보공학

정보(IT)기술

두뇌공학

인지과학

두뇌정보처리기술

브레인정보기술

체계화기술

프레임워크정리기술

생각의정리함

Thinking Skill

정보처리량의증대

두뇌의정보처리부하증대

두뇌정보처리기술의필요

브레인정보기술 연구

(도입)현대사회의특징

4차산업혁명시대가속화

코로나19팬데믹상황장기화

오프라인의제한

비대면문화창조

온라인활성화

유튜브

Zoom

(배경)업무/사역지원기술 배경

사무원의업무/사역의정의

생각정리하고

브레인

두뇌

생각 Idea

정보처리하고

정보시스템

컴퓨터

정보 Information

사무업무관련기술의발달

두뇌공학의 발달

두뇌정보처리과정

인식-발상-수렴-표현

우뇌-좌뇌

사고능력

사고와언어의방식차이

필기방식의동류

종류

혼용하라

노트기술

메이킹노트

테이킹노트

정보기술(IT)의 발달

소프트웨어

워드프로세서

마인드프로세서

하드웨어

PC/프린트

스마트폰

네트워크

1G->5G

(목적)업무/사역지원기술 필요성

업무처리량의증대

업무/사역의기능은변함이없다

정리해야할,처리해야할

업무사역지원기술필요확대

업무처리시간은단축하고

업무시간

학습시간

성과(Quality)는 높인다

성과,성적향

(해결책)업무/사역지원기술 소개

생각요리기술소개

요리재료(소스)

아이디어

정보

요리도구(툴)

A4프레임워크메모

Google Keep

워크플로이

ThinkWise

소개

사용법

활용방법

Evernote

Notion

요리기술(스킬)

프레임워크

정리기술

브레인스토밍

KJ기법

SWOT분석

로직트리

스캠퍼

요리(성과)

보고서

계획서

품의서

제안서

정보요리기술소개

정보관리핵심전략

정보관리종류

아날로그

문서관리

디지털

파일관리

파일종류

파일특징

폴더관리

정보관리분야

자료수집

자료분류

- 자료편집
- 자료검색
- 자료공유
- 온라인핵심전략
 - 커뮤니케이션목적/중요성
 - 소통
 - 홍보
- 커뮤니케이션종류
 - 오프라인 미팅
 - 온라인 커뮤니케이션
- 온라인핵심전략
 - 3S 온라인기반전략
 - CMCD 온라인구축전략
 - 4D 온라인운영전략
- 온라인시스템추진단계
 - 제작
 - 웹사이트
 - 세팅
 - 소셜미디어
 - 교육
 - 운영자
 - 사용자
 - 운영
 - 미디어
 - 채널
 - 구축
 - SNS
- 컴퓨터시스템분야
 - 소프트웨어기술
 - 하드웨어기술
 - 터치스크린
 - 컬러프린터
 - 네트워크(통신)기술
 - 데이타기술
- 정보요리기술분야
 - 정보생산
 - 컨텐츠
 - 마인드프로세서

ThinkWise
자료처리업
정보유통
미디어와채널
소셜미디어활용
네이버
카카오
페이스북
구글
정보소비
디바이스
시스템구성
스마트폰
웹
앱
정보저장
클라우드
ThinkWise협업활용
Google Cloud

(활용)업무/사역지원기술 활용분야

업무/사역분야

정리,처리,관리기법

프레임워크활용

체계화기술

온라인기술

문서화도구

워드프로세서

마인드프로세서

ThinkWise활용

DRAW

회의진행도구

오프라인

ThinkWise활용

온라인

인터넷환경

클라우드사용

학습/공부분야
스터디플래너
학습지도
만들기
노트필기
원격수업관리
(효과)업무/사역지원기술 기대효과
성과향상
업무처리시간의절감
완벽한업무처리
성적향상
학습시간의절감
공부의즐거움

ThinkWise 입문과정

줌(Zoom)시스템확인

오디오

인사,감사

소개

안정위(安正瑋)

업무/사역지원기술 연구소

강의진행과정,방법

Ppt와Map활용

일반적인 소프트웨어가 아니다

생각요리기술 코스로 가는 첫관문

ThinkWise 새로운나라 여행가이드

비행기티켓과여권과비자

소프트웨어제공

질문은단톡방에서하시라

포기하지마시라

언어,법.교통

투자하시라

ThinkWise 입문과정(ppt)

도입

관계사소개

ThinkWise 개발사 개요

(주)파라미디어(ThinkWise 기독교총판)

사회환경

4차산업혁명시대와 코로나 팬데믹

비대면 사회의 장기화/오프라인 활동의 축소

기술의발전

예전 건설(작업)현장

건설 장비의 현대화

현대의 건설(작업)현장

등사기와 타이프라이터

도트(Dot) 프린터

PC와 프린터의 발전

소프트웨어기술의 발전

마인드프로세서

정보시스템의발전

클라우드시스템 활성화

일/업무/사역을 지원하는 기술

업무처리시간단축하면서

업무성과는높이는도구

ThinkWise 기본소개

ThinkWise 개요

ThinkWise 2020 소개영상

ThinkWise 제품 연혁

ThinkWise 소개

ThinkWise 특징

ThinkWise 기능

구조화

조직화

체계화

구체화

스토리화

ThinkWise 활용효과

ThinkWise 활용분야

기획/아이디어 발상

업무/프로젝트 관리

각종 정보의 시각화

각종 회의

그룹웨어와 홈페이지 연동

ThinkWise 적용사례

회의(인천공항공사)

회의(웰크론)

인수인계(자료관리)

공동문서작업

업무매뉴얼작업

ThinkWise 장점 10가지

ThinkWise가 프레임워크 사용을 지원한다

트리(가지)

매트릭스(표)

프로세스(시계열)

Office와 호환

워드

PPT

엑셀

한글

숲과 나무이론 적용가능

말기

풀기

구조화된 문서 작성 가능

가지로 위계 표현

시각화, 시각적 문서 작성 가능

기호, 이미지 등

노트, 하이퍼링크, 첨부파일기능

입체적 자료정리 가능

다양한 가지모양, 방향 설정가능

생각의 흐름과 일치

클라우드 서비스제공

온라인 협업 서버제공
플래너와 연동서비스 제공
구글캘린더와 연동
풍부한(다양한) 활용분야
사고, 학습, 업무 분야 등

ThinkWise 사용해야 하는 이유

두뇌친화적 마인드프로세서
필기방식 → 사고체계를 바꾼다
논리적문서작성도구
프레임워크를 활용하기 위하여
항목과내용의분리
추가,이동,삭제의용이
클라우드를 활용하기 위하여
시공제한의 극복
협업하기위하여

결론

사고를 변화시키는 유일한 소프트웨어
생각하는 방법을 바꿔주는 유일한 소프트웨어
창의력을길러주는 소프트웨어

ThinkWise 활용후기영상

안원용

ThinkWise 협업시스템

온라인 방식의 확대 활성화

협업기술의 발전

오프라인 회의 1.0

화상(영상) 회의 2.0

클라우드 컴퓨팅

ThinkWise 온라인 협업

ThinkWise 협업 도입효과

ThinkWise 도입기관

회사소개

심테크시스템 (주)

리더스씽킹연구소

(제언)업무지원도구의 변경

직선식필기 → 방사형필기
워드프로세서 - 마인드프로세서
프레임워크활용
문서작성시간의단축
오프라인회의진행도구
온라인 협업회의
이메일대체수단
스마트협업 → 구체적, 집단지성
Client(PC) → Cloud(Web)
공동자료관리

ThinkWise 사용가이드(map)

관계사 소개

안정위교수 J

IT전문가

ThinkWise Master

(주)심테크시스템 L

홈페이지

ThinkWise 2020소개 Y

ThinkWise 홈페이지 사이트맵 M

(주)파라미디어 B

IT전문회사

ThinkWise 기독교총판 L

(주)파라미디어 홈페이지

리더스씽킹 연구소 L

(주)파라미디어부설 핵심역량강화교육전문기관

네이버밴드 L

ThinkWise 정보채널

<https://band.us/@thinkwise>

업무/사역지원기술 연구소

ThinkWise 세미나과정

세미나 배경

육체적인도구의발전와정신적인도구의발전과관심필요

육체적인 문제해결도구
정신적인 문제해결도구
과학기술의발전 Y
4산업혁명시대의 도래
IT기술의 발전 Y
두뇌과학의발전 Y
오늘의 이야기 분야
사고/생각
학습/공부
업무/사역/일
기술이 일을 변화시킨다.
건설현장/건설장비
기술이 발전되는데 신기술 이해와사용
선용해야 한다.
문서작업환경의변화
등사기
타자기 J
PC
프린터 J
워드프로세서가 주된 도구이다.
아래한글, 워드의 수준을 넘어야 한다.
도트프린터
워드프로세서 다음이 마인드프로세서다
컬러프린터
혹시 우리는 도트프린터 시대를 살고 있는지?
도트프린터
사역이 복잡해졌다.
도구를 바꿔야 일이 바뀐다

ThinkWise 소개

ThinkWise 개발과정

마인드맵 J

디지털마인드맵

마인드프로세서 ThinkWise Y

ThinkWise 종류 L

PC

PRO

협업개설불가
Primium
협업개설가능
Mobile
안드로이드
아이폰

왜 ThinkWise를 사용해야 하는가?

사고력강화

사고의이해

우뇌와좌뇌

사고력강화 J

마인드맵원리

전략적사고활용

학습/공부역량강화

구조적사고이해

피라미드구조

학습게임원리

필기법종류

직선식필기법

방사형필기법

구조화노트필기법 J

디지털노트활용사례

업무/사역역량강화

프레임워크를 잘 사용하게 지원한다

프레임워크의 이해 J

프레임워크의 종류

트리형 J

매트릭스형 J

프로세스형 J

ThinkWise는 사고와 정보 관리의 강력한 도구
구조화된 클라우드서비스를 사용한다.

클라우드형 사역, 일, 업무 지향해야 한다.

피시형은 과거

시간 공간적 제한 극복해야 한다.

온라인 협업(OK맵핑) Y

집단지성구현

ThinkWise를 어떻게 사용하는가?

사용하기

사용하기

- 구입하기

- 설치하기 L

- 업데이트하기

- 업그레이드하기 L

- 실행하기

사용구분

- 개인적사용

- 회사차원 사용

교육받기

- 온라인

 - 무료

 - 유튜브동영상

- 오프라인

 - 유료

 - 강사과정

 - 마스터과정

도움받기

- 도움말 활용

- 단축키 활용 M

- 메뉴얼 활용 B

 - ThinkWise 2020 메뉴 M

- 맵피아 활용

- Sample Maps

 - 맵피아 활용 L

 - Sample Map Book B

 - 교회/선교 활용분야 모음 M

주요기능 소개 M

- 기본기능

- 변환하기 J

 - (한글)논문작성사례 M

 - (ppt)선교전략 M

 - (엑셀)체계화기술 M

- 도서목차맵핑하기 Y

활용하기

활용분야

사고지원도구

정보관리

기록관리

메모관리

정리도구

학습지원도구

구조적노트필기

노트필기 도구

원격수업도구

학습지원도구

업무지원도구

문서화도구 M

프레임워크의활용 M

문서화프레임워크사례 B

문제해결도구 J

Logic Tree M

회의도구

오프라인회의

온라인협업소개 Y

중국전시회추진 Y

교회/선교분야

마무리

업무도구의 선택이 중요하다

워드프로세서에서 마인드프로세서로

정리는 맵으로

전달은 한글로

오프라인 회의시 활용

회의시간의 단축

이메일 대체

본부와 필드간

본사와 지사간

회의방식의 변경

화상회의는 공간은 다르나 시간은 동일

텍스트 소통의 일반화
카카오톡의 일반화
온라인 스마트회의
시간과 공간의 제한 극복
체계가 있는 문자소통 가능케 한다
온라인 회의로 활용
집단지성의 구현
땅끝개념
도구가 바뀌면 일 바뀐다
사용후기/영상
목회자(설교문) Y
일반기업
안원용 Y
추천글/영상 Y
(결론)업무처리방식의 변경
회의도구로 사용
(개인)워드프로세서 대체
(단체)이메일 대체
(기도요청)선교 IT교육센터
엑소스켈레톤 개념
전신갑주 프로젝트
사람을 보강하는 개념.
로봇가 되게 하는게 아니다.
선교사 맞춤 IT교육
IT 스킬이 절실하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ThinkWise 활용과정 강의설명 자료

프레임워크와 ThinkWise
프레임워크는 스킬이고 ThinkWise는 툴이다

프레임워크의 이해와 활용
프레임워크의 정의
생각의 정리함
일머리
꼭지
개요쓰기

중심주제

1. 주제

1.1. 부주제

1.1.1 부부주제

1.1.2 서브주제

2. 주제

프레임워크의 필요성(인간적인측면)

두뇌의 양면적인 특성 차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우뇌/좌뇌

창의/논리

발상/수렴

종합/분석

정보/생각 발생의 시간차/공간차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정보와/기록의 발생시간차 극복

사고와 언어의 방식차이 극복하기 위하여

두뇌의 특성/해결방안

프레임워크의 종류

정리함의 종류

트리형

매트릭스형

프로세스형

사고의 내용에 따라 진행되는 형식 선택

사고형식 정하기

사고패턴 정하기

ThinkWise 활용

Thinking 생각에 대한 이야기

필기방식 → 사고체계

조감사고

구조적사고

피라미드

메모

Thinking Skill

Learning 학습에 대한 이야기

노트필기, 정리
구조화 노트필기
도해필기
RWMP
학습전략/필기전략
마인드맵이론
맵/지도
퍼즐/레고
사고체계(머릿속책장)
개념, 기요
I-P-O

Working 업무에 대한 이야기
프레임워크/MECE
계획수립
메모관리
문서화
보고서
기획서
제안서
Cloud기술
협업
집단지성
온라인회의
워드프로세서 → 마인드프로세서
타자기 → PC, 프린터
사역분야

ThinkWise 활용교재준비

관계사 소개
안정위교수 J
IT전문가
ThinkWise Master

심테크시스템 L

홈페이지

ThinkWise 2020소개 Y

ThinkWise 홈페이지 사이트맵 M

(주)파라미디어 B

IT전문회사

ThinkWise 기독교총판 L

리더스씽킹연구소 L

(주)파라미디어부설 핵심역량강화교육전문기관

네이버밴드 L

세미나 배경

과학기술의발전 Y

4산업혁명시대의 도래

핵심개념

핵심기술

IT기술의 발전 Y

두뇌과학의발전 Y

오늘의 이야기 분야

사고/생각

학습/공부

업무/사역/일

ThinkWise

무엇인가?

왜?

어떻게?

사역을 기술이 변화시켰다.

도구의 변화

등사기

타자기 J

PC

프린터 J

기술이 발전되는데 신기술 이해와사용

선용해야 한다.

사역이 복잡해진다.

도구를 바꿔야 일이 바뀐다

업무에서 워드프로세서가 주된 도구이다.

아래한글, 워드의 수준을 넘어야 한다.
도트프린터
워드프로세서 다음이 마인드프로세서다
소프트웨어 기술의 발전
컬러프린터
ThinkWise가 사역을 변화시킬 수 있다

두뇌와 필기

정보처리기관 이해하기

두뇌 정보처리 과정의 이해

우뇌와 좌뇌

발상과 수렴

두뇌공학

두뇌는 이미지로 정보처리한다.

두뇌는 텍스트로 하지 않는다.

이디어/인포메이션 같은 개념

두뇌훈련법

유연한 두뇌 만들기

사고 유연성

두뇌정보처리프로세스

인풋

Reading

Hearing

아웃풋

Speaking

Writing

필기방법 3가지

직선식 : 아래한글, 워드방식

순차적

선형적

서술형방식

방사형 : 펼치는 방식

비선형방식

방사형으로 거치고 회화형으로 가는 것이다.

회화형 : 그래프, 그리기

비선형사고

회화형은 생각을 그리는 것이다

두뇌 친화형 표현 방식이다
그림은 변형이 가능하다
리더는 쓰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는 사람이다
구조적노트필기를 활용
세가지 필기방식을 혼용하여야 한다
구조화노트필기법 J
직선식필기법
방사형필기법
생각을 그리는 것이 목표이다

구조화/조직화/체계화

구조(조직/체계)에 대한 이해
건축구조/아키텍처
업무 구조
사역 구조
학습 구조
대형마트 카테고리
추상어 이해
개념 이해하기
머릿속 책장 만들기
책장 만드는 방법
책장 만들어 주기

SOS 정리기술의 습득

구조화 Structure
생각은 구조적
조직화 Oganazision
일은 조직적
체계화 System
공부는 체계적
필기방식이 바뀌면 사고방식이 바뀐다
필기습관이 사고체계를 바꾼다
사고방식이 바뀌면 일하는 방법도 바뀐다

프레임워크와 클라우드

프레임워크의 이해와 활용

처리할 정보가 많아졌다
붕어빵 제작의 원리
붕어빵 만드는 기계. 붕어빵 틀
사고의 틀, 사고의 형식, 사고 방식
체계화 작업 필요
프레임워크화 필요
업무의 틀
업무처리 프로세스
업무처리 주요과정
항목 관리 : 프레임워크 관리
예) 연간 행사
업무 일지 : 프레임워크 -> 양식
경력사원
시간활용 극대화
문서처리 시간 줄이기
회의시간 줄이기
개인적인 시간 벌기
프레임워크 사용예
개요쓰기
아래한글
IT 분야의 일하는 방법
안드로이드 개발 프로젝트
전세계 공동 개발자
클라우드의 이해와 활용
통신으로 서버에 있는 자료를 처리한다
자료의 공유 방식
클라우드 방식으로 다중 공유 가능
이메일을 줄여라
회의방식을 바꿔라

ThinkWise 가 무엇인가?

ThinkWise 개발과정

마인드맵 J

디지털마인드맵

마인드프로세서 ThinkWise Y

ThinkWise 종류 L

PC

PRO

협업개설불가

Primium

협업개설가능

Mobile

안드로이드

아이폰

왜 ThinkWise 사용하는가?

사용목적

사고력 강화

마인드맵원리

구조적사고이해

전략적사고함양

창의/논리/종합/분석력 강화

학습/공부역량 강화

피라미드구조지향

학습게임원리 지향

지도

퍼즐

블럭

업무/사역역량 강화

문서화 시간 절감

사유의 자유

목회자(설교문) Y

회의시간 절감

온라인협업소개 Y

일반기업 협업 운영사례 Y

사용배경

프레임워크를 잘 사용하도록 기능 제공

프레임워크의 이해 J

프레임워크는 항목과 내용을 분리하는것 부터 시작한다

프레임워크의 종류

트리형 J

매트릭스형 J

프로세스형 J

차별화된 형식으로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
클라우드형 사역, 일, 업무 지향해야 한다.
피시형은 과거
시간 공간적 제한 극복해야 한다.
온라인 협업(맵핑) Y
집단지성구현
사고와 정보 관리의 강력한 기능 제공
구조적인 맵 원리 적용
디지털기술로 첨부파일,하이퍼링크 등 기술의 활용

ThinkWise를 어떻게 사용하는가?

사용하기

사용하기

구입하기

설치하기 L

업데이트하기

업그레이드하기 L

실행하기

사용구분

개인적사용

회사차원 사용

교육받기 L

온라인(무료)

유튜브동영상

무료

오프라인(유료)

입문과정

강사과정

마스터과정

도움받기

도움말 활용

단축키 활용 M

메뉴얼 활용 B

ThinkWise 2020 메뉴 M

맵피아 활용

Sample Maps

맵피아 활용 L
Sample Map Book B
교회/선교 활용분야 모음 M
주요기능 소개 M
변환하기 J
(한글)논문작성사례 M
(ppt)선교전략 M
(엑셀)체계화기술 M
도서목처맵핑하기 Y

활용하기

활용분야
사고지원도구
정보관리도구
메모관리
파일관리
정리도구
로지컬씽킹도구
크리티컬씽킹도구
학습지원도구
노트필기 도구
구조적노트필기
원격수업지원도구
업무지원도구
문서화도구 M
프레임워크의활용 M
문서화프레임워크사례 B
문제해결도구 J
Logic Tree M
회의도구
오프라인회의
중국전시회추진 Y
교회/선교 활용분야 모음

메시지 (마무리)

업무도구의 선택이 중요하다

워드프로세서에서 마인드프로세서를 활용한다
정리는 맵으로
전달은 한글로
오프라인 회의시 활용한다
회의시간의 단축
비주얼씹킹회의법
온라인 회의 도구로 활용한다
이메일을 대체해 나간다
집단지성의 구현
땅끝개념
도구가 바뀌면 일이 바뀐다
회의방식을 변경하여야 한다
기존 오프라인회의의 변화
화상회의는 공간은 다르나 시간은 동일하다
텍스트 소통의 일반화
카카오톡 효과
온라인 스마트회의
ThinkWise 협업시스템의 활용
시간과 공간의 제한 극복할 수 있다
체계적으로 문자소통이 가능하다
추천글/영상 Y
(결론)업무처리방식의 변경
(단체)회의도구로 사용
(개인)워드프로세서 대체
(단체)이메일 대체
(기도제목나누기) IT교육센터가 운영되도록 기도를 부탁한다
엑소스켈레톤 개념
전신갑주 프로젝트
사람을 보강하는 개념.
로봇가 되게 하는게 아니다.
선교사 맞춤 IT
IT 스킬이 절실하다.
파송전 교육이수
안식년중 교육이수
ThinkWise 활용가이드

관계사 소개

안정위교수

IT전문가

ThinkWise Master

심테크시스템

ThinkWise 2020소개

홈페이지

(주)파라미디어

IT 전문회사

ThinkWise 기독교총판

리더스씽킹연구소

(주)파라미디어 부설 핵심역량강화교육전문기관

리더스씽킹연구소 네이버밴드

ThinkWise 소개

개발배경

과학기술의발전

IT기술의 발전

두뇌과학의발전

PC와 워드프로세서

타자기/프린터/PC

MS-word/아래한글

ThinkWise 발전과정

마인드맵

디지털마인드맵

마인드프로세서 ThinkWise

ThinkWise 종류

PC버전

모바일버전

ThinkWise 사용목적

사고력강화

사고의이해

사고력강화

전략적사고활용

학습/공부역량강화

구조적사고이해

구조적노트필기기법활용
업무/사역역량강화
프레임워크의활용
클라우드기술활용

ThinkWise 사용방법

교육받기
온라인
오프라인
사용하기
구입하기
설치하기
업데이트하기
업그레이드하기
실행하기
도움말 활용
메뉴얼숙지
주요기능
단축키 활용

ThinkWise 활용방법

활용구분
팀/회사
개인
활용분야
사고지원도구
학습지원도구
업무지원도구
문서화도구
문제해결도구
회의도구
Sample Maps
맵피아 활용
Sample Map Book
교회/선교 활용분야 모음
마무리

사용후기/영상
일반기업
목회자(설교문)
추천글/영상

(결론)업무방식의 변경
(개인)워드프로세서 대체
(단체)이메일 대체
오프라인 회의도구로 사용

사탄과 어둠의 세력들

<사탄과 어둠의 세력들>

하나님(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사탄이 어딴어? 마귀가 어딴어?
귀신이 어딴어? 악한영들이 어딴어? 라고 합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분명히 사탄과 그의 졸개들인 어둠이 세력들이 존재합니다.

이 세상에서 날마다 쉬지않고 벌어지고 있는 온갖 죄악과 불의와 거짓의 배후에는
사탄,마귀와 그의 졸개들인 악한 영(어둠의세력)들이 있습니다.

이 악의 세력들은 육적인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실제적으로는 존재하는 세력들입니
다.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들은 영적감각(영적소경)이 마비되어 있기 때문에 영적세계를
느끼지도 보지도 못합니다.(요3:3~5)

그러나 감사하게도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온 우주만물을 통치 운행 하시는 하나님
께서는 이 악한 사탄과 악의 영(어둠의영들)들의 실체에 대하여 성경을 통하여 인류
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진리의 성경과 보혜사 성
령님의 감화감동과 깨닫게 하심을 통하여 이 진실을 알게 됩니다.

이 세상에 오직 성경만이 이 악한 사탄의 기원과 실체와 행위와 더 나아가 이 사탄과 악의 영들을 물리치고 승리할수 있는 비밀에 대하여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또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교회만이 이 사탄과 어둠의 세력들의 존재와 만행과 사탄과 악의 영들, 즉 어둠의 세력들과 싸워 이기는 비밀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탄의 실체와 그가 행하는 만행들과 그를 이길 비밀을 성경에 기록하여 주셨고, 그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 성령님을 통하여 감화감동하시고 강권하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탄마귀와 그의 졸개들인 악한 영들에게 노략당하며 살지 않도록 날마다 성경 말씀, 즉 진리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묵상하게 하심으로 진리로 강하게 무장시키십니다.

이 진리로 무장한 영적인 사람들은 자신이 영적으로 무장 되었기 때문에, 영적감각이 살아서 사탄과 악의 영들의 실체를 정확하게 보고, 그들의 악하고 불의한 행위들을 정확히 분별할수 있으며, 또한 그들과 싸워 이길 수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히 4:12)

이 진리의 말씀만이 사탄마귀와 그의 졸개들인 악한 영들과 그들의 하수인들을 물리치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엡6:17)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인류를 사탄 마귀로부터 구원해 내시기 위하여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인류의 구원자이십니다.

사탄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구세주가 되지 못하게 하려고 세가지 시험을 자행하였는데, 예수님은 그 모든 시험을 진리의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아와서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

로만 살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마4:3-4)

예수님은 인류에게 말씀 하십니다.

“진리를 알찌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요8:32)

즉 진리의 말씀만이 인간에게 참된 자유와 참생명을 누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진리의 말씀을 읽고 듣고 믿고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오늘날 사탄과 그의 졸개들인 악의영들과 하수인들은 전지구적으로 세가지 일에 화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성경말씀(진리)를 무력화 시키는 것입니다.(성경만이 자신의 실체를 알려주기 때문)

둘째는 교회를 무력화 시키는 것입니다.(교회만이 자신의 정체를 폭로 하기 때문)

세째는 그리스도인들을 무력화 시키는 것입니다.(그리스도인들만이 자신들이 하고자 하는 일을 가로 막고 있기 때문)

여러분!

현재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과 상황을 보십시오!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저 어둠의 세력들은 진리를 기초삼아 조성된 자유와 인권과 생명과 윤리적 가치들을 무참히 짓밟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저 어둠의 세력들은 이 자유와 생명과 참된 인권과 윤리적 가치를 지키려는 수많은 자유시민들을 무력화 시키려고 혈안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과연 누가 저 거짓과 불의의 세력들과 앞장서 싸우고 있는가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닙니까?

지금 사탄과 악의영들 그리고 그의 하수인 노릇하는 세력(Mainstream media,Bigtech)들은 Backdoor, Smartmatic, Dominion등 온갖 불법의 매개를 총동원하여 교회와 성도들과 자유민주세계를 삼키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편에선 한국교회와 미국교회와 수많은 깨어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모세처럼, 다윗처럼, 모르드개와 에스더와 여호수아와 갈렙과 바울처럼 온 힘을 다하여 진리 편에 서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영적으로 싸우고 있습니다.

이 글을 보시는 모든 분들께서는 사탄마귀와 악의 영들과의 영적전쟁에서 패하지않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완전 무장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종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엡6:10-13)

GOD Bless you!

소박한 행복의 미라클 모닝 85일차 / 감사 .. : 네이버블로그

<사탄과 어둠의 세력들>

하나님(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사탄이 어딴어? 마귀가 어딴어?
귀신이 어딴어? 악한영들이 어딴어? 라고 합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분명히 사탄과 그의 즐거들인 어둠이 세력들이 존재합니다.

이 세상에서 날마다 쉬지않고 벌어지고 있는 온갖 죄악과 불의와 거짓의 배후에는 사탄,마귀와 그의 즐거들인 악한 영(어둠의세력)들이 있습니다.

이 악의 세력들은 육적인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실제적으로는 존재하는 세력들입니다.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들은 영적감각(영적소경)이 마비되어 있기 때문에 영적세계를 느끼지도 보지도 못합니다.(요3:3~5)

그러나 감사하게도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온 우주만물을 통치 운행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이 악한 사탄과 악의 영(어둠의영들)들의 실체에 대하여 성경을 통하여 인류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진리의 성경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과 깨닫게 하심을 통하여 이 진실을 알게 됩니다.

이 세상에 오직 성경만이 이 악한 사탄의 기원과 실체와 행위와 더 나아가 이 사탄과 악의 영들을 물리치고 승리할수 있는 비밀에 대하여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또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교회만이 이 사탄과 어둠의 세력들의 존재와 만행과 사탄과 악의 영들, 즉 어둠의 세력들과 싸워 이기는 비밀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탄의 실체와 그가 행하는 만행들과 그를 이길 비밀을 성경에 기록하여 주셨고, 그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 성령님을 통하여 감화감동하시고 강권하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탄마귀와 그의 졸개들인 악한 영들에게 노략당하며 살지 않도록 날마다 성경 말씀, 즉 진리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묵상하게 하심으로 진리로 강하게 무장시키십니다.

이 진리로 무장한 영적인 사람들은 자신이 영적으로 무장 되었기 때문에, 영적감각이 살아서 사탄과 악의 영들의 실체를 정확하게 보고, 그들의 악하고 불의한 행위들을 정확히 분별할수 있으며, 또한 그들과 싸워 이길 수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히 4:12)

이 진리의 말씀만이 사탄마귀와 그의 졸개들인 악한 영들과 그들의 하수인들을 물리치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엡6:17)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인류를 사탄 마귀로부터 구원해 내시기 위하여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인류의 구원자이십니다.

사탄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구세주가 되지 못하게 하려고 세가지 시험을 자행하였는데, 예수님은 그 모든 시험을 진리의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아와서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마4:3-4)

예수님은 인류에게 말씀 하십니다.

“진리를 알찌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요8:32)

즉 진리의 말씀만이 인간에게 참된 자유와 참생명을 누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진리의 말씀을 읽고 듣고 믿고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오늘날 사탄과 그의 졸개들인 악의영들과 하수인들은 전지구적으로 세가지 일에 화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성경말씀(진리)를 무력화 시키는 것입니다.(성경만이 자신의 실체를 알려주기 때문)

둘째는 교회를 무력화 시키는 것입니다.(교회만이 자신의 정체를 폭로 하기 때문)

세째는 그리스도인들을 무력화 시키는 것입니다.(그리스도인들만이 자신들이 하고자 하는 일을 가로 막고 있기 때문)

여러분!

현재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과 상황을 보십시오!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저 어둠의 세력들은 진리를 기초삼아 조성된 자유와 인권과 생명과 윤리적 가치들을 무참히 짓밟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저 어둠의 세력들은 이 자유와 생명과 참된 인권과 윤리적 가치를 지키려는 수많은 자유시민들을 무력화 시키려고 혈안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과연 누가 저 거짓과 불의의 세력들과 앞장서 싸우고 있는가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닙니까?

지금 사탄과 악의영들 그리고 그의 하수인 노릇하는 세력(Mainstream media,Bigtech)들은 Backdoor, Smartmatic, Dominion등 온갖 불법의 매개를 총동원하여 교회와 성도들과 자유민주세계를 삼키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편에선 한국교회와 미국교회와 수많은 깨어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모세처럼, 다윗처럼, 모르드개와 에스더와 여호수아와 갈렙과 바울처럼 온힘을 다하여 진리 편에 서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영적으로 싸우고 있습니다.

이 글을 보시는 모든 분들께서는 사탄마귀와 악의 영들과의 영적전쟁에서 패하지않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완전 무장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종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엡6:10-13)

GOD Bless you!

시간관리기술

시간을 버는 방법

시간을 버는 기술

Time is Gold

Tinme is not Gold

Gold는 돈으로 살 수 있다

그러나 Time은 돈으로 살 수 없다

Time Management Skill

시간 관리 기술

24시간을 나의 시간과 남을 위한 시간으로 구분 서비스 품질을 높이고 성과 성적

서비스 종류 일의 종류

회의시간 문서작성시간 교육시간

시간을 효과적으로 활용해야
인간적인 내용 기계적인 내용
감성적 아날로그
지성적 디지털 정보

IT

정보기술

정보처리기술

자료관리기술

문서관리 아날로그

파일관리 디지털

Client Cloud

PC Mobile

PC Office

Mobile App

파일의 다양화 확장자

폴더>서브폴더

파일생산

일,업무,사고,학습

IT

시사

과거없는 현재는 있을 수 없고, 현재가 없는 미래는 존재하지 않는 답니다. 현실은 팩트며, 양심입니다.

악한 것을 보고서 말하지 않는 자는 악한 일을 저지른 그 자의 노예이다.

잘 못된 것을 보고서 말하지 않는 자는 잘 못을 저지른 그 자의 노예이다.

부정한 것을 보고서 말하지 않는 자는 부정을 저지른 그 자의 노예이다.

대한민국 대통령 궐위(闕位) 823일째 된 날(2020.05.27)에 즈음하여 헌법학자로서 헌법 제22조(학문과 예술의 자유) -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갖는다. - 에 의거한 학문적 소견을 피력한 바이며, 헌법 제19조(양심의 자유) -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 에 따라 국민으로서의 학자적 양심을 표명한 바이다.

- 도울(道苑) 合掌 -

※현행 헌법(제10호) 상 대통령의 임기(제70조)는 5년(1,827일=42,848시간 =2,630,880분=157,882,800초)으로 국가의 원수로서 외국에 대해 국가를 대표(제66조 ①항)함은 물론 헌법 제69조(대통령의 취임선서)에 따른 국가보위의 의무상 주어진 국군통수권(제74조 ①항)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수호의 책무성 원칙(제66조 ②항)에 따라 단 1초도 덜하거나 더할 수 없다는 것이 국가기본법상 명문화된 헌법정신이다. 즉, '대통령'이란 자리는 국가의 계속적인 존속과 안보상 단 1초도 비울 수 없다는 것이 헌법상에 명기된 법의 정신이다.

그러한 대통령의 선거는 임기만료로 인한 정기선거(제68조 ①항)와 임기중 궐위 또는 당선자의 사망 및 판결에 따른 자격상실로 인한 보궐선거(제68조 ②항)로 대별되는데 대한민국 제10호. 헌법상 대통령의 임기는 개시점의 항구적 기준(출발점과 종착점)을 명기한 부칙 제1조와 제2조 ②항에 의거 대한민국 제18대 대통령 박근혜는 서기 2013년 2월 25일 00시 00분 00초부터 2018년 2월 24일 24시 00분 00초까지이고, 박근혜대통령의 탄핵결정(2017.03.10)에 따라 실시(2017.05.09)된 보궐선거로 당선이 결정(2017.05. 10)돼 당일 취임한 후임자(문재인)의 임기는 현행 헌법 부칙 제2조 ②항과 헌법이 위임(제67조 ⑤항)한 공직선거법 제35조 ④항(보궐선거의 법률적 정의)과 제200조(보궐선거) ③항, 제201조(보궐선거 등에 관한 특례) ①항 괄호 - (대통령선거·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를 제외한다.) - 및 사전적 정의와, 보궐선거로 당선된 대통령의 임기를 규정한 제6호 헌법(1962.12.26) 제69조 제②항과, 제7호 헌법(1969.10.21) 제69조 제②항, 제8호 헌법(1972.12.27) 제45

조 제③항 - 대통령이 궐위된 경우의 후임자는 전임자의 잔여기간 중에 재임한다 -
에 의거 2018년 2월 24일 24시까지 임이 명명백백하다.

[1]. 제19대 대통령 선거는 헌법 제68조 제2항에 의거한 보궐선거였다.

[2]. 보궐선거의 사전적 정의(daum.net): 선거로 당선된 자가 임기 도중에 사직, 사망 또는 실격된 사람이 있을 때 '남은 임기를 채우기 위하여' 후임자를 뽑는 임시 선거.

[3]. 보궐선거의 법률적 정의(공직선거법 제35조 제4항): 이 법에서 "보궐선거 등"이라 함은 제1항(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 내지 제3항(선거의 일부 무효로 인한 재선거) 및 제36조(연기된 선거 등의 선거일)의 규정에 의한 선거를 말한다.

[4]. 보궐선거로 당선된 제19대 대통령 문재인은 임기는 전임자인 제18대 박근혜 대통령의 잔여임기인 2018년 02월 24일까지로 헌법상 임기가 이미 끝났다.

※참고(헌법학자의 견해).☞

리걸마인드 연구소 조문숙교수의 특강 <必聽懇望>.

[1]. 보궐 대통령 문재인은 임기.

<https://youtu.be/Gfz76lAboTo>

[2]. 문재인 청와대대통령의 트라우마, 촛불쿠테타(보궐선거)로 당선된 문재인은 임기.

<https://youtu.be/T-goFoJB0Ck>

대한민국 만세!!!!

대한국민 만만세!!!

시사

과거없는 현재는 있을 수 없고, 현재가 없는 미래는 존재하지 않는 답니다.
현실은 팩트며, 양심입니다.

악한 것을 보고서 말하지 않는 자는 악한 일을 저지른 그 자의 노예 이다.

잘 못된 것을 보고서 말하지 않는 자는 잘 못을 저지른 그 자의 노예이다.
부정한 것을 보고서 말하지 않는 자는 부정을 저지른 그 자의 노예이다.

대한민국 대통령 궐위(闕位) 823일째 된 날(2020.05.27)에 즈음하여 헌법학자로서 헌법 제22조(학문과 예술의 자유) -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갖는다. - 에 의거한 학문적 소견을 피력한 바이며, 헌법 제19조(양심의 자유) -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 에 따라 국민으로서의 학자적 양심을 표명한 바이다.

- 도울(道苑) 合掌 -

※헌행 헌법(제10호) 상 대통령의 임기(제70조)는 5년(1,827일=42,848시간 =2,630,880분=157,882,800초)으로 국가의 원수로서 외국에 대해 국가를 대표(제66조 ①항)함은 물론 헌법 제69조(대통령의 취임선서)에 따른 국가보위의 의무상 주어진 국군통수권(제74조 ①항)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수호의 책무성 원칙(제66조 ②항)에 따라 단 1초도 덜하거나 더할 수 없다는 것이 국가기본법상 명문화된 헌법정신이다. 즉, '대통령'이란 자리는 국가의 계속적인 존속과 안보상 단 1초도 비울 수 없다는 것이 헌법상에 명기된 법의 정신이다.

그러한 대통령의 선거는 임기만료로 인한 정기선거(제68조 ①항)와 임기중 궐위 또는 당선자의 사망 및 판결에 따른 자격상실로 인한 보궐선거(제68조 ②항)로 대별되는데 대한민국 제10호. 헌법상 대통령의 임기는 개시점의 항구적 기준(출발점과 종착점)을 명기한 부칙 제1조와 제2조 ②항에 의거 대한민국 제18대 대통령 박근혜는 서기 2013년 2월 25일 00시 00분 00초부터 2018년 2월 24일 24시 00분 00초까지이고, 박근혜대통령의 탄핵결정(2017.03.10)에 따라 실시(2017.05.09)된 보궐선거로 당선이 결정(2017.05.10)돼 당일 취임한 후임자(문재인)의 임기는 현행 헌법 부칙 제2조 ②항과 헌법이 위임(제67조 ⑤항)한 공직선거법 제35조 ④항(보궐선거의 법률적 정의)과 제200조(보궐선거) ③항, 제201조(보궐선거 등에 관한 특례) ①항 괄호 - (대통령선거·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를 제외한다.) - 및 사전적 정의와, 보궐선거로 당선된 대통령의 임기를 규정한 제6호 헌법(1962.12.26) 제69조 제②항과, 제7호 헌법(1969.10.21) 제69조 제②항, 제8호 헌법(1972.12.27) 제45조 제③항 - 대통령이 궐위된 경우의 후임자는 전임자의 잔여기간 중에 재임한다 - 에 의거 2018년 2월 24일 24시까지 임이 명명백백하다.

[1]. 제19대 대통령 선거는 헌법 제68조 제2항에 의거한 보궐선거였다.

[2]. 보궐선거의 사전적 정의(daum.net): 선거로 당선된 자가 임기 도중에 사직, 사망 또는 실격된 사람이 있을 때 '남은 임기를 채우기 위하여' 후임자를 뽑는 임시 선거.

[3]. 보궐선거의 법률적 정의(공직선거법 제35조 제4항): 이 법에서 "보궐선거 등"이라 함은 제1항(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 내지 제3항(선거의 일부 무효로 인한 재선거) 및 제36조(연기된 선거 등의 선거일)의 규정에 의한 선거를 말한다.

[4]. 보궐선거로 당선된 제19대 대통령 문재인인의 임기는 전임자인 제18대 박근혜 대통령의 잔여임기인 2018년 02월 24일까지로 헌법상 임기가 이미 끝났다.

※참고(헌법학자의 견해).☞

리걸마인드 연구소 조문숙교수의 특강 <必聽懇望>.

[1]. 보궐 대통령 문재인인의 임기.

<https://youtu.be/Gfz76lAboTo>

[2]. 문재인 청와대대통령의 트라우마, 촛불쿠테타(보궐선거)로 당선된 문재인인의 임기.

<https://youtu.be/T-goFoJB0Ck>

대한민국 만세!!!!

대한국민 만만세!!!

시작부터 막힐 땐 평소 '입말'을 그대로 옮겨보자 | YES24 모바일 문화웹진 채널에 스

🌐 Web Clip

연재종료 망한 글 심폐소생술

시작부터 막힐 땐 평소 '입말'을 그대로 옮겨보자

일상에서 나누는 자연스러운 대화의 글쓰기

글쓰기를 어려워하는 사람들도 문어체보다는 일상에서 쉽게 쓰는 구어체로 글쓰기 연습을 시작하면 좋다. (2018. 12. 28)

글 김주미(작가) 사진 출판사 제공



전직 방송작가였다고 말하면 처음 만난 사람들이 건네는 단골 질문들이 있다.

“연예인 누구랑 일해 봤어요?”

“친한 연예인 없어요?”

“누가 제일 잘생겼어요?”

주로 시사교양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연예인과 일할 기회가 많지 않았다고 말하면 그들의 흥미는 곧 시들해지고 만다. 하지만 내게도 쇼오락 프로그램을 구성할 기회가 일 년에 몇 번 있었다. 행사가 많은 부산에서 오랫동안 일한 덕분에 영화제나 아시안게임, 축제 특집쇼 프로그램 제작에 참여한 적이 있었다. 지역에서 제작하지만 전국으로 방영되는 경우가 많아서 유명 가수들은 물론이고 이름만 대면 알 만한 진행자들과 함께 일할 기회가 되기도 했다.

쇼·오락 프로그램을 스토리텔링할 때는 진행자인 MC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MC는 그 방송의 주인공은 아니지만 시청자들이 가장 오랫동안 만나야 할 사람이다.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진 출연자와 무대들을 이질감 없이 이어주는 가교가 되어 주어야 하며, 쇼의 색깔을 잃지 않으면서 전체 방송의 완급을 조절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핵심 스토리텔러인 셈이다.

몇 차례의 경험이 쌓이며 내게도 마음속 '최악의 MC'와 '최고의 MC'가 나눠지기 시작했다. 한 번은 부산에서 열리는 가장 큰 지역축제의 축하쇼를 맡게 되었다. 다행히 제작비가 적지 않은 편이어서 원하는 MC를 섭외할 수 있었다. 당시 인기 있는 가수들도 무난히 출연을 승낙하여 쇼 준비는 순풍에 돛 단 듯이 순조로웠다. 이렇게 별 노력 없이 일이 잘 풀릴 때, 나는 '방심'이란 것을 하고 말았다.

보통 쇼를 준비할 때는 녹화에 앞서, MC들을 미리 만나 쇼 성격도 설명해 주고 진행 시 주의점도 알려 주어야 한다. 그러나 이번 진행자는 워낙 베테랑 MC였고 그 역시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다고 사전 미팅이 어렵다고 알려왔다. 이메일로 방송원고와 큐시트를 미리 보내는 것으로 사전 미팅을 대신할 수밖에 없었다. 거기부터가 나의 실수였다. 그가 녹화 당일까지 이메일을 읽지 않았음을 확인하지 못했다. 또 하나의 치명적인 실수가 있었다. 나중에 알았지만 그는 평소 '의전'에 굉장히 민감하다는 소문이 있었다. 대본에 얽매인 진행을 싫어해서 원고에는 최소한의 정보만을 써야 하며 글자는 최대한 크게 써 줘야 한다는 매뉴얼도 작가들 사이에서 돌고 있었다.

사건은 녹화 당일 터졌다. 의전을 중요시하는 그가, 비행기를 타고 갈 것이라고 미리 알려줬건만 방송국 차량을 배정하지 않아 손수 택시를 잡아타고 행사장까지 오게 만들었다. 이미 그의 심기는 불편해져 있었다. 무대가 야외 축제 현장이어서 천막으로 만든 대기실을 썼는데 제작진은 MC만의 독립공간을 마련하지 못했고, 그는 출연 가수들과 천을 사이에 두고 같은 공간에서 대기해야 했다. 내가 원고를 전하러 갔을 때 그의 표정은 불만으로 가득 차 있었다. 평소 다른 MC들에게도 주던 형식과 내용으로 쓴 원고를 보여주었지만 그의 얼굴은 더욱 붉어졌다. 곧 내 인생 최고의 모욕적인 순간으로 꼽히는 장면이 이어졌다. 그가 나의 원고를 던져버렸다!

"뭐 이따위 원고가 있어! 진행을 하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원고를 제대로 읽지도 않고 내팽개치는 그의 행동이 무엇 때문인지, 이유를 알 길 없었던 나 역시 어이가 없고 분노가 치밀었다. 결국 나는 화장실에서 눈물을 훔치느라 방송에 전념할 수 없었고 그는 원고 대신 큐시트에 적힌 가수와 곡명만 보고 진행을 했다. 녹화 후 PD와 편집을 하면서 "이렇게 많은 제작비를 가지고, 이렇게 재미없는 쇼를 만들다니!"라는 반성으로 괴로움의 시간을 보내야 했다.



재미있는 사실은 최악과 최고의 차이가 그야말로 종이 한 장이란 점이다. 이듬해 다시 똑같은 쇼를 준비하게 되었다. PD는 다른 MC를 찾자고 했지만 나는 오기가 생겼다. 자진해서 서울에 출장을 갔다. 그 MC를 만나 작년의 행사 때 준비가 미흡했음을 사과했다. 그리고 원고를 쓸 때 참고할 것이 있는지 물었다. 그러자 자신은 흥이 나와 쇼 진행을 재미있게 할 수 있으며 그러려면 원고를 따라가기보다 그때그때 애드립을 하는 것이 더 좋다고 말했다.

부산으로 돌아온 나는 곧바로 그가 진행했던 프로들을 찾아봤다. 그가 자주 쓰는 어휘나 문장은 무엇인지, 어떤 자세로 멘트할 때 제일 편해하는지, 진행 스타일이 어떤지 공부했다. 그가 혼자일 때보다 자신의 애드립을 받아주는 보조 MC와 함께할 때 훨씬 안정감 있는 진행을 한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그가 평소 쓰는 단어들을 배치해서 원고를 작성했고, 한 곳에서 있기보다 무대에서 움직일 때 훨씬 자연스러운 진행을 한다는 특징을 찾아 출연자들과 무대 중앙에서 이야기할 기회를 늘였다. 그해 축하쇼는 한마디로 대성공이었다. 흥이 난 MC가 신명나는 진행으로 현장에 있는 관객들과 함께 웃고 춤추며 생동감 있는 쇼를 완성했다. 원고를 만들기 위해 MC의 말투와 행동, 성격을 연구하며 말맛을 살리는 것이 무척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한때 방송아카데미에서 강의를 했다. 작가반 수업이 열리면 첫 시간에는 주로 방송 글의 특징을 설명했는데 특히 문어체와 구어체를 비교하여 일반적인 글과 방송 글의 차이를 이야기하려 했다. 방송작가는 '글을 쓰듯이'가 아니라 '말을 하듯이' 대본을 써야 한다. 라디오를 듣거나 TV 프로그램을 보면서 시청자들은 작가가 쓴 글을 눈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귀로 듣기 때문이다. 대화가 자막으로 다시 화면에 새겨지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소리로 공중에 흩어진다. 방송작가 지망생들에게 문어체가 아닌 구어체를 연습시키는 이유도 그렇다.

글쓰기를 어려워하는 사람들도 문어체보다는 일상에서 쉽게 쓰는 구어체로 글 쓰기 연습을 시작하면 좋다. 문어체는 문장이 도중에 불완전하게 끝맺을 수 없지만 구어체는 듣는 이가 이해하는 상황이면 완전하지 않아도 도중에 끝낼 수 있다. 문어체는 시대에 따라 변하는 속도가 늦고 되도록 표준말을 쓰도록 한다. 한자어나 옛말이 사용되어도 상관없다. 구어체는 유행과 시대에 따라 말의 변화속도가 빠르다. 말하는 이의 개성을 살려 현재 두루 쓰이는 말이나 유행어를 써도 괜찮다. 한마디로 구어체는 현재에도 변화를 계속하는 좀 더 생생한 표현이며, 나 자신이 생활 속에서 가장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말이다.

구어체로 표현하려면 어떻게 써야 할까? 일상에서 나누는 자연스러운 대화를 떠올려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는 쉬운 낱말을 쓸수록 좋다. 듣는 이가 누구든,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 한 번에 이해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어려운 한자어나 외래어보다는 쉬운 우리말을 쓰고, 추상적인 표현보다는 구체적이고 정확한 어휘를 선택한다.

다음으로, 문장 구조가 짧고 단순할수록 좋다. 길어질수록 말하는 내용의 의도가 무엇인지 파악하기 어렵고 전달하려는 바가 분명치 못해 오해를 불러올 수도 있다. 설명하고 싶은 내용이 많다면 한 문장의 호흡을 길게 가져가기보다는 여러 문장으로 나누어주는 편이 낫다. 간결한 문장은 전하려는 생각이나 감정이 무엇인지 선명하게 드러낸다. 최소한의 주어와 서술어로 이뤄진 문장들은 강인한 힘마저 느껴진다. 강조하고 싶은 바를 담은 문장일수록 짧게 쓰는 것이 좋다.

방송 대본의 원칙 중에, 쉽고 보편적인 단어를 사용하고 짧고 단순한 문장을 구성하라는 것이 있다. 방송작가들이 숫자를 다루는 방식에 주목해 보자. 예를 들어, 산불이 발생해 '40ha의 산림을 태웠다'는 표현보다는 '축구장 56개에 해당하는 면적이 불탔다'는 표현이 듣는 이들에게는 더 잘 와 닿는다. 가늠하기 어려운 숫자나 생소한 단위를 사용할 때도 한 번 더 풀어서 설명해 줘야 한다. 독자나 시청자들이 제시된 수치를 체감할 수 있도록 단위를 변환하거나 친근한 비유 대상을 찾아 알려주는 것도 방법이다. 가령, 집이나 건물의 면적을 이야기할 때 제곱미터 단위를 사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지만, 아직 사람들이 낯설게 느끼는 표현이다. 이럴 땐 '3.3㎡, 즉 한 평당 임대료가 10만 원'이라는 식으로 들려주는 것이 좋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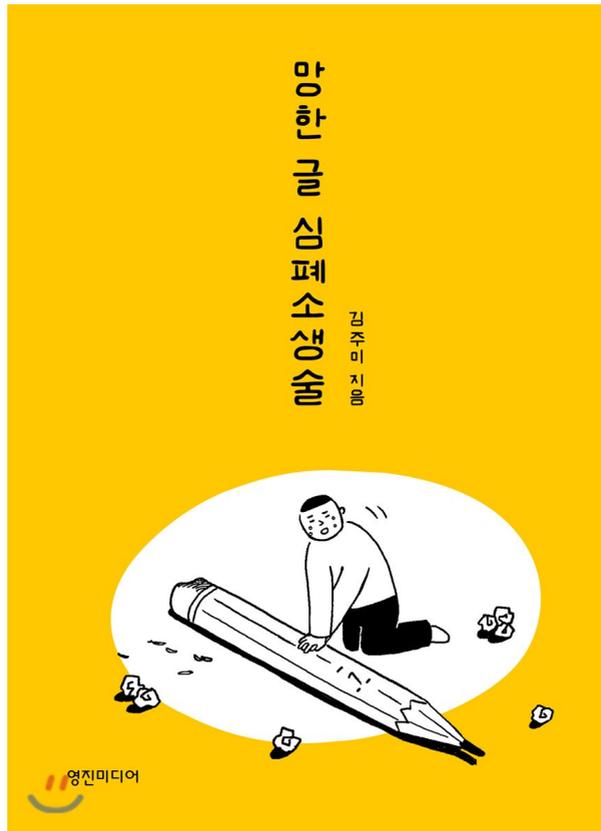
나는 방송 생활을 처음 시작하는 후배들이나 제자들에게 늘 시집을 선물한다. 후배나 제자들은 내가 선물을 준비했다고 하면 한껏 기대했다가 얇은 시집을 내미는 것을 보고는 실망하곤 한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들이 손사래를 치는

일을 시킨다. 바로 시 낭송이다. 집에 돌아가면 선물한 시집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시를 골라 반드시 낭송해볼 것. 물론 내 선물과 조언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확인하지는 못했지만 언젠가 그들에게 도움이 될 거란 확신으로 지금도 시집 선물을 계속하고 있다.

시는 리듬이 있는 글이다. 시를 읽을 때 느껴지는 말의 가락, 즉 운율 때문이다. 시에서는 이 운율을 사용해 리듬감을 살리고 읽는 이로 하여금 시인이 강조하고 싶은 내용에 주목하도록 만든다. 그래서 시는 낭송을 했을 때 비로소 그 어휘들의 아름다움과 시인의 감성이 보다 잘 전달된다.

자신이 쓰려는 글들도 낭송했을 때 리듬감이 있으면 더 빨리 읽히고 독자들을 끌어당기는 힘이 생길 것이다. 운율을 주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나는 일정한 글자 수를 반복하기, 같거나 비슷한 문장 구조를 반복하여 주제를 강조하는 방법을 자주 썼다. 내가 쓴 글에 리듬을 줘야겠다고 자각하고 대본을 쓴 이후 가장 달라진 점은 방송 중 내 글을 읽는 MC나 DJ, 내레이터들의 실수가 눈에 띄게 줄었다는 것이다. 리듬을 가진 글은 읽는 사람도, 듣는 사람도 편히 대할 수 있어 마음의 안정을 준다.

말은 하고 나면 수정이 어렵지만 글은 쓰면서 얼마든지 더 적합한 단어로 바꿀 수 있다. 문단의 순서를 이리저리 옮겨볼 수 있으며 정보나 논리가 취약한 부분은 보충할 수 있다. 말하듯이 초고를 쓰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 나가는 식으로 퇴고를 여러 차례 거치다 보면 어느새 한 편의 근사한 글이 탄생한다.



망한 글 심폐소생술 김주미 저 | 영진미디어

짧은 문장부터 한 편의 글까지 실제로 써먹을 수 있는 팁을 비롯해, 어떻게 하면 글쓰기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지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쓸 수 있는지 등 글쓰기 기법과 '작가'로서의 태도를 모두 엮었다.

 [도서 상세정보 >](#)



추천기사

-  [\(하기 싫어도 해보는\) 산책](#)

-  [저 혹시, 구마몬을 아시나요?](#)

-  [얼지 않은 동태 있나요?](#)

'대한민국 No.1 문화웹진' 예스24 채널예스

[코너 전체 보기](#)

- [관련 기사 \(2\)](#)
- [관련 상품 \(2\)](#)
- [첫번째 독자 의견을 남겨주세요.](#)

TOP ↑

시편개요

1. 두 가지 삶의 방식이 대조됨
2. 하나님께서 기름부은 자의 대관식
3. 패배를 목전에 두고 얻은 승리
4. 구원을 요청하는 저녁 기도
5. 인도를 구하는 아침 기도
6.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기도
7. 죄악이 공의롭게 보응받음
8. 하나님의 영광과 인간의 위임 통치권
9. 대적들에 대한 승리로 인해 찬양함
10. 하나님의 심판을 간청함
11. 하나님께서 인자들을 시험하심
12. 주님의 순전한 말씀
13. 하나님의 즉각적인 응답을 위한 기도
14. 어리석은 무신론자의 특성
15. 경건한 자의 특성
16. 신뢰하는 자를 위해 주어지는 영원한 삶
17. "나를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소서"
18. 하나님에 의한 구원을 감사함
19. 하나님께서 하신 일(Works)과 하나님의 말씀(Word)
20. 말과 병거가 아닌 하나님을 의뢰하라
21. 왕의 승리(위엄)
22. 십자가의 시편
23. 목자이신 하나님
24. 영광의 왕에 대한 시
25. 교훈을 위한 알파벳시(acrostic prayer)
26.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소서(알아보소서)"
27. 여호와를 의지하고 두려워 말라
28. 기도의 응답으로 인한 기쁨
29. 하나님의 능력 있는 음성
30. 극적인 구원을 인한 찬양
31. "담대하라"
32. 사죄받은 자의 축복
33.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간의 행위를 아신다
34. 여호와를 구하라
35.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함

36. 하나님의 놀라운 인자
37. "하나님을 신뢰하라"
38. 죄의 무거운 짐
39. 인간의 날 수의 한계를 알라
40. 하나님을 뜻을 행하는 기쁨
41. 가난한 자를 돕는 축복
42. 여호와를 찾아 구하라
43. "하나님을 신뢰하고 소망을 품으라"
44. 하나님의 구원을 구하는 기도
45. 위대한 왕의 시편
46. "하나님께서서는 우리의 피난처요 힘이시다"
47. 주 하나님께서는 모든 열방을 굴복시키실 것이다
48. 시온 산을 위한 찬양
49. 부가 구원할 수 없다
50. 주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심판하실 것이다
51. 죄의 고백과 용서
52. 주 하나님께서 간사한 자를 심판하실 것이다
53. 어리석은 무신론자의 모습
54.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돕는 분이시다
55. "네 집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56. 환난중의 어려움
57. 위기중의 기도들
58. 사악한 재판관들은 심판받을 것이다
59. 강포한 자들로부터의 구원을 위한 탄원
60. 민족의 구원을 위한 기도
61. 마음이 눌릴 때의 기도
62. 하나님을 바라라
63. 하나님을 향한 갈망
64. 하나님의 보호를 위한 기도
65. 자연을 통한 하나님의 공급
66.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억하라
67. 하나님께서 땅을 다스리실 것이다
68. 하나님께서는 고아(아비 없는 자)의 아버지이시다
69.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시기를 탄원함
70.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위한 기도
71. 노인을 위한 기도
72. 메시아의 통치
73. 영원을 바라보는 시야

74. 하나님께 당신의 언약을 기억하시도록 요청함
75. "하나님께는 재판장이시다"
76. 하나님의 영광의 능력
77. 언약해질 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기억하라
78. 불신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하나님의 인도
79. 예루살렘을 파괴하고 더럽힌 자들에 대한 복수
80. 하나님의 인자를 구하는 이스라엘의 간구
81. 이스라엘의 순종을 요구하는 하나님의 간청
82. 이스라엘의 불공평한 재판장들에 대한 책망
83. 이스라엘의 대적들을 멸하시기를 구하는 탄원
84.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기쁨
85. 부흥을 위한 기도
86. "여호와여, 주의 도로 나를 가르치소서"
87. 영광스런 시온, 하나님의 도성
88. 깊고 깊은 고통 중의 부르짖음
89. 고난 중에 하나님의 약속들을 주장함
90.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소서"
91. '전능하신 자의 그늘'아래 거하는 것
92. 여호와를 찬양함이 선하다
93. 하나님의 위엄
94. 원수 갚는 것이 오직 하나님께 있다
95. 여호와를 경배하자는 부름
96.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라
97. 기뻐하라! 여호와가 통치하신다!
98.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99.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자"
100.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자"
101. 거룩한 생활의 약정
102. 곤고한 성도의 기도
103. 너희 모든 백성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104. 창조에 대해 자세히 말하는 시편
105. 기억하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약속을 지키신다
106. "우리가 범죄하였나이다"
107. 사모(갈망)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만족케 하신다
108.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찬양하라
109. 비방(중상)당하는 자의 노래
110. 제사장 - 왕 - 재판장이신 분의 오심
111. 하나님의 자비하신 보살핌에 대한 찬양

112.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축복
113. 자신을 낮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114. 출애굽을 찬양함
115. 주께만 돌릴 영광
116.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을 인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라
117. 모든 나라 백성들의 찬양
118. 여호와께서 피함이 사람을 신뢰함보다 낫다
119. 성경 말씀을 찬양하는 알파벳 시
120. 환난 중의 부르짖음
121.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지키는 분이시다
122.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123. 하나님의 인자를 구하는 간청
124. 하나님께서는 우리편에 계신다
125. 여호와를 의뢰하고 영원히 거하라
126. "눈물을 흘리며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127. 자녀는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다
128. 하나님을 경외하는 집의 축복
129. 핍박받는 자의 탄원
130.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니이다"
131. 아이 같은 믿음
132. 다윗의 하나님을 의뢰하라
133. 형제 연합의 아름다움
134. 저녁에 하나님을 찬양하라
135. 여호와께서 위대한 일을 행하셨다!
136. 하나님의 인자는 영원하다
137. 포로 생활 중의 눈물
138.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응답하셨다
139. "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소서"
140. 강포한 자에게 나를 보전하소서
141. 여호와여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소서
142. "내 영혼을 돌보는 자가 없나이다"
143.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케 하소서"
144. "사람이 무엇이관대"
145. 하나님의 위대한 행위를 증거(선포)함
146.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라"
147. 하나님께서는 상심한 자를 고치신다
148. 모든 피조물이 여호와를 찬양한다
149.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150. “여호와를 찬양하라”

신천지교인명단

아래의 글은 요즘 퍼지고 있는 신천지 명단에 대한 신천지 전문가(구리시에서 활동 중이신 신현욱목사)의 답변입니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

[2007년에 유폐된 서울경기 추수꾼 1600명 명단에 대하여]

위 명단은 신천지에서 센터교육중 탈락한 수강생들을 추수꾼이라고 거짓으로 유폐한 거짓

명단입니다. 2007년부터

이 명단으로 인해 위 교회

와 당사자들이 많은 혼란 과 고통이 있었는데 그간

잠잠하더니 지금 다시 돌고 있어 안타깝습니다.

이는 신천지가 수강중 탈락한 성도들이 소속교회에서 신천지로 의심받게해서 시험 받아

힘들게 될 때에 다시 접근해서 미혹하려고

유폐시킨 것으로 추정

됩니다.

그러니까 이 명단에 있는 성도들은 명단에 있는 교회 성도들인 것이 틀림없다보니 교회측에 서는 이를 믿을 수 밖에 없었고, 당사자들은 확인하는 과정에서 놀라서 부인하거나 사실대로 얘기해도 교회에서는 믿기가 어려웠던 것이죠.

그들이 센터에 제출한

신상정보를 가지고

허위로 조작한것입니다.

물론 그들이 후에 다시 미혹되어 신천지로 들어갔을 경우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명단에 있는 분들을 불러서 물어보면

겁나서 잡아떼는 경우와

솔직하게 얘기하는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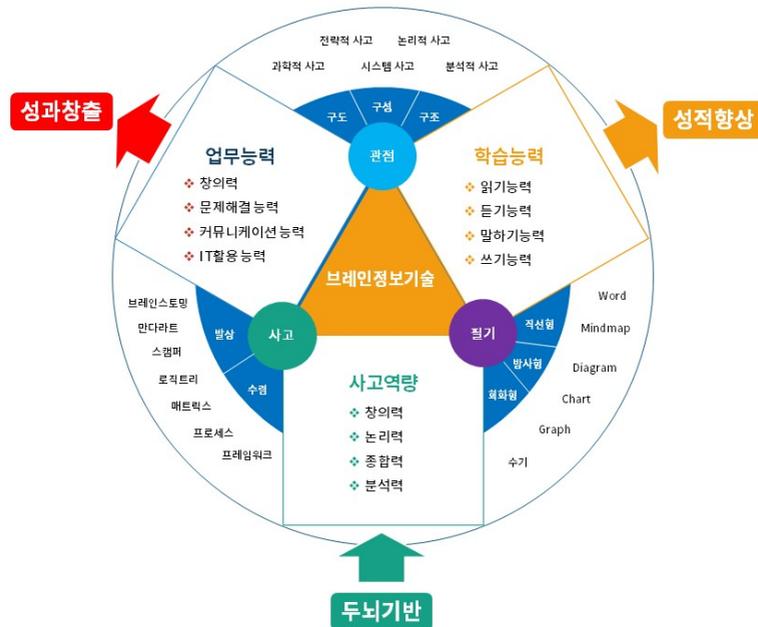
가 있을겁니다.

불러서 옛날에 센터에 속아서 갔다가 나온 사실이  
 이 있지 않느냐고 다 알고  
 있다고 아무렇지 않다는  
 식으로 편하고 자연스럽게  
 게 물어보면 시인을 할  
 것입니다. 의심하듯이  
 캐묻듯이 하면 움츠리고  
 부인할 수도 있으니  
 자연스럽게 사실대로  
 얘기를 하는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그냥 넘어가는 것도 좋을듯합니다.

2020. 4. 4  
 신현욱 목사 올림

## 신형.브레인정보기술체계도



## 안정위선교사 인터뷰내용

## 국내 선교사 인터뷰 - 안정위 IT선교사(47기, GMP소속)

매우 추웠던 지난 1/8(금) 오후 2시30분, 김수진선교사(47기)와 함께 안정위선교사의 사무실에 들어서자 반갑게 맞아주셨다. 안선교사는 46년째 IT 비즈니스를 해온 진짜 전문가이다. 2018년부터 GMP IT전문인선교사로 활약을 해 오고 계시다.

준비해 둔 인터뷰 질문 항목이 있었지만, 안선교사는 먼저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하셨다. 얼마 전 자신의 인생에서 두번째 홍해를 건넜다고 서두를 꺼냈다. 이어진 이야기는 첫번째 홍해에 대한 것이었다. 2004년 1월, 아내 유권사의 백혈병 진단을 전후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신을 이끌어 오셨는지에 대해 자세히 나누어주셨다.

### 주께서 주신 만남과 신앙의 대전환

선데이 크리스천으로 매 주일 예배시간 마다 회사의 주간계획을 세우곤 했던 그는, 2002.1 사무실을 방문한 양승헌 목사와의 만남으로 인생의 대전환을 맞게 된다. 인사치레로 참석한 세대로교회에서 주일 말씀이 들리게 되자, 아내는 남편을 위해 20여년을 섬긴 신림동 교회에서 세대로교회로 적을 옮기게 되었다. 그래도 늘 분주했던 2002년 말, 억지로 참석한 구약 파노라마에서 성경 맛을 보고, 그간 계속 미루어왔던 새가족특별반(4주)도 참여하였다. 2003년 1월초, 성경일독에 대한 마음을 주셔서 창세기를 읽던 중에 금주를 결심하였다. '흑백으로만 보이던 말씀이었지만 그래도 말씀은 작동하였다'고 안선교사는 고백하였다. 이후 6개월, 세상에서 만난 그 많은 술친구들은 모두 떨어지고, 새로운 말씀의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했다. 그리고 태평양그룹 임원도 내려놓고 회사를 창업하게 되었다.

### 아내와 함께 첫 번째 홍해를 건너다

2004년 1월, 아내 유윤숙권사의 백혈병 다발성골수종의 진단은 첫번째 홍해였다. 안정위선교사를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아내는 항암 투병 중에도 주일예배를 결코 빠지지 않았고, 세대로교회는 릴레이금식 기도로 중보하였다. 3월 부흥회에서 김요셉목사의 치유선포가 있었고, 처남의 골수이식 과정에서 그의 믿음도 온전히 회복되었다. 16년이 지난 지금은, 성모병원 주치의도 유권사가 다발성골수종 치료의 희망이며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였다고 한다.

안선교사는 2005년 제자훈련, 선교위원장으로 섬기다가 2009년 장로임직, 재정행정 담당장로 5년을 섬겼다. 이후 사역장로가 된 후에는 소속 교단의 일을 맡기도 했다. 2017년 GMTC에서 IT 꼭지강의를 맡아오다가, 아내와 함께 GPTI훈련을 받게 되고, 2018년 GMP 이재화대표의 제안으로 IT전문인 선교사로 받고, 빌리온선교회 이사로 위촉받기도 했다. 2019년 GMP 필드총회에서 선교기관의 행정개혁의 프리젠테이션을 하였다. 안선교사는 GMP본부 소속의 IT선교사로 '선교사를 돕는 선교사'이다.

## 두 번째 흥해를 건너 사역지원기술연구소의 태동

안선교사는 2019 하반기부터 이제 비즈니스를 새롭게 세우려고 결심을 하고, 2020.2월 초 운영 중인 (주)파라미터가 ThinkWise 총판 계약을 하고, 한국 교회와 선교단체에 1,000 Copy(2억 상당)의 S/W를 무상 보급할 수 있게 되었으나, 코로나 사태로 비즈니스 실행이 중단되었다. 두 번째 흥해가 가로막힌 것이다. 그러나 안선교사는 작년 11월 중 Zoom으로 시동을 걸었다. 온라인 시대를 넘어 본격적인 비대면 사회를 경험하면서, 그간의 리더스씽킹연구소가 코로나 후, 교회가 시대를 돌파할 수 있는 목회정보기술(PIT)를 지원하는 '사역지원기술연구소'로 새롭게 거듭나게 된 것이다.

## 비대면 선교사역을 관통하는 ThinkWise!

사역지원기술연구소는 목회자와 선교사들에게 비대면 사역에 적정 정보기술 활용에 필요한 스킬과 툴을 제공하고, 온라인, 오프라인 교육을 실시하는 사역지원 전문기관이다. 안선교사가 지난 45년간 준비해 온 저력으로 구체적인 솔루션을 제공하여,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사역자들에게 IT 기술로 첨단 갑옷으로 무장시킬 수 있게 된 것이다.

사역지원기술연구소는 GMSIS(세계선교사지원정보시스템)과 IT선교교육센터를 준비하고 있다. 온라인 IT 기술을 활용하려면, 아날로그적 사고방식을 벗어나 논리적·과학적·분석적 사고의 디지털적 사고가 필요하다. 2021.1월 안선교사는 사고의 전환을 가능케 하는 ThinkWise 중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실행하고 있다. 이제 IT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어 버렸다.

안정위선교사는 인터뷰를 마치면서, 앞으로의 모든 비전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있다고 고백하고, 오랜 시간 동안 준비된 자료를 보여주었다. 2021년 한해 안정위선교사의 비전으로 한국교회와 기관들이 코로나 팬데믹을 압도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한다.

정리: 공석수선교사 (GPTI 49기)

# “네이버에서 검색하세요”

**NAVER**

사역지원기술연구소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조각하는 일과 세공하는 일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베 실로 수 놓는 일과  
짜는 일과 그 외에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고 정교한 일을 고안하게  
하셨느니라 (출35:35)

## 안종배교수

안종배 국제미래학회 회장은 지난 27일 오후 7시 K호텔 크리스탈홀에서 열린 청산포럼 초청 특강에서 '포스트코로나 대한민국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이란 주제로 강연했다.

이 특강에서 안 회장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한국은 어려운 환경에 처하겠지만 동시에 이를 극복하면 한국 역사상 처음으로 선진 리더국가 될 기회라고 주장했다.

청산포럼은 이희범 전 상공부 장관, 문용린 전 교육부 장관, 이어령 초대 문화부 장관, 오명 전 과학기술부 장관, 장태평 전 농림부 장관, 유종근 전 전북도지사, 김종량

한양대 이사장, 이배용 전 이화여대 총장 등 전직 장·차관과 기관장, 그리고 사회 원로들이 함께 한 2010년 조직된 정책포럼이다.

안 회장은 포스트코로나 미래사회 변화를 전망하며 핵심 특징으로 첫째, 창의적 인성과 고귀한 가치 추구의 영성 중시 휴머니즘의 강화. 둘째, 초지능·초연결·초실감을 구현하는 4차산업혁명의 가속화를 꼽았다.

그런데 한국은 사람 중심의 휴머니티가 강하고 ICT와 스마트 인프라 갖추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에 대응하면서 한국의 휴머니티와 뛰어난 스마트 ICT 인프라와 기술력이 세계적으로 인정받게 되었다고 했다.

안 회장은 또한 포스트코로나시대 변화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생태계, 과학기술, 가치관 관점의 22가지 미래 변화를 위기와 기회 관점에서 제시하였다.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부상할 미래 산업과 비즈니스의 핵심 3가지 트렌드로 첫째, 비대면 참여로 현존감을 강화하는 Untact Presence 강화. 둘째, 모든 비즈니스의 블랙홀인 Smart Platform 확산. 셋째, 첨단기술과 감성으로 개인맞춤하는 AI Personal 활용의 일반화를 예측하였다.

안 회장은 대한민국은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경기침체와 세계적 경제불황 등 위기 상황을 맞이하겠지만 이를 한국민의 창의적 에너지와 따뜻한 인성 휴머니즘을 결합한 4차산업혁명기술 개발을 기반으로 한국형 뉴딜인 스마트 트랜스포메이션 및 그린뉴딜과 스마트·AI 스타트업 진흥을 통해 세계를 선도할 수 있는 리더 국가가 될 수 있다고 예측했다.

안 회장은 이를 위해 대한민국에 현재 필요한 것은 정부, 정치권, 전국민이 포스트코로나 미래 변화에 적극 대비하여 위기를 극복하고 기회로 만들수 있도록 미래지향적 전략을 입안하고 힘을 모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안 회장은 대한민국의 국가 핵심 전략으로 차(CHA)차(CHA)차(CHA) 전략을 제시하였다. 첫째, Change. 미래사회 변화를 예측하여 바람직한 미래를 구현하는 국가 미래예측 전략을 입안하고 공유한다. 둘째, Challenge. 바람직한 미래사회 구현을 위한 전국가적 도전 실천 붐을 만든다. 셋째, Chance. 이를 통해 위기와 변화를 두려워하지말고 오히려 기회로 만들어가는 전국민적 협력과 노력을 경주한다.

안종배 회장은 도산 안창호 선생이 민족의 암흑기인 일제시대에 대한민국이 미래 선진 강국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경제적 자본, 정신적 자본, 도적적 자본을 위해 온 국민이 일치 단결하여 노력해야 한다는 주장을 현재에 꼭 실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 = 이민영 기자

저작권자 © 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어떻게 죽을 것인가? 소설가 김훈

어떻게 죽을 것인가? 소설가 김훈

망팔(望八)이 되니까 오랫동안 소식이 없던 벗들한테서 소식이 오는데, 죽었다는 소식이다.

살아 있다는 소식은 오지 않으니까, 소식이 없으면 살아 있는 것이다.

지난달에도 형뻘 되는 벗이 죽어서 장사를 치르느라고 화장장에 갔었다.

화장장 정문에서부터 영구차와 버스들이 밀려 있었다.

관이 전기 화로 속으로 내려가면 고인의 이름 밑에 '소각 중'이라는 문자등이 켜지고,

40분쯤 지나니까 '소각 완료',

또 10분쯤 지나니까 '냉각 중'이라는 글자가 켜졌다.

10년쯤 전에는 소각에서 냉각까지 100분 정도 걸렸는데, 이제는 50분으로 줄었다.

기술이 크게 진보했고, 의전을 관리하는 절차도 세련되다.

'냉각 완료'되면 흰 뿔가루가 줄줄이 컨베이어 벨트에 실려서 나오는데, 성인 한 사람분이 한 되 반 정도였다.

직원이 뿔가루를 봉투에 담아서 유족들에게 하나씩 나누어주었다.

유족들은 미리 준비한 용기에 뿔가루를 담아서 목에 걸고 돌아갔다.

원통하게 비명횡사한 경우가 아니면 요즘에는 유족들도 별로 울지 않는다.

부모를 따라서 화장장에 온 청소년들은 대기실에 모여서 아이스크림을 먹고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하고 있었다.

제 입으로 "우리는 호상(好喪)입니다"라며 문상객을 맞는 상주도 있었다.

그날 세 살 난 아기가 소각되었다. 종이로 만든 작은 관이 내려갈 때, 젊은 엄마는 돌아서서 울었다.

아기의 뺨가루는 서너 흙뽕 되었을 터이다.

뺨가루는 흰 분말에 흐린 기운이 스며서 안개 색깔이었다.

입자가 고와서 먼지처럼 보였다.

아무런 질량감도 느껴지지 않았다.

물체의 먼 흔적이나 그림자였다.

명사라기보다는 '흐린'이라는 형용사에 가까웠다.

뺨가루의 침묵은 완강했고, 범접할 수 없는 적막 속에서 세상과 작별하고 있었다.

금방 있던 사람이 금방 없어졌는데,

뺨가루는 남은 사람들의 슬픔이나 애도와는 사소한 관련도 없었고,

이 언어도단은 인간 생명의 종말로서 합당하고 편안해 보였다.

죽으면 말길이 끊어져서 죽은 자는 산 자에게 죽음의 내용을 전할 수 없고,

죽은 자는 죽었기 때문에 죽음을 인지할 수 없다.

인간은 그저 죽을 뿐, 죽음을 경험할 수는 없다.

화장장에 다녀온 날 저녁마다 삶의 무거움과 죽음의 가벼움을 생각했다.

죽음이 저토록 가벼우므로 나는 남은 삶의 하중을 버티어낼 수 있다.

뺨가루 한 되 반은 인간 육체의 마지막 잔해로서 많지도 적지도 않고, 적당해 보였다.

죽음은 날이 저물고, 비가 오고, 바람이 부는 것과 같은 자연현상으로,

애도할 만한 사태가 아니었다.

뺨가루를 들여다보니까,

일상생활하듯이,

세수를 하고 면도를 하듯이,

그렇게 가볍게 죽어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

돈 들이지 말고 죽자,

건강보험 재정 축내지 말고 죽자,

주변 사람을 힘들게 하지 말고 가자,

질척거리지 말고 가자,

지저분한 것들을 남기지 말고 가자,

빌려 온 것 있으면 다 갚고 가자,

남은 것 있으면 다 주고 가자,

입던 옷 깨끗이 빨아 입고 가자,

관은 중저가가 좋겠지.

가면서 사람 불러 모으지 말자,

빈소에서는 고스톱을 금한다고 미리 말해두자....

가볍게 죽기 위해서는 미리 정리해놓을 일이 있다.

내 작업실의 서랍과 수납장,

책장을 들여다보았더니 지금까지 지니고 있었던 것의 거의 전부(!)가 쓰레기였다.

이 쓰레기더미 속에서 한 생애가 지나갔다.

똥을 백자 항아리에 담아서 냉장고에 넣어둔 꼴이었다.

나는 매일 조금씩, 표가 안 나게 이 쓰레기들을 내다버린다.

드나들 때마다 조금씩 쇼핑백에 넣어서 끌어낸다.

나는 이제 높은 산에 오르지 못한다.

등산 장비 중에서 쓸 만한 것들은 모두 젊은이들에게 나누어주었고, 나머지는 버렸다.

책을 버리기는 쉬운데,

헌 신발이나 낡은 등산화 버리기는 슬프다.

뒤축이 닳고 찌그러진 신발은 내 몸뚱이를 신고 이 세상의 거리를 쏘다닌, 나의 분신이며 동반자이다.

헌 신발은 연민할 수밖에 없는 표정을 지니고 있다.

헌 신발은 불쌍하다.

그래도 나는 내다 버렸다.

뺏가루에게 무슨 연민이 있겠는가.

유언을 하기는 썩스럽지만 꼭 해야 한다면 아주 쉽고 일상적인 걸로 하고 싶다.

—딸아, 잘생긴 건달 놈들을 조심해라.

—아들아, 혀를 너무 빨리 놀리지 마라.

정도면 어떨까 싶다.

오래전에 돌아가신 나의 아버지는 스스로 '광야를 달리는 말(!)'을 자칭했다.

아버지는 집 밖으로 나돌면서 평생을 사셨는데,

돌아가실 때 유언으로

—미안하다.

를 남겼다. 한 생애가 4음절로 선명히 요약되었다.

더 이상 짧을 수는 없었다.

후회와 반성의 진정성이 느껴지기는 하지만, 이것은 좋은 유언이 아니다.

이미 돌이킬 수 없이 늦었고, 대책 없이 슬프고 허허로워서 어쩌자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퇴계 선생님은 죽음이 임박하자

—조화를 따라서 사라짐이여

다시 또 무엇을 바라겠는가.

라는 시문을 남겼고, 임종의 자리에서는

—매화에 물 쥐라.

하고 말씀하셨다고 제자들이 기록했다.

아름답고 격조 높은 유언이지만 생활의 구체성이 모자란다.

내 친구 김용택 시인의 아버지는 섬진강 상류의 산골 마을에서 평생 농사를 지으며 사셨다.

김용택의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김용택을 불러놓고 유언을 하셨는데

—네 어머니가 방마다 아궁이에 불 때느라고 고생 많이 했다.

부디 연탄보일러를 놓아드려라. 라고 말씀하셨다.

(나는 이 이야기를 김용택의 어머니 박덕성 여사님한테서 직접 들었다. 몇 년 후에 김용택의 시골집에 가봤더니 그때까지도 연탄보일러를 놓지 못하고 있었다.)

나의 아버지, 퇴계 선생님, 김용택의 아버지, 이 세 분의 유언 중에서 나는 김용택 아버지의 유언이 최고라고 생각한다.

이 유언은 건실하고 씩씩하고 속이 짝 차 있다.

김용택 아버지는 참으로 죽음을 별것 아닌 것으로, 아침마다 소를 몰고 밭으로 나가듯이 가볍게 받아들이셨다.

그리고 숨을 거두는 순간에도 인생의 당면 문제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인식하고 있었다.

이 정도 유언이 나오려면, 깊은 내공과 오래고 성실한 노동의 세월이 필요하다.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다.

삶은 무겁고 죽음은 가볍다.

죽음과 싸워서 이기는 것이 의술의 목표라면 의술은 백전백패한다.

의술의 목표는 생명이고, 죽음이 아니다.

이국종처럼, 깨어진 육체를 맞추고 꿰매서 살려내는 의사가 있어야 하지만,

충분히 다 살고 죽으려는 사람들의 마지막 길을 품위 있게 인도해주는 의사도 있어야 한다.

죽음은 쓰다듬어서 맞아들여야지, 싸워서 이겨야 할 대상이 아니다.

다 살았으므로 가야 하는 사람의 마지막 시간을 파이프를 꽃아서 붙잡아놓고서 못 가게 하는 의술은 무의미하다.

가볍게 죽고, 가는 사람을 서늘하게 보내자.

단순한 장례 절차에서도 정중한 애도를 실현할 수 있다.

가는 사람도 보내는 사람도, 의술도 모두 가벼움으로 돌아가자.

뺏가루를 들여다보면 다 알 수 있다.

이 가벼움으로 삶의 무거움을 버티어낼 수 있다.

결국은 가볍다.

## **언택트 넘어 '온택트' 시대로... 이노션, '바 이러스 분석 트렌드' 빅데이터 보고서 발 표 - Brand Brief - 브랜드브리프**

언택트(Untact)에 '연결'을 접목한 온택트(Ontact)로의 패러다임 전환 제시

# 온(On : 연결)택트 시대 도래

이제는 거스를 수 없는  
진정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시대 가속화

거리두기



2020 INNOCEAN TREND REPORT

코로나19(COVID-19) 바이러스가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W.H.O(세계보건기구)가 1948년 기구 설립 이후 세번째 팬데믹(Pandemic)을 선언하는 등 바이러스의 공포가 전 인류를 위협하고 있는 가운데 바이러스로 인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화 했는지를 분석한 보고서가 나왔다.

이노션 월드와이드(이하 이노션)는 이런 내용을 담은 '바이러스 트렌드' 빅데이터 분석 보고서를 21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이노션 내 빅데이터 분석 전담 조직인 데이터 커맨드 센터(Data Command Center)가 2019년 4월부터 국내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의 정점을 찍은 올해 3월까지 주요 블로그 및 카페, SNS 등을 통해 생산된 약 200만 건의 관련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다.

DCC에 따르면 2018년 4월부터 2019년 3월까지 바이러스에 대한 온라인 상의 언급량은 37만여 건에 불과했지만 2019년 4월부터 2020년 3월 사이 199만여 건으로 급격하게 증가했다.

개인 예방 차원에서 수요가 많았던 마스크에 대한 언급량이 메르스 때와 비교해 370%(9만여 건 → 42만여 건) 증가했으며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마스크에 대한 검색량 또한 3500여만 건으로 폭증했다.

접촉에 의한 감염 우려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이 확산되면서 언택트(Untact) 관련 온라인 언급량도 6만여건으로 약 3배 증가했으며 국내 확진자 증가로 재택근무(2만7411건), 개학(1만5368건), 연기(3만7684건) 등이 언급되기 시작한 올해 2월 이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언택트는 카페, 편의점 등의 소비자 구매 시스템에 적용되는 수준이었지만 코로나 사태 이후 사회 전반에 다양한 아이디어와 접목되며 새로운 트렌드를 만들어 내고 있다.

'드라이브 스루 선별 검사'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다양한 드라이브 스루 + α 서비스가 등장했으며 온라인을 통한 전시회 및 공연이 늘어나고 있고 집콕 생활에 지친 이들을 위한 유명인들의 다양한 챌린지가 공유되며 일상생활 언택트에 '연결'을 더한 온택트(Ontact) 문화가 확산되고 있다.

재택근무가 늘어나면서 화상 회의를 위한 대표 모바일 앱 전월 대비 상승 증가율이 3000% 이상으로 나타났고 온라인 개학의 영향으로 교육분야에서의 비대면 학습 이용자가 증가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온택트 적용 사례가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노션은 이번 보고서를 통해 사람간의 물리적 거리는 유지하되 개인 일상의 삶을 영위하고 사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위해 언제든지 원할 때 서로를 연결 할 수 있는 '연결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온택트가 보편화되는 뉴노멀 시대에 접어들었다고 강조했다.

이수진 이노션 데이터커맨드팀장은 "앞으로 열릴 온택트 시대에는 모빌리티, 온라인 플랫폼 등을 기반으로 모든 연령층이 디지털의 영역에서 일상생활과 산업활동을 영위하는 진정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펼쳐질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Brand Brief - 브랜드브리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언택트(Untact)'를 뛰어 넘어 이제는 '온택트(Ontact)'시대 : 네이버 포스트

'언택트(Untact)'를 뛰어 넘어 이제는 '온택트(Ontact)'시대

 HTML Content

 HTML Content

코로나19 사태로 '사회적 거리 두기'에 대한 요구가 커지는 가운데, 비대면 소비 방식인 '언택트(Untact)'가 전 세계의 트렌드로 자리잡고 있는데요.

'언택트(Untact)'란 '콘택트(Contact: 접촉하다)'에서 부정적인 의미인 '언(Un)'을 합성한 말로, 기술의 발전을 통해 점원과의 접촉 없이 물건을 구매하는 등의 새로운 소비 경향을 의미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언택트'는 카페, 편의점 등의 소비자 구매 시스템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연극계,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커지자 그들은 비대면으로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온택트(Ontact)'라는 새로운 트렌드를 형성했는데요. 당신의 주변에서 흔히 발견할 수 있는 '온택트'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주변에서 흔히 발견할 수 있는 '온택트' 트렌드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대형시설 이용제한, 문화행사 취소, 일상 모임 자제 등 사회적 거리 두기가 시행되자 기업과 사람과의 '연결'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등장하게 된 새로운 문화 트렌드, '온택트(Ontact)'.

쉽게 말해 온택트는 비대면 소비 마케팅인 '언택트(Untact)'의 '연결(On)'이 더해진 개념으로, 대표적인 예로 '온라인 공연'을 꼽을 수 있는데요.

실제로 정동극장의 경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국립문화예술시설 휴관이 연장되자, '오페라 공연'을 무관중 상태에서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한다고 합니다. 또한 서울 역사박물관은 언제 어디서나 박물관 프로그램을 만날 수 있는 '온라인 교육'을 실시했으며, 문화체육관광부는 온라인 강의를 통해 운동 방법을 소개하는 온라인 운동콘텐츠를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피앤에스는 숫자가 아닌 사람을 남기는 회사입니다.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대면 접촉이 기피되면서 '온택트'를 이용한 다양한 '문화콘텐츠'가 개발되고 있는데요. 집콕 모드로 심심한 당신이라면, 오늘 온라인으로 문화생활을 즐겨보는 것은 어떨까요?

## 에버노트 헤비유저였던 내가 비캔버스를 사랑하게 된 이유

얼마 전에 비캔버스 팀에 합류하기까지의 나의 부끄러운 경험담에 대해 썼었는데, 이번에는 내가 '비캔버스' 팀에서 일하게 된 이유에 대해 써보려 한다.

사실 이유는 매우 간단하다. 내가 쓰기 때문이다. 원래는 에버노트 헤비유저였다가 비캔버스를 쓰게 되었고 마침내 팀원으로 합류하게 된 것이다. 에버노트를 쓰기 시작한 시점은 2011년부터였는데, 디바이스와 상관없이 같은 정보를 스마트폰, 아이패드 동기화해주는 것이 그 당시에는 굉장히 혁신적이었다(나는 그때 아이패드, 아이폰, 데스크탑을 모두 사용하였기 때문에 이 점이 특히 매력적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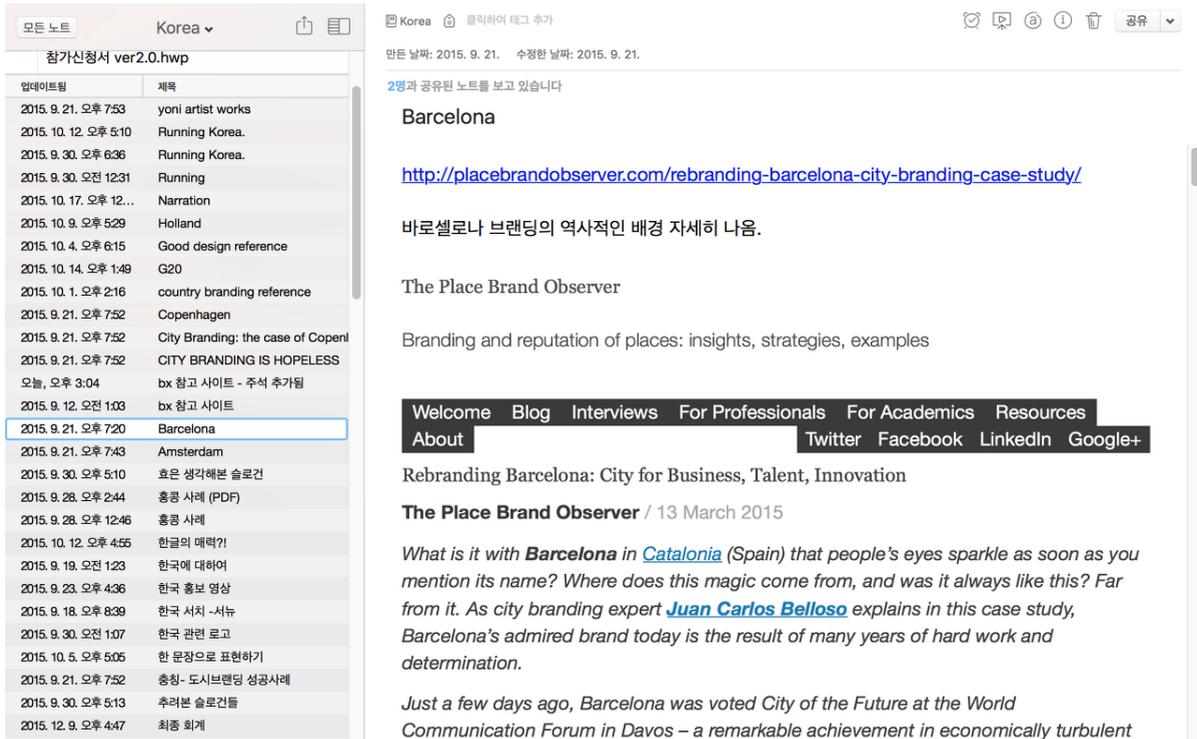
그때부터 쓴 노트수가 500개가 넘을 정도로 에버노트에 충성도가 꽤 높은 고객이었었는데, 지금은 왜 비캔버스를 더 애용하는지에 대해 써보려 한다.

### 나는 에버노트로 어떤 일을 해왔나

먼저 내가 에버노트로 어떤 일을 했는지 살펴보면,  
대학생 때 학기별로 수업자료를 정리할 때  
공모전 팀원들이랑 자료를 공유하고 회의 내용을 작성할 때  
여행 일정을 친구들과 공유할 때  
생각을 정리할 때  
디자인 레퍼런스 & 관련 웹 링크를 모을 때

한번은 대학생때 국가브랜드 영상 공모전을 준비하면서 두 명의 팀원들과 에버노트로 **협업**을 한 적이 있었다. 세 명이 동시에 세계 각국의 브랜딩에 대해 각자가 조사한 자료와 의견을 한데 모아 공유하는데 사용했다. 우리가 모았던 자료들은 보통 기사와 같은 **웹 링크**, **유튜브 동영상**, 작업물에 들어갈 **동영상**, **음악 파일**, **PDF 논문자료**, 각자 준비해온 아이디어 **텍스트**, 레퍼런스 **이미지** 등이 주를 이루었다.

### 에버노트로 공유했던 공모전 자료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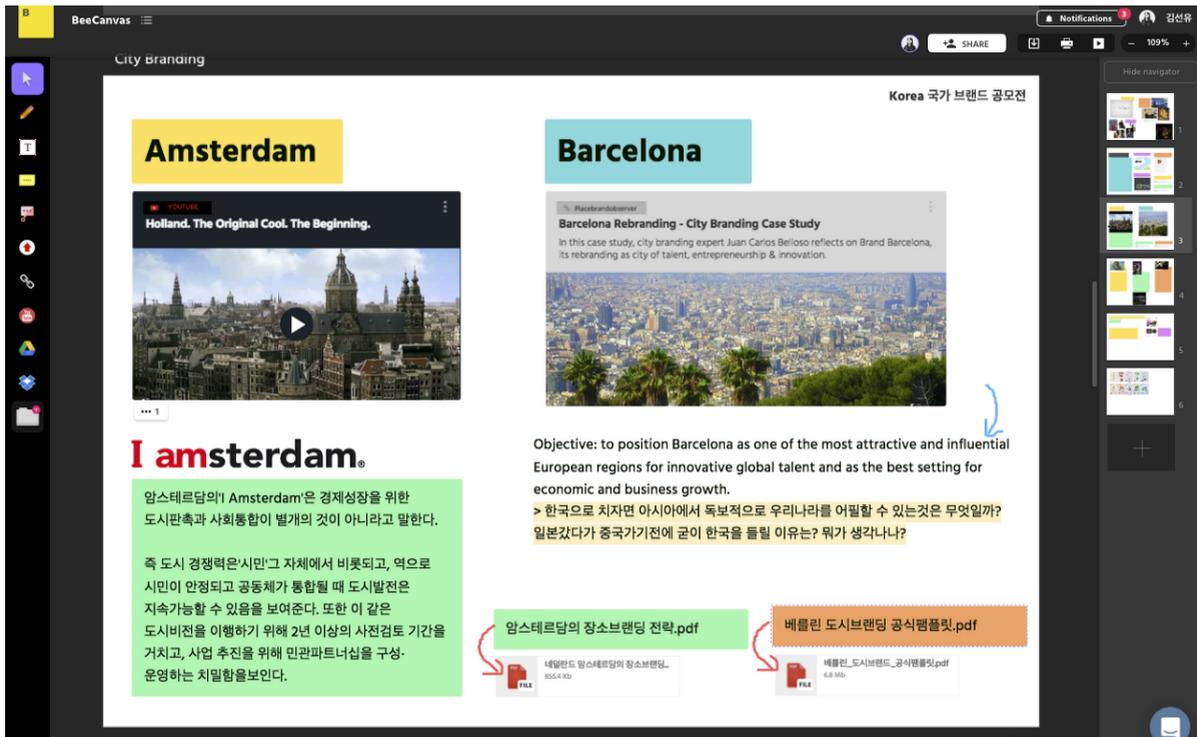


영상 공모전이었는데 음악, 유튜브영상, 웹링크, 논문자료, 회의내용을 수집하고 정리하는데 사용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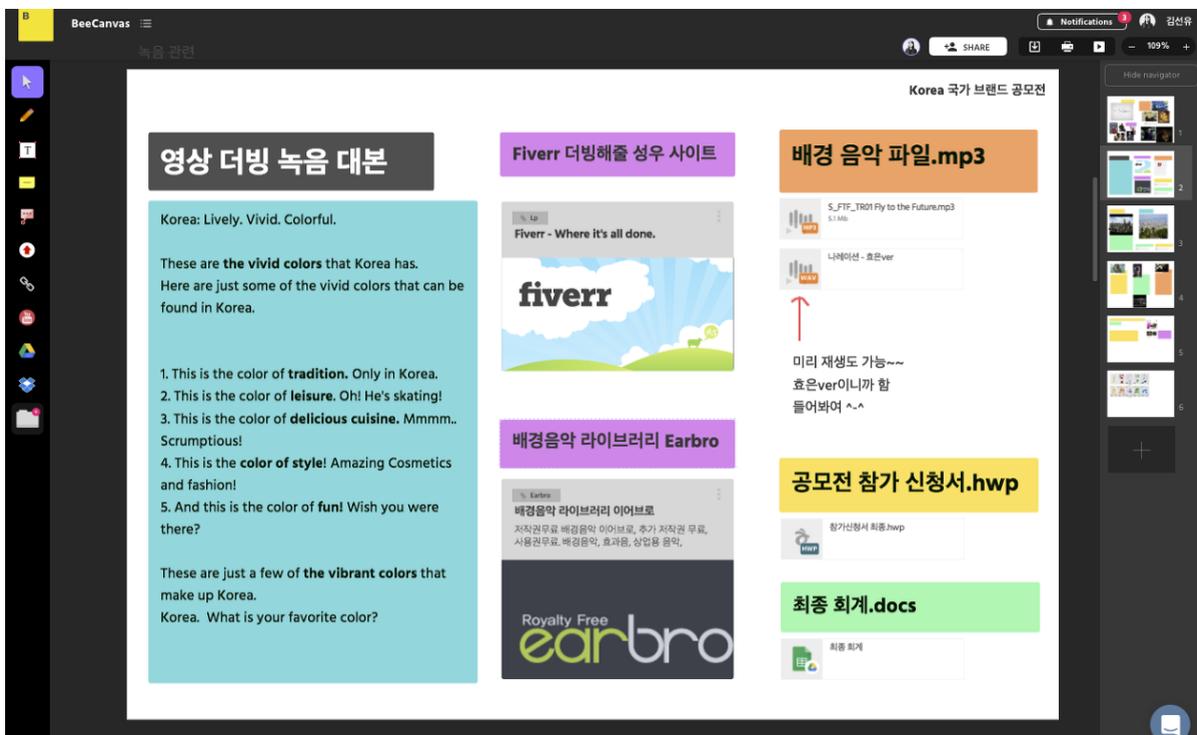
이 공모전을 준비하면서 90개의 노트를 작성했는데, 혼란을 피하기 위해 한 명이 한 주제에 대해 하나의 노트를 만들다 보니 리스트가 자연스럽게 많아지게 되었다. 검색이 잘되니 노트 개수가 많아도 정보를 찾기 위한 수고로움은 없었으나, 여러 매체에서 가져온 정보를 한눈에 쉽게 볼 수 없다는 점이 아쉬웠다. 팀원과 에버노트로 일을 진행할 때 동시에 한 노트에서 작업하기 쉽지 않아 협업을 한다는 느낌도 크지 않았다.

또한 노트 안에 텍스트 위주의 정보를 '나열하는 방식'의 에버노트가 불편했던 순간들이 종종 있었는데, 그러던 와중에 비캔버스를 알게 되었고, 에버노트에서 작업할 때의 불편함이 비캔버스를 쓸 때는 상당히 해소됨을 느낄 수 있었다.

## 위 내용을 비캔버스로 작업해보니



국가 브랜드에 대한 PDF파일, 웹 링크, 유튜브 영상을 캔버스에 모아 한눈에 보기 쉽게 정리할 수 있었음은 물론, 내가 올린 자료에 대해 팀원이 실시간으로 코멘트도 달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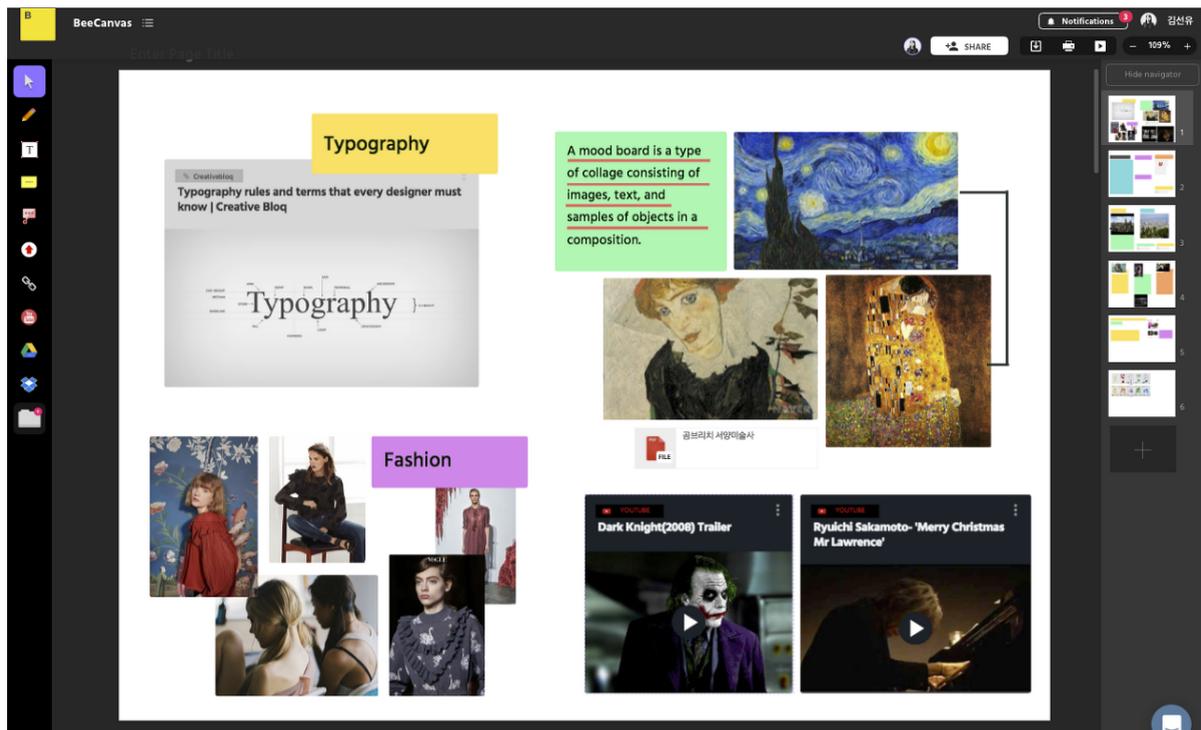


공모전 영상 제작에 필요했던 mp3파일이나 제출양식인 한글 파일도 한데 모아 관리할 수 있었다(이미지, 문서, 음악, 영상 파일 등 모든 포맷을 업로드 할 수 있

어 매우 편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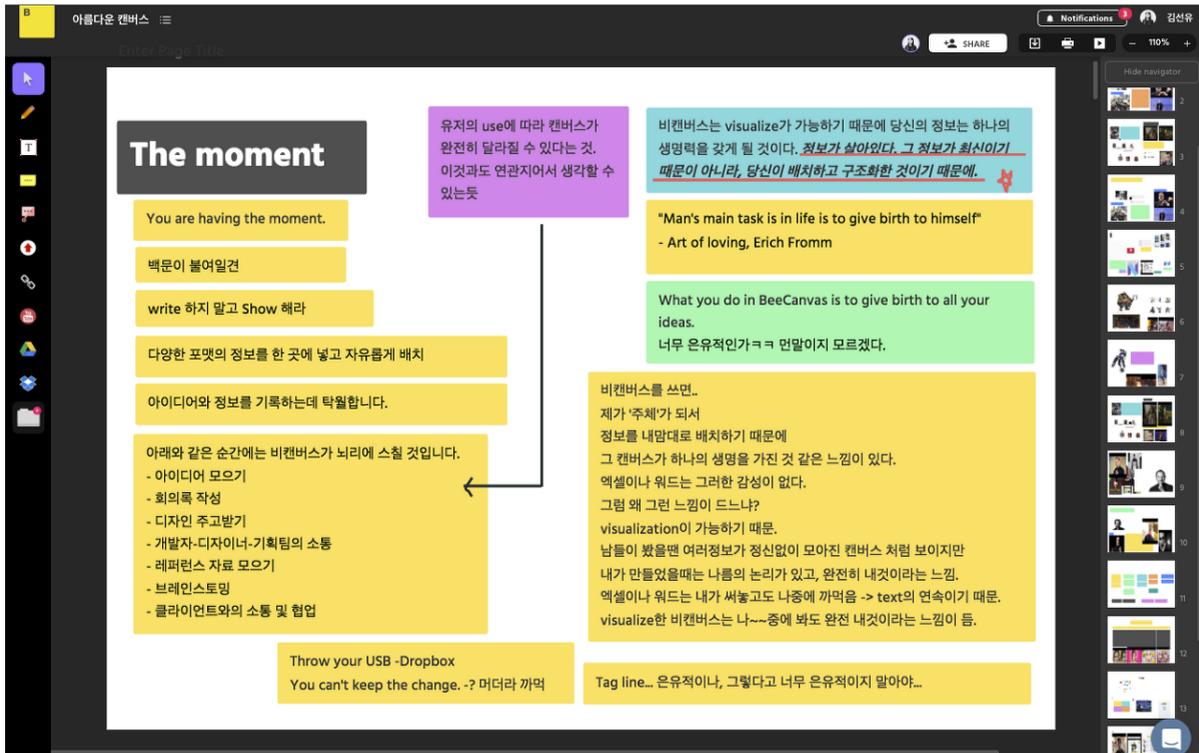
## 아니 도대체 비캔버스는 어떤 도구?

이제 본격적으로 비캔버스가 어떤 서비스인지 한마디로 쉽게 설명을 하자면, 비캔버스는 **화이트보드 기반의 비주얼 작업공간(Visual workspace)**이다. 사용법이 파워포인트와 비슷하기 때문에 따로 공부를하지 않고도 매우 쉽게 활용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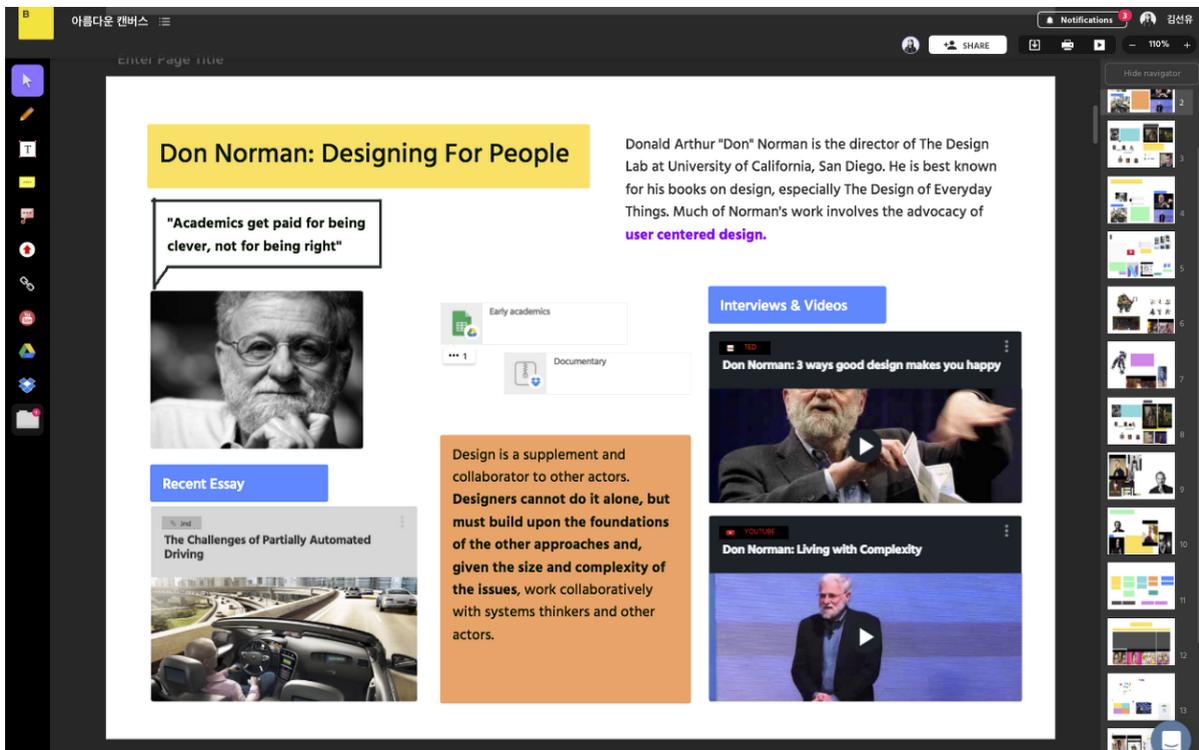


비캔버스를 이용하면 글, 파일, 링크, 이미지 등 다양한 곳에 흩어져 있던 정보를 한 '캔버스'안에 모두 모아 내가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배치하고 구성할 수 있다. 이외에도 내가 자주 사용하는 것은 '그리기 도구'다. '그리기 도구'를 활용하면 글과 글, 글과 링크, 글과 사진, 사진과 영상... 사이의 **관계**를 자유자재로 그릴 수 있다. 뭔가 일러스트레이터처럼 깔끔하게 떨어지는 맛은 없지만, 러프하게 관계를 나타내는데는 매우 효과적이다.

아래 사진은 내가 만든 또다른 캔버스다.



비캔버스가 필요한 순간에 대해 브레인스토밍 해본 캔버스. 그리기도구와 포스트잇으로 구성.



디자인의 거장으로 불리는 도널드 노먼에 대해 조사한 캔버스. 도널드 노먼에 대한 자료를 웹 링크, 유튜브 영상, 드롭박스, 구글드라이브등 다양한 곳에서 모아 기록하였다.

에버노트는 공간의 제약 없이 텍스트 위주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나중에 다시 활용할 때 유용한 도구임에 틀림없다. 특히 장문의 글을 쓰는 유저들은 위에서 아래로 계속 해서 글을 써 내려가야 하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에버노트는 매우 강력한 도구이다.

하지만 나는 디자이너라 장문의 글을 쓰는 경우가 많지 않다. 또한 나는 보통 책을 읽고 난 후의 생각들을 위에서 아래로 쪽 써 내려가기보다, 일단 내 머릿속에서 꺼내 캔버스에 자유롭게 배치하면서 생각의 흐름을 자유롭게 하고 싶은데 이러한 순간에는 에버노트가 불편하게 느껴진다.

아이디어나 떠오르거나 영감을 받을 때, 그 원천이 글귀일 때도 있고, 사진일 때도 있고, 영상일 때도 있고, 웹 링크의 기사일 때도 있고, 음악일 때도 있고, 논문자료일 때도 있고... 내가 보고 느끼는 것은 다양한 매체와 오감의 영향을 받는다. 그리고 그것을 그대로 가져와 나만의 스타일로 기록하고 싶을 때가 있는데, 이러한 순간에는 비캔버스는 정말 편리하다.

다시 정리하자면, 내게 **비캔버스여야만 하는 이유**는

1. '**시각화**'가 가능해 글과 글, 글과 링크, 사진 사이의 '**관계**'를 **자유자재**로 만들 수 있다.
2. 하나의 주제에 대해 여러 매체에서 가져온 정보를 내가 직접 배치하고 구성하고, 그것을 **한눈에** 볼 수 있다.
3. 파워포인트나 키노트를 쓸 때처럼 **생각을 과도하게 정제하고 단순화시킬 필요 없이**, 다양한 자료를 한 곳에 모아 그것을 내 마음대로 표현하고 사람들에게 이해시키기만 하면 된다.
4. **캔버스를 팀원들끼리 함께 채워나가는 즐거움**이 있다. 캔버스를 누가 수정할 시 알람이 오기 때문에 일의 진행 상황도 금세 파악 가능하다.
5. 내가 정성스레 만든 캔버스를 '슬라이드쇼 기능'을 이용해 **회의자료로 사용할 수** 있어, 내가 일한 내용에 대해 또다시 파워포인트나, 키노트로 만들 필요가 없다.
6. **링크 한 줄이면 다른 사람에게 공유 가능**하고, 링크를 받는 사람도 가입이나 다른 절차 없이 인터넷만 켜면 내가 만든 캔버스를 볼 수 있어 내 아이디어를 쉽게 전달할 수 있다.

끝으로 번쩍이는 아이디어에 대한 나의 소견을 말하자면...

사실 우리의 사고는 그렇게 정돈되고, 논리적이지도 않다. 발산적이고, 여기저기 흩어져있다. 정리가 잘 된다는 생각 때문에 워드, 에버노트, 메모장과 같은 툴에 맞춰서 사고를 하는 것은 아닐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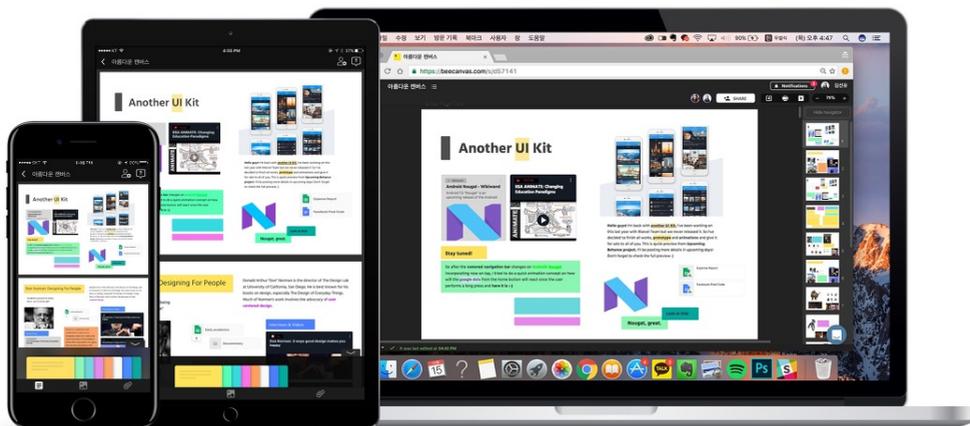
비캔버스로 여러 매체에서 가져온 정보와 아이디어들을 자유롭게 배치해놓으면, 그러한 아이디어가 생각지도 못한 순간에 '연결'되고 '관계'가 만들어져 번쩍이는 아이디어로 꽃피게 되는 경험을 할 수 있다.

새로운 도구를 배우는 데 어려움과 고통이 따르기 마련이지만 비캔버스는 그걸 상쇄할 정도로 강력한 도구이기에 이 글을 읽고 계신 독자분들도 꼭 한번 써보시길 추천한다.

"We know your ideas are more than just words."

- BeeCanvas

이미 전 세계 3만 명의 사용자들이 비캔버스로 놀라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아이폰, 아이패드 앱은 <https://appsto.re/kr/Ffw04.i> 에서 웹은 [www.beecanvas.com](http://www.beecanvas.com) 에서 만나보세요 :-)



# 연예인협동조합 출범

엔터테이너들의 복지와 안녕을 위한 협동조합이 출범했다.

연예인협동조합이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더 리버사이드 호텔 콘서트홀에서 '비전선포식'을 개최했다. 조합은 엔터테이너들을 위한 '토털 솔루션'을 제공하는 플랫폼으로서 생활안정 자금지원·컨설팅 분야 등 다방면에서 문화예술인들을 지원할 예정이다.

김철 이사장을 필두로 한 '연예인협동조합'은 뛰어난 기량을 보유했지만 기회와 지원을 받지 못한 많은 엔터테이너들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을 목표로 창립됐다.

이날 비전 선포식에서는 김범주 아나운서와 백현주 교수가 사회를 맡았으며, 개그맨 윤형빈과 가수 채리나가 홍보대사 위촉식이 진행됐다. 여기에 기타리스트 박창곤, 방송인 멜로디, 퍼포먼스팀 페인터즈 히어로, 가수 리아 등 다양한 분야의 아티스트들이 축하공연을 펼치며 볼거리를 제공했다.

배우 설수진과 권한진 원장도 연예인협동조합 자문위원으로 위촉됐다. 권한진 더마스터클리닉 원장은 (주)울트라브이의 대표이사, 국제미용항노화학회 글로벌회장, 대한줄기세포치료학회 부회장, 대한항노화학회 이사직을 역임하고 있다. 배우 설수진은 1996년 미스코리아 선(善)으로 데뷔해 연기자로 활동했으며, 현재는 화상전문재단인 (재)베스티안재단의 대표를 역임하고 있다.

배우 설수진과 권한진 원장은 조합의 사업에 대한 방향 제시와 지원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하는 등 폭넓은 자문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 연예인협동조합 관계자들이 케이크 커팅식을 하고 있다. © 이대웅 기자

이날 연예인협동조합 김철 이사장은 "문화예술인의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진출을 위해 6가지 분야에서 다양한 지원을 준비중에 있다"며 "▲생활안정자금지원 서비스와 주거지원을 포함한 복지분야, ▲매니저와 헤어 메이크업 및 차량을 제공하는 활동진출 지원분야, ▲방송, 미디어 진출을 돕는 일자리창출 지원분야, ▲연기 보컬, 댄스 전문교육을 위한 교육 지원분야, ▲음원발매 및 홍보, 드라마.영화제작을 지원하는 제작홍보 마케팅분야, ▲기획사 계약, 법률자문, 기업 협찬 및 광고 컨설팅을 위한 컨설팅분야 등 다방면에서 문화예술인들의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이 준비되어 있다. 조합원이라면 제약 없이 이러한 혜택들을 받아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동진 부이사장은 "연예인협동조합은 방송인뿐만 아니라 다양한 직군의 문화예술인들에게도 문을 열고 있다"면서 "조합원자격이 있는 직군은 배우, 뮤지션, 예능인을 비롯해 전문MC, 무대중심의 퍼포머, 온라인 중심의 스트리머, 작가와 제작자까지 포함된다"고 덧붙였다.

문화저널21 이대웅 기자

## 영적전투 성경구절10가지

영국 크리스천투데이는 최근 '치열한 영적 싸움에서 붙들어야 할 성경구절 10가지'를 다음과 같이 소개했다.

1.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에베소서 6장 10~12절)
2.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고린도후서 10장 4절)
3.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로마서 8장 38~39절)
4.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골로새서 1장 16절)
5.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골로새서 2장 15절)
6.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앎이라(베드로전서 5장 8~9절)
7.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데살로니가후서 3장 3절)
8.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누가복음 10장 19절)
9.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야보고서 4장 7절)
10.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요한일서 4장 2~4절)

# 왜 비캔버스를 사용해야 합니까?

 HTML Content

## 왜 비캔버스를 사용해야 합니까?

다양한 정보를 한 공간에 넣고 큰 그림을 그리는 것의 강점

 HTML Content

by [홍용남](#) Aug 21, 2016

 HTML Conte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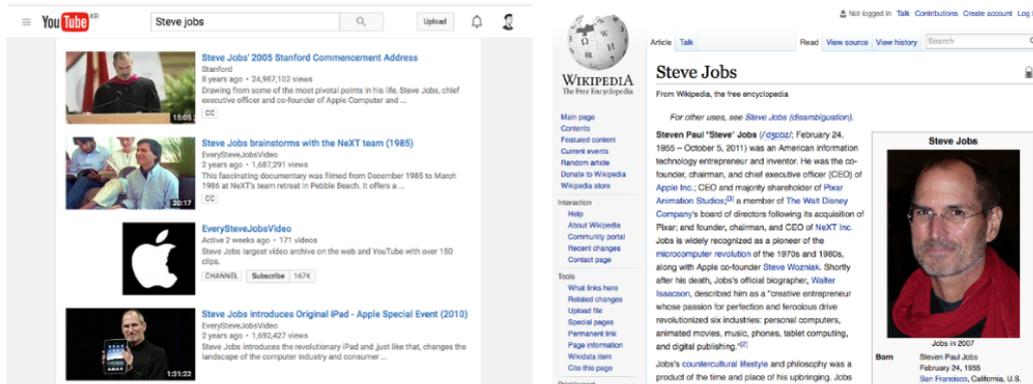
이 글은 조만간 오픈하게 될 비캔버스 블로그&포럼에 실리게 될 첫 아티클입니다. 비캔버스 공식 블로그를 이번에 오픈하여 많은 분들이 비캔버스의 기본적인 활용법은 물론,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비캔버스를 활용하여 놀라운 성과를 내고 있는지 등을 공유할 예정입니다. 이번 첫 아티클에 대해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플레이어 컨트롤러를 표시하려면 키보드 또는 마우스를 클릭해주세요. 재생시간 : 00분32초00:32

[비캔버스](#)는 화이트보드 기반의 비주얼 협업도구입니다. 비캔버스와 함께라면 파일, 링크, 이미지 등 다양한 곳에 흩어져있던 정보와 아이디어를 한 공간에 모으고 팀원들과 공유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스티브 잡스'에 대한 리서치를 진행하고 그에 따른 기업 방향, 전략을 도출한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혼자, 또는 팀원들과 함께 이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선 링크, 파일, 유튜브 영상 등 광범위한 조사가 필요하며 그에 따라 다양한 툴을 활용하게 됩니다.

## 뉴스 사이트, 위키피디아, 유튜브, 문서파일 등



The image shows two screenshots side-by-side. The left screenshot is a YouTube search results page for 'Steve jobs'. It lists several videos, including 'Steve Jobs' 2005 Stanford Commencement Address' (24,987,102 views), 'Steve Jobs brainstorms with the NeXT team (1985)' (1,683,291 views), 'EverySteveJobsVideo' (171 videos), and 'Steve Jobs introduces Original iPad - Apple Special Event (2010)' (1,692,427 views). The right screenshot is the Wikipedia article for 'Steve Jobs'. It includes a portrait of Steve Jobs, a 'Born' section with the date 'February 24, 1955' in 'San Francisco, California, U.S.', and a main text block starting with 'Steven Paul "Steve" Jobs (pronounced: /ˈdʒɒbz/; February 24, 1955 – October 5, 2011) was an American information technology entrepreneur and inventor. He was the co-founder, chairman, and chief executive officer (CEO) of Apple Inc.; CEO and majority shareholder of Pixar Animation Studios; a member of The Walt Disney Company's board of directors following its acquisition of Pixar; and founder, chairman, and CEO of NeXT Inc. Jobs is widely recognized as a pioneer of the microcomputer revolution of the 1970s and 1980s, along with Apple co-founder Steve Wozniak. Shortly after his death, Jobs's official biographer, Walter Isaacson, described him as a "creative entrepreneur whose passion for perfection and ferocious drive revolutionized six industries: personal computers, animated movies, music, phones, tablet computing, and digital publishing."<sup>[c]</sup> Jobs's countercultural lifestyle and philosophy was a product of the time and place of his upbringing. Jobs

이렇게 여러 가지 틀을 활용하는 것의 문제점은 하나의 주제에 대한 내용을 중앙화하여 한눈에 볼 수 없기 때문에 큰 그림을 보기 힘들다는 점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튜브에서 Steve jobs를 검색하여 리서치를 할 경우 영상 속에 드러난 스티브 잡스에 대한 내용에만 집중하게 되기 때문에 뉴스 사이트에서 텍스트로 쓰인 스티브 잡스의 인터뷰 등과 같은 다른 매체에서 드러나는 그의 생각은 놓칠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이렇게 여러 곳에서 모은 정보들을 메신저로 팀원들에게 공유하게 되면, 메신저 특성상 휘발성이 강하기 때문에 관리하기가 매우 어렵고, 검색에만 의존하여 정보를 찾아야만 하는 부작용도 있습니다.

하지만, 비컨버스를 이용하면 이 문제를 말끔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Steve Jobs  
1955-2011



"언젠가 죽을 거라 생각하면 상실에 대한 두려움을 피할 수 있습니다."

- Steve Job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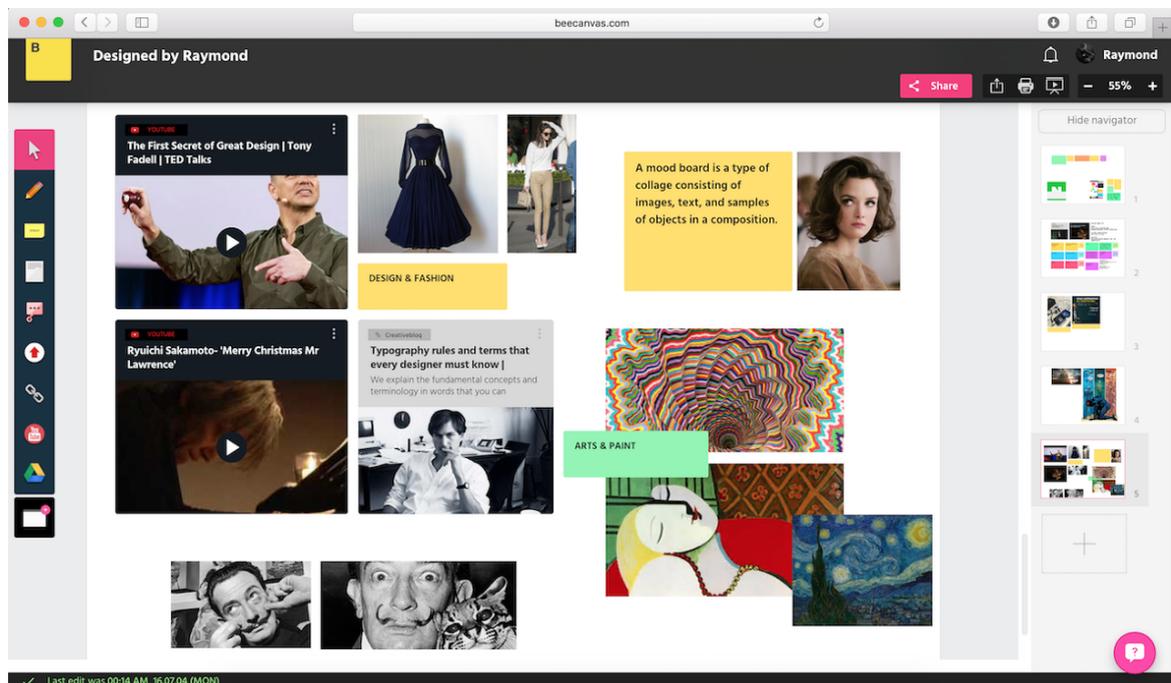
**비캔버스**를 활용한다면, 스티브 잡스의 유튜브 영상, 링크, 위키피디아, 명언, 문서 파일 등 다양한 포맷을 정보를 이렇게 한 공간에 모아볼 수 있습니다. 마치 파워포인트처럼 자유롭고 쉽게 활용이 가능하면서도, 다양한 포맷의 정보를 쉽게 넣을 수 있다는 점. 이렇게 만든 캔버스를 팀원들이나 소셜미디어에 손쉽게 공유할 수 있다는 점 덕분에 이미 전 세계 3만 명 이상의 사용자들이 비캔버스를 활용하여 놀라운 일들을 처리해내고 있습니다.

비캔버스는 '인쇄 기능'과 '슬라이드쇼' 기능을 지원하기 때문에 이렇게 만든 캔버스를 회의자료로 활용할 때도 매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제 파워포인트나 키노트가 아니라 비캔버스로 발표자료를 만들어 회의자료에 활용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파워포인트나 키노트는 자신이 설명해야 할 자료를 너무 과도하게 단순화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물론, 단순화를 잘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이는 큰 시간의 소비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또한, 자유롭게 토론을 통해 정제될 수 있는 생각과 아이디어도 완전히 정제된 형태로 단순화해야 한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생겨 아이디어를 발산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비캔버스**를 활용하면, 생각을 과도하게 정제하고 단순화할 필요가 없습니다. 무언가 아이디어, 생각을 표현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이라면 이미지, 파일, 링크, 유튜브

브, 구글 드라이브 속 파일, 드롭박스 등 다양한 자료를 동원하여 그것을 표현하고 사람들을 이해시키기만 하면 됩니다.



비캔버스를 통해 더욱 창의적이고 효과적으로 생각을 정리하고 다른 사람들과 협업하세요. 새로운 도구를 배우는 데는 늘 고통이 따르기 마련이지만 비캔버스라는 도구를 통해 얻게 되는 가치는 그것을 상쇄할 정도로 강력할 것입니다. 피아노를 처음 배울 때도, 가위질을 처음 익힐 때도, 칼질을 처음 접할 때도 수많은 고통과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는 그것을 결국 해냈습니다. 인류는 그러한 고통의 과정을 이겨내고 아름다운 음악을 연주하고, 과일을 예쁘게 썰고, 가위를 통해 머리를 깔끔하게 정리를 하는 세상을 맞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비캔버스라는 도구를 조금이라도 더 쉽게 시작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많은 정보와 팁들을 공유하겠습니다. 지금 <https://beecanvas.com> 을 눌러 비캔버스를 시작해보세요!

keyword

[블로그](#)

[비캔버스](#)

[파워포인트](#)

## 왜 언택트(untact)인가? : 네이버 블로그

언택트는 접촉하다는 뜻의 콘택트(contact)에 언(un)이 붙어 '접촉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사람과의 접촉을 최소화해 정보를 전하는 비대면 소통 방식을 말합니다. 2~3년 전부터로 생각되는데요. 맥도날드에서 햄버거를 주문하려고 하니 종업원이 키오스크를 가리키더군요. 순간 좀 당황했지만 한편으로는 편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https://m.blog.naver.com/sorak123/221911247551#>

생각하고 보니까 영화관 티켓, 버스 매표나 열차 매표, 은행 창구 등 직접 대면 없이 일을 볼 수 있는 곳이 많기도 하고 점점 늘어나고 있더군요. 별로 생각해보지 않았는데 이미 우리 생활 깊숙이 자리 잡는 언택트(untact) 문화, 즉 비대면, 무인화 바람에 대해 한 번 정리해봅니다.



<https://m.blog.naver.com/sorak123/221911247551#>

왜 언택트(untact)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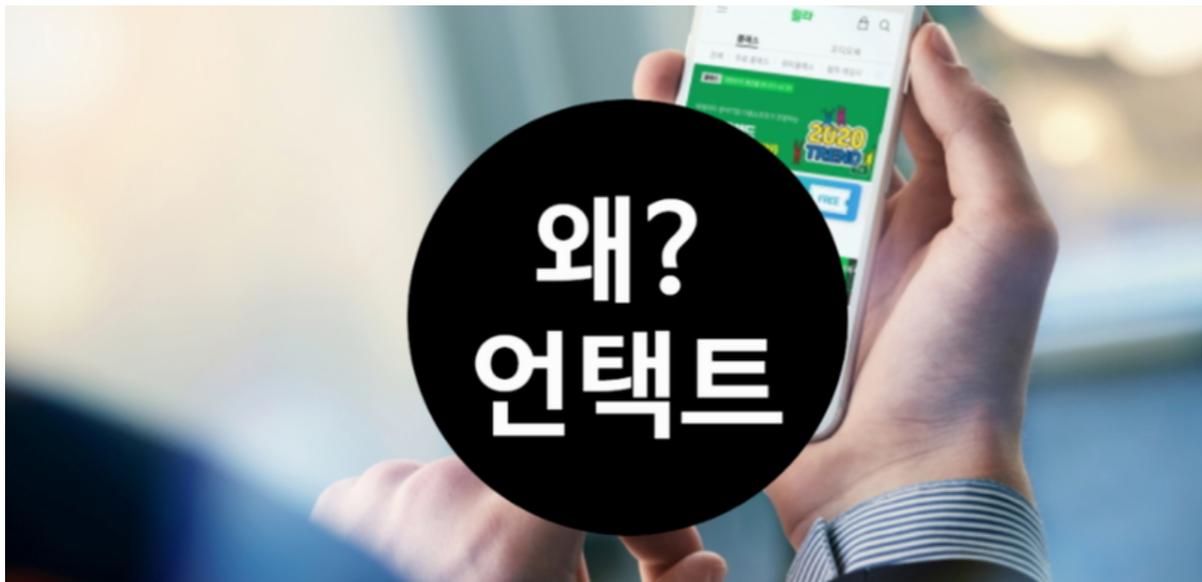
우선 이런 변화의 바람이 불어오는 배경은 무엇일까요?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면 어떤 원인과 조건이 부합되어서 확산되고 있을 텐데요. 그 부분에 대해 여러 전문가들의 진단을 찾아보고 확산의 배경과 문제점을 점검해 보았습니다.



<https://m.blog.naver.com/sorak123/221911247551#>

### 1. 인구, 세대구조의 변화

우선 언택트 문화는 밀레니얼 세대(1980년대 초반~2000년대 초반 출생)와 관련이 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근거는 지난 2년간 무인 편의점, 로봇 바리스타, 무인 스타디 카페 등 카드사의 매출 분석을 하니까 비대면 소비가 기성세대와 비교해서 5배가 급증하였다는 것인데요.



<https://m.blog.naver.com/sorak123/221911247551#>

4~50대만 해도 사람의 얼굴을 보고 주문하고 물어보기도 하고 이런 생활이 익숙하고 편합니다. 그런데 20~30대는 다른데요. 간섭받는 걸 싫어하고 그래서 타인과의 접촉을 꺼립니다. 이런 문화는 스마트폰의 대중화로 디지털 상에서의 커뮤니케이션에 더 익숙하기 때문이라는 건데요.

실제로 1인 가구 많아지고 인구, 세대 구조가 변화하면서 밀레미얼세대는 직접 대면을 통한 상호작용보다 디지털 상에서의 커뮤니케이션에 더 익숙해져있습니다. 스마트폰이나 디스플레이 화면으로 소비하는 습관이 고착화되고 메신저나 문자로 소통하는데 익숙해져서 얼굴을 맞대고 소통하는 걸 부담스럽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전화 통화까지도 기피한다고 하지요.

## 2. 기술의 진화

언택트(Untact) 문화의 확산 배경에는 4차 산업혁명이라고 표현하는 기술의 발전이 있습니다. 스마트폰이 세상에 나온 10년 동안 인류의 생활이 극적으로 바뀌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새로운 기술들은 사람들의 생활방식에 영향을 줍니다.

사람 간의 접촉을 최소화하면서도 불편함 없이 생활이 가능하게 하는 데는 지난 몇 년간 개발된 새로운 기술들이 든든한 배경이 된 것이지요. 이젠 조금씩 익숙해져 있는 인공지능(AI), 5G, 사물인터넷(IoT)과 VR, 정보통신 같은 기술들이 떠오를 텐데요. 이런 기술들이 키오스크(무인 안내 단말기), 챗봇, 드론 배송 등 다양한 형태로 응용되고 우리 생활 주변의 가전이나 스마트폰과 연결되면서 언택트(Untact)를 실현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https://m.blog.naver.com/sorak123/221911247551#>

과거에는 공공기관과 관련된 업무를 보려면 일일이 서류를 떼러 가야 하고 방문해서 제출해야 하였지만 지금은 비대면으로 이루어지거나 인터넷으로 모든 업무를 볼 수 있는 시스템을 거의 모든 기관에서 오픈하고 있는 걸 보는데요. 기술의 진화로 인한 사회 전분야의 변화는 곧 언택트가 실생활에 깊숙하게 진입하는 배경이 된 것입니다.



<https://m.blog.naver.com/sorak123/221911247551#>

### 3. 기업의 원가절감 니즈

언택트 언택트(Untact) 문화의 확산 배경에는 기업들의 원가절감 니즈가 크게 원인으로 작용합니다. 이미 해외 유통 업체인 알리바바(Alibaba)의 무인 편의점 '타오 카페'나 계산대와 직원이 없는 아마존(Amazon)의 무인 매장 '아마존 고'에서 실험되었듯이 고용인력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은 기업의 입장에서는 매력적일 수밖에 없지요.



<https://m.blog.naver.com/sorak123/221911247551#>

최저임금이나 근로시간 단축 등 고용비용을 부담스러워하는 기업들은 새로운 대안으로서 언택트 마케팅을 고려하거나 실행하고 있는데요. 유통업계는 매장 직원 대신 키오스크를 설치하거나 아예 사람이 없는 무인점포를 여는 등 다양한 방식의 언택트 마케팅을 펼치고 있습니다.

키오스크 한 대면 알바생 몇 명을 줄일 수 있다는 광고를 본 적이 있는데요. 실제로 GS25는 BC카드, 스마트로와 손잡고 점원도, 계산대도 없는 'GS25 올지스마트점'을 열었습니다. 스마트폰 QR코드로 입장한 후 상품을 들고 나오면 자동 결제되는 방식이죠.



<https://m.blog.naver.com/sorak123/221911247551#>

신한은행의 AI 챗봇 '솔메이트 오로라'는 고객 개인 성향과 특성을 반영해 응답한다고 하는데요. 은행에 직접 가지 않고 모바일을 통해 상품에 대한 설명과 상담을 받을 수 있고 그래픽을 활용한 수준 높은 디지털 상담을 제공 중이라고 합니다. 역시 전문인력을 배치하지 않고도 실효성 있는 마케팅을 하는 것이죠.

소개한 업체들 외에도 여러 업체들이 언택트 마케팅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 외에도 코로나19와 같은 사태에 대비한 비대면 업무 형태(재택근무)를 개발하여 실용화하려는 기업들의 준비 등 언택트를 기반으로 한 비즈니스가 수년 내에 산업 여러 분야에서 눈에 띄게 확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 4. 언택트 문화의 한계 - 인간관계

편리함과 비대면을 특징으로 하는 언택트는 결국 사람보다 기계와 가까워지는 문화이고 생활방식입니다. 사람의 자리에 기계가 자리하고 감정 없이 필요에만 초점을 맞춰 대응하는 것이죠. 기계적 대응은 사람에 비해 처리시간도 짧고 감정적 소모가 거의 없다는 긍정적인 면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https://m.blog.naver.com/sorak123/221911247551#>

그러나 기계를 통한 소비나 업무가 일상화되면 소통의 감소나 단절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을 배제할 수 없겠죠? 서울대 광금주 교수의 요즘 젊은 사람들에 대한 진단처럼 '자신이 원하는 접촉만을 하고 싶어하고 원하지 않거나 불필요한 사람들과의 접촉은 피하려고 하는 성향'이 더 커질 수 있는 우려가 있는 거죠.

"나이 든 사람의 경우에는 기계보다 사람을 좋아하지만 젊은 세대는 인사를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등과 같이 모든 것에 신경 쓰여 한다." "사람과의 관계 기술이 부족한 것"이라는 광교수의 진단은 언택트 문화가 가져올 사회적 부작용에 대한 문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게 합니다.



<https://m.blog.naver.com/sorak123/221911247551#>

언택트 문화가 한때 지나가는 유행 정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스마트폰처럼 지속적인 생활방식이 된다면 인간관계의 방식도 바뀌게 될 할 수도 있을 것 같이 보입니

다. 이렇게 사람의 관계보다 기계와의 관계에 더 익숙한 사회가 되면 세상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또 한 가지 우려는 첨단 기술을 바탕으로 한 언택트 시스템은 그걸 실현할 수 있는 기술력과 자본력이 있는 기업이나 사람들에게 유리하다는 점인데요. 따라서 대부분의 소상공인들은 그런 시스템을 갖추 수 있는 경제적 기술적 능력이 되지 않기 때문에 언택트 문화에 편승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https://m.blog.naver.com/sorak123/221911247551#>

어디까지 어느 정도로 영향을 미칠지는 아직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결국은 이런 트렌드를 따라가 경쟁하려면 소상공인들에게는 언택트 문화는 또 다른 부담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또한 언택트 기술이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맘대로 햄버거를 주문해서 먹을 수 없는 것처럼 불편함과 더불어 소외되는 문제도 생기겠죠.

이제 언택트 문화는 이제 20대 만이 아니라 40대까지로 확산되고 있다는 분석이 있는데요. 거부할 수 없는 흐름으로 다가오는 언택트 문화가 문제를 최소화시키면서 우리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면 좋겠습니다.



<https://m.blog.naver.com/sorak123/221911247551#>

오늘은 코로나19 이후 '언택트(비대면)' 트렌드가 뚜렷한 사회 흐름으로 자리 잡는 현상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날 되세요~

#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초등학교 다닐때는 큰 걱정없이 공부도 곧잘했어요.

크게 신경쓰지 않아도 성적이 상위권이었고, 학습태도도 좋았지요.

그런데 중학생이 되더니 조금씩 성적이 떨어지시 시작했어요.

또래 아이들처럼 학원에 보내도 성적은 제자리고, 공부에 흥미를 잃어가며

급기야는 공부가 싫다고, 학원에 가기가 싫다고 하더라구요.

머리가 좋은 아이어서 조금만 하면 잘할텐데 참 안타깝고 막막할 때 씽크와이즈를 알게됐어요.

아이 아빠가 회사에서 일할때 사용하는데, 공부에도 상당한 효과가 있다며 아이에게 시켜보자고요.

처음엔 학원에 안보내도 괜찮을까, 씽크와이즈로 될까..하는 불안감도 컸지만

한편으로 학원에 앉아 멍하니 선생님 얘기를 듣다가 집에와서는 간신히 숙제만 하는 그 패턴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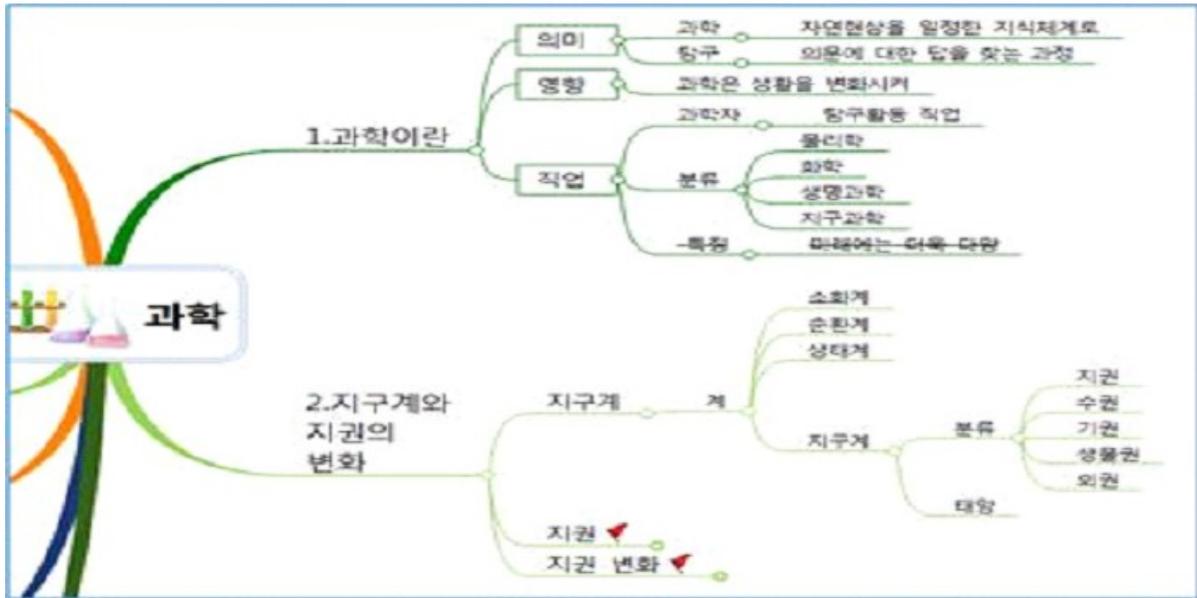
아이에게 얼마나 도움이 될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지요.

그래서 아이에게 조금씩 씽크와이즈를 알려주기 시작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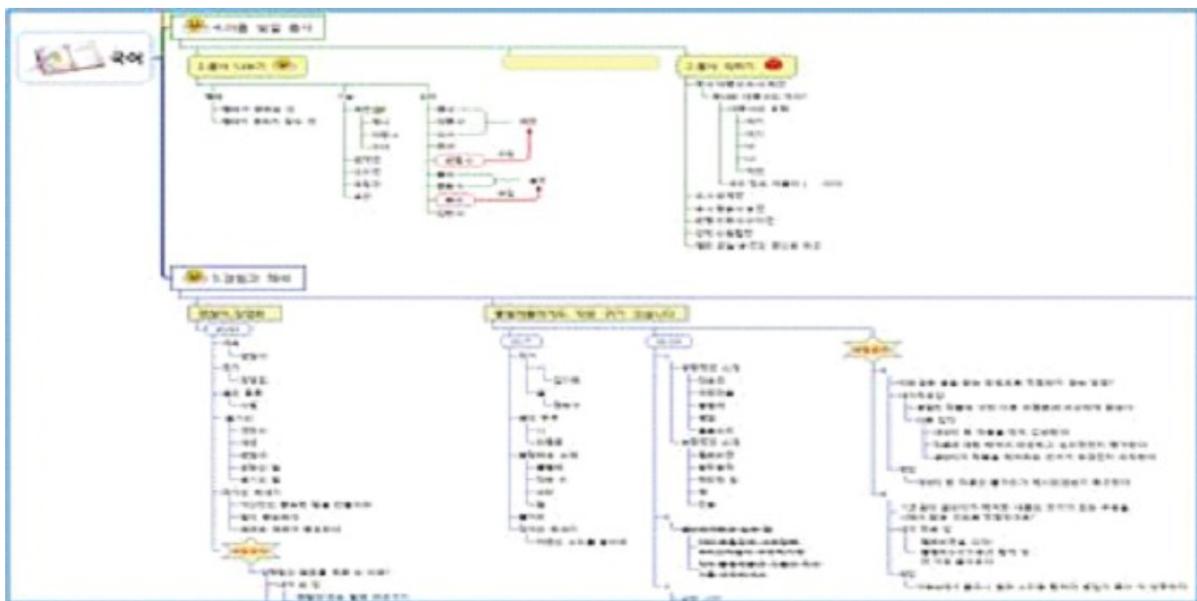
컴퓨터에 프로그램을 깔아서 주고, 씽크와이즈 교육에도 함께 데려갔지요.

처음에는 좋아하는 축구 관련해서 맵을 그려보게도 했고, 흥미위주로 마인드맵을 그리게 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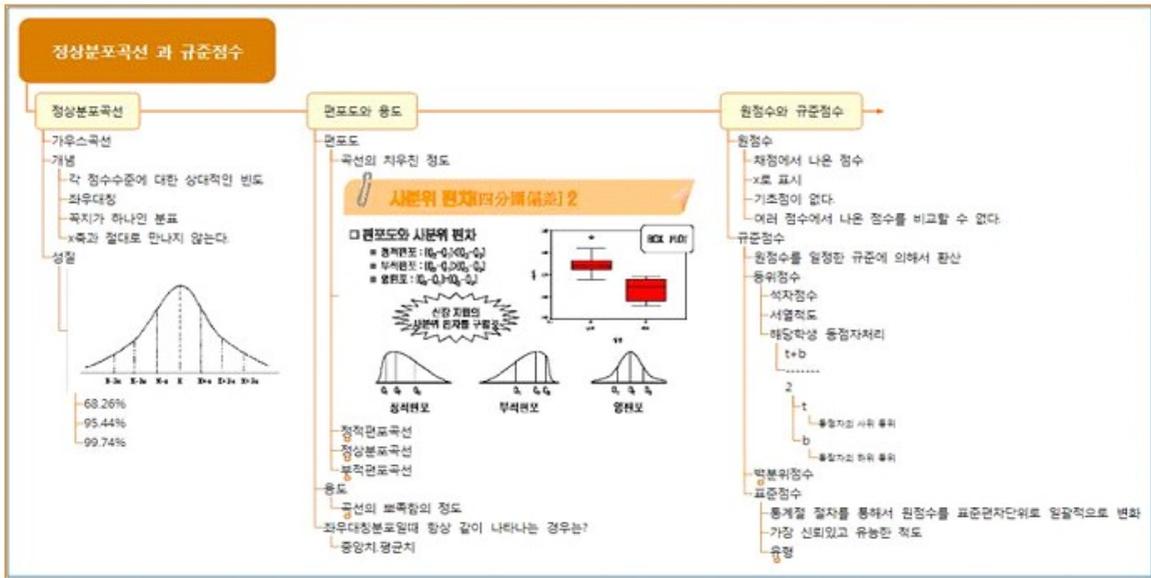
수행평가 과제를 해야할때도 씽크와이즈를 쓰게했어요.



의외로 기능숙지도 빠르고, 타이핑도 빠르다보니 보통때보다 절반가까이 시간도 줄고, 아이도 재미있어 하는것이 신기하더라구요. 확실히 우리때와는 세대가 다르다는게 느껴지네요. 지금 아이는 씩크와이즈를 아주 잘 다루고 공부에도 활용합니다. 학원 다니는 친구들에게 자신이 만든 마인드맵을 자랑하기도 하구요. 눈으로만 보고 직접 손으로 쓰는것보다 컴퓨터로 마인드맵을 만들면서 하는 공부가 더 쉬운것같다고 하니 이것이 스스로 하는 자기주도학습인것 같습니다.



중학교 3학년이 된 지금은, 예전에 비해 몰라보게 조리있게 말하고, 뭔가 체계가 잡혀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자기주도학습이구나..를 절실히 느낍니다. 불과 1년전 만해도 컴퓨터는 게임을 위한 도구이고, 가능하면 멀리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이 많았고, 어찌보면 요즘 시대와도 맞지않는 생각에 사로잡혀있었지요.



최근에는 씹크와이즈로 공부만 하는게 아니고 학습계획을 세우고 관리하는 청소년 교육에 한번 데리고 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도 씹크와이즈를 부지런히 연습해야겠다 생각이 듭니다

태그

# 인생 프로그램을 만나다 - 워크플로워 : 네 이버 블로그

🌐 Web Clip

기타

## 인생 프로그램을 만나다 - 워크플로워



린대디  
2019. 8. 1. 12:00

이웃추가

인생 프로그램을 만나다 - 워크플로워

# WorkFlowy

Organize your brain.



여러분은 메모나 아이디어 기록용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사용하시나요?

에버노트를 처음 알게 되고 사용하면서  
신세계를 경험했던 때가 생각납니다.  
에버노트에 열광했던 이유는

- 클라우드 저장으로 기기 장소 구애받지 않고 저장
- 노트북/태그 등 활용하여 자료 분류, 검색 가능
- 링크공유, 협업 기능 지원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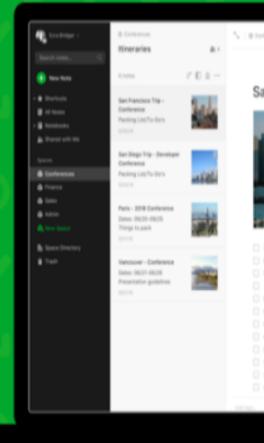


Gmail용 Evernote를 소개합니다

## 노트를 손쉽게 정리하세요

어디서나 노트를 작성하세요. 더 빠르게 정보를  
찾으세요. 사람들과 아이디어를 공유하세요.

Evernote를 노트 필기 앱으로 사용하여 회의 노트, 웹  
페이지, 프로젝트, 할 일 목록을 작성하면 빈틈 없는  
정보 관리가 가능해집니다.



이제는 대중화가 된 에버노트

하지만, 과거만큼 센세이션한 느낌은  
좀 덜해진 것 같습니다. (저만 그런가요? ㅎㅎ)

그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보니

- 자료, 사진, 개인 글 등을 저장하다 보면 정리가 안됨
- 생각보다 프로그램이 좀 무거운 느낌?
- 아이디어나 생각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기는 좀 어렵다.

그러다가,

뒤늦게 두 달 전에 알게 된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그 이름은 바로

## 워크플로워

Workflow

이 프로그램을 한마디로 설명하면,

**"머릿속의 얽힌 생각과 아이디어들을 손쉽게 기록/정리/저장하고 재구성하고 확장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

요렇게 정의해보고 싶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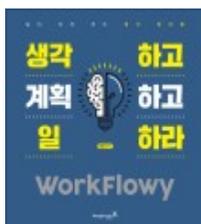
요새 뜨는 노션보다는 훨씬 심플하고 사용하기가 편리하답니다.

몇 년 전 일찍이 에버노트 전도사로 활동하시고  
관련 서적도 여러 권 쓰신

**1인 기업가 홍순성 씨**가 워크플로워를

이미 사용 후 전파하고 계셨더라고요.

관련 저서도 나와있습니다.



### 생각하고 계획하고 일하라 WorkFlowy

저자 홍순성

출판 영진닷컴

발매 2018.11.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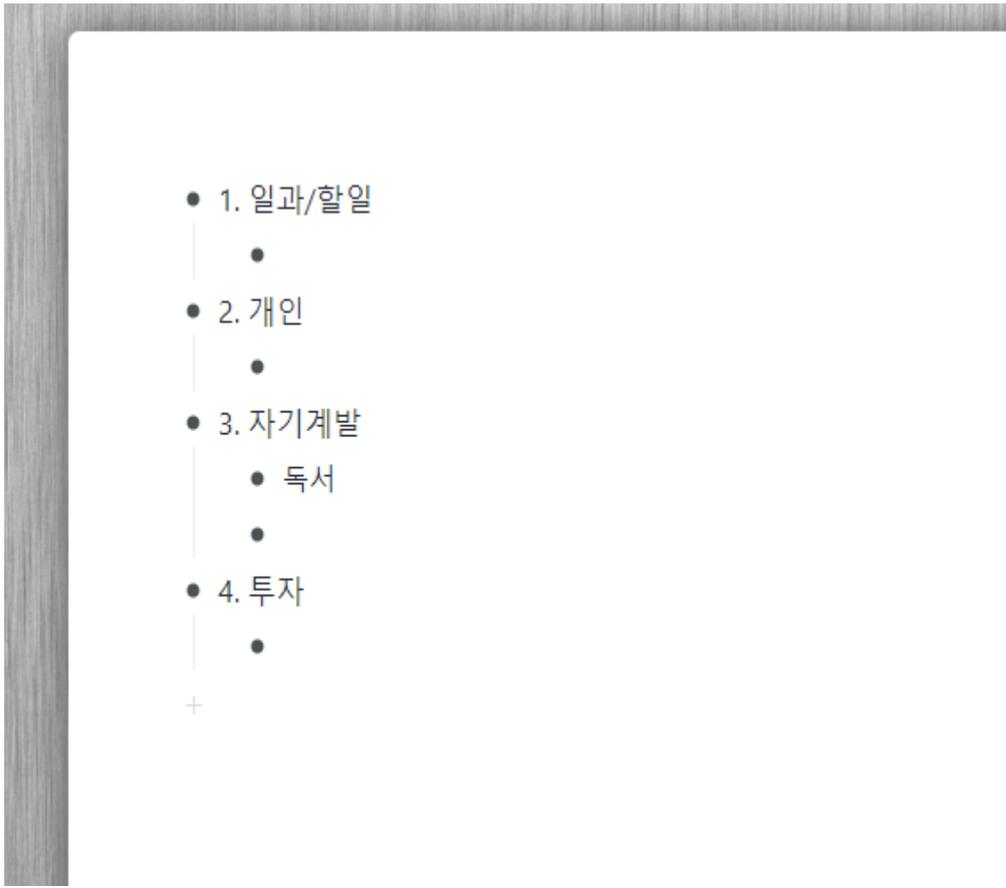
그러면,  
워크플로위가 불과 사용 두 달 만에  
저에게 인생 프로그램이 되었는지 소개해볼게요

우선 워크플로우는

**텍스트로 심플하게 구성되어,  
구조화와 재구성이 매우 쉽고 빠르다**

도화지 같은 화면에  
텍스트로 쪽 써 내려가기만 하면 됩니다.

예를 들면,  
아래와 같이 큰 카테고리를 적고



리스트 식으로 적어내려가되,  
탭을 누르면 하위 레벨로 간편하게 바뀝니다.  
(Shift 탭을 누르면 상위로 이동)

- 1. 일과/할일
  - #0801
    - 할일
      - 공과금 내기
      - 000 연락
      - 자동차 수리  
예약 0000, 연락처 0000...
      -
    - 일과
      - 0800~0900 미팅
      - 0900~1200 회의
      - 
      -

이미 처리한 일은 완료 처리도 가능하고,

- ... ▼ ● 1. 일과/할일
  - #0801
    - 할일
      - 공과금 내기
      - 000 연락
      - 자동차 수리  
예약 0000, 연락처 0000...
    - 일과
      - 0800~0900 미팅
      - 0900~1200 회의
        - 회의록
      - 1300~1700 ○ ○ ○ 방문

앞에 동그라미를 클릭하면



다시 하위 레벨로 이동되어  
아래와 같이 쪽 기록이 가능해집니다.

## 회의록

- 주제 : 0000
- 참석자 : 000000
- 시간 :-00000
- 
- #김김김 : ○ ○ □ □ L ○ ○ L □ L ○ 20 L
- #이이이 : □ L ○ □ L ○ ○ L □ 2 L ○ □ 2
- #김김김 : ○ ○ □ □ L ○ ○ L □ L ○ 20 L
- #이이이 : □ L ○ □ L ○ ○ L □ 2 L ○ □ 2
- #김김김 : ○ ○ □ □ L ○ ○ L □ L ○ 20 L
- #이이이 : □ L ○ □ L ○ ○ L □ 2 L ○ □ 2
- #김김김 : ○ ○ □ □ L ○ ○ L □ L ○ 20 L
- #이이이 : □ L ○ □ L ○ ○ L □ 2 L ○ □ 2
- #김김김 : ○ ○ □ □ L ○ ○ L □ L ○ 20 L
- #이이이 : □ L ○ □ L ○ ○ L □ 2 L ○ □ 2
- #김김김 : ○ ○ □ □ L ○ ○ L □ L ○ 20 L
- #이이이 : □ L ○ □ L ○ ○ L □ 2 L ○ □ 2
- 
- 나의 생각
  - 너무너무 별로다
  - ○ ○ ○ 해야겠다
  - 과제
    - ○ ○ ○ ○ ○ 하기 #todo

+

회의 중 나온 내용 중에  
해야 할 일이 생기면

아래와 같이 동그라미(불릿)를 클릭 후  
나의 할 일 목록으로 간편하게 드래그 앤 드롭



아래와 같이 할 일 목록 밑에 하위 항목으로  
들어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 #0801

- 할일

- 공과금 내기
- 000-연락
- 자동차 수리  
예약 0000 연락처 0000...
- 000내용 정리 후 배포하기 #todo

- 일과

- 0800~0900 미팅
- 0900~1200 회의
  - 회의록
    - 주제 : 0000
    - 참석자 : 000000
    - 시간 : -00000
    - 
    - #김김김 : 0 0 0 0 L 0 0 L 0 L 0 2 0 L
    - #이이이 : 0 L 0 0 L 0 0 L 0 2 L 0 0 2
    - #김김김 : 0 0 0 0 L 0 0 L 0 L 0 2 0 L
    - #이이이 : 0 L 0 0 L 0 0 L 0 2 L 0 0 2
    - #김김김 : 0 0 0 0 L 0 0 L 0 L 0 2 0 L
    - #이이이 : 0 L 0 0 L 0 0 L 0 2 L 0 0 2
    - 
    - 나의 생각
      - 너무너무 별로다
      - 0 0 0 해야겠다

또 직접 드래그 앤 드롭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을 추가해서 태그를 등록해놓으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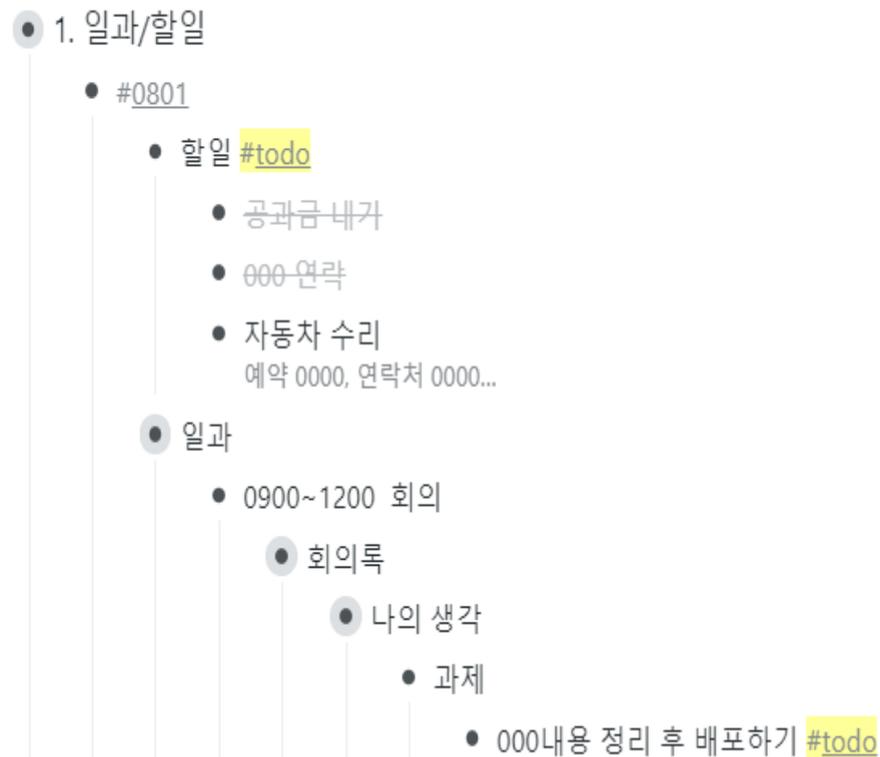
어느 위치에 있든지 한 번에 불러올 수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할 일 목록에 #todo 태그가 걸려있고  
회의록 작성 중 나온 과제에 #todo 태그를 추가해  
놓았습니다.

- 1. 일과/할일
  - #0801
    - 할일 #todo
      - 송과금 내기
      - 000 연락
      - 자동차 수리  
예약 0000, 연락처 0000...
    - 일과
      - 0800~0900 미팅
      - 0900~1200 회의
        - 회의록
          - 주제 : 0000
          - 참석자 : 000000
          - 시간 : -00000
          - 
          - #김김김 : 0 0 0 0 L 0 0 L 0 L 0 2 0 L
          - #이이이 : 0 L 0 0 L 0 0 L 0 2 L 0 0 2
          - #김김김 : 0 0 0 0 L 0 0 L 0 L 0 2 0 L
          - #이이이 : 0 L 0 0 L 0 0 L 0 2 L 0 0 2
          - #김김김 : 0 0 0 0 L 0 0 L 0 L 0 2 0 L
          - #이이이 : 0 L 0 0 L 0 0 L 0 2 L 0 0 2
          - 
          - 나의 생각
            - 너무너무 별로다
            - 0 0 0 해야겠다
            - 과제
              - 000내용 정리 후 배포하기 #todo

위 상태에서 #todo 태그를 클릭해보면  
아래와 같이 모든 곳에 있는 #todo 리스트가  
한 번에 보이네요. 드래그 앤 드롭으로 이동이 가능  
합니다.

## 샘플



여기서 나타나는 워크플로위의 최대 강점은

- 무한대로 하위 레벨 리스트 확장 가능  
(자신의 생각을 마인드맵처럼 무한히 확장 및  
구조화할 수 있다!)

- 드래그 앤 드롭을 통해 리스트를 자유 자재로 이동하여 흩어진 아이디어들을 재구성할 수 있다.  
(워크플로위의 최대 장점이라 생각함^^)
- '#이나 @'을 추가하면 태그 지정 가능  
예) #todo, #중요, #아이디어, #일기 등의 태그를 지정하면 어느 위치에 있든지, 관련 리스트를 한 번에 불러올 수 있다.

이 부분이 바로 에버노트나 다른 메모 앱과 차별화된 부분입니다.

## 몇 가지 사용 예시를 더 써봅니다

(모범 예시는 아닙니다 그냥 참고용 ㅎㅎ)

### [독서노트 작성]

- (1) 인터넷상에 해당 책 도서 목차를 카피 후 붙여넣기

## 생각하고 계획하고 일하라 #독서

- 
- Chapter 01 '생각', '정리', '도구'
- 
- Chapter 02 생각 정리 - 효과적으로 아이디어 작성하기
- 
- Chapter 03 하루 계획 - 체계적인 할 일 목록 만들기
- 
- Chapter 04 실행하기 - 실패하지 않게 일하기
- 
- Chapter 05 실전 - '제대로' 일하는 법

(2) 구조화된 목차 밑에

책을 읽으면서 느낀 자신의 생각 등을 기록한다.

## 생각하고 계획하고 일하라 #독서

- 생각하기 - 계획하기 - 일하기
- 작은 성공을 만들기 위해서는 일을 성공할 수 있도록, 실패하지 않게 작게 만들어서 실행하도록 한다.
- 
- "워크플로워와의 인연은 최고의 행운이었다." - 나도 그렇게 될 것 같은 예감이 든다.
- 

### ● Chapter 01 '생각', '정리', '도구'

- 시간과 돈을 부르는 '생각', '정리' 그리고 '도구'
  - 생각 정리의 가치는 무엇인가
  - 생각 정리는 삶을 변화시킨다
- 제대로 된 생각 정리는 일하는 법을 개선한다
  - 생각을 '제대로' 정리하는 방법
  - 생각 정리 프로세스
- 생각 정리가 주는 변화
  - 생각 정리가 주는 3가지 효과
  - 생각 정리가 주는 어려움 극복 방법
- 생각 정리 습관을 들이는 5가지 실행 원칙
  - 생각 정리 습관을 기르는 실행 원칙
- 생각 정리에는 어떤 도구들이 있을까?
  - 나에게 꼭 맞는 생각 정리 도구는?
  - 마인드맵과 워크플로워의 차이점은?

### ● Chapter 02 생각 정리 - 효과적으로 아이디어 작성하기

- 아이디어 유용하게 작성하기
  - 아이디어를 효율적으로 만드는 프로세스
  - 아이디어가 떠오른 그 순간, 기록하라
- . 아이디어가 커지는 공간 발견하기

(3) 중요한 내용, 혹은 나의 일에 연관된 내용은  
태그를 추가 #아이디어, #중요 등

**추후 해당 태그를 클릭해서**

**나의 계획, 아이디어 등에 카피하여 활용 가능**

## [부동산 입장 정리]

- (1) 사전 손품시 뽑았던 주요 지역 및 아파트를 리스트업 한다.



(2) 입장 중, 혹은 입장 후

리스트 내 아파트 관련 정보 메모

리스트에 없으면 추가, 혹은 안 갔으면 삭제



※ 관련 사진, 자료 등은 구글포토나 에버노트 저장

(에버노트는 주로 자료 저장용으로 이용)

사실 글로 워크플로워의 좋은 점을  
설명하기가 상당히 어렵네요. 직접 써봐야  
그 진가를 확인할 수 있을 듯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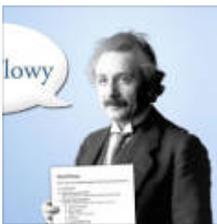
워크플로워는  
데스크탑 버전, 웹 버전, 모바일 앱 모두 있고요.  
무료로 다운 가능합니다.



### A simpler way to organize your work - Work...

If you have a crazy job or an ambitious project, we will...

[www.workflowy.com](http://www.workflowy.com)



### WorkFlowy - Notes, Lists, Outlines - Google ...

WorkFlowy is the world's best tool for taking notes a...





스마트폰과 PC버전을 함께 동기화 사용하면 It's the easiest, best-designed, and most-flexibl...  
막강해지겠죠? [play.google.com](https://play.google.com)

관련 사용법을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아래 사이트 참고하시면 좋고요.

# WorkFlowy

Organize your brain.



**워크플로워(Workflowy) 쓰면 쓸수록 놀랍다**

생각정리와 프로젝트 관리 도구로 최적이다 | 자료수집이나 문서작성을 매...

이것을 어떻게 풀어갈지 생각 정리하는 도구가 필요하다. 이때 떠오르는 것...

드맵 도구다. 하지만 사용해보면 관리해야 하는 불편함이 따른다. 많은 작업...

결성이 떨어진다. 필요한 자료를 한 곳에 수집하고 관리하는 것은 에버노트...

[brunch.co.kr](http://brunch.co.kr)



**WorkFlowy,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출장 때문에 지금 살고 있는 성남에서 창원에 종종 내려갈 일이 있었다. 수...

[brunch.co.kr](http://brunch.co.kr)

동영상 사용법 설명도 있습니다.

[https://youtu.be/\\_jgVaegWpnl](https://youtu.be/_jgVaegWpnl)

<https://youtu.be/O6DLoXcYegg>

혼자만 알고 싶은(?), 하지만 혼자만 쓰긴 너무 아  
까운 프로그램,  
머릿속에 복잡한 생각을 여기에 쏟아내고 계층화,  
재구성화하는 과정을 맛보고 싶으시다면 꼭 한번  
사용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 일 잘하는 사람의 세가지 특징

어느덧 삼성 반도체에 입사한지 18년이 지났다. 18년, 길다 하면 긴 세월이다. 18년 동안 많은 변화를 겪으며 메모리 분야 세계1위라는 위상을 세운 회사 속에서 분주히 살아왔다. 반도체 회사는 일이 달리 Dynamic한 것이 그 특징 중의 하나가 아닌가 싶다.

제품의 Life Cycle이 짧아서 잠시 숨돌릴 틈도 없이 새로운 Issue들이 탄생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모두가 바쁘다. 다른 메모리 회사들도 마찬가지로일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세계1위를 차지할 수 있었을까? 더구나 미국, 일본 등의 선진회사를 앞지르고... 평소에 필자는 이러한 궁금증을 많이 가지고 일을 해 왔다.

물론 여기서 세계1위가 된 이유를 쓰려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궁금증을 갖고 생활하는 중에 발견한 일부분을 말하려는 것이다. 그 것이 바로 '일 잘하는 사람이 보이는 3대 특징'이다.

이 특징은 일을 잘한다는 사람이면 누구나 공통적으로 보이는 공통분모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바꿔 말하면 이 특징 중 한가지라도 결여되어 있으면 일을 잘 할 수 없다는 뜻이 된다. 즉, 3대 특징의 세가지를 갖추고 있으면서 순서도 지켜져야 일을 잘 할 수 있는 것이다.

그 첫째가 '전체를 조망하는 것'이다.

**일 잘하는 사람은 어떤 일을 할 때 반드시 가장 먼저 그 일의 전체를 장악하는 것부터 시작한다.**

그 일의 전체가 어떻게 생겼는가를 확실히 파악하기 전에는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않는다.

선부른 부분적 시도가 전체 마이너스의 결과를 초래한다거나 최선의 효과를 내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기가 쉽기 때문이다. '숲을 보고 나무에 손을 대라'는 것이 바로 이러한 것을 말해 주는 것이다.

전체가 장악이 되었으면 그 다음엔 '속보정리를 잘 하는 것'이 된다.

**해당되는 일의 제반 구성 요소들을 위치의 섞갈림 없이 정연하게 정돈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종파와 계층이 뒤바뀐이 없어야 한다. 즉, 향렬이 틀림없이 정돈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일 잘하는 사람은 이러한 일의 구성 요소들의 인과관계가 명쾌하게 정돈된 뒤에야 비로소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 우리가 어떤 문제의 원인을 분석 할 때 인과관계가 뒤 엉키게 모든 인자를 나열해 놓으면 그 문제가 풀기가 어렵게 되는 것에서도 이 두 번째 특징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가 있다. 이러한 족보정리가 정연하게 되어야만 가장 중요한 인자를 끄집어 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고는 올바른 우선순위 매김을 할 수가 없다.

앞의 두 과정이 바로 올바른 의사결정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Critical Path가 되는 대상이나 경로가 결정이 되면 그 다음엔 세 번째 특징인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것'**이 필요하게 된다.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고 하듯이 **아무리 좋은 의사결정도 실행에 옮겨지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일 잘하는 사람은 이 실행에 옮기는 것까지 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여기에서도 남다른 용의주도함을 발휘하며 목표한 바를 끝내 관철시키는 특징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만일에 첫 번째, 두 번째 과정이 잘못되었다면 세 번째 노력은 허사 이상으로 큰 낭비를 초래한다는 것이다. 하지 않느니만 못한 결과를 내기 때문에 앞의 두 과정이 중요한 것이다. 여기서 ThinkWise의 효과성이 입증된다.

**ThinkWise는 Mind Map이라고도 불리우는데, 사람의 생각하는 방법에 착안하여 개발된 소프트웨어이다.**

필자 본인은 평소에 앞에서 거론한 3대 특징을 구현하려고 노력하면서 생활해 오다가 우연찮게 ThinkWise를 접하고는 그 편리성과 효과성에 감탄을 한 바가 있다. 일 잘하는 사람의 3대 특징 중 앞의 2대 특징을 매우 증폭시켜주는 효과를 확인하였기 때문이다.

필자의 경우 가장 좋았던 것은 여럿이 모여서 **Brainstorming을 할 때에 활용한 것**이다. 이러한 일을 할 때에 Beam Projector를 쓴다면 더욱 효과가 좋다. 모두가 동일한 화면을 보면서 아이디어를 내기 때문이다. 일단 앞에서 얘기한 첫 번째 특징인 **전체의 모습을 모두가 다 보면서 만들어 내기가 수월하다.** 전체를 모두가 보면서 이야기 하므로 아이디어의 품질이 좋아지게 된다. 또한 이러한 과정 속에서 다시 전체의 모습이 바람직하게 발전을 한다.

혼자의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들이 일어난다. 제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도 낼 수 없는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Brainstorming을 할 때에 모두를 피곤하게 하는 것은 족보가 섞갈리는 발언이나 아이디어가 튀어 나올 때이다.

그러나 ThinkWise를 사용하면 그대로 입력하면서 아주 간단히 위치를 조정할 수가 있어서 금방금방 정돈이 되어 아무리 무작위의 아이디어를 내어도 족보정리를 잘 할 수가 있다. 따라서 **사람들의 뇌를 피곤하게 하지 않고 오히려 긍정적 상승작용**을 하게 한다.

이는 창의성을 촉진하는데 있어서 실로 엄청난 생산성과 경제성을 안겨주는 것임을 ThinkWise를 써 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것이다. 또한, **개인의 복잡한 생각을 체계적으로 정돈**하는데 이보다 더 좋은 Tool은 없다. 누구든지 천재가 아닌 한 어떤 복잡한 문제를 처음부터 완벽하게 체계를 정립하지 못한다. 지속적으로 부분적으로 고민하며 진척을 해 가면서 나중에 이를 합쳐서 완성된 하나의 체계를 만드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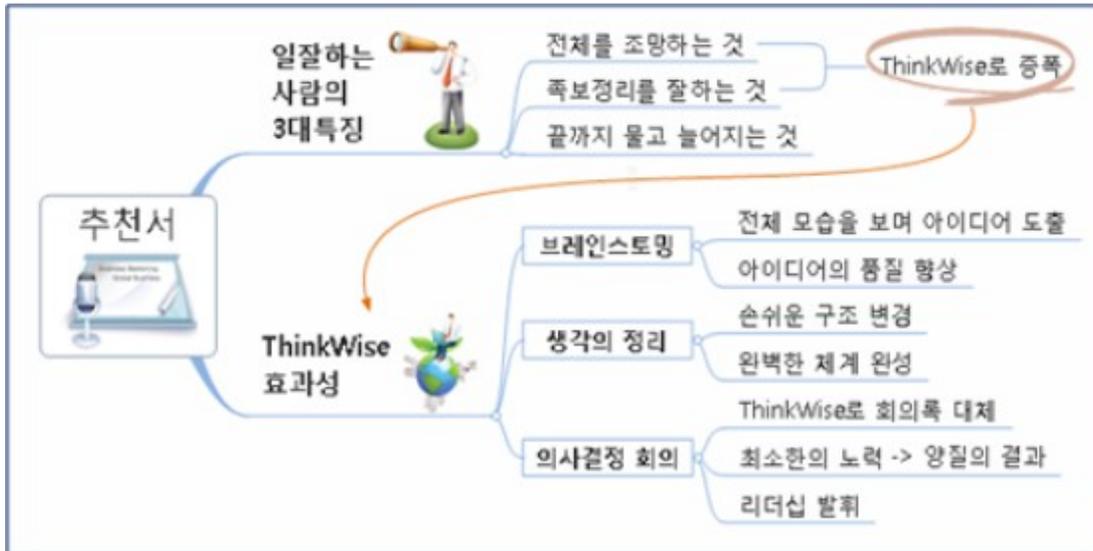
그런데 ThinkWise는 **생각날 때마다 손쉽게 뜯어 고치면서 체계를 발전시켜 갈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 그냥 종이에 글로 쓰면서 한다면 많은 수고를 할 수 밖에 없는 것을 아주 간단히 할 수 있는 것이다. 위에 소개한 것 이외에도 많은 편리한 기능을 가지고 있지만 ThinkWise의 핵심적인 기능은 바로 위에 소개한 이 두 가지라고 생각한다. 이것들만 제대로 이루어져도 실로 커다란 결과를 얻을 수 있으리라고 본다.

우리 부서는 **의사결정 회의나 아이디어도출 회의는 반드시 ThinkWise로 회의록을 대신한다.** 바로 즉석에서 가장 **양질의 결과를 얻어내면서 시간과 노력은 최소화**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각 개인별로 업무를 추진할 때도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반드시 ThinkWise를 이용하도록 하고 있다. 부서장인 나부터 ThinkWise의 진수를 맛 보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한다고 할까?

어쨌든 이를 쓰면서 부정적 태도를 보이거나 반대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ThinkWise를 사용할 때마다 'ThinkWise 없었으면 어쩔뻔했지?'라는 말이 자주 튀어 나오고 있다.

필자의 경험으로 ThinkWise는 확실히 이러한 효과를 내게 하는 소프트웨어이다. 그것이 잘 퍼지지 않는 사회적 인식과 인프라가 필자를 안타깝게 할 따름이다. 이 좋은 것을 왜 안 쓸까? '우리나라에서 만든 것이 별 수 있겠나' 하는 사대주의적 인식 때문일까? 아니면 홍보가 잘 안 되어서일까? 아니면 아직 사회적 인프라가 미약해서 그럴까?

어쨌든 이러한 것이 극복이 되고 ThinkWise가 잘 활용이 된다면 경쟁력은 틀림없이 뒤 따를 것이라고 생각한다. ThinkWise가 우리나라를 빛낼 또 다른 세계1위의 명품이 될 가능성도 있다고 조심스럽게 점쳐보고 싶다



태그

## 임원(이사 및 감사) 자격

🌐 Web Clip

임원(이사 및 감사) 자격

2016-03-21 13:53

작성자 : 이선미

조회 : 4791

첨부파일 : [0개](#)

### 임원(이사 및 감사) 자격

1. 일단 이사는 자연인에 한 하고. 파산자와 금치산자는 이사가 될 수 없음. 파산자가 아니라면 가능. 법인 설립시 대표이사, 이사, 감사의 경우 본인이 국세체납 상태에 있으면 안 되지만 가족이나 부모의 국세체납과 본인의 경우는 전혀 무관함. 전과자 및 카드사나 금융권 같은 일반신용불량자는 대표이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국세체납, 신용불량자는 대표이사뿐 아니라 법인의 일반이사도 할 수가 없습니다. 단, 감사로는 등재할 수 있습니다.

1-1 설립시 추가유의점.

사무실 임대차계약은 법인의 이름으로 하고 아직 법인이 설립되지 않았다고 해도 그 **설립될 법인의 명으로 계약을 해야 함**. 물론 법인의 이름이 확정되지 않거나 동일명의 법인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대표이사 개인, 또는 이사 개인으로 사무실계약을 하는 경우가 있는 데, 이 경우는 그 임대차계약서에 특약을 넣어서 앞으로 설립될 법인이 임차인으로 된다는 문구를 넣으시면 됩니다.

2. 감사의 경우도 이사와 거의 동일. 감사의 경우 특별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업무집행에 있어서 문제가 될 경우 이사와 연대책임을 질 수 있겠지만 단순히 개인의 문제 때문에 회사가 책임을 지지는 않습니다. 단, 감사선임에 있어 **선임결의가 있고** 회사의 대표기관이 **임용계약(위임)의 청약을** 하고 **피선임자가 승낙을 해야 감사**가 된다고 보고 이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 (아래 판례 참조) 이에 대해 선임결의를 청약이라고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이 경우는 결의만으로 이사의 자격을 취득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주식회사와 임용계약을 체결하고 새로이 회사의 감사의 지위에 취임하여 감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권리와 의무를 가지게 된 자로서는, 아직 감사로서 회사등기부에 등재되지 아니한 상태라면 등기에 의하여 선의의 제3자에 대항할 수 없어 완전한 감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므로, 회사에 대하여 회사와의 임용계약에 기하여 회사등기부상 감사변경의 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으나, 감사의 **선임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는** 피선임자를 회사의 기관인 감사로 한다는 **취지의 회사 내부의 결정에 불과한 것이므로**, 주주총회에서 감사선임결의가 있었다고 하여 바로 피선임자가 감사의 지위를 취득하게 되는 것은 아니고, 주주총회의 **선임결의에 따라 회사의 대표기관이 임용계약의 청약을 하고 피선임자가 이에 승낙을 함으로써 비로소 피선임자가 감사의 지위에 취임하여 감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는 것이므로**, 주주총회에서 감사선임의 결의만 있었을 뿐 회사와 임용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는 아직 감사로서의 지위를 취득하였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감사로서의 지위에서 회사와의 임용계약에 기하여 회사에 대하여 감사선임등기가 지연됨을 이유로 감사변경의 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없다.(대법원 1995.2.28. 선고 94다31440 )

# 잘 나가는 대학생의 팀플기법

## 1. 전공공부는 어떻게 하는 거야? <맵으로 전공공부 마스터하기>

바쁜 대학생들은 과제와 시험에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 지 모를 때가 많다. 분량이 방대한 전공공부의 특성상 한번 맥을 놓치면 다시 잡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학점뿐만 아니라 동아리, 대외활동 등 잡아야 할 토끼가 많은 대학생에겐 더더욱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시간관리가 필요하다. 그러나 단순히 일정을 적거나 생각을 메모하는 것만이 아니라 전공 공부, 동아리, 개인활동 자체를 계획하고 진행하는 것을 동시에 도와주는 방법은 없을까?

실제로 대학생의 일상을 채우고 있는 여러 가지 일을 살펴보면 전공공부에서 동아리 활동까지 모두가 목표와 일정을 갖는 프로젝트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단순한 일정관리를 넘어 모든 일의 효율성을 올리기 위해서는 자신의 생각과 시간을 프로젝트 관점에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더욱 중요한 사실은 프로젝트 능력(PQ)이야말로 전공지식과 더불어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글로벌 경쟁력의 핵심요소라는 것이다. ThinkWise Planner를 이용하여 차근차근 진도를 관리하고 과제, 필기 관리까지 꼼꼼히 챙기면서 프로젝트 능력도 키우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살펴보자. 즉, 일정관리는 기본이고 배운 내용을 시각화하여 계속해서 확장시켜 나가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자.

### A. 수강과목 프로젝트 만들기

1. 홈 화면 좌측 프로젝트 칸에서 전공과목에 해당하는 프로젝트를 개설한다. 2. 개설한 프로젝트를 열고 프로젝트 맵에 강의계획서를 업로드 한다. 학사정보 사이트를 열어놓고 강의 별로 강의목표, 강의계획 등을 가지로 추가한다. 3. 매 차시별로 수업 날짜와 수업 목차, 강의시간, 강의실 정보를 맵에 가지로 추가한다.

예를 들어 "공업수학"이라는 과목을 프로젝트로 등록한다고 하자. 프로젝트 맵에 입력한 차시 별 강의 시간에 의해 캘린더의 해당 날짜와 시간에 수업목차가 자동으로 표시되는 것이다. 이제 캘린더에 표시된 일정을 클릭하는 것만으로 "공업수학" 프로젝트 맵이 열려 오늘 어떤 파트를 공부하게 될 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 B. 맵을 이용한 연습과 복습하기

1. 수업 참여 전에 캘린더 화면에서 해당과목의 전체 목차와 내용을 볼 수 있다면 자연스럽게 예습이 가능하다. 강의자료와 함께 미리 강의에 해당하는 맵을 프린트해가거나 노트에 강의 내용을 정리한다

2. 태블릿 PC로 맵을 열어놓고 강의를 들으면서 중요한 내용을 바로 바로 맵에 추가해 필기할 수 있다.

3. 수업이 종료된 후에는 필기한 내용, 공부한 내용을 맵에 요약하여 강의 날짜의 자식 가지로 추가한다.

+) 맵의 장점 가운데 하나는 확장성이 좋다는 것이다. 강의 내용에 대한 필기뿐만 아니라 논문, 신문기사와 같은 참고자료는 하이퍼링크로 연결하면 한눈에 보기 좋게 내용을 확장시킬 수 있다. 수업, 답사 등을 가는 경우에는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어 미디어로 맵에 추가하고 노트에 메모를 남겨 기록할 수 있다.

4. 도서관, 커피숍, 지하철, 등 언제 어디서든지 스마트폰 또는 태블릿PC를 이용해 예습 및 복습을 할 수 있다.

5. 시험을 준비할 땐 잘 요약된 맵을 프린트하거나 다시 그리면서 배운 내용을 구조화시키면 좋다.+) 대학에서 소화해야 할 학습 분량과 깊이는 고등학교와는 차원을 달리한다. 시험만을 위해 공부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당연히 새로운 학습법을 터득해야 한다. 최선의 학습법은 배운 내용을 의미 기반 학습을 통해 자신의 것으로 체계화하는 것이다.

그리고 의미 기반 학습에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시각적 매핑을 활용하는 것이다.

### C. 학사일정 꼼꼼하게 관리하기

1. 과제 또는 시험이 생겼을 때는 해당 과목의 맵에 새로운 가지를 추가하고 제출일 또는 시험일을 일정으로 등록한다.+) 등록된 일정과 내용은 캘린더 화면에서도 확인 가능하여 언제까지 어떤 과제를 내야 하는지를 꼼꼼하게 챙길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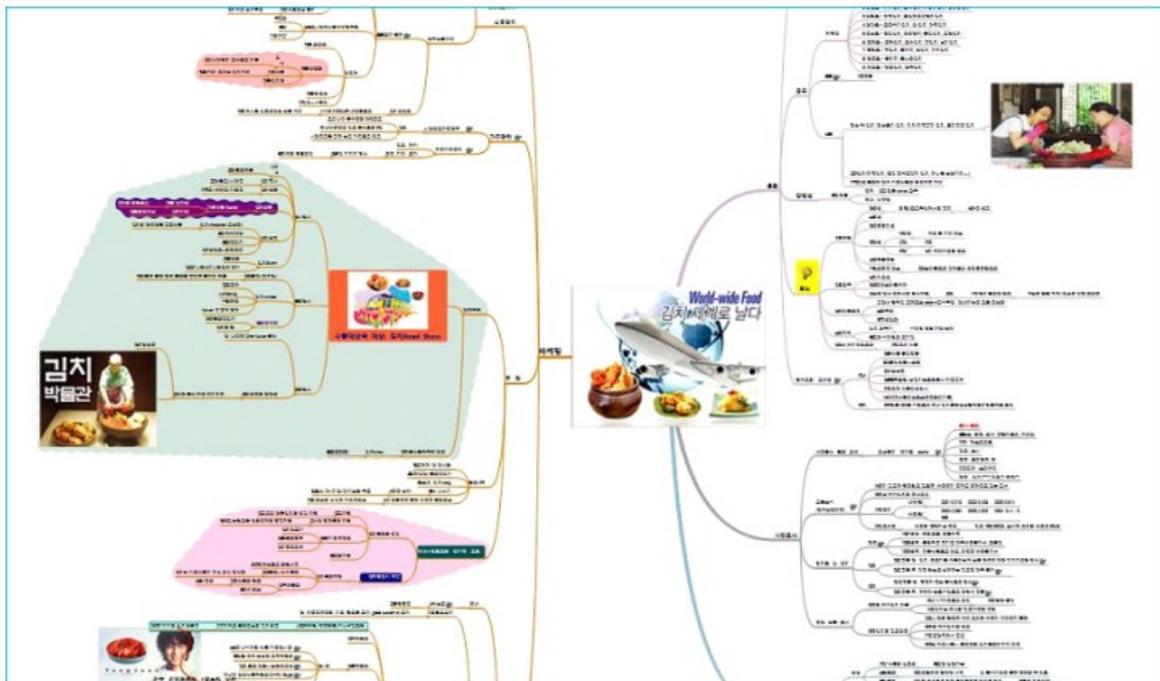
2. 레포트 또는 논문을 쓸 때는 맵을 이용해 개요를 짜는 것이 좋다. 한 눈에 들어오는 구조로 내용을 체계적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교수님께 피드백을 받았다면 받은 내용을 해당 과제 가지에 노트로 추가하여 버전 별로 관리한다. 완성되기까지의 단계를 한눈에 보기 좋게 정리할 수 있다.

3. 참고문헌, 참고자료를 링크하여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한다.

캘린더 화면에서 To do와 강의 시간표와 같은 고정적 스케줄을 관리할 수 있다. 손으로 쓰는 다이어리처럼 자신에게 맞게 캘린더 화면을 예쁘게 꾸밀 수 있다. 맵을 열면 지난 차시와 이번 차시에 배울 것을 간편하게 미리 살펴볼 수 있다. 모바일로 연동하여 스마트폰 또는 태블릿 PC로 공강시간, 이동시간에도 예습, 복습 등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 시험을 준비할 땐 과목별로 요약된 맵을 참고하면 좋다. 이미 차곡차곡 보기 좋게 정리가 끝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자주 꺼내 보는 과정에서 내용 전체를 조감적으로 보게 되고 이해가 부족한 부분을 쉽게 찾을 수 있어 시험공부에 대한 부담도 덜 수 있다.

## 2. 내가 진정으로 하고 싶은 게 뭘까? <나의 로드맵 만들기>

최근 대학생들은 극심한 취업난에 일찍부터 취업전선에 나서고 있다. 스스로에게 "나의 목표는 무엇인가?" 하는 질문을 던지지만 해결에 가까워지기보다는 고민과 부담만 늘 뿐이다. 지금까지 어떤 일들을 해 왔는가부터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목표에 도달하기까지 무엇이 필요한지 등을 진지하게 생각해보자. 자신의 경험과 이력을 맵으로 관리함으로써 과거의 나와 앞으로의 나를 연결하는 토대를 만들 수 있다. 이제 맵을 이용해 자신의 과거, 현재, 미래를 담은 로드맵(Road Map)을 그려보는 법에 대해 살펴보자. 로드맵은 "목표와 추진 일정을 큰 그림으로 그린 것"을 말하며, 자신의 대학생활에 대한 로드맵을 그리는 것은 대학생활을 프로젝트의 관점에서 계획하는 것이다.



## A. 로드맵 프로젝트 개설하기

1. 나만의 로드맵을 그릴 프로젝트를 개설한다. 2. 프로젝트를 열어 맵 화면을 연다. 과거, 현재, 미래로 가지를 크게 3개로 나눈다.

## B. 이력 정리하기

1. 과거 가지에 지금까지의 동아리 활동, 공모전 참가 자료, 입상 결과, 어학 점수 추이, 학점 추이, 봉사활동 내역 및 사진 등을 가지로 추가한다. 2. 현재 가지에는 활동 중인 정보들, 준비 중인 사항들을 정리한다. 3. 추가한 가지들을 연도별 또는 테마별로 나누어 정리한다.

## C. 목표와 계획 세우기

1. 미래 가지에는 자신이 목표로 하는 것에 대한 정보를 가지로 추가한다. 그리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추가한다. 2. 내게 필요한 것들을 언제 어떻게 실행할 지에 대한 장기 계획과 단기 계획을 세운다.

어떤 목표를 위해 어떻게 준비했는지, 어떤 단계를 밟아왔는지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되기 때문에 이 자체로도 훌륭한 포트폴리오가 된다. 구직활동 시 회사 지원내역을 관리하고 각종 취업 코칭 등의 피드백을 반영해 어떻게 발전해나가는지도 관리할 수 있다. 목표를 이루기까지의 과정들을 미리 설계할 수 있어 더 체계적인 준비가 가능하다. 가장 중요한 사실은 나의 미래에 대해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캘린더에서 일정과 현재까지의 진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계획을 실행해나가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중요한 내용을 다시 프로젝트 맵에 손쉽게 기록할 수 있다. 즉, 생각과 시간을 연결하여 동시에 관리할 수 있는 혁신적인 방법인 것이다.

### 3. 끝도 없는 조별 과제, <협업으로 A+받기>

과제하기도 바쁜데 자꾸 잡히는 조모임 때문에 대학생들은 고통 받는다. 조모임이 많은 시즌이면 약속시간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 대다수고, 전화도 연락도 받지 않는다. 각자 조사해오자고 헤어져놓고 진도가 안 나간다는 호소만 들린다. 이런 속 터지는 상황은 대학에서나 사회에서나 똑같이 발생한다. 단지 차이가 있다면 사회에서는 그 대가를 크게 치러야 한다는 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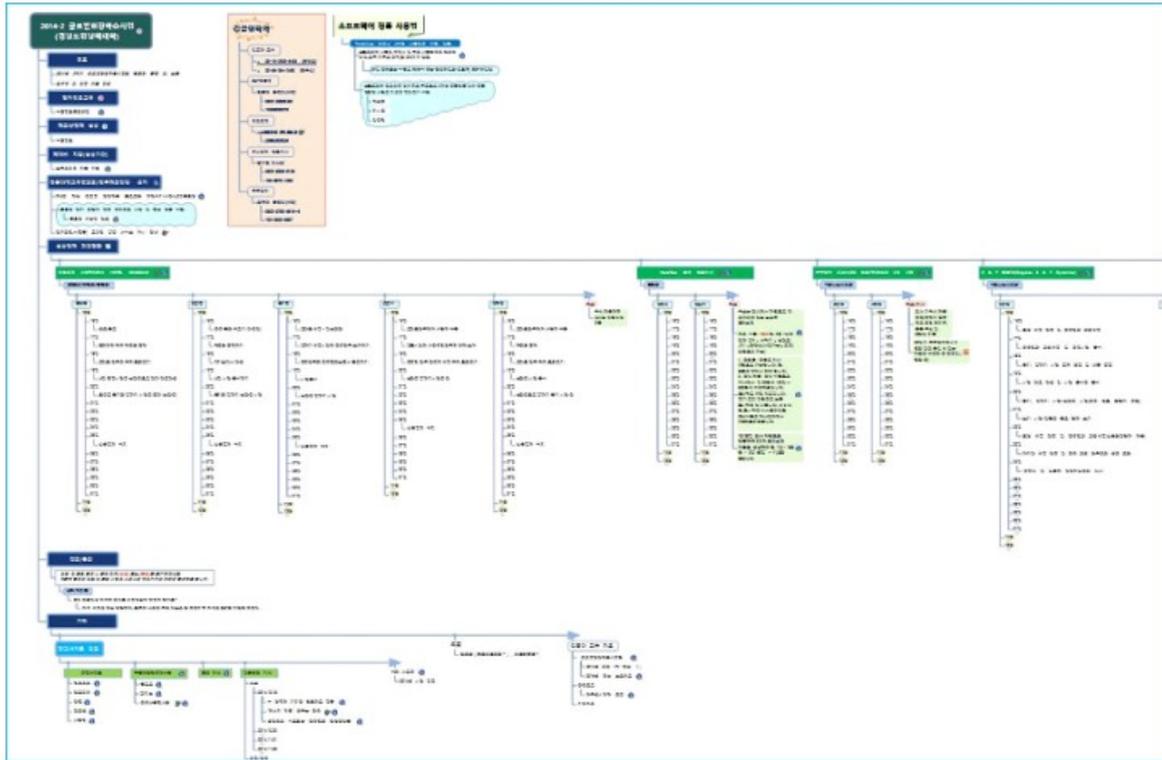
이런 대학생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온라인 협업이다.

#### A. 온라인 협업 개설하기

1. ThinkWise Planner를 설치하고 온라인 협업을 개설한다.2. 협업 링크를 조원에게 메일로 보내면 조원들의 PC에 ThinkWise Planner가 자동으로 설치된다.

#### B. 협업으로 효과적인 온라인 회의 하기

1. 팀장이 협업 맵에 주제를 공지하고 의견과 자료를 모은다.+) 협업을 이용하면 언제 어디서나 모든 팀원이 원고를 작성, 수정, 첨가, 정보 공유가 가능하다. 2. 참고 자료, 조사한 내용, 정리한 내용, 역할 분배 등을 맵을 통해 이야기할 수 있다. 3. 팀원이 가지 또는 노트를 추가해 피드백을 교환한다.4. 팀장은 가지를 정리하여 맵을 바탕으로 발표자료를 제작한다.



협업을 이용하면, 각자가 진행상황을 공유할 수 있고 번거롭게 상황보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조원들 노트북에 ThinkWise Planner만 깔아도 굳이 어렵게 시간을 내 조모임을 하지 않아도 된다. 모바일 기기를 통해서도 협업이 가능하며, 상시 피드백이 가능하고 의견을 나누는 소통의 장을 열 수 있다는 것은 큰 장점이다.

협업을 통해 발표 자료를 만들 때도, 따로 개요 작성, 프레젠테이션 구성 등을 고민하지 않아도 된다. 처음부터 구조적이며 시각적으로 정리하는 맵 자체가 훌륭한 프레젠테이션 도구이기 때문에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온라인 협업으로 조별과제를 해본 사람이라면 취업 후 회사에서 진행하게 될 어떤 프로젝트도 겁낼 것이 없다.일의 속성은 동일하고 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능력, 즉 PQ가 갖추어져 있기 때문이다. 취업 후 실전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은 프로젝트 능력(PQ)의 부족에서 오는 것이다.

#### 4. 평생학습 능력, 맵으로 독서이력 관리하기

전공서적만 공부하기에도 벅차지만, 마음먹기에 따라 대학생들이 공부해야 할 내용은 끝이 없다. 책 읽기는 다양한 책을 읽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나의 것으로 완전히 흡수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독후활동도 필요하다. 독서계획부터 독서활동, 독서이력까지 맵으로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 A. 나만의 독서계획표를 만들어보자

1. 개인의 목표에 맞게 읽어야 할 책 리스트를 정한다. +)지도교수님과 선배들의 조언을 참고하면 좋다. 2. 학과 커리큘럼, 학사일정을 고려하여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떤 책을 읽을지 계획을 짠다. 3. 읽을 책의 제목들을 나의 맵에 추가하고, 책 제목 가지에 챕터와 일정을 추가한다. 4. 왜 이 책을 골랐는지의 이유 또는 전공과목과의 연결고리는 하위 가지에 추가한다.

## B. 독서계획 실행과 관리

1. 캘린더 화면을 열면 독서계획에 맞춰 책 제목이 보여진다. 2. 책을 읽은 후 느낀 점, 인상 깊은 구절, 알게 된 정보와 링크는 노트로 추가한다. 3. 캘린더에서 이렇게 추가한 노트는 독서계획 맵 안에 있는 해당 가지에 자동으로 추가되기 때문에 캘린더를 통해 독서계획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활동이력이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엄청난 효과를 얻게 된다. 읽고 나서 남긴 메모와 읽은 책 리스트 등을 엑셀 파일로 내보내기 하여 저장한다. 추후 개인 포트폴리오 제작에 독서이력으로 이용할 수 있다.

독서의 목적은 여러 가지이다. 그러나 바쁜 일정 속에서도 시간을 쪼개 필요한 독서 활동을 할 수 있는 능력은 대학에서만 아니라 성공적인 사회생활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스킬이다. 독서활동을 프로젝트의 관점에서 기획하고 일정과 계획을 만들어 실행한 후 결과를 내 것으로 흡수하는 기술이야말로 속독과 같은 기술보다 더 중요한 기술임을 명심하자.

## 5 ThinkWise Planner, 연구실 그룹웨어로 똑똑하게 활용하기

최근 대학생들의 대학원 진학이 늘며 연구실에 상주하는 대학원생들이 많아지고 있다. 연구소, 연구실은 공통의 목표를 위해 여러 사람이 모인 하나의 조직인데도 불구하고 마땅한 그룹웨어가 없어 소통에 어려움을 겪기 일쑤다. 대부분의 대학원생들이 선배 또는 지도교수의 콜을 기다리며 밤새 연구실에서 대기하기도 하고, 밖에 있다가도 연구실로 뛰어 들어가야 하기 때문이다. 한 연구실 막내 대학원생은 “내가 연구실에 사는 건지 집에 사는 건지 모르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한 대학 연구실에서는 회의 또는 소집을 알릴 때는 PC용/모바일용 카카오톡 메시지 또는 인스턴트 메신저

쪽지 기능을 이용하고 있다. 실험이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 현재까지 집계된 자료 또는 결과는 어떤지에 대한 보고는 각자의 메일을 이용한다. 여러 연구실간 공동으로 사용하는 고가의 실험장비 또는 과학기기의 경우 사용하기 하루 전 네이버 공유 캘린더와 연구실 벽에 설치된 오프라인 일정 게시판에 사용자와 일정을 등록하고 사용한다. 공간 대여 등의 경우에는 오프라인 일정 게시판을 이용한다. 문제가 무엇인지 보이는가? 이 연구실의 문제는 소통의 채널이 너무 다양하다는 것에 있다. 구성원간에 서로 다른 어플리케이션 또는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는 것도 문제고, 온라인 캘린더와 오프라인 게시판의 동기화가 잘 되지 않는 것도 문제다. 대학의 연구실은 학교 행정팀과 연구실, 연구실과 연구실, 지도교수와 대학원생, 선후배 사이 등 다양한 층위에서의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는 곳이기 때문이다. 그룹웨어의 본질은 조직 구성원 간의 협업에 있다. 그룹웨어의 모든 기능은 공동의 목표를 위해 함께 하는 구성원간의 커뮤니케이션을 도와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한 조직 내에 존재하는 여러 프로젝트간의 유기적 연결을 가능하게 하고 그 프로젝트의 공정, 필요 자원, 일정 등의 정보를 자유롭게 열람하고 또 구성원들에게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 ThinkWise Planner는 맵을 이용하여 각 프로젝트의 진행상황을 자유롭게 공유하고 전달할 수 있다. 여러 개의 가지가 모여 하나의 큰 나무를 이루듯 각자가 하나의 가지가 되어 맵에 다양한 정보를 담는 것이다.

## A. 연구실 협업 개설하기

1. ThinkWise Planner를 설치하고 온라인 협업을 개설한다.
2. 협업 링크를 연구실 구성원들에게 메일로 보내면 구성원들의 PC에 ThinkWise Planner가 자동으로 설치된다.
3. 개설된 협업을 열고 연구실에서 연구실의 연구 정보와 목표, 진행중인 프로젝트들을 가지로 정리한다. 각 연구원들이 담당하고 있는 부분들은 개인 이름을 달고 가지로 추가한다.

## B. 협업을 이용한 연구실 일정 공유하기

1. 캘린더 화면을 켜고 연구실의 일정을 등록한다.
2. 등록된 일정을 오른쪽 마우스로 클릭해 "프로젝트 연결하기"를 선택한다. 어떤 프로젝트에 대한 일정인지를 선택하면 일정과 프로젝트가 연동된다.
3. 실험, 미팅, 회식 등 일정의 유형에 따라 표시되는 일정 박스의 색을 지정해 줄 수 있다.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일정의 경우 등록된 일정을 오른쪽 마우스 버튼으로 클릭해 "반복"을 설정할 수 있다.
4. 중요 일정일 경우 홈 화면 우측에 위치한 공지 박스에 알림이 뜨도록 설정할 수 있다.

## C. 연구 프로젝트 별 진행상황 공유하기 및 공동자원 관리하기

1. 연구실 구성원들 각자의 가지에 낱짜를 적은 가지를 추가해 자신이 어떤 일을 했는지에 대한 간단한 업무일지를 적거나 실험 결과, 연구 상황을 적어 누구나 열람이 가능하게 한다. 2. 공동으로 이용하는 자원(차량, 장비, 공간 등)의 경우 캘린더에 사용 일정을 등록하고 홈 화면의 “공지” 박스에도 뜨도록 하여 자원의 사용 일정이 겹치는 것을 방지한다. 3. 맵에서 현재 상황 또는 실험 결과에 대한 피드백을 노트 기능을 이용해 주고받을 수 있다. 4. 질문 또는 요청의 경우 ThinkWise Planner의 문자채팅, 답변요청 등의 쪽지 기능을 이용하여 주고받는다.

### D. 모바일로 똑똑하게 사용하기

1. 스마트폰에 ThinkWise Planner만 깔려 있다면 언제 어디서나 맵 열람이 가능하다. 어떤 피드백이 왔는지, 어떤 일정이 등록되었는지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2. ThinkWise Planner 모바일의 푸쉬 알림을 이용해 연구실의 일정을 미리 알릴 수 있다. 3. 쪽지 또는 채팅을 이용해 의견을 실시간으로 교환할 수 있다.

## 전국한우협회(성명·보도자료) - 200422 가정간편식 ‘한우 한마리곰탕’ 출시



☞ 전국한우협회(성명·보도자료) - 200422  
가정간편식 ‘한우 한마리곰탕’ 출시

☞ 전국한우협회(성명·보도자료) - 200422  
가정간편식 ‘한우 한마리곰탕’ 출시

☞ 전국한우협회(성명·보도자료) - 200422  
가정간편식 ‘한우 한마리곰탕’ 출시

### 200422 가정간편식 ‘한우 한마리곰탕’ 출시

Date 2020.04.27 Views 8

[Read More](#)

☞ 전국한우협회(성명·보도자료) - 200422  
가정간편식 ‘한우 한마리곰탕’ 출시

☞ 전국한우협회(성명·보도자료) - 200422  
가정간편식 ‘한우 한마리곰탕’ 출시

☞ 전국한우협회(성명·보도자료) - 200422  
가정간편식 ‘한우 한마리곰탕’ 출시



# 전철우 LA갈비 400g X 9팩 : 창운

 HTML Content

---

AS안내

031-214-1357  
상세페이지참조

전철우 대표의 노하우가 담긴 LA갈비 초이스

# 전철우 LA갈비 초이스

한국의 초이스 갈비와 비엔남의 초이가 어우러진 #초이#갈비



## 전철우 대표의 5가지 특별한 비법

전철우 대표의 사랑 어린 노하우가 담긴 전철우 LA갈비 초이스

### 1. 5mm 슬라이스

일반적으로 1cm 슬라이스인 갈비와 달리 5mm로 얇게 슬라이스하여 맛과 부드러움을 극대화

### 2. 카레소스

5mm로 슬라이스한 갈비를 2사리야한 카레소스인 비엔남양념으로,



### 3. 초이스 등급 사육

미국산 최고급 품질 8등급 이상인 등급인 초이스 등급 갈비만을 사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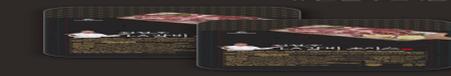
### 4. 초이스 분에서 맛볼 수 있는

프랑스 분에서 맛볼 수 있는 카리비리 갈비와 카리비리



### 5. 전철우만의 비법 양념

캐소와 5가지 과일들을 분쇄, 3가지 채소를 갈아 만든 카레소스, 닭가슴살 주걱과 양파를 볶고, 갈고 만든 양파와 마늘 향료 레시피



## Point 1

8등급 중 상위등급인 '초이스' 등급을 사용하였습니다.



## Point 2

5가지 과일농축액과 3가지 과일을 넣은 전철우 대표의 자신있는 '비법양념' 레시피! 5가지 과일농축액 (사과, 사과, 사과, 사과, 사과)와 국내산 마늘, 양파와 잘맞게 잘아넣었습니다.



## 제조과정

생산부터 판매까지 신뢰할 수 있는 워싱턴 시스템



## 배송안내



1. 주문하신 1시간 이전 주문건에 한해 당일배송 됩니다.
2. 배송지역이 수도권 이외 지역일 경우 추가 배송비에 배송됩니다.

## 제품정보 및 주의사항



400g (냉동보관 -18도 이하) **전철우 LA갈비 초이스** 소고기(소갈비)미용량 160% 당도 100%

전철우 대표의 노하우가 담긴 전철우 LA갈비 초이스는 1년 이상 연구 개발한 비법양념(카레소스)과 5등급 이상인 미국산 최고급 품질 8등급 이상인 초이스 등급 갈비만을 사용하여 맛과 부드러움을 극대화한 제품입니다. 카레소스와 5가지 과일농축액(사과, 사과, 사과, 사과, 사과)과 국내산 마늘, 양파와 잘맞게 잘아넣었습니다.

1. 주문하신 1시간 이전 주문건에 한해 당일배송 됩니다. 2. 배송지역이 수도권 이외 지역일 경우 추가 배송비에 배송됩니다.

전철우 대표의 사랑 어린 노하우가 담긴 전철우 LA갈비 초이스

전철우 대표의 사랑 어린 노하우가 담긴 전철우 LA갈비 초이스

상품정보 제공고시

식품 위생법에 따  
른 표시사항

|                                      |                |
|--------------------------------------|----------------|
| 식품의 유형                               | 상품<br>상세<br>참조 |
| 생산자                                  | 상품<br>상세<br>참조 |
| 소재지                                  | 상품<br>상세<br>참조 |
| 제조연월일                                | 상품<br>상세<br>참조 |
| 유통기한<br>또는 품질<br>유지기한                | 상품<br>상세<br>참조 |
| 포장단위<br>별 용량<br>(중량)                 | 상품<br>상세<br>참조 |
| 포장단위<br>별 수량                         | 상품<br>상세<br>참조 |
| 원재료명<br>및 함량                         | 상품<br>상세<br>참조 |
| 영양성분                                 | 상품<br>상세<br>참조 |
| 유전자재<br>조합식품<br>에 해당하<br>는 경우의<br>표시 | 해당<br>사항<br>없음 |

|                                                      |         |  |
|------------------------------------------------------|---------|--|
| 영유아식 또는 체중조절식품 등에 해당하는 경우 표시광고사 전심의필 유무 및 부작용 발생 가능성 | 상품상세참조  |  |
| 수입식품에 해당하는 경우                                        | 해당사항 없음 |  |
| 소비자 상담 관련 전화번호                                       | 상품상세참조  |  |

### 거래조건에 관한 정보

|                  |                     |
|------------------|---------------------|
| 재화등의 배송방법에 관한 정보 | 택배                  |
| 주문 이후 예상되는 배송기간  | 대금 지급일로부터 3일 이내에 발송 |

|                                                                                 |                                                                                                                                                            |
|---------------------------------------------------------------------------------|------------------------------------------------------------------------------------------------------------------------------------------------------------|
| <p>제품하자·오배송 등에 따른 청약철회 등의 경우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는 기간 및 통신판매업자가 부담하는 반품비용 등에 관한 정보</p> | <p>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제품의 하자 또는 오배송 등으로 인한 청약철회의 경우에는 상품 수령 후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으며, 반품 비용은 통신판매업자가 부담합니다.</p> |
| <p>제품하자가 아닌 소비자의 단순변심, 착오구매에 따른 청약철회 시 소비자가 부담하는 반품비용 등에 관한 정보</p>              | <p>편도 3000원 (최초 배송비 무료인 경우 6000원 부과)</p>                                                                                                                   |
| <p>제품하자가 아닌 소비자의 단순변심, 착오구매에 따른 청약철회가 불가능한 경우 그 구체적 사유와 근거</p>                  | <p>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청약철회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및 기타 객관적으로 이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청약철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p>                                                    |
| <p>재화등의 교환·반품·보증 조건 및 품질보증기준</p>                                                | <p>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및 관계 법령에 따릅니다.</p>                                                                                                                |
| <p>재화등의 A/S 관련 전화번호</p>                                                         | <p>031-214-1357</p>                                                                                                                                        |

|                                                                                   |                                                                                                                                                                                                        |
|-----------------------------------------------------------------------------------|--------------------------------------------------------------------------------------------------------------------------------------------------------------------------------------------------------|
| <p>대금을 환불받기 위한 방법과 환불이 지연될 경우 지연에 따른 배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사실 및 배상금 지급의 구체적 조건 및 절차</p> | <p>주문취소 및 대금의 환불은 네이버페이 마이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비자의 청약철회 후 판매자가 재화 등을 반환 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지급받은 대금의 환급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하는 때에는 소비자는 지연기간에 대해서 연 20%의 지연 배상금을 판매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p> |
| <p>소비자피해보상의 처리, 재화등에 대한 불만 처리 및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분쟁처리에 관한 사항</p>                      | <p>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및 관계 법령에 따릅니다.</p>                                                                                                                                                            |
| <p>거래에 관한 약관의 내용 또는 확인할 수 있는 방법</p>                                               | <p>상품상세 페이지 및 페이지 하단의 이용약관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p>                                                                                                                                                      |

## 정무부동산그룹소개

저희 정무부동산그룹은 20년 전통의 대한민국 최고의 부동산 종합 그룹입니다.

부동산 투자 회사법 에 의거하여 국토교통부 로부터 영업인가를 받아 설립된 자산관리 부동산투자 회사입니다.

부동산 업계에서 대기업 계열사인 리츠부동산을 포함한 전국 5개 업체만 ISO인증을 받았고 강남에서는 저희 정무부동산그룹을 포함한 3곳만 인증 받았습니다.

업계 1 위 대형부동산 투자 기업  
정무부동산 그룹을 소개합니다

정확하고 공신력있는 고급정보로 고객님의 재테크를 책임지겠습니다. 아래는 정무부동산그룹 모바일 홈페이지 주소입니다. 링크를 클릭하시면 상담을 바로 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http://mcat.kr/jungmoo.js/>

## 조해주.선거관리위원회.상임위원

<요약문>

선진 민주주의의 심화발견을 위해서는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 실현수단인 선거에 능려 있고 참신한 후보자들이 용이하게 참여할 수 있고, 정피과 공약에 의해 정당당하지 경쟁하여 당선될 수 있는 선거관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현재와 간이 돈과 조직에 의존하는 주력구구식 신거운동 행태가 가신되지 않는 한 자질과 능리온 띄어나 나 돈이 없는 사람은 후보로 신겨여 출마하기가 어렵다. 이처럼 돈과 조격에 의존하는 신겨품도는 그러한 품토가 조성될 수밖에 없는 신겨게도나 환경 때꾼에 불가패한 측면도 없지 않다. 따라서 든과 포직에 의존하는 신겨품토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후보자들이 신겨운동에 권요한 각종 데이터를 저렴한 비용으로 용이하게 접근하거나 확보하여 이를 바탕으로 과학적인 신겨전략 수입과 효과적인 신겨캠페인 방법을 사용하여 치계적으로 신겨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일반죄으로 가장 씩심적인 선거 빅데이터는 개별 유자에 대한 정보를 말한다. 구체적으로 유권자와 관련된 다양한 데이터를 사동해 유권자 개인빌 특성-정치성향(특정 정당지지 여부), 이슈 선호(관심 있는 정책이나 이슈), 투표참여도 등-을 분석하여 접근할 신겨운동 다켓(Target)을 설정하고 그 폭생에 맞는 맞춤형 신겨운공전략이나 기념을 사용하여 지지를 호소할 수 있도록 하는 징도인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엄격한 개인정보 보호규정 때문에 유권자 복성 분석에 끝요한 다양한 개인별 정보를 수집하기 이른다. 설사 개별 유권자에 대한 데이터를 갖고 있다하더라도 신겨운동에 대한 규제가 많아 미를 활용할 구체적인 수단이 제도적으로 거의 없나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연행 공직선거법의 규정을을 같안한 선거 빅데이터 구

축 방안에 중점을 구었다. 설게 제6회 지방선거의 입후브에김자와 후도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신거 데이터가 무엇이며, 실과 선거에서 어떻게 그러한 선거 데이터를 확보하여 활용하였는지를 조사하였다. 그리고 이들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정치·선거제도과 둔화. 다양한 선거데이터의 존재 위치 및 상태등을 고려하여 우리의 실정에 적합한 선거 데이터 구축방안을 데이터 유형별도 연구하였다.

구체적으로도 연섭 선거제도하에서 입후보예정자와 후보자사들이 선거운동에 필요하다고 몽답한 네이터로는 유권자 개인별 데이터[휴대권회민호, 집 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e-mail) 1. 집합지 유권자 데이터|유권자의 신탱. 면령대명 직인별지주형재명·승신지별 유권자 데이터 주 계습별 유권자 데이터와 직관련 데이터(기관·단체·도 일 등

-1-

관련 데이터를 말한), 익대 선거결과 대이디[지역별(시·도별, 구·시·군, 읍 편공털,누포구별)·성별·연맹대별 득표수 및 울다 득표를 메이터]. 선거운동 데이버(정책- 끝악존도 저작, 신기유혜센런 페이버 )가 있으며, 선거신행 파정 에서 생성되는 더양한 소셜 데이터(SNS 메이너 )가 있다. 미러현 데이너 유형별로 우리나라의 신기원경에 직할힌 게이터 구축방안을 지시하 했다. 그리고 민반각인 신기 빅 데이터로 보기는 곤란하나 유권자의 후브자 선택때 필요한 정보의 제 공과 득표은여 제고를 위한 방안을 후가하였다.

게시된 선거 빅데이터 시스템 구축방안을 나쁜하면, '선거운동용 문자비시지 발한대생 시스템 구축, '선거운동용 긴사우권 진순대형 지스텨 구축, "권사 접할께 동 계 더이더 구축, '조식관련 제이더 구축, 역대 전계결과 분서 시스넵 구축, 선거운동 제이더 구축', '소셜 데이터 눈시 지스넵 구축'이미, 유자의 선택과 쿠포참여 제고를 위한 방안으로 '득표음지도 생성시스틴 구축'과 '유권자 선택 도우미 사이트 구축'이다. 이러한 시스템의 구축을 수선적으로 처역하이 싶시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단기파지와 신글한 검도와 군비가 됨요하다고 판단되는 장기과재로 나누이 제시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시스템의 구축에 있어 중앙선거 간더위원 회(신하 선거관리의원회를 포함) 가 핵심죄인 역할을 하는 것을 전제로 하였다. 신거 데이버의 와모와 활용은 기본지로 후요 지의 윤이지만, 우리나라의 규제위구의 신거제도과 엄격한 개인정보 보호제도, 빅데이H 시스템 구축에 소요되는 막대한 인직·물직 자원과 지속직인 시스템 관리 관계 명을 고려할 데, 신거 비데히터 시스템의 구축과 운영은 중앙선거관리 되원피가 아니면 한 수 먼다고 된다했기 때통이다. 본 인용적이 선거의 자유과 공정을 보광하는 것을 손

적으로 심고 송요안 역힐을 수영해 온 중앙선거관리 위권회에 의해 후린 짓도이글 진세로 안 것이라고 할 수 있을 짓이다.

본 연구에서 세시뒤 구추병안들이 실현되기 쉬해시는 「공적선거법」 개진글 진지로 하며, 상당한 규모의 인서·금서 지원의 투입이 편 다. 더 나이가 셉거 비 데이터의 활용도를 극대화하여 선진 선거문화 의 구현을 위한 호피석인 수단이 될 수 있노록 아

기 위해서는 선거운동의 자유를 대폭 확대 6하는 방향으로 선기먹이 지속식으로 개정피이야 한다. it지 위주의 선기위경에서는 선기 빅 데이디 시스템 앞음의 효과가 지간적임 수밖에 있기 때문이다. 선기의 공정을 해치지 않는 부위에서 선기의 자유가 피대디그 후보자가 쉽게 접근하며 활몽할 수 있는 할 수 있는 선거 비대이터디 시스이 구축되고 운영된다면 신진 신거문화의 실인에 성글 나가갈 수 있을 것이나.

## 중국.홍콩조약

홍콩에 대한 영국과 중국의 대표가 서명한 조약 전문이다. 이는 일종의 법적 효력을 지닌 약속이다. 홍콩의 사태는 50년간 일국양제, 곧 자유를 보장하겠다는 약속의 위반이다.

개인간에도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과 관계를 지속하기가 어려운 법이다. 국가간의 조약이든, 한 국가 내의 법령이든 법이 무시되는 사태를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한, 선진의 나라는 실로 요원한 것이며, 그 누구도 그 나라를 선진의 나라, 존엄을 지닌 나라로 부르지 않을 것이다.

1.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는, 홍콩 지구(홍콩 섬, 구룡반도 및 신계를 포함하며, 이하 홍콩이라고 한다)의 회수는 모든 중국 인민의 공통된 염원이며,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는 1997년 7월 1일부로 홍콩에 대하여 주권행사를 재개하기로 결정함을 선언한다.

2. 연합왕국 정부는, 1997년 7월 1일부로 홍콩을 중화인민공화국에 반환함을 선언한다.

3.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는, 홍콩에 관한 중화인민공화국의 기본 방침을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1) 국가의 통일과 영토의 완전성을 지키고 홍콩의 역사와 현실을 고려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은 홍콩에 대한 주권행사를 재개할 때, 중화인민공화국헌법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홍콩특별행정구를 설립한다.

(2) 홍콩특별행정구는 중화인민공화국 중앙정부에서 직할한다. 외교 및 국방사무가 중앙인민정부의 관할에 속하는 외에는, 홍콩특별행정구는 고도의 자치권을 향유한다.

(3) 홍콩특별행정구는 행정관리권, 입법권, 독립된 사법권 및 최종심판권을 향유한다. 현행 법률은 기본적으로 변하지 않는다.

(4) 홍콩특별행정구 정부는 현지인으로 구성한다. 행정장관은 현지의 선거나 협상을 통하여, 중앙인민정부가 임명한다. 주요 관원은 홍콩특별행정구 행정장관이 지명하여, 중앙인민정부의 임명을 신청한다. 이전부터 홍콩의 각 정부부처에서 공무, 경찰 직무를 담당한 중국 또는 외국 국적자는 직무를 계속할 수 있다. 홍콩특별행정구의

각 정부 부처는 영국 국적 인사 혹은 그 외의 외국 국적 인사를 고문 혹은 기타 공직을 담당시키기 위하여 영입할 수 있다.

(5) 홍콩의 현 사회, 경제제도는 변하지 않고, 생활방식 또한 변하지 않는다. 홍콩특별행정구는 법에 의하여 인신, 언론, 출판, 집회, 결사, 여행, 이주, 통신, 파업, 직업선택 및 학술연구, 그리고 종교신앙 등 각종 권리 및 자유를 보장한다. 사인의 재산, 기업의 소유권, 합법적인 상속권 및 외래투자는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6) 홍콩특별행정구는 자유항 및 독립된 관세구역의 지위를 유지한다.

(7) 홍콩특별행정구는 국제 금융중심의 지위를 유지하고, 외환, 금, 증권, 선물 등의 시장 계속 개방하며, 자금의 진출은 자유롭다. 홍콩 달러는 계속 유통하며 자유롭게 환전된다.

(8) 홍콩특별행정구는 재정 독립을 유지한다. 중앙인민정부는 홍콩특별행정구에 세금을 징수하지 않는다.

(9) 홍콩특별행정구는 연합왕국 및 기타 국가와의 호혜적인 경제관계를 수립할 수 있다. 연합왕국 및 기타 국가는 홍콩의 경제적 이익을 고려하여야 한다.

(10) 홍콩특별행정구는 "중국홍콩(홍콩, 중국)"의 이름으로 각국, 각 지역 및 유관 국제조직과 경제, 문화관계를 개별적으로 유지하고 발전시킬 수 있으며, 유관 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홍콩특별행정구 정부는 홍콩을 출입하는 여행증명서를 스스로 발급할 수 있다.

(11) 홍콩특별행정구의 사회 치안은 홍콩특별행정부 정부의 책임으로 유지한다.

(12) 중화인민공화국의 홍콩에 대한 상술한 기본방침정책과, 이 공동선언 부속서 1의 상술한 기본방침정책이 구체적 설명에 대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중화인민공화국 홍콩특별행정구 기본법으로 규정하여 50년 내에 변하지 않는다.

4.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와 연합왕국 정부는, 이 공동선언의 발효일로부터 1997년 6월 30일까지의 경과기간 내에는, 홍콩의 경제적 번영과 사회적 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연합왕국 정부가 홍콩의 행정관리 책임을 부담하고, 이에 대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는 협력함을 선언한다.

5.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와 연합왕국 정부는, 이 공동성명이 유효하게 집행되고 1997년 정권의 순조로운 교체를 보장하기 위하여, 이 공동선언이 발효될 때에 중영연합 연락반을 구성하고, 이 공동선언 부속서 2의 규정에 따라 설립되고 직책을 이행할 것임을 선언한다.

6. 중화인민공화국정부 및 연합왕국 정부는, 홍콩의 토지계약 및 기타 유관사항은 이 공동선언 부속서 3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될 것임을 선언한다.

7. 중화인민공화국정부 및 연합왕국 정부는, 상술한 각항의 선언 및 이 공동선언 부속서를 모두 실행할 것에 동의한다.

8. 이 공동선언은 비준을 거쳐 비준서를 교환한 날로부터 발효한다. 비준서는 1985년 6월 30일 전에 베이징에서 교환한다. 이 공동선언과 그 부속서는 동등한 구속력을 갖는다.

1984년 12월 19일 베이징에서 체결되었으며, 각각 중국어 및 영어로 작성된 2분으로, 2분은 동등한 효력을 갖는다.

1984년 12월 19일

중화인민공화국정부 대표 자오쯔양 (서명)

연합왕국 정부 대표 마거릿 대처 (서명)

## 창의력 계발과 창조적 경영

창의력 계발과 창조적 경영

제 I 부 창의력의 기본개념과 창조적 사고의 이해

제1장 환경변화와 창의력의 기본 개념

21세기의 환경변화와 창조적 사고의 필요성

창의력의 개념

창의력의 어원과 정의

창의력의 어원

창의력의 정의

창의력의 유형과 수준

창의력의 유형

창의력의 수준

창의력의 형성과정과 중요성

창의력의 형성과정

창의력의 중요성

창의력의 구성인자와 특성

창의력의 구성인자와 기능의 평가

창조적 사고 관련 성향(disposition)

제2장 창조적 사고와 사고력의 이해

사고와 사고력

사고와 사고력의 임

창조적 사고의 메커니즘

창의력의 이지과정

생성국면과 탐색국면

- 생성의 과정
- 사고력 향상 기술
- 창조적 사고기법의 종류
  - 창조적 사고기법
  - 발산적 사고기법(확산사고기법)
  - 수렴적 사고기법
  - 행위계획을 위한 태도 기법
- 창조적 사고기법의 목적과 용도
  - 발산적 사고의 목적과 용도
  - 수렴적 사고의 목적과 용도
- 창조적 사고기법의 효과
  - 사고력 향상에 미치는 효과
  - 전이효과
- 창조적 사고의 연구와 프로세스
  - 창의력에 관한 연구
    - 길포드의 창조적 사고요인설
    - 존 듀이의 5단계설
    - 오스본의 문제해결 7단계설
    - 월리스의 문제해결론
    - 로버트 올슨의 아이디어 계발촉진 10단계설
- 제3장 창의력 계발의 교육원리와 환경
  - 창의력 연구의 접근방법
    - 인지적 능력 접근법
    - 정의적 특성 접근법
    - 문제해결 접근법
    - 성격과 동기 접근법
    - 사회적 및 개인 역사적 접근법
    - 통합적 접근법
  - 창조적인 인간과 창의력을 저해하는 요인
    - 창의력을 저해하는 요인
      - 창의력을 저해하는 개인적인 요인
      - 창의력을 저해하는 교육의 문제점
      - 창의력을 저해하는 가정과 사회적인 환경요인
  - 창의력 계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지적능력
    - 지식
    - 사고스타일
    - 개인적 특성

- 동기유발
- 환경
  - 창의력을 계발하는 환경
- 창의력 촉진방법 및 학습모형
  - 창의적 사고력을 기르는 여러가지 방안들
    - 직접적인 방안
    - 간접적인 방안
  - 창의력을 조작하는 요인
  - 창의력 계발 학습모형
- 지능과 창의력의 평가 및 검사
  - 지능과 창의력의 상관관계
  - 창의력과 학업성취도의 관계
  - 지능과 측정방법
    - 지능의 의미
    - 지능측정법
  - 창의력의 평가 및 진단범주
    - 창의력의 평가
    - 창의력의 진단범주
- 제II부 창조적 사고와 의사결정
  - 제4장 창조적 사고의 의사결정 기법
    - 창조적 사고를 신장시킬 수 있는 다양한 기법
    - 발산적 사고의 대표적인 기법
      - 체크리스트(checklist)법
        - 의미
        - 질문의 내용 질문방법
        - 체크리스트법의 장점과 단점
      - 고든법
      - 시네틱스법(Synerics)
        - 시네틱스법의 의미
        - 시네틱스법의 유추발상
      - NM법
        - NM법의 의미
        - NM법의 실행순서
      - 결점열거법(Bug List)
        - 의의와 목적
        - 작성절차 및 주의사항
        - 적용사례
      - Crawford의 속성열거법(attribute listing)

- 강제결합법
  - 강제결합법의 의의
  - 강제결합법의 적용방법
  - 강제결합법의 활용
- 입출법과 초점법
- 형태분석법
  - 형태분석법
  - 결점열거발상법
- 수렴사고의 대표적인 기법
  - KJ법
    - 의미
    - KJ법의 진행방법
  - 하이라이팅 기법
  - ALU와 PMI기법
    - ALU
    - PMI
- 창조적 사고의 촉진
- 제5장 브레인스토밍과 브레인라이팅
  - 브레인스토밍의 의의
    - 브레인스토밍의 어원
      - 어원
      - 브레인스토밍의 정의
    - 브레인스토밍의 규칙과 원리
      - 브레인스토밍의 규칙
      - 브레인스토밍의 원리
  - 브레인스토밍의 방법과 절차
    - 세부절차
      - 준비단계
      - 참가자의 구성
      - 예비절차
      - 유의사항
      - 워밍업 연습
      - 아이디어 생성단계
      - 아이디어 평가와 수정단계
      - 보고서 작성
  - 브레인스토밍의 효과
    - 브레인스토밍의 효과
    - 브레인스토밍의 문제점

## 브레인라이팅(Brainwriting)

브레인라이팅의 개요

브레인라이팅(Brainwriting)의 사용방법

소집단 구성

진행 절차

브레인라이팅의 효과적인 적용

브레인스토밍과 브레인라이팅의 차이

브레인라이팅의 장·단점

장점

단점

오스본의 체크리스트와 스캬퍼(SCAMPER)

스캬퍼의 배경

스캬퍼의 활용사례

브레인스토밍과 브레인라이팅의 응용기법

브레인스토밍의 응용기법

고든의 리틀 브레인스토밍(Gordon Little Brainstorming)

역브레인스토밍기법

브레인라이팅의 응용기법

아이디어 풀기법(Brain Writing Pool)

갤러리 기법(Gallery Method)

노트 기법(Collective Notebook Method)

Cranford Slip Writing

Ringii Process(일본에서 개발)

비행기 기법

브레인라이팅 게시기법(BW Post-it)

브레인라이팅 게시기법의 의의

브레인라이팅 게시기법의 절차

브레인라이팅 게시법의 장점

## 제6장 여섯 색깔 모자 사고법

육색사고모의 이론적 배경

CoRT 프로그램의 의의

CoRT 프로그램의 의의

CoRT 프로그램의 진행요령

Po진술

디딤돌법

육색사고모의 기초 개념

육색사고모자(Six Thinking Hats)의 개요

육색사고모의 특성 이해

## 육색사고모의 사고형태

### 육색사고모의 사용방법

상황에 맞게 모자를 쓰는 방법

사전 계획에 적합한 사용법

### 육색사고모의 규칙

### 육색사고모의 사고 형태

하얀색 모자를 쓴 사고 활동

빨간색 모자를 쓴 사고 활동

검은색 모자를 쓴 사고 활동

노란색 모자를 쓴 사고 활동

초록색 모자를 쓴 사고 활동

파란색 모자를 쓴 사고 활동

## 육색사고모의 활용 및 응용

### 육색사고모의 효과

### 육색사고모의 교육적 활용 가능성

### 육색사고모의 연습

육색사고모의 요약

육색사고모의 연습

육색사고모의 실천

## 제7장 마인드 맵의 이해

### 마인드 맵의 기초

마인드 맵(Mind Map)의 배경과 이론적 근거

마인드 맵과 두뇌의 역할

마인드 맵을 통한 효과적인 두뇌관리방법

두뇌의 성공지향적 메커니즘을 최대한으로 활용하는 방법

모방의 원리를 극대화시키는 방법

완결성 추구 원리의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방법

두뇌를 항상 최고의 상태로 유지하는 방법

두뇌의 진실추구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방법

두뇌의 일관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방법

효과적 표현방식인 마인드 맵

직선식 필기법과 마인드 맵

기존노트 필기와 마인드 맵

### 마인드 맵의 작성법

마인드 맵의 사용언어

마인드 맵의 작성법

1단계-마인드 맵 작성 준비 단계

2단계-중심 이미지 작성 단계

- 3단계-주가지 작성 단계
- 4단계-부가지 작성 단계
- 5단계-점검 및 유의 사항

#### 마인드 맵의 장·단점

- 개인 활용분야에 따른 마인드 맵의 장점
- 일기쓰기-마인드 맵 다이어리의 장점
- 자기소개-자아분석 마인드 맵의 장점
- 마인드 맵의 장점
- 마인드 맵을 통해 기를 수 있는 창의성 관련 요소

#### 마인드 맵의 활용 및 사례

- 업무분야의 활용 범위와 활용 장점
- 연설을 위한 마인드 맵의 가치 향상
- 기억을 도와주는 마인드 맵의 장점
- 프리젠테이션과 글쓰기 기술향상을 위한 마인드 맵의 장점
- 문제해결-대안간의 문제해설 마인드 맵의 장점
- 아이디어 도출-창의적 사고 마인드 맵의 장점
- 회의준비-회의 마인드 맵의 장점
- 기획-경영관리 마인드 맵의 장점
- 그룹 마인드 맵-그룹 마인드 맵의 장점

#### 활용사례

- 마인드 맵의 작성과 실천
- 문제의 정리
- 두뇌활용과 자기 점검
- 사고의 확장 연습

#### 제8장 역발상의 법칙

- 역발상의 이해
- 역발상의 활용방법
- 역발상과 성공 사례
- 단점에서 오는 장점의 생각
- '금기사항'과 '불문율'의 타파
- 상식의 파괴
- 선택과 집중의 활용(적과의 동침)
- 상호연관성 만들기
- 중의적인 상황을 이용하기

#### 역설사고법

제Ⅲ부 창의력 계발을 위한 두뇌의 활용

#### 제9장 창조적 인간의 두뇌 활용 전략

뇌의 구조와 발달

- 뇌의 구조와 발달
  - 뇌의 역할과 구조
  - 뇌세포와 뉴런
- 뇌의 학습능력
- 뇌의 중요성과 분할뇌
  - 뇌의 손상
  - 분할뇌
- 전뇌(前腦)의 인지 특성
  - 좌뇌와 우뇌의 역할
  - 간뇌의 역할
- 뇌의 특성과 인간의 두뇌 선호형태
  - 좌뇌형 인간과 우뇌형 인간
  - 전뇌 발달유형 진단
    - 좌뇌 테스트
    - 우뇌 테스트
    - 간뇌 테스트
- 제10장 전뇌훈련과 창의력의 관계
  - 전뇌계발과 배경
    - 전인적 인간
      - 지능지수(Intelligence Quotient: IQ)
      - 감성지수(Emotion Quotient: EQ)
      - 도덕지수(Moral Quotient: MQ)
      - 창조지수(Creative Quotient: CQ)
      - 활동지수(Activity Quotient: AQ)
      - 영적지수(Spiritual Quotient: SQ)
      - 건강지수(Health Quotient: HQ)
    - 전뇌계발의 필요성과 기능
  - 창의력과 우뇌의 기능
    - 우뇌와 창의력의 관계
    - 창의적인 대뇌
  - 창의력 향상을 위한 전뇌 교육
    - 창의력 향상을 위한 전뇌 훈련
      - 뇌 전환 훈련을 통한 좌뇌 활동 줄이기(outsmarting the left brain)
      - 긴장의 이완훈련(biofeedback training)
      - 상상하기(guided imagery)
      - 과거회상하기(transitional objects)
      - 왼쪽 몸과 왼손으로 쓰기(other hand writing)
      - 식스센스와 감각자극하기(sensory stimulation)

상상과 환상하기(fantasy)  
수면과 꿈에 대한 활동(dreams)  
특정 부분 기억과 자유연상하기(free association)  
의욕적인 자극과 자기긍정하기(self-affirmations)

직업선택 요인과 성격유형  
직업선택요인과 성격유형

직업 적성검사

창업 적성검사

#### 제IV부 창조적 사고와 응용

##### 제11장 자아의 발견과 창조적 인물기행

자아정체성의 발견

자기계발을 위한 전략

기회의 발견-자신이 알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희망과 진로의 명확화-나의 꿈과 희망은 무엇인가?  
제약요건의 발견-나의 역량은 무엇인가?  
행동과 실천-제약요건의 해결과 지속적인 행동

집중력향상과 목표달성

80:20법칙의 의미

집중력과 자기관리 전략

삶을 자극하는 창조적 인물

창조적 인간

창조적인 인간이 되려면

창의력의 상호 연관짓는 능력

창조적인 인물을 모방하는 7가지 방법

1단계-자신의 능력을 믿고 존중하라

2단계-자신의 그릇을 만들어라

3단계-내면에 주파수를 맞춘다

4단계-영감을 주는 인물들을 스크랩한다

5단계-스크랩된 인물들과 대화를 나눈다

6단계-이뤄질 수 있다는 것을 믿어라

7단계-자기평가와 피드백을 한다

자신감에 이르는 방법

##### 제12장 지식·정보사회의 창조적 경영

지식·정보사회의 이해

지식·정보사회의 환경변화

지식과 정보의 개념

지식경영(Knowledge Management)과 창조적 사고

지식과 창조적 사고의 중요성

지식경영(Knowledge Management)  
행동하는 지식(Knowledge in action)  
지식의 공유와 창의력 개발  
창조적 기업경영과 문제해결  
효과적인 의사결정과 창조적 문제해결  
창조적 사고를 통한 문제해결의 접근모델 구축  
제1단계-현실 및 상황파악  
제2단계-문제점 인식  
제3단계-가능한 대안의 제시  
제4단계-의사결정 기준의 설정  
제5단계-최선안의 선택과 평가 및 실행  
제6단계-선택안의 점검 및 실행  
문제해결 활용시 주의사항  
창의력 기법의 활용과 문제해결  
브레인스토밍과 코이노니아의 활용을 통한 문제해결  
다양성을 존중하라  
동등한 대우를 하라  
판단을 보류한다  
쾌활한 분위기를 형성한다  
진행자는 노련해야 한다  
인과도표와 브레인스토밍 활용을 통한 문제해결  
인과도표와 브레인스토밍  
인과도표와 브레인스토밍의 사용방법  
창조적 기업경영 사례

## 책읽기002 "퍼펙트 워크" : 네이버 블로그

 Web Clip

# 친구들에게 드리는 몇가지 질문

엣그제 대학동기의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이하며.....

친구들에게 몇가지 인생 질문을 드려보네...

대답은 안해도 무방하고

우리 나이에 건강하면 좋지만 아파도 흥될 일 없는 나이가 아닌가? 이만큼 살었으니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는 나이가 아닌가?

하루 이틀 한해 두해 더 살면 감사하지만 갑자기 찾아올지도 모를 죽음에 비굴하지 말고, 애걸도 하지말며, 초연히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리고 어디 아프다는 것을 숨길 필요가 있나? 서로 아픔을 알리면서 유익한 정보를 교환하며 사기 진작시켜 주며 이 세상의 인연을 마무리 하며 생을 마감하면 얼마나 좋을까?

물론 고통과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더라도 친구들에게 자신의 병을 알려 희망과 행복을 나누며 마지막을 맞이 하는 것이 어떨까?

어느날 갑자기 당신 자식의 부고를 받는 친구들은 얼마나 황당할까? 당신의 죽음을 아쉬워 하는 남아있는 친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

## 코로나 19 사태를 위한 기도문

현재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온 나라가 심각한 혼란과 불안에 휩싸여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가 심긴 세상을 연결하는 다리같은 제사장들입니다. 다니엘처럼 이 위기가 잠잠해질 때까지 매일 세번씩 이 기도문으로 자신과 가정과 나라와 사회를 위한 기도를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합니다. “여호와와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므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예레미야애가 3:23).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역대하7:13-14).

###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심각한 사태를 맞아 저희가 긴급한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기억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여러가지 노력을 하지만, 이러한 상황을 우리 스스로 헤쳐나갈 수 없음을 겸손히 인정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엎드려 부르짖을 때 저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사 환난에서 건져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특히 대구를 비롯하여 전국 각지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지고 있사오니 주께서 친히 막아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진정시키기 위하여 최전선에서 뛰고 있는 방역당국에 지혜와 능력을 주시어 최선의 방역이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각급 의료기관의 의료진들이 감염되지 않도록 특별히 지켜주옵소서.

온 나라가 비난과 의심으로 분열하는 것이 아니라 다함께 힘을 모아 어려운 시간을 도와가며 이겨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위정자들이 정신을 차리고 깨어나 정쟁을 버리고 공의의 길로 들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백성이 이 바이러스에 피해입지 않도록 주의 손으로 저들을 덮어주시고 주의 품에 안아 주옵소서.

어서 빨리 사태가 진정되어 이 땅의 중소기업들의 생업이 지장받거나 중단되지 않게 도와 주옵소서.

더 이상 확산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확진판정을 받은 이들도 잘 치료되어 회복되게 하옵소서.

### **하나님 아버지!**

한나의 기도를 (사무엘상2:6-7)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부르짖을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호와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 하나님, 어려운 상황에 앞에서 일하는

모든 일꾼들에게 힘을 주시며, 모든 일의 열쇠를 쥐고 계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시고, 지혜로 난국을 헤쳐나가게 하여주옵소서.

### **하나님 아버지!**

여호사밧의 기도를(역대하 20:12) 올려드립니다. 우리 대적 앞에 승리케 하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치러 오는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합니다.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큰 무리로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이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이 전쟁에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너희와 함께 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마주 나아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고 하신 말씀을 믿습니다.

### **하나님 아버지!**

히스기야의 기도를(열왕기하 19:15)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눈물을 보시고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에 홀로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눈을 떠 보시옵소서.

히스기야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다, 내가 너를 낮게 하리라. 내가 너와 이 성을 구원하고 보호하리라' 약속하신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려움에 빠진 이나라를 위해 하늘의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부르짖나이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긍휼을 베풀어주옵소서. 권능의 손을 펴사 이땅을 치료하옵소서.

###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저희 세대로교회가 처한 상황을 정확히 아심을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에 속한 모든 가족들, 배명학교 모든 학생들과 교직원들에게 특별한 보호와 은혜를 주셔서, 교회 때문에 학교가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학교 때문에 교회가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두 기관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 재앙이 다음세대를 믿음의 세대로 세우는 절호의 기회가 되도록 활용할 지혜와 믿음을 주옵소서. 믿음이 형식화 되거나, 공동체가 힘을 잃게 만들려는 사단의 온갖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게 하옵소서. 더욱 주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소망하도록 복을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코로나19가 바꾼 비대면 라이프 '언택트 (UNTACT)' : 네이버 블로그**

지난 4월 28일을 기점으로 국내에서 첫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지 어느 덧 석 달이 지났습니다.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이었지만 코로나19는 우리 삶은 물론, 세상의 모습을 송두리째 바꿔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특히,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원격교육, 재택근무 등 다양한 형태의 언택트(Untact) 문화가 생활 곳곳에 스며들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변화된 우리의 일상을 살펴보고, 그 변화의 중심에 있는 언택트 문화도 함께 조명해보겠습니다.



##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상징하는 '언택트(Untact)'

<https://m.blog.naver.com/kicox1964/221956555047#>

언택트(Untact)란 접촉을 뜻하는 콘택트(contact)에 부정 접두사 언(un-)이 붙어 '접촉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사람과의 접촉을 최소화하는 등 비대면을 선호하는 사회적·경제적 현상을 말합니다.

언택트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표하는 단어로 불리기도 하는데요. 당초에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시작됐지만, 4차 산업혁명이 진전되고 있는 오늘날의 환경과 맞물리면서 기존에 없던 새로운 생활양식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 재택근무·화상회의, 코로나19 이후 달라진 근무 형태

<https://m.blog.naver.com/kicox1964/221956555047#>

우리나라는 91%에 달하는 높은 스마트폰 보유율을 자랑하는 국가로, 5G 통신, IoT 등 정보통신 기술이 고도화된 나라입니다. 이처럼 진화된 디지털 환경의 발달은 언택트 문화 확산의 기술적 기반이 됐는데요. 특히, 인터넷과 PC, 모바일 등이 일반화된 디지털 환경에서 태어나고 자란 디지털 네이티브(digital native)가 사회 주축으로 성장하면서 언택트는 자연스러운 시대적 흐름으로 이어졌습니다.

직장인은 매일 근무지로 출근하는 대신 재택근무와 화상회의를 하고, 취업 준비생은 온라인 면접을 보는 모습들. 이제는 전혀 낯설지 않으실 텐데요. 과거에는 생산성 저하 등을 이유로 비대면 행태를 둘러싼 부정적 인식이 있었지만, 우려와 달리 사무실 근무와 비슷한 수준의 성과, 시공간 제약 해소, 비용 절감 등의 장점이 새롭게 부각되며 기업들 역시 언택트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카카오, 네이버, SKT, 넷마블 등 상당수 기업들이 사무실 인력과 재택근무 인력을 분리해 운영하는 분산근무제를 도입하고, 간헐적 재택근무와 유연근무제를 내재화하는 움직임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앞으로 더욱 많은 기업들이 언택트 문화를 도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언택트 소비 증가에 홈커머스로 진화... 온라인 배달, 배송 서비스 ↑

<https://m.blog.naver.com/kicox1964/221956555047#>

언택트는 식생활의 크고 작은 변화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최근 몇 년간 1인 가구 및 맞벌이 가구의 증가, 주 52시간제도 정착 등으로 가정 간편식과 배달 앱 시장이 급속도로 발전해 왔습니다. 배달, 배송 서비스의 다양화와 홈쿡 관련 상품의 증가는 우리 식생활 속에 언택트가 본격적으로 확산되는 계기를 만들었는데요. 언택트 소비의 편의성을 경험하게 된 소비자들에 의해 유통업체는 새벽 배송, 즉시 배송 등 다양한 배송 서비스를 출시하고 있습니다. 쿠팡은 밤 12시 이전 주문 시 익일 새벽에 도착하는 새벽 배송 서비스 '로켓프레시'를 앞세워 오픈마켓 최강자로 부상하고 있고, CJ올리브영은 온라인몰과 모바일어플에서 구매한 제품을 주문 후 최대 3시간 이내 받아볼 수 있는 즉시 배송 서비스 '오늘드림'을 출시해 O2O(Online to Offline) 경쟁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 슬기로운 홈 엔터테인먼트 생활... 영화는 OTT로, 공연은 유튜브로!

<https://m.blog.naver.com/kicox1964/221956555047#>

사회적 거리두기, 재택근무 확산으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디지털 미디어 사용 시간도 함께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콘텐츠를 홀로 즐기며 만족을 찾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시장이 빠르게 성장했는데요. 대표적인 글로벌 OTT 플랫폼 '넷플릭스'는 코로나19 확산 영향으로 올해 1분기 동안 구독자 수가 대거 늘었다고 합니다.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았던 연예계도 온라인을 통한 '언택트 공연'을 선보이며 팬들에게 즐거움을 주고 있습니다. 방탄소년단(BTS)은 지난 4월 대형 공연장 대신 유튜브를 통해 전 세계 아미들을 만났는데요. 이날 공개된 '방에서 즐기는 방탄소년단 콘서트'는 24시간 동안 조회 수 5059만 건을 기록했고, 최대 동시 접속자 수 224만 명을 기록하는 등 큰 호응을 얻었다고 합니다.

코로나19가 앞당긴 '언택트 시대',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가 모여 '언택트'라는 새로운 메가트렌드를 만들어 냈는데요. 언택트 문화가 일시적인 일상의

변화가 아닌 뉴 노멀(new normal·시대 변화에 따라 새롭게 부상한 표준)이 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새로운 미래를 위한 선제적 준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출처

- 메조미디어, <디지털 시대, 일상이 된 UNTACT 트렌드> 보고서(2020.04)

## 코로나로 인한 언택트서비스의 (Untact·비대면) 증가 : 네이버 블로그

[이미지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안녕하세요 아이온커뮤니케이션즈입니다. 2019년 12월 중국 우한에서 처음 발생한 코로나 19(이하 코로나)로 인해 한국은 물론 전 세계에 수많은 감염자와 사상자를 발생시킨 전염성이 높은 감기 질환입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의 일상은 지난 2개월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제 대중교통을 타면 마스크를 쓰지 않은 사람이 없을 정도가 되었고, 이로 인해 마스크 품귀현상이 발생하여 정부에서는 출생연도 기준으로 구매할 수 있는 요일을 정한 '마스크 5부제'를 시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회사에서 이례적으로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재택근무'를 실행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백화점, 영화관 등의 출입 자제를 하고 약속과 만남을 자제를 하였는데요.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업무와 서비스가 증가하였습니다. 원래도 1인 가구의 증가 및 사회의 흐름으로 인해 점차 조금씩 성장세를 보였던 언택트서비스(Untact·비대면) 또한 코로나가 시발점이 되어 가파르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https://m.blog.naver.com/ioncomm/221863098569#>

[이미지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언택트서비스란? 접촉을 뜻하는 'Contact'와 반대를 뜻하는 'Un'을 합친 신조어로 사람과의 접촉을 최소화한, 즉 비대면 소비를 뜻합니다.**

과거에 언택트서비스는 은행 ATM기기, 키오스크 발권, 주문 등 과거 사람이 했던 일들이 인건비 상승 등 여러 문제로 인해 기계로 대체되었는데 처음에는 찾기도 어렵고, 익숙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어딜 가든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요즘 소비자들은 개인 성향이 높아져 사람과 말을 섞어 주문하는 것보다 기계로 버튼을 눌러 주문하는 게 더 좋다고 느낀다고 합니다.

이제 언택트서비스는 시장을 점차 확대하여 장비에 국한되지 않고,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소비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커머스 시장(e-commerce)

[이미지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이러한 구매자들의 소비성향과 코로나의 발생으로 인해 언택트서비스는 더욱 가속화되었습니다. 언택트서비스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이커머스(e-commerce) 업체와 배달업체들은 주문량과 매출 모두 작년 동월 대비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여러 업체에서는 소비자들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 공략하고 있습니다. 카드사들은 사용자들에게 프로모션 쿠폰을 제공하며 오프라인 사용량을 온라인으로 전환시키는 공략을, GS리테일이 운영하는 뷰티스토어 '랄라블라'는 2만 원 이상 구매하면 배송을 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고가의 제품도 오프라인

으로 직접 보고 만지지 않아도 온라인으로만 판단하고 구매하는 구매자들도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e-commerce(이커머스)전문 솔루션 #ICE (I-ON contents Ecosystem)

사이버강의의 증가

[이미지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또한, 코로나 사태로 전국의 학교들 개강이 연기가 되었는데 일부 대학교에서는 2020년도 1학기 수업을 온라인 즉 사이버 강의도 대체하여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질 낮은 영상의 퀄리티와 서버 간의 연결 등이 문제점이 발생하면서 몇몇 학생들 사이에서는 등록금 일부를 환불해달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원활한 서비스와 비공개로 진행되어야하는 특수성이 있는 대학교 강의인 만큼 질 높은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하고, 여러 수업의 콘텐츠를 쉽게 관리 할 수있는 솔루션이 필요합니다. #ICE (I-ON Contents Ecosystem)

스마트오더의 영역증가



<https://m.blog.naver.com/ioncomm/221863098569#>

[이미지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2014년 스타벅스에서 사이렌오더라는 이름으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서 주문과 결제를 하면 오프라인 매장에서 주문한 음료를 픽업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시작하였습니다. 지금이야 우리에게 익숙한 문화지만 당시에는 정말 획기적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많은 업체에서 이와 비슷한 서비스를 많이 소비자들에게 제공하였고 이제는 다양한 업계에서 스마트오더를 도입하였습니다. 그 예로는 주유소 또한 스마트오더 영역으로 넘어왔습니다. 내 위치를 기반으로 가장 합리적인 주유소를 찾아 결제까지 하고 해당 주유소에 가면 직원이 주유만 해주면 되는데, 주유하기까지 창문 열고 가격을 이야기하는 과장이 사라져 직원과 대면하는 일이 없습니다. 또한 주류(술)도 스마트 오더 방식으로 주문이 가능해집니다(2020년 4월 3일부터) 이제 술과 외식문화가 스마트하게 바뀔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무리

우리 시화에서 언택트 서비스의 증가는 시간문제였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19로 인해 다가오는 체감이 빠르게 느껴져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점차 익숙해지지만 더 말하는 게 불필요하다고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예측하지 못한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조금 더 성숙하게 언택트서비스를 발전시키며 사회에 잘 스며들게 하며 디지털 소외계층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미지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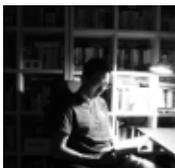
아이온커뮤니케이션즈는 조속히 코로나19가 종식되어 하루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

## 크리티컬 씽킹 (Critical Thinking) : 네이버 블로그

[Book Review](#)

크리티컬 씽킹 (Critical Thinking)



<https://m.blog.naver.com/PostList.nhn?blogId=heiwan>

[세일러문](#)

2005. 4. 19. 15:57

[이웃추가](#)



## 크리티컬 씽킹

- 그로비스 메니지먼트 지음(일본)

크리티컬 씽킹이란 무엇인가?

크리티컬 씽킹이란 '이론적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크리티컬은 '비판적'이라는 의미이며, 비판의 대상은 '자신의 사고(思考)'이다. 즉, 내가 제대로 이론적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체크(비판)하면서 사고하는 것을 크리티컬 씽킹이라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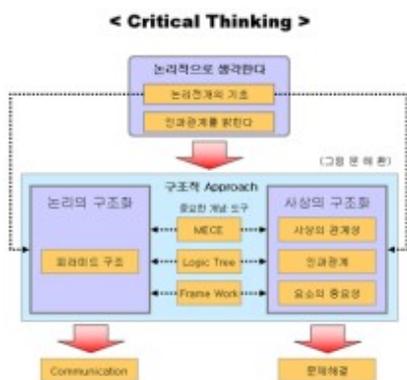
내가 이 책을 읽은 목적

각종 보고서를 쓰다보면 쉽게 빠지기 쉬운 것이 '내가 주장하고 있는 바가 설득력이 있으며 논리적으로 타당한 가?'이다. 보고서를 읽고 있는 사람이 의사 결정을 함께 있어 내가 쓴 보고서 내용 중에는 적어도 질문 내용이 없을 만큼 충실한 보고서를 쓰는 것이 나의 욕심이다.

그래서 '맥킨지 마인드', '로지컬 씽킹' 등 컨설팅관련 책을 많이 참고 하였다. 주로 그 책에는 MECE(Reference 카테고리 참조)등 중복되지 않고 충분한 내용을 요구하고 있으며 3단 논법 등 논리 전개를 이야기 하고 있다.

이 책에서는 MECE 이전에 더 기초적인 연역법과 귀납법 등 논리의 기초부터 설명하고 있다. 그 후 MECE 등 기타 논리적 사고의 기술을 설명하고 있다. 한 가지 좋은 점은 사례 및 예제를 통해 독자가 직접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풀어보는 연습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본격적으로 크리티컬 씽킹이 무엇인지 살펴보자



먼저 논리전개의 기초에는 연역법과 귀납법이 있다.

그리고 인과관계의 유형은 다음과 같은 세가지 유형이 있다.

- ① 단순한 인과관계 : 어떤 원인이 있고 거기에서 결과가 발생하는 인과관계
- ② "닭-달걀"의 인과관계 : 어떤 원인에서 발생한 결과가 원래의 원인을 다시 불러일으키는 인과관계 (실제로는 어느쪽이 원인이고 어느 쪽이 결과인지 구분되지 않는

다)

③ 복잡한 인과관계 : ①, ② 유형이 복잡하게 얽힌 인과관계

그럼 인과 관계의 유형을 찾아내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

인과관계를 찾아내기 위해서는 "시간적 순서가 올바를 것", "상관관계가 존재할 것", "제3인자가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는 세 가지 필요조건을 찾아내야 한다.

그 다음 추측 및 유추 해석을 통해 인과관계를 규정하여야 하는데 이 때 "유연하게 생각할 것", "지식, 경험의 프레임 워크를 활용할 것" 등에 유의하여야 한다.

중요한 사고기술이지만 많은 사람에게 결여되어 있는 것이 사물을 '구조화한다(구조적으로 파악한다)'는 사고방식이다. 구조화한다는 것은 '① 전체를 본다, ② 인과관계를 알기 쉽게 정리한다'로 구성된다.

구조화에 필요한 개념으로는 MECE 방식이 있는데 MECE 방식을 사용하면 "중요한 점을 간과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혹은 같은 것을 중복해서 생각하고 있지 않은지" 체크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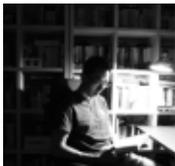
비즈니스에서 자주 사용하는 MECE의 예로는

- 사업분석의 3C(시장(Customer), 경쟁(Competitor), 자사(Company)),
- 마크로 환경 분석의 PEST(정치법률(Political), 경제(Economical), 사회(Social), 과학 기술(Technological)),
- 마케팅의 4P(Product, Price, Promotion, Place),
- Value Chain(개발, 생산, 마케팅, 판매, 유통, 서비스) 등이 있다.

<2005. 4. 19.>

0

[댓글5](#) 공유하기



<https://m.blog.naver.com/heiwan>

[세일러문](#)

[책을 한 권 읽고나면 여행을 떠나거나 박물관, 미술관을 찾고, 궁금한 것은 인터넷 검색 보다는 책을 먼저 찾습니다. 삼성그룹 공식 블로그와 페이스북에 "삼성인 독서왕"으로 소개된 애서가입니다.](#)

[이웃추가](#)

[세일러문님의 네이버 포스트](#)

 HTML Content

## 이 블로그 인기글

파도가 칠 때는 서핑을

2020. 9. 27.

16

댓글 1

독서 노트 쓰는 법

2017. 2. 17.

35

댓글 13

체스터 버나드의 조직관

2007. 2. 21.

댓글 3

인문학과 함께하는 맛집 기행 - 신당동 떡볶이

2018. 7. 31.

9

댓글 5

베토벤이 아니어도 괜찮아

2020. 6. 15.

12

댓글 4

정체성 - 밀란 쿤데라

2015. 1. 11.

5

댓글 3

불량직원의 조건

2005. 9. 20.

댓글 0

L'estate Sta Finendo - AFO4

2013. 4. 2.

1

댓글 2

선비들의 고장 - 단양

2014. 1. 23.

2

댓글 0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나랴(2)

2014. 4. 17.

0

댓글 0

이전

다음

## 팀과 디파트먼트(부서)의 차이.

팀과 디파트먼트(부서)의 차이.

1. 디파트먼트는 기능 지향적이다. 팀은 프로젝트 지향적이다.
2. 디파트먼트는 비즈니스 흐름 중 일부 단계의 기능을 수행한다. 팀은 독립된 흐름을 갖는다.
3. 디파트먼트는 소속된 인원이 비슷하거나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 팀은 소속된 인원이 각기 다른 기능을 수행한다.
4. 디파트먼트의 리더는 숙련도가 결정한다. 팀의 리더는 지식이 결정한다.
5. 디파트먼트는 리더가 책임진다. 팀은 각자의 권한만큼 책임진다.
6. 디파트먼트에서의 성장은 익숙함에 따른 숙련도의 향상이다. 팀에서의 성장은 지식과 역할의 확장이다.
7. 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팀 조직은 일부 비즈니스에서만 가능했다. 지금은 기술의 발달로 어느 비즈니스에서든 가능하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대다수 조직의 기술 이해도와 활용도가 낮기 때문에 이름만 팀인 디파트먼트가 많다.

## 포스트 코로나 뉴노멀 언택트 - 경남매일

이광수 소설가

지난 1월 20일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한국에서 발생했다. 그 후 4개월여 만에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 속 거리두기'로 코로나 통제가 완화됐다. 일과 후 집안에 갇혀 답답한 생활을 해온 사람들이 이제 서서히 정상적인 생활로 복귀하고 있다. 그러나 100일 넘는 언택트(untack:비대면, 비접촉) 생활에서 쉽게 벗어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일종의 콘택트(contack:대면, 접촉) 기피 트라우마에서 해방돼 예전 같은 생활 패턴으로 돌아가기까지는 좀 더 시간이 경과돼야 할 것 같다. 어쩌면 이런 흐름

이 우리사회에 새로운 인간관계의 관습으로 정착할지 모른다고 심리학자들은 말한다. 전 세계가 코로나19 팬데믹 공포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1918년 스페인 독감의 2~3차 재발피해를 생각하면서 근본적인 생활패턴 변화를 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핵심 키워드는 언택트이다. 대면에서 비 대면으로 인적 커뮤니케이션과 물적 거래가 이뤄지는 시대가 도래 한 것이다. 언택트가 뉴노멀(new normal: 시대변화에 따라 새롭게 떠오른 기준, 표준)의 메인 트렌드로 자리 잡는 거대한 변화의 폭풍이 몰려오고 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뉴노멀 언택트는 인간의 일상사와 산업 전반에 걸쳐 혁명적인 변화를 불러 올 것이다.

'퍼펙트 프리덤 스쿨'이 예상한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전망을 보면 우리의 일상생활과 산업이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 짐작할 수가 있다. 먼저 지금까지 간헐적으로 계속돼온 바이러스 팬데믹에 대한 공포가 상존하게 될 것이다. 이번에 발생한 코로나19 팬데믹에 대해 2~3차례 재 발생경고가 나오는 것도 이런 맥락에 기인한다. 두 번째, 세계경기의 장기침체로 대공황에 대한 두려움이 산업계 전반에 광범위하게 확산될 것이다. 각국 정부가 1929년 미국대공황 때처럼 정부재정의 선제적 확대투입에 의한 경기회복에 사활을 거는 것을 봐도 알 수 있다. 세 번째, 역세계화로 글로벌리즘은 쇠퇴하고 폐쇄적이며 고립적인 경제민족주의가 기승을 부릴 것이다. 네 번째, 양극화의 심화가 더욱 가속돼 개인 간 나라간의 빈부격차가 더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섯 번째,디플레이션의 심화로 자산 가치하락과 상시 실직으로 서민들의 삶은 더욱 팍팍해질 것이다. 여섯 번째, 스마트 소비의 촉진으로 가짜와 진짜를 명확하게 구분하는 극 가성비를 추구하는 합리적 소비시대로 이행할 것이다. 끝으로 개인의 진정한 욕망보다 사회적 욕망이 심화되는 '허영의 시대'가 도래해 초 럭셔리 상품이 호황을 누리는 경제 불황의 아이러니현상이 나타날 것이다. 위에서 언급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전망에 따라 우리 삶의 양상은 '언택트 소비, 언택트 마케팅, 언택트 서비스'가 지배하는 시대로 급속히 재편 될 전망이다. 이런 현상과 조짐들은 코로나 19 이전부터 IT시대의 도래와 함께 이미 서서히 진행되어 왔으나, 이번 코로나사태를 겪으면서 그 진전속도가 더욱 빨라질 거라는 것은 불문가지다.

이에 따라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직장생활은 재택근무제도가 현장근무와 함께 자연스럽게 정착될 것이다. 무인 키오스크 안내서비스는 모든 산업분야나 일상생활에서 사람을 대신해 언택트의 대표서비스로 자리매김하게 된다. 랜선 중계로 화상회의, 연예, 예술 공연, 화상교육, 스포츠 중계는 물론, 지능형 AI로봇을 활용한 서비스, T전화 콜라(callar)커뮤니케이션 등등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분야에 언택트 서비스가 보편화될 것이다. 이는 언택트가 위기를 심화시키고 있지만 기업들의 탈출구 또한 언택트 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 코로나 팬데믹의 아이러니다. 앞으로 주목받을 분야인 무인 점포, 로봇 배달, 스마트 홈, 핀 테크, 원격진료 등의 핵심 키는 언택트이다. 사람이 사람을 필요로 하지 않는 언택트 트렌드가 21세기 신인류의 미래상이다. 급변하는 시대흐름에 부응해 개인, 기업, 정부가 뉴노멀 언택트시대에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포스트 코로나의 승자와 패자가 판가름 날 것이다.

# 프레임워크

## 🌐 Web Clip

컴퓨터 프로그래밍에서 프레임워크는 구조적으로 고정된 부분을 재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응용별 특정 기능을 추가적인 사용자 작성 코드에 의해 선택적으로 구현 가능하도록 하는 포괄적인 추상 구조, 그리고 이를 지원하는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말한다. 즉, 소프트웨어의 개발에 필수적이고 표준적인 부분에 해당하는 설계와 구현을 재사용 가능하도록, 일련의 협업화된 형태의 클래스들로 제공하는 반제품 소프트웨어 모듈이라고 볼 수 있다. 소프트웨어 프레임워크는 지원 프로그램, **컴파일러**, 코드 라이브러리, 도구 세트, **API** 등과 같이 프로젝트나 솔루션 개발을 가능하게 하는 여러 가지 서로 다른 컴포넌트들을 포함한다.

프레임워크 기반으로 개발을 수행하는 경우, 기반 구조를 그대로 재사용하고 비즈니스 로직과 관련된 부분을 추가적으로 구현하면 되기 때문에 빠른 어플리케이션 구축이 가능하다. 또한 동일 프레임워크를 사용하는 어플리케이션들은 비슷한 뼈대 구조를 가지기 때문에 관리 및 테스트가 용이하다.

프레임워크는 명확하게 정의된 API를 가지고 코드를 재사용 가능한 형태로 구조화한다는 점에서 라이브러리와 비슷하다. 그러나 라이브러리에서는 호출 측이 전체 프로그램 제어 구조를 지정할 수 없지만, 프레임워크에서는 이러한 제어의 반전 (inversion of control)이 가능하다. 또한 라이브러리와 달리 프레임워크는 사용자가 선택적 오버라이딩(overriding, 상속받은 함수를 재정의 하는 것)이나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사용자 코드로 특수화하여 코드를 확장 재사용할 수 있다.

프레임워크는 프로그래머들이 어플리케이션에 세부적인 사항을 제외한 공통 부분들의 개발에 드는 시간을 줄이고 세부 요구사항 구현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예를 들어, 은행 웹 사이트 구축 시 웹 어플리케이션 프레임워크를 사용한다면, 개발팀은 은행 업무와 관련된 특정 기능 개발에만 주력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프레임워크 내의 API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프레임워크 사용 시 코드가 비대화 되고, 프레임워크의 초기 학습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는 비판도 있다. 또한 프레임워크는 서로 다른 플랫폼 제품이나 특정 공급 업체와 버전에 의존적이 될 위험이 있다. 따라서 초기에 소프트웨어 개발에 필요한 적절한 프레임워크를 선

택하고 최대한 변경 및 전환할 위험을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

사용자 응용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프레임워크의 예로써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 의사 결정 지원 시스템
- 웹 애플리케이션 프레임워크
- 미들웨어
- 금융 모델링 애플리케이션
- 멀티미디어 프레임워크
- 엔터프라이즈 아키텍처(enterprisearchitecture) 프레임워크

# 프로처럼 글 쓰고 싶다면? '입말과 글말을 구별하라!' : 네이버 포스트

 Web Clip

시리즈 이용호의 마음

프로처럼 글 쓰고 싶다면?  
'입말과 글말을 구별하라!'



스마트비즈니스

2019.12.30. 07:00 425 읽음



© HeungSoon, 출처 Pixabay

**입** 말이란 말이고, 글말이란 글이다. 말을 문자로 옮겨 적은 것이 글인데, 왜 입말과 글말이 다를까. 인류가 처음 출현했을 당시에는 입말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 후 그림이나 상형 문자로 의사소통을 하는 단계를 거쳐 지금과 같은 체계적인 문자 시대로 접어들었다. 글쓰기가 가능해진 것은 문자의 발명 덕분이다. 글말의 역사는 고작 수천 년 전, 인류 역사로 보면 최근의 일인 셈이다.

한글은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창제하면서 소리 나는 대로 적도록 했으므로 입말과 글말의 차이가 많지 않다. 하지만 한자와 같은 표의 문자를 쓰고 있는 국가의 경우는 입말과 글말이 확연히 다를 수밖에 없다. 한글이 만들어지기 이전에는 우리도 한자를 썼으므로 말과 글이 크게 달랐다.

문자가 발명되고 나서도 오랫동안 글의 역할은 미미했을 것이다. 보통 사람들에게는 글을 배울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으며 그럴 여력도 없었다. 귀족, 종교 지도자, 재력가, 학자 등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소수만이 글을 배울 수 있었다. 또 글을 안다고 해서 그리스어나 라틴어로 된 문장을 읽을 수는 없었다고 한다. 당시 글들은 일반 사람들이 평소 사용하는 입말이 아닌 선택된 문학적 언어였다.

글은 그러므로 특별한 문학 교육을 받은 선택된 자들의 의사소통 수단일 뿐이었던 셈이다. 보통 사람들은 그런 글을 접할 기회도, 읽을 능력도 없었다.



© helloquence, 출처 Unsplash

언어는 권력이다. 책도, 책 속의 언어도 권력이었다. 책이 보편화되기 이전에 책은 부와 권력의 상징이었다. 중세 시대 책 가격은 천문학적으로 비쌌다. 양피지 위에 필사를 통해 책을 만들던 당시를 상상해 보자. 3~4백 쪽짜리 책 한 권을 만들어 내는 데 희생되는 양은 1백 마리 안팎이었을 것이다. 양 한 마리 가격이 지금 돈으로 50만 원이라 치면 적어도 양피지 가격으로만 5천만 원이 든다는 계산이 나온다.

거기에 한두 사람이 몇 년 동안 필사하는 데 매달려야 한다. 책을 소유하기 힘든 일반 서민이 책을 쉽게 접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종교계의 지도자조차 제대로 필사된 성경을 소유하기가 어려웠다. **글말은 한정된 소수의 문자 언어로 발전할 수밖에 없었다.**

보통 사람들은 책을 읽을 줄 아는 사람들의 말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성당에서 신부의 설교를 듣거나 저잣거리 철학자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지식이나 정보를 습득하는 유일한 길이었다.

당시에는 책이 거의 없는 때였기에 언어를 통한 대중들의 통제도 그만큼 용이했다. 아테네 시장에서 소크라테스가 독특한 대화술로 청년들을 자극하는 것이 지배자들에게 위협하게 느껴진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 luca\_tism, 출처 Unsplash

16세기 중반 구텐베르크가 금속 활자로 출판 혁명을 일으켜 종이책이 보편화되기 이전, 시민들은 구변 좋은 사람 주변에 둥그렇게 둘러서서 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것으로 정보의 갈증을 해소했다.

입말의 시대는 종이책이 대량으로 쏟아져 나오면서 사회적으로 점차 내리막길을 걸었다고 봐야 한다. 반면 글말은 사회적으로 선택된 사람들만의 소통 수단을 벗어나 서민의 생활 속에서 자리잡았다.

**지금은 언어의 역사로 보면 글말의 전성시대이다.** 휴대폰이나 인터넷 등 다양한 문자 소통 수단이 활짝 꽃을 피우고 있다. 심지어 바로 곁에 앉아서도 말로 이야기하기보다는 카톡이나 페이스북 등 휴대 전화를 이용한 글말로 소통할 정도이다.

이 같은 언어 환경 변화에 따라 글도 점차 퓨전화되고 있다. 이모티콘 등이 들어간 표정이 살아 있는 글말이 새로운 언어 형태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이 변화는 비단 컴퓨터나 휴대폰 언어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점차 경계를 넓혀갈 것으로 보인다. **책이 보편화되면서 문어(文語)가 발달했듯이, IT의 발달에 따라 새로운 스타일의 문어가 탄생할 수 있다고 본다.**



© linalitvina, 출처 Unsplash

글말이 우리의 일상생활 속으로 스며들어오면서 요즘은 입말과 글말의 변별력은 약해지고 있는 추세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입말과 글말은 태생적으로 같아질 수는 없다. 말은 우선 즉자적이다. 우리가 대화하면서 말하기 전에 몇 분씩 침묵을 지키는 법은 없다. 탁구공을 치고받듯이 대화란 주거나 받거나 하는 것이다. 시간적 제약으로 입말은 반사적이고 즉자적이다.

반면 글은 한 문장을 써 내려가기 위해서는 깊은 사고를 거쳐야 하며 쓰고 나서도 몇 번씩 수정을 하곤 한다. 입말은 현장감이 있으며 함축적이고 생략이 많다. 그럼에도 이해의 속도가 빠르다. 우리는 상대와 대화할 경우 눈으로도 동시에 소통한다. 주변을 함께 보면서 이야기하거나 상황을 이미 알고 있음을 전제로 대화를 끌어간다. 표정이나 동작이 수반되기도 한다.

그래서 글과는 달리, 말을 할 때는 모든 상황이나 내용을 빠짐없이 언급할 필요가 없다. 징검다리처럼 건너뛰어도 서로 이해가 가능한 것이 입말이다.

입말은 기록성이 없다. 녹음 등으로 입말을 보관할 수는 있지만, 이는 예외적인 상황이라 할 것이다. 역사는 글말에 의해 이뤄진다. 입말과 글말의 무게가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다.

헨리 데이비드 소로는 <<월든>>에서 입말과 글말을 비교하면서 다음과 같이 글말의 엄중함을 강조한다.

“말로 한 언어는 일시적인 것으로 하나의 소리, 하나의 혀, 하나의 방언에 지나지 않으며 우리는 그것을 동물처럼 무의식적으로 어머니로부터 배운다. 글말은 입말이 성숙하고 경험을 쌓아서 이루어진 말이다. **입말이 ‘어머니 말’이라면 글말은 ‘아버지 말’이며 신중하고 선택된 표현이다.**…… 웅변가의 열변이 아무리 훌륭하더라도 글자로 기록된 가장 고귀한 말들은 일시적인 구어보다는 훨씬 높은 차원에 있다.…… 고귀한 글들은 우리가 노상 하는 말이나 우리가 내뿜는 숨처럼 무의식적으로 발산된 것들이 아니다.”



저자 이용호에 대해 알고 싶다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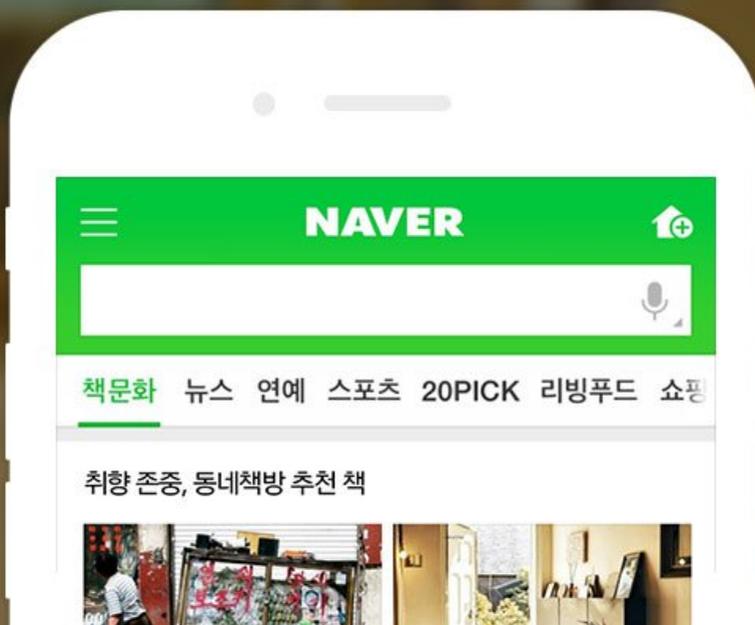
국회의원 이용호 블로그 : 네이버 블로그

- 제20대 국회의원 - 남원·임실·순창 지역구 - 국...

[blog.naver.com](http://blog.naver.com)

세상 모든 책 이야기,  
네이버홈  
**책문화판**에서 만나요!

[클릭해서 바로가기 >](#)





# 한우농가에서 만든 오리지널 '한우곰탕' 드세요!

(주)창운 이호찬 대표(우측)

## 회의의 재발견 : 네이버 블로그

회의에 대한 인식이 왜 이렇게 나쁠까?

대다수 조직의 리더들이 회의하는 방법을 제대로 배운 적이 없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모르는 상태에서 회의를 이끈다.

회의는 다른 일처럼 명확한 매뉴얼이 없고, 누가 어떻게 해야 한다고 가르쳐주지도 않는다. 때문에 리더가 개인의 취향에 따라 회의를 진행한다.

이렇게 해서 잘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다. 문제는 일반 업무와 달리 잘못된 이유를 짚어 주는 사람도, 어떻게 바꾸는 것이 좋을지 가이드를 주는 사람도 없다는 것이다.

회의에도 표준이 필요하다

회사에서는 온갖 사소한 업무에도 규칙을 정해놓는 경우가 많다. 소위 말하는 프로세스 표준 문서를 만들어서 누가 진행해도 일정한 수준의 결과를 보장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 놓는 것이다. 만약 프로세스가 갖추어지지 않으면, 진행하는 사람에 따라 성과의 차이가 크게 나므로 회사의 안정성이 떨어진다.

그런데 아쉽게도 회의에 대한 표준을 가진 회사는 거의 없다. **회의는 매사에 빠져서는 안 되는 가장 중요한 업무인데, 실무에서 너무 많이 필요로 하므로 오히려 홀대 받고 있다.**

업무에 있어서의 회의는, 음식에 있어 물의 역할에 비유할 수 있다. 모든 음식에는 물이 들어가고, 물의 양과 질이 음식의 수준을 크게 결정하지만, 물을 음식의 재료로 취급하지는 않는다.

회의도 마찬가지다.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회의를 업무로 인식하지 않는다. 그러나 물을 잘못 이용하면 음식을 망치게 되듯, 회의를 잘못하면 모든 업무가 잘못되고 만다. 이처럼 업무의 성패를 좌우하는 **회의는 모든 업무 위의 업무다.**

회의는 왜 하는가?

회의는 단어의 뜻 그대로 여럿이 모여 의견을 나누는 것이다. 두명 이상이 모여 의견을 나누는 것은 모두 회의라고 할 수 있다.

왜 모여서 의견을 나눌까? 단순한 질문 같지만 회의의 목적을 명확히 답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

회의는 어떤 이벤트(일, 이슈)가 생기면 그것을 수행하기 위해 관련자를 소집해 진행한다. 새로운 업무가 생겼을 때는 일을 시작하기 위해서 회의를 한다. 업무를 진행하다가 새로운 이슈가 생기면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회의를 한다.

주간회의 같은 정기회의를 하는 것은 업무 진행과정에 어떤 이슈가 있는지를 프로액티브(Pro-active : 미리 알아서 행동을 취하는 것)하게 점검하려고 하는 것이다.

회의에서 얻어야 하는 것

이슈 해결을 위한 회의가 소집되었을 때는 회의에서 이슈와 문제를 정확히 확인하고, 해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안을 모으고, 그 안을 진행하기 위한 계획을 세운다.

문제 해결을 위한 안이 나오면 일반적인 경우 회의가 완료된 것으로 생각한다.

여기까지만 진행되는 회의의 문제점은 명확하다. 이슈를 해결하기 위한 안을 모으고 계획을 세우지만, 회의가 끝난 후의 실행에 대한 약속과 장치를 확실하게 만들어 놓지 않고 끝나므로 실행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회의에서는 어떤 결과물이 나와야 할까?

이슈 해결을 위한 회의를 했다면 **회의 결과에는 그 이슈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일을, 누가, 언제까지 하는가?'에 대한 내용이 명확히 나와야 한다.** 사실은 위의 실행 내용이 완료될 때까지 추적 관리하는 것이 보장되어야 회의가 완료되었다고 할 수 있다. 추적관리까지 완료하는 것이 해당 업무의 리더인 회의 주관자의 의무이다.

수많은 회의의 주관자들이 이슈 해결을 위한 구체적 실행 계획을 도출하지 못하고, 설령 도출한다고 하더라도 추적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는, 바로 이것이 회의를 시간 낭비로 만드는 가장 큰 원인이라 할 수 있다.

이상적인 회의

어떻게 하면 회의를 생산성 있고, 효과적이며, 즐거운 소통의 장으로 만들 수 있을까?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춘 회의라면 이상적인 회의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적인 회의의 조건]

- 1) 누구나 필요한 시점에 쉽게 공지할 수 있는 회의
- 2) 미리 정해진 짧은 시간 내에(30분) 무조건 마치는 회의
- 3) 누구에게나 의사표현의 기회가 주어지는 회의
- 4) 누가, 언제까지, 어떤 일을 할 지 책임이 명확히 정의되는 회의
- 5) 회의 중에 회의록 작성이 완료되고, 참석자와 공유되는 회의
- 6) 결정된 일이 완료될 때까지 추적 관리가 되는 회의

회의를 위와 같이 진행할 수 있다면 더 이상 회의를 끔찍하게 여기지 않을 것이다.

**업무의 50%를 줄여주는 혁신적 회의법**

**'30분회의'에 그 해답과 대안이 있습니다.**

(주)석세스컴퍼니(02-6092-1149)

## Boiling fog

오늘의 상식 —

비전 상실 증후군.

비전 상실 증후군은 무의식중에 서서히 익숙해지기 때문에 빠져 나올 수가 없다.

프랑스에는 유명한 삶은 개구리 요리가 있다. 이 요리는 손님이 앉아 있는 식탁 위에 버너와 냄비를 가져다 놓고 직접 보는 앞에서 개구리를 산 채로 냄비에 넣고 조리하는 것이다.

이 때 물이 너무 뜨거우면 개구리가 펄쩍 튀어나오기 때문에 맨 처음 냄비 속에는 개구리가 가장 좋아하는 온도의 물을 부어 둔다. 그러면 개구리는 따뜻한 물이 아주 기분 좋은 듯이 가만히 엎드려 있다.

그러면 이 때부터 매우 약한 불로 물을 데우기 시작한다 아주 느린 속도로 서서히 가열하기 때문에 개구리는 자기가 삶아지고 있다는 것도 모른 채 기분 좋게 잠을 자면서 죽어 가게 된다.

사람도 마찬가지로. 당장 먹고사는 걱정은 없으니까, 그래도 성적이 아주 꼴찌는 아니니까, 다른 사람보다 아름답다는 말을 자주 듣고 있으니까,

친구도 많고 큰 걱정거리가 있는 것도 아니니까, 이만하면 되겠지 하는 안일한 생각에 빠져 지금 자기가 어디에 있으며 어디로 가는지 모른 채 그럭저럭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마치 자기를 요리하는 물이 따뜻한  
목욕물이라도 된다는 듯이 편한하게  
잠자다 죽어 가는 개구리의 모습과도 같다.

로마제국이나 통일신라가 멸망한 것은  
외부의 침략 때문에 아니었다.

국민의 마음을 사로잡는 비전이 사라짐으로써  
서로 단결하지 못하고, 목적과 목표의식이 없어져  
그냥 내부에서 저절로 무너진 것이다.

이렇게 비전상실증후군은 우리를  
개구리처럼 삶아내고 있는 것이다.

## Critical Thinking (크리티컬 씽킹) : 네이 버 블로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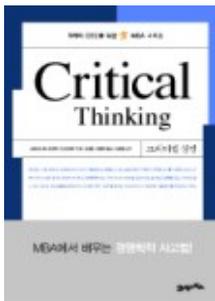
[독서일:

2017.08.11 ~

2017.09.06]

이 책을 중고  
서점에서 발견  
해서는 조금 읽  
다가 오~호 꽤  
나 재미있고 유  
익한데 하며 구  
매해서 읽은 것  
이 벌써 3년  
전. 그 이후로  
도 읽고 또 읽  
고, 책상 옆에  
항상 두면서 생  
각이 날 때마

다 들쳐보던 그런 책. 내가 사 고하는 방법에 가장 영향을 준 책이라는. (나에겐) 너무너 무 유익해서, 책을 읽으면서 오랫동안 기억해 두고 싶은(잊어 버리고 싶지 않은) 내용들을 다시 기억하기 쉽게 정리해 두 기까지 했다는.



## 크리티컬 씽킹

### 저자

그로비스

매니지먼

트 인스티

튜트

### 출판

21세기북스

### 발매

2005.02.22.

- 내가 제대로 이론적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 GMF EC 대표자회의

GMF  
Union  
Gate  
Hub  
Synergy  
Share

GMF 홈페이지 사이트맵  
모바일허브  
GMF용  
선교사용  
기관용

ThinkWise사용권  
ThinkWise Pro 제공  
A4프레임워크메모 키트 제공

Before 코로나  
After 코로나  
코로나팬데믹

온라인의 중요성  
온라인의 필요성

사역의 변화  
사회의 변화  
의식의 변화  
필연적  
유튜브  
코로나 팬데믹 행태 문화

과학기술의 발전

선교 IT 아카데미 개설 운영

상설  
비상설

IT도구의 중요성 필요성  
모바일허브  
큐알코드스티커  
통자석  
기관SNS플랫폼 구축  
구글 G-Suite  
Meet  
스토리지  
Zoom

GPTI 47기  
GMP 본부소속

중국 일본 등 선교사 훈련 사례  
GMTC 훈련사례  
GMP리더십  
GPTI매뉴얼

후원관리  
도너스

유사업무의 표준화  
공동구매  
ERP도입  
재정관리  
ThinkWise 협업  
IT활용

선교 IT  
안정위선교사  
선교사님에대한금홍함

발제  
주제토론

선교의구성  
선교행정 선교동원 선교훈련

커뮤니케이션 개요  
정보생산 정보유통 정보소비 정보저장  
온라인 오프라인

목회역량  
사역역량  
사고력 정보력 프로젝트관리역량 IT활용역량 실행력

목회는사역이고 IT는 사역지원도구이다  
컴퓨터시스템개요  
아날로그  
디지털컨텐츠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네트워크 데이터

파일관리  
자료관리  
정보관리

종이에서 스마트폰으로

IT 정보기술의 발전  
과학기술의 발전

웹1.0 에서 웹2.0

홈페이지  
블로그  
SNS시작

4차산업혁명 핵심기술

클라우드기술  
모바일기술  
소셜미디어기술

IoT  
빅데이터

Google G-Suite 도입  
Meet 개설자 참여자  
정해진시간  
영상회의

A4프레임워크메모  
ThinkWise  
모바일허브  
기관 SNS 플랫폼구축

과학의발달  
IT기술의발달

선교와 IT 활용보고  
커뮤니케이션강화  
공동체강화  
선교사  
선교기관

그럼 어떻게 구체적으로 할 것인가  
정리역량  
사고역량  
A4프레임워크메모  
ThinkWise  
협업

정리기술  
체계화기술  
브레인정보기술

사고력

모바일허브사용

Google G-suite

영상회의  
Cloud 스토리지

컴퓨터기술  
온라인기술  
스마트기술

정보력  
자료관리  
문서관리  
파일관리

온라인기술  
스마트기술

IT 활용능력강화  
선교정보기술아카데미개설 운영  
MIT교육센터  
IT역량강화  
파송전  
안식년  
일정수준의 스킬과 Tool 향상  
커리큘럼 운영

이제 IT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다

선교와 IT  
커뮤니케이션 강화

IT 경력 45년

## **GMP 이재화대표**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 인사를 드립니다.  
확산 중인 코로나 바이러스의 여파로 인해 목회 현장에서 수고가 많으시지요?

어려운 가운데서도 저희 GMP 개척선교회와 현장  
선교사들을 변함없이 기도와 사랑으로 섬겨주셔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GMP 개척선교회 본부와 50개 국가의 현장

선교사들은 모국 교회와 7목회자들과 교우들을 위해 날마다 정오기도시간과 개인 기도시간 등을 통해 전심을 다해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GMP 본부는 우리 단체 소속 의료선교사들과 함께 지난 2월 초부터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예측하여 4월까지의 모든 행사와 회의를 취소시키거나 잠정 연기토록 선제 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그때 선교사들의 일시 귀국 가능성을 살핌과 동시에 향후 한국인들의 선교지 재 입국 금지 가능성이 높아질 것을 우려하여 안전과 함께 신중한 검토를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 후 본부와 위기관리위원회는 각 선교국가의 상황을 실시간 모니터링 하면서 필드 대표들 및 회원 선교사들과 소통하면서 팔로우 업 하고 있습니다. 일부 국가들의 경우 일시 귀국하는 것이 도리어 감염 위험을 높일 수도 있는 상황이라 신중히 살피는 중입니다.

이런 가운데 모국 방문 후 선교지로 돌아가지 못해 국내 체류 기간을 늘려야 하는 선교사들, 치료를 받아야 하나 필드에서 출국을 못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선교사들, 현지 국가의 비상사태 선포로 급기야 잠정적인 철수를 해야 하는 선교사들, 선교지 교회 예배중단, 사역중단, 자녀들 교육 중단, 환율 폭등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선교사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 응원한다는 메시지를 보내주신 교회와 후원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끝으로 저희 GMP 선교사들을 위해 계속해서 기도해주시고, 사명 감당을 위해 애쓰는 선교사들을 격려해주시고, 건강 상의 이유 등으로 갑작스럽게 일시 귀국해야 하는 선교사들을 따뜻하게 맞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희 GMP 개척선교회는 계속해서 어려움을 직면하고 있는 모국교회를 위해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이 시간을 통과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GMP 대표 이재화 드림

**Zoom 사용법 정리, 회의를 만들어보자 ::  
건강을타리**

**Web Clip**

